

1.

청소년문화의 의미와 성격

개 관

청소년문화론의 서론으로서 문화의 정의, 기본 개념, 관점, 문제 등을 정리하였다. 문화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행동과 생활 방식에 대한 방향지시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청소년문화에 관한 논의에서는 특히 주목할 점이다. 그러나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세대 간에 전수되고, 타 문화와의 접촉을 통하여 변화한다. 그러므로 청소년문화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문화도 환경의 영향을 받으므로 청소년문화의 환경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청소년문화에 대한 해석은 관점에 따라 다양한데, 청소년문화의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문제점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주제어

문화, 청소년문화, 사회화, 문화전계, 문화접변, 문화전승, 문화변화, 하위문화, 대항문화, 외래문화, 비행문화, 문화적 권리, 문화환경, 문화불평등.

* 김신일, 서울대학교 교수

2 청소년문화론

청소년문화라고 하지만, 사실은 청소년문화 자체가 존재하느냐 여부가 하나의 쟁점이 되어 있다. 청소년문화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인문화와는 구별되는 청소년들의 문화가 따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성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들만의 문화적 공간을 확보해 놓고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에 청소년문화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청소년은 성인들이 중심인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며, 그들은 아직 미성년자들이므로 자신의 문화라고 할 만한 것을 소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존 문화에 입문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주장한다.

청소년들의 문화가 따로 존재하느냐 여부에 관한 논쟁은 1970년대에 와서 시작되었다. 그 이전에 청소년에 관한 관심은, 그들을 어떻게 하면 잘 먹이고 잘 입히느냐 하는 양육적 관심과, 장차 그들이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어떻게 공헌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느냐는 인재 육성적 관심의 차원에서 사로잡혀 있었으므로, 성인 사회에 예속된 집단으로 청소년을 보았지 성인 사회와 구별되는 독자적 집단으로서 청소년을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청소년 및 청년을 독자성을 지닌 집단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김신일, 1983). 당시에 성인들의 눈에 이상스럽게 비친, 이제까지의 청소년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나타난 것은 청바지에 통기타를 든 젊은이들이었다. 이들의 수는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수많은 청소년들이 청바지 통기타 가수들에게 열광하고, 그들의 연주회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모여 들었다. 그때까지는 성인들이 모르는 청소년들만의 노래가 있어 보지 못했고, 더욱이 청소년들만의 연주회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처음으로 성인이 배제된 청소년들만의 세계랄까, 문화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1970년대 초는 미국, 프랑스, 서독 등 서구 여러 나라와 일본에서까지도, 기존의 사회 체제와 가치관에 대하여 청년세력이 기성세대의 권위를 부정하는 운동을 격렬하게 그리고 엄청난 규모로 전개하여, 기성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세대의 존재 사실을 강하게 부각시켰던 1960년대 후반을 지난 직후이었으므로, 청년문화 내지 청소년문화에 대한 외국의

논의가 국내에도 유입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했다.

그 이후로 청소년문화에 관한 논의는 점점 활발해졌으나 청소년문화의 존재여부에 관하여는 아직도 논란이 있다. 청소년문화의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커진 것은 사실이나, 청소년의 독자적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주장도 여전하다.

청소년문화에 관한 논점의 차이는 문화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문화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청소년문화를 건강하게 육성해 주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의 문화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성사회의 문화는 더욱 중요하다.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의 심도에 있어서 청소년에 관련된 성인들의 문화는 더없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청소년문화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청소년문화의 직접적 환경으로서의 기성사회의 문화도 포함시켜야 한다.

1. 청소년문화의 개념

1) 문화의 정의

문화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는 주로 문화인류학자와 사회학자들에 의하여 여러가지로 제시되었다. 그 가운데 가장 고전적인 정의는 타일러(E.B.Tylor)가 내린 것으로 다음과 같다.

문화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이 획득한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관습 및 기타 모든 능력과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적 총체이다(Broom and Selznick, 1977:56).

이 정의가 의미하는 문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이 탄생할 때 지니고 나온 생래적인 것은 제외하고 탄생 후에 사회 생활을 통하여 획득한 모든 것을 의미하므로, 매우 포괄적이어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생활의 모든 요소를 포함한다.

한편 클락혼(Kluckhohn)과 켈리(Kelly)는 우리의 행동 양식과 방향의 결

4 청소년문화론

정에 영향을 주는 문화의 기능을 강조하여 이렇게 정의한다.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비합리적이거나 혹은 합리와 무관(non-rational)하든 간에, 주어진 특정 시간에 인간의 행동의 잠재적 지침으로 존재하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모든 생활의 설계를 문화라 한다. (김영찬, 1980:63).

클락혼과 켈리의 정의는 앞의 타일러의 것과 비교해 볼 때, 구체적 행동과 아울러 삶의 방향과 방식을 지시하고 규제하는 속성을 문화가 지니고 있음을 뚜렷이 하고 있다. 실제로 한 사회의 문화는 구성원들의 행동 양식, 사고 방식, 심미적 취향, 심지어 독특한 식성과 몸짓까지도 결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문화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문화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그 문화가 그들이 행동하고 사고하는 방식은 물론이고 총체적인 삶의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보면, 오늘의 한국 청소년들이 속해 살고 있는 문화의 질은 곧 그들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하겠다.

위의 두가지 정의 말고도 문화에 관한 정의는 수없이 많다. 어떤 사람이 헤아려본 바에 의하면 문화에 관한 정의는 160여 개에 이른다고 한다. 정의의 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문화를 보는 관점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뜻이다. 또 문화라는 것이 쉽게 파악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김영찬 교수는 문화에 대한 여러 정의를 종합하여 문화를 다음과 같이 개념화하였다(1980:66).

(1) 문화는 사회의 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며, (2) 역사적으로 전승된 것이며, (3) 학습된 것이고, (4) 사회 성원의 행동의 지침이며, (5) 그것은 한 통합된 체제 또는 형태이고, (6) 또한 사회성원의 경험조직의 표준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문화의 다면적인 성질을 인정한다면, 청소년문화를 다룸에 있어서는 문화의 포괄적 성격과 아울러 문화의 다면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문화가 그 권역에 속해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행동의 지

침으로서의 기능과 아울러 경험을 조직하는 표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은, 건전하고 건강한 청소년문화의 육성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가를 청소년 지도자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2) 문화의 전승과 변화

문화는 정지해 있지 않고 움직인다. 우선, 문화는 세대와 세대 사이를 흐른다. ‘흐른다’는 표현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문화는 앞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된다. 문화는 앞에서 살펴본 정의와 개념에 드러나 있듯이 생물학적으로 유전되는 것이 아니고 생후에 사회 생활을 통하여 획득되는 것이므로, 학습의 과정을 거친다. 즉 새로운 세대는 항상 앞 선 세대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학습을 통하여 획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문화의 내면화과정을 사회학자들은 ‘사회화’(socialization)라 부르고, 이 과정을 통하여 문화가 세대와 세대 사이에 전승되어 가는 점에 착안하여 인류학자들은 ‘문화전계’(enculturation)라 부른다. 문화의 전승은 한 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존속시키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의 그것과 다른 한국 문화의 독특성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계속 존속될 수 있으려면 문화전계가 무리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문화적 전통이 다음 세대에 제대로 전수되지 않으면 한국적 문화는 없어지고 만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한국적 문화가 소멸된다고 하면, 이 지구상에 인종으로서의 한국인은 남아 있겠지만, 우리들 자신 뿐만 아니라 전세계인들이 현재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독특한 문화적 집단으로서의 ‘한국인’ 또는 ‘한민족’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순조로운 문화전계를 통하여 문화가 세대와 세대를 끊기지 않고 이어져 내려가는 것은 하나의 민족 공동체에게는 필수적인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청소년문화를 바라 보면, 청소년문화가 아무리 새롭고 독특한 것이라 할지라도 ‘한국적’ 문화의 핵심 요소를 결여해서는 안된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기성세대의 문화와 비교하여 아무리 새로운 면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청소년

6 청소년문화론

문화가 한국 문화의 범주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 한국사회는 성인 세대와 청소년 세대 사이에 너무 큰 문화적 차이가 벌어져 있다. 청소년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적 문화 요소보다는 외래의 문화 요소를 더 선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려할 만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자라나는 새 세대에게 한국적 문화 요소를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학교는 물론이고 사회교육과 가정교육에서도 그 기능을 한층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청소년을 가장 한국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일이야말로 오늘날과 같은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이다. 국제화 시대에 국가간의 교류가 빈번하면 빈번할수록 문화적 개성과 민족적 독특성이 돋보이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인류 문명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에도 공헌할 수 있는 것이다.

한 가지 더 지적해야 할 것은 문화는 변화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문화의 변화 속도가 전통 사회에서는 대단히 완만하였으므로 여러 세대가 동일한 문화속에서 살았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변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기 때문에 세대 마다 다른 문화속에서 살게되었다. 오늘날 세대간의 차이가 커져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교사와 학생 사이에, 기성세대와 청소년 사이에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문화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졌기 때문이다. 여러가지 면에 비추어 볼 때 문화의 변화 속도는 미래 사회에서 더욱 빨라질 것이므로 미래 사회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는 빠른 변화에 대한 정확한 예견 능력과 적응 능력이 될 것이다.

문화의 변화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하나는 내부 요인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 요인이다. 이 가운데 외부 요인은 다른 문화와의 접촉, 문화인류학의 용어로 ‘문화접변’(acculturation)을 말한다. 이를테면 그 동안 한국문화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 문화와의 접촉을 통하여 많은 서구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전통 문화가 많이 변질되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는 일본의 문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들이 단순히 일본의 문화를 받아들이거나 모방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이 세대의 한국 문화가 일본식

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 일본, 그밖의 여러 다른 나라로부터의 외래 문화와의 접촉 및 수용을 무조건 겁내거나 막을 필요는 없다. 외국 문화의 수용 즉 문화접변은 한 사회의 문화가 다양해지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지구상의 어느 문화도 완전히 고립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없을 뿐만 아니라, 고립된 상태에서는 계속하여 다양해지고 발전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문화도 계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는 타 문화와의 접촉에 의한 새로운 자극을 필요로 한다. 다만, 앞에서 문화전계와 관련하여 언급하였듯이 그 사회의 핵심적 문화 요소의 전승이 무리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인으로서의 문화적 개성을 갖추고 외국의 여러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폐쇄적인 문화적 국수주의와도 다르고, 개성을 잃은 문화적 무국적주의와도 다른 것이다. 내 나라, 내 민족의 문화를 긍지를 가지고 지키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야말로 문화적으로 성숙한 국민의 자세인 것이다. 청소년문화를 육성하고 교육함에 있어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이다.

3) 문화의 환경

문화는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변화하는 것이므로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문화에 영향을 주는 환경은 크게 자연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사회적 환경은 그 자체가 문화이므로 개념상의 혼란이 일어날 수 있으나, 한국의 문화에 대하여 국제적 정치, 경제, 문화 등이 일종의 환경으로 작용하며, 같은 논리로 한국의 청소년문화에는 한국의 전반적 사회 상황이 역시 일종의 환경으로서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과 같은 국제화 시대에는 어느 나라도 고립하여 존재할 수가 없으므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의 문화와 영향을 주고 받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거대한 국제 기업들은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취급하여 국경의 제한 없이 모든 나라를 넘나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도로 발달한 매스 미디어와 통신수단도 역시 국경이라는 개념이 무의미할 정도로 한 지역의 유

8 청소년문화론

행이나 대중가요를 순식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파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청소년들도 뉴욕의 청소년들이나 마찬가지로 코카콜라를 마시고 햄버거를 먹는 세계가 되었으며, 미국이나 영국의 히트송이 며칠 가지 않아 한국의 라디오 전파를 타고 전국에 방송되는 시대가 되었다. “지구는 이제 하나의 마을이다”라는 말이 과장으로 들리지 않을 정도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엄청난 힘을 배경으로 삼아 몰밀듯이 들어오는 상업주의적 감각문화와 소비문화에 대한 문화적 저항력을 기르는 일이야말로 청소년문화 대책에서 우선을 차지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성인이 주도하는 정치, 경제, 사회의 제반 상황이 청소년문화의 환경이다. 일반적인 사회적 상황도 상황이려니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갖가지 상업주의적 이윤추구 행위는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환경이 되어 있다. ‘뉴키즈언더블럭’이나 ‘서태지와 아이들’이 음악적으로 좋으나 나쁘냐를 떠나서, 그들은 모두 상업주의적 유흥 산업이 만들어낸 하나의 상품이라는 것이다. 이 음악 그룹들을 청소년들이 열광적으로 좋아한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그들을 만든 것은 아니다. 오늘날의 거대한 상업방송 기업과 대중음악 기업들의 작품이다. 요컨대 그것은 청소년들의 문화라기보다는 성인인 자본가와 기업가들이 돈벌이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상업문화이다.

따지고 보면 청소년들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사람들이 성인이고, 청소년을 나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도 성인이며,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사람도 성인이다. 우리 나라의 청소년들에게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제대로 자라기 어렵게 하는 잘못된 입시 제도를 만들어 강요하는 사람도 모두 성인들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인들이 곧 청소년문화의 환경인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문화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대상은 다름 아닌 성인들 자신인 것이다.

2. 청소년문화의 성격과 문제

1) 청소년문화의 성격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양식, 사고방식, 심미적 취향, 말투, 의상등을 통틀어 청소년문화라고 한다면, 그들의 문화가 지니고 있는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 청소년문화의 성격에 관하여는 여러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첫째는 청소년문화를 미숙한 문화로 보는 입장이다. 이것은 ‘어른의 시각’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시각이다. 즉 그 옛날 소크라테스 시대부터 모든 시대의 어른들이 한결같이 “요즈음 아이들은 예절도 모른단 말이야, 어른에게 인사할 줄도 모르고……”라고 개탄해 왔듯이, 어느 시대에나 어른들의 눈에 청소년들이 하는 모든 짓은 버릇 없고 어린 것으로만 보인다. 부모와 같은 입장에 서 있는 어른들의 눈에는 언제나 청소년들은 모자라고 미숙하게만 생각되는 것이다. 그들에게 문화라고 이름붙일 만한 것도 없지만, 소위 문화라는 것이 있다 해도 그것은 아직 미숙하고 모자라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둘째는 청소년문화를 비행 문화로 보는 입장이다. 청소년들이란 공부나 일 보다는 놀기를 좋아하고, 어른 몰래 나쁜 짓 하기를 즐긴다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사회적 규범을 깨뜨리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고, 규범적 질서에 따르지 않아야 그들 사이에서는 큰소리를 칠 수 있다. 성인 만화, 음란 비디오, 퇴폐적 노래, 술, 담배, 심지어 성적 문란과 환각제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들은 비행 문화를 만든다.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청소년들을 항상 부모나 교사 또는 성인들의 감독하에 두어야 한다고 믿으며, 청소년들끼리 봐두면 언제나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아이들끼리 어울리게 해서 안 된다”는 사고방식이다.

셋째는 청소년문화를 하위 문화로 보는 입장이다. 사회 전체의 문화 가운데 한 부분을 이루는 문화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한 사회의 문화는 도시문화와 농촌문화, 남성문화와 여성문화 등으로 구성되며, 또는 서울문화, 충청도문

10 청소년문화론

화, 황해도문화, 평안도문화, 제주도문화……, 등과 같이 여러 지방 문화로도 구성된다. 이러한 부분적 문화가 하위문화가 되는 것이다. 연령에 따라서도 아동문화, 청소년문화, 성인문화, 노인문화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각각은 하위문화가 된다. 하위문화로서의 청소년문화는 한국사회문화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청소년이라는 연령 집단에 적합한 문화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각 연령집단마다 그 연령에 걸맞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문화가 존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간주된다.

넷째는 청소년문화를 대항문화(counter-culture) 또는 반(反)문화로 보는 입장이다. 즉 기성세대의 문화를 주류(主流)문화라고 하면 청소년문화는 반비류문화가 된다.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의 문화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새로운 문화를 대안으로 내세우면서 개혁과 변화를 요구한다. 새로운 세대가 기성세대에게 비판을 가하고 반항하는 것은, 그들이 미숙하거나 뼈뼉어졌기 때문이 아니고 기성세대와는 다른 인생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서 부모세대와는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의 문화를 일단 거부하고, 자신들의 세대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향이 가장 뚜렷하게 표출되었던 것이 1960년대의 세계를 휩쓴 ‘젊은이들의 돌풍’이었다. 그들은 기존의 사회 체제와 그것을 유지시키는 이념과 가치관을 전면적으로 부정함으로써 부모세대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하였다. 성인들이 도저히 이해하거나 받아들이 수 없는 옷차림과 행동, 예절도 모르고 사회 규범도 무시하는 행위가 실은 기성문화에 대한 대항과 반대의 표현인 것이다.

다섯째는 청소년문화를 새로운 문화로 보는 시각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식으로 새로운 세대는 그들 나름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 형성하여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청소년들이 보여주는 이상한 몸짓과 말투, 이상스러운 옷차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남녀간의 행동, 한심스러운 인생관 등은 어른들의 눈에나 이상스럽고 한심스럽게 보이는 것이지, 청소년 자신들에게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행동인 것이다. 즉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살아

갈 그들 세대의 문화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는 세대를 거둬들이면서 도 핵심적인 문화 요소는 크게 변하지 않고 항상 유지, 보존되지만, 세대가 바뀌어감에 따라 새로운 문화 요소가 생성되어 문화에 변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변화가 없으면 과거의 오랜 전통시대가 그랬듯이 사회는 발전을 모르고 침체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면 청소년문화는 한 사회의 생동적 발전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극인 동시에 활력소인 것이다. 다음과 같은 주장은 청소년문화가 지니고 있는 생동력을 분명히 해 준다.

한 세대의 차를 두고 생각할 때 — 한 세대가 아니라 10년쯤의 차를 두어도 그렇겠지만 — 앞세대와 뒷세대의 생육사의 차는 문화 변천이 심할수록 크다. 거의 모든 것이 형성되어 가는 성장기의 생육사적 경험에 차가 있다면 뒷세대의 경험은 보다 가까이 내일 사회에 “접근된” 경험, “연결된” 경험일 것이며, 그들의 근심걱정이 보다 잘 내일의 문제를 반영할 것이라는 생각도 그리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적절한 기회가 마련되어 그들의 미래 감각, 근심, 걱정이 지적으로 세련화될 수만 있다면 보다 나은 세대가 탄생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정범모, 1983:10)

청소년문화의 성격에 대한 이상의 다섯 가지 해석은 각기 그 나름의 청소년관과 문화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지도자들이 청소년문화에 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그들이 씩씩하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문화를 무시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은 피하는 것이 좋다. 청소년문화가 내포하고 있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요소를 존중하고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의 건강하고 주체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생동하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문화 공간을 넓혀 주고 지원해 주는 일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형성, 발전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인권의 맥락에서 청소년의 권리가 논의되고는 하지만(이봉철, 1991), 청소년들의 문화적 권리가 더 강하게 천명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는 자신들의 문화를 형성, 발전시키는 권리와 아울러 사회의 각종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12 청소년문화론

있는 기회의 확대도 의미한다. 문화적 권리에 의거한 청소년문화의 육성이 청소년정책의 중심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주장(김문환, 1988)은 이런 의미에서 귀담아 들어야 한다.

2) 청소년문화의 문제

앞에서 청소년문화의 환경에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우리 나라 청소년문화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청소년문화 자체가 건설하게 형성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우선,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자기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생활이라고 할 만한 것을 누리지 못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문화라고 부를 만한 것이 사실은 변변치 못하고, 그들의 언어, 놀이, 몸짓, 옷차림, 대인관계 등이 거칠고 어리다. 윤리적 혼란이 안 되어 있고 지나칠 정도로 외래문화 지향적이다. 청소년들의 세계가 이렇게 된 원인은 말할 필요도 없이 성인들이 무관심하고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삼는 데에까지도 거침이 없는 자세 때문이다. 청소년들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도 역시 책임의 일단이 있다. 청소년문화에 관련된 문제를 몇가지로 정리하여 살펴 보겠다.

첫째, 청소년의 문화 공간이 없다. 저질 음란 비디오, 선정적인 폭력 위주의 왜색 만화, 외국 팝송 등이 문제로 자주 거론되지만, 실제로 그것들 말고 청소년들이 여가를 활용하며 자신의 감정을 표출시킬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은 거의 없다. 가정, 학교, 공장, 사회, 어디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적 공간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다. 서울 동숭동의 대학로를 볼 수 있겠지만, 그것 하나를 가지고 청소년 문화공간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기도 어렵고 공간적으로 너무 좁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나치게 상업화되어 있다.

둘째, 상업주의가 청소년들을 사로잡고 있다. 노래, 비디오, 만화, 방송 등 청소년들이 자주 접촉하는 모든 것들에 상업주의가 침투하여 오로지 이윤추구의 수단으로만 이용되고 있다. 청소년 문제가 나오면 흔히 향락문화가 거론

된다. 실제로 적지 않은 청소년 문제는 퇴폐적 향락문화와 관련되어 있다.

과중한 공부의 압력으로 지들어 심신이 무거울 대로 무거운 우리 청소년들의 동화교실에 수없이 들어선 불건전한 만화 가게와 비디오 가게, 그리고 전자 오락실이 문제 학생들의 아지트로 자리잡은 지는 이미 오래된 사실이어서 우리사회의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어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육성되고 자라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찌면 지나친 이상, 이러한 속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이 향락적이고 퇴폐적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아직도 그나마 비교적 건전하게 자라고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형편이다(이운호, 1992:4- 5).

만화 가게와 비디오 가게는 유흥산업과 향락산업의 말단적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 뒤에는 거대한 자본이 이윤 확대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상품을 대량으로 만들어 내고 유통시킨다. 그것이 문제이다.

셋째, 교육 제도와 노동 조건이 문제이다. 오늘의 학교 교육이 얼마나 비인간적이며 비교육적인가는 수없이 많은 글을 통하여 지적되고 고발되었다(예컨대 조해정, 1991; 정환규, 1991). 우리 청소년의 거의 전부는 학생이다. 중 고등학교가 거의 완전 취학 수준에 있으므로 학생 아닌 청소년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학교를 흔히 ‘교육기관’이라고 부르지만 그럼에도 학교는 비교육적인 요소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일과는 그야말로 비인간적인 것이다. 오죽하면 남의 나라의 “빔거나 말거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까지 나오겠는가. 절망과 좌절 속에서 자포자기하거나 사회에 폭력으로 대항하는 청소년이 날로 늘어나는 것은 비인간적 학교 교육이 가져온 결과이다. 이렇게 비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인 생활을 강요하는 주범은 임시 제도이다. 우리의 임시 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보기 어려운 것이다. 유일하게 일본의 임시 제도가 우리와 비슷한데, 그래서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교육 문제를 안고 있다. 청소년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혁하여야 할 것

14 청소년문화론

이 입시제도이다.

전체 청소년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적지만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청소년들도 그 수자는 적지 않다. 그들은 주로 하급 노동직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가 제일 많고 무직인 경우도 적지 않다. 우리의 노동 조건은 아직도 더 개선되어야 할 뿐 아니라 학교 외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성장을 위한 여건도 많은 개선이 요구된다.

넷째, 청소년 간의 문화 불평등이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단일의 동질 집단인 것처럼 다루어 왔지만 사실은 청소년들 사이에도 많은 이질성이 엄연히 존재하고, 그에 따라 문화적 불평등이 나타난다. 남녀 간, 도농 간, 계층 간에 불평등이 형성된다(최현, 1991; 이덕주, 1991). 계층적으로는 상류 계층과 하류 계층 사이에 현저한 문화적 차이가 나타난다. 청소년문화의 육성에 있어서는 집단간의 불평등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본문 요약

청소년문화라고 하지만, 사실은 청소년문화 자체가 존재하느냐 여부가 하나의 쟁점이 되어있다. 청소년문화에 관한 논점의 차이는 문화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문화에 대해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문화는 생물학적으로 유전되는 것이 아니고 생후에 사회생활을 통하여 획득되는 것이므로, 학습의 과정을 거친다. 즉 새로운 세대는 항상 앞선 세대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학습을 통하여 획득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하여 문화가 세대와 세대 사이에 전승되어가는 점에 착안하여 인류학자들은 “문화전제”(enculturation)라 부른다. 문화의 전승은 한 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존속시키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문화도 계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는 타문화와의 접촉에 의한 새로운 자극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회의 핵심적 문화요소의 전승이 무리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순조로운 문화전제를 통하여 문화가 세대와 세대를 끊기지 않고 이어져 내려가는 것은 하나의 민족공동체에게는 필수적인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청소년문화를 바라보면, 청소년문화가 아무리 새롭고 독특한 것이라 할지라도 ‘한국적’ 문화의 핵심요소를 결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청소년을 가장 한국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일이야말로 오늘날과 같은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인 것이다.

한편,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양식, 사고방식, 심미적 취향, 말투, 의상 등을 통틀어 청소년문화라고 한다면, 청소년문화가 지니고 있는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본 글에서는 네가지의 예를 들었다.

첫째는 청소년문화를 미숙한 문화로 보는 입장이다. 둘째는 청소년문화를 비행문화로 보는 입장이다. 셋째는 청소년문화를 하위문화로 보는 입장이다. 넷째는 청소년문화를 대항문화(counter-culture) 또는 반(反)문화로 보는 입장이다. 다섯째는 청소년문화를 새로운 문화로 보는 시각이다.

청소년문화의 성격에 대한 이상의 다섯가지 해석은 각기 그 나름의 청소년관과 문화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지도자들이 청소년문화에 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그들이 씩씩하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문화를 무시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은 피하는 것이 좋다. 청소년문화가 내포하고 있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요소를 존중하고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의 건강하고 주체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생동하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문화공간을 넓혀주고 지원해주는 일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형성, 발전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청소년문화에는 여러가지 문제도 있다. 청소년문화 자체가 건실하게 형성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청소년문화에 관련된 문제를 네가지로 정리하여 보았다. 첫째, 청소년의 문화공간이 없다. 둘째, 상업주의가 청소년들을 사로잡고 있다. 셋째, 교육제도와 노동조건이 문제이다. 넷째, 청소년간의 문화불평등이다.

연구 과제

1. 청소년문화의 관점에 대해서 논의해 본다.
2. ‘문화전제’의 입장에서 청소년문화에 대해 정의해 본다.
3. 청소년문화의 성격과 문제에 대해 규명해 본다.
4.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요구되는 청소년문화의 대책에 관해 토론해 본다.

참 고 문 헌

- 김문환(1988), “청소년문화 육성의 기본전제”, 청년연구 제11집,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41-60.
- 김신일, 강대근(1983), “한국의 청년과 청년문화에 관한 연구 경향”, 청년연구 제6집,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5-28.
- 김영찬(1980), 생활, 문화, 교육, 교육과학사.
- 이덕주(1991), “한국 청소년의 성적 불평등과 과제”, 한국청소년연구 제2권 제2호, 43-57.
- 이봉철(1991), “인권,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권”, 한국청소년연구 제2권 제4호, 5-29.
- 이윤호(1991), “향락문화와 청소년 문제”, 오늘의 청소년, 11, 4-10.
- 정범모(1983), “보다 나은 세대로의 청년문화”, 청년연구 제6집,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14.
- 정환규(1991), “학교 교육과 불평등문제”, 한국청소년연구 제2권 제3호, 122-37.
- 조혜정(1991), “청소년의 평등한 삶을 위한 과제”, 한국청소년연구 제2권 제3호, 5-21.
- 최현(1991), “한국청소년의 연령별 불평등과 과제”, 한국청소년연구 제2권 제2호, 29-42.
- Broom, Leonard and Philip Selznick(1977), *Sociology*, Harper and Row.

2.

청소년과 가치관

개 관

청소년의 가치관은 사회의 영향에 따라 변화되기도 하고 그것은 또 사회 변화를 주도하기도 한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자신과 주위의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무엇을 선호하는지에 관한 진단을 통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 지도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가치관의 개념을 설정하고 제반 가치 영역에 따른 현재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파악한다. 그리고 과거와의 비교, 동시대의 다른 나라 청소년들과의 비교를 통해 가치관 변화의 추이를 파악하고 또 앞으로의 변화 방향을 전망해 본다.

주제어

가치관, 가치 갈등, 가치 영역, 자아 및 타인관, 직업 및 근로관, 사회 및 국가관, 도덕 및 윤리관, 인생관, 전통적 가치, 근대적 가치, 미래 사회의 가치, 사회 중심적 가치, 개인 중심적 가치, 현실 만족주의

* 최윤진, 한국청소년연구원 책임연구원

1. 청소년 가치관의 의미와 의의

1) 청소년 가치관 진단의 필요성과 의의

인간이 가치를 지향하고 또 그 가치를 삶 속에서 실현하면서 살아간다는 점에 있어서 동물과 다른 인생의 본질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 삶에서 일차적이고 본질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이 각 사람의 가치관일 것이며 가치관이야말로 한 개인의 자아 실현의 방향을 설정해 주고 그의 인격과 인생을 형성하는 핵심적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개인의 가치관은 일생을 통해서 형성되고 또 변화되기도 하지만 청소년기가 가치관 형성에 결정적인 시기이며 또 일단 수용되어 퍼스낼리티로 내면화된 개인의 가치관은 성년기에 들어와 쉽게 바뀌기 어렵다고 주장되기도 한다(임희섭, 1987 : 107).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가치관은 청소년 개개인에게는 올바른 인격과 삶의 질을 결정해 주기도 하지만 왜곡되고 부적합한 가치관 형성으로 말미암아 사회 적응을 어렵게 하여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또 사회적으로는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내면화한 가치관은 사회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한편 너무 급진적이거나 이상적일 경우 사회불안을 야기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청소년 세대를 변화에 있어서 최전선에 서 있는 세대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청소년의 환경에 대한 민감한 감수성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청소년은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한편 변화의 방향을 조정하고 또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 전위적인 역할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미래 사회 변화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게 하고 또 그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또 기성세대가 청소년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또 그 변화의 추이를 파악하여야 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에 대한 이해 없이는 효과적인 지도가 어렵다는 데 있다. 청소년들의 생각, 취향에 맞지 않는 기성세대 중심의 교육과

지도는 청소년의 부적응과 이탈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들을 건전하게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단지 외형적인 정책, 제도 등의 마련이나 어른 중심의 교육 방식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우며 먼저 청소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일, 즉 그들의 가치관을 진단하고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가치관의 개념과 영역

가치관이라는 말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명확한 개념 규정이 어려운 말이기도 하다. 의식구조, 인식구조, 가치 성향, 행동 성향, 태도 등 유사한 개념들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은 채 복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대개 가치관은 어떤 의식과 취향을 가진 개인이 가치 판단 과정을 거쳐 가치 행동을 함으로써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치관이 인간의 외현적 행동과 내면적 인식, 취향 사이에서 어떤 관계로 어떤 영향을 받아 형성되어지는지, 또 내면적 과정에 있어서도 어떤 대상에 대한 선호나 취향과 관련된 정의적 특성과,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판단하는가에 관련된 인지적 특성들이 서로 어떻게 다르게 가치관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

가치관에 관한 정의를 기존 연구물에서는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최일섭 : 214-215).

“가치관이란 일정한 상황 사건 및 사물을 좋다, 나쁘다,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못하다로 지적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Williams, 1952 : 374-380).

“가치관이란 여러 인간 문제에 관하여 바람직한 것, 또는 하여야 할 것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 또는 개념이다.”(정범모, 1977 : 17).

“가치관이란 정의적인 성질을 띤 속성으로서 시비, 선악, 適否의 판단적 방향을 갖는 내면화된 가치가 여러 가지 사태에서 방향 감각을 가지고 일관성있게 내현, 외현되도록 일반화, 조직화된 개념이다.”(황정규, 1972 : 614).

이러한 기존의 개념 정의를 통해서 볼 때 가치관이란 주로 외현적 행동 성향 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인지 과정 및 취향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인지적 특성 보다는 정의적 특성을 주로 관계지어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도 가치관의 의미를 외현적인 행동 성향 보다는 내면적인 의식 구조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즉 청소년들이 일상 공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가 등의 생활 실태에 관한 것보다는 그들이 대상을 어떻게 지각하고 판단하는가에 관한 인지적 측면이나 무엇을 선호하고 또 무엇이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 관한 정의적 측면을 포함하는 청소년들의 내면적 사고 방식과 가치 성향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가치관은 그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상과 상황에 따른 가치관의 영역을 범주화시켜 보는 일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들은 다양한 틀에 의해서 광범위한 영역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관의 일관성있는 범주화가 용이치 않다. 그렇지만 기존 연구에 제시된 여러 영역을 크게 세 분야(사회구조 및 현상에 대한 가치관, 자아·타인 및 인간에 대한 가치관, 도덕·윤리 및 인생에 대한 가치관)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며 각 영역에 따른 세부 내용들이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① 사회 구조 및 현상에 대한 가치관 :

직업관, 교육관, 경제관, 가정 생활, 학교 생활, 종교관, 결혼관, 사회 풍토 및 사회 문제 의식, 사회관, 국가관 등

② 자아, 타인 및 인간에 대한 가치관 :

자아관, 자아 개념, 부모관, 교사관, 교우 및 또래집단관, 이성관, 인간관 등

③ 도덕, 윤리 및 인생에 대한 가치관 :

도덕 및 윤리관, 효경심, 부양관, 장유유서관, 행복관, 인생관 등

2. 사회변화와 청소년의 가치관

1) 사회변화와 가치갈등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게 되면 낡은 가치와 새로운 가치 사이에 심한 상충과 문화적 충돌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가치관은 전반적인 사회 구조와 문화 체계, 그리고 개인의 퍼스널리티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변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들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사회변동과 문화변동 과정에서 가치의 갈등과 긴장은 불가피한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사회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전위 집단으로서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가치 갈등과 긴장을 직접 경험하며 새롭고 독특한 사회 적응 양식을 형성해가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청소년들도 전통적 가치와 근대적 가치간의 갈등과 혼란을 겪어 왔으며 전통성과 근대성이 혼재하는 가운데 이제 다시 미래 사회적 요소를 암시하는 새로운 가치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청소년 가치관의 성격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과거, 현재, 미래 사회의 특성과 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가치들을 구분하여 가치관 변화 과정을 추적해 보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2) 전통적 가치와 근대적 가치

그동안 청소년의 가치관이 보다 근대적, 서구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이 자주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근대성 및 근대적 가치는 과거의 전통 사회의 특성 및 가치와의 비교를 통해 규정되곤 하였는데, 그동안 가치관 변화와 관련해서 제시되어 온 대표적인 전통적 가치와 근대적 가치의 특성과 내용을 대별해 보면 다음과 같다(임희섭, 1980 ; 김정동, 1979 ; 한국교육개발원, 1983 ; 정원식 외, 1985).

○ 권위주의 대 평등주의 :

권위주의에서는 인간 관계를 사회 윤리를 규정하는 기본 원리를 상하 위

22 청소년문화론

계적인 서열 관계로 인식하고 기본적인 인간 관계로 종적인 지배- 피 지배 관계로 파악하는 반면에 평등주의는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 부여와 수평적 인간 관계를 지향한다.

○ 집합주의 대 개인주의 :

개인주의가 개인의 이익과 이해 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가치 지향이 라면 집합주의에서는 개인의 이해보다 집합체의 이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특정 집단이나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희생할 수도 있다고 본다.

○ 인간주의 대 물질주의 :

물질을 중시하고 선호하는 물질주의는 물질보다는 정신적 가치나 도덕적 가치를 지향하는 성향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비물질주의나 혹은 인간의 도리나 인간적 가치를 강조하는 인간주의와 대비된다.

○ 도의적 외례주의, 명분주의 대 실리주의 :

도의적 외례주의, 혹은 명분주의는 도의적인 인간 관계와 외례, 체면, 명분 등을 중시하는데 비해 실리주의는 현실 상황에 근거해서 실제 이해관계를 중시해서 외형적 체면이나 명분 등에 좌우되지 않는 가치 성향을 의미한다.

○ 귀속주의 대 업적주의 :

사회 현상이나 행동 방향이 능력이나 업적을 위주로 결정되어지는가 혹은 가정의 배경이나 연줄 등의 귀속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가에 대하여 전자의 경우 귀속주의의 특성을 보여주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업적주의적 특성을 보여준다.

○ 온정주의, 비합리주의 대 합리주의 :

온정주의 혹은 비합리주의란 규율보다는 정서적 만족을 추구하며 대인 관계에 있어서 감정적 유대를 중요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리주의는 규율을 중시하며 대상자의 능력에 따라 일반적 기준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취급하고자 하는 가치 지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별되는 가치관을 기준으로 볼 때 전통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 올수록 보다 평등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 실리주의, 업적주의, 합리주의적 특성을 보여준다고 보고 있다.

3) 근대적 가치와 미래 사회의 가치

앞으로 도래할 미래 사회의 특성에 대해서는 일치된 모습을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래 사회의 가치가 근대적 가치와 어떻게 다른가에 관해서는 정확히 대별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의 가치 변화의 징후들을 보여주고 있는 몇몇 연구 결과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치관의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고범서(1992)는 미래 사회의 특성을 물질적 풍요, 개인의 중요성 증대 등 8가지로 꼽고 있는데 이에 따라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관을 정신, 지식, 개인성, 창의성, 공동체 의식, 개방성, 장기적 안목, 통합적 사고 등 8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일본청소년연구소장 다모츠 센고꾸는 최근 일본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의 특성을 목적주의적 가치관으로부터 현실 만족주의(consummatory)로 변화되는 데 두고 있다. 사회적 지위 상승이나 복직 달성을 중요시 하는 미래 지향적 가치관과 행동 양식은 현재의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는 현실 중심적 가치로 변화하여 가고 있다는 것이다. 즉 근접, 절약, 인내 등의 과거 가치는 퇴색해 가고 쾌락과 행복 추구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 과거 결핍 동기에 의한 가치 지향은, 결핍이 어느 정도 충족된 오늘날과 미래에는 차별 동기에 의한 가치 지향, 즉 다양한 취향과 개성에 따른 욕구 충족의 다양화, 개별화 등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본다(다모츠 센고꾸, 1990 : 81-94).

서구 유럽 사회에서도 이러한 청소년 가치관 변화의 특성이 잡혀지고 있다. 스웨덴의 한스 제더버그 등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치관의 특성을 자기 표현 중심주의(expressivism)이라 지칭하고 있다. 즉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큰 목적을 쟁취하고자 하는 노력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우선 자신에게 충실해야 한

다는 의식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러한 자기 표현 중심주의의 대표적 양상들로서 ‘창조성의 발휘’, ‘권위를 배척하는 태도’, ‘지위보다 자기표현에 충실’, ‘쾌락추구의 중시’, ‘자기 내면적 성장의 관심’ 등을 들고 있다(이윤구, 1990 : 85-96).

일본 NHK가 매 5년마다 실시한 일본인 의식 구조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의식 변화의 방향이 ① ‘가까운 인간관계’를 중요시하고, ② 수직적 상하 관계를 피하고 수평적 평등 관계를 지향하는 권위 중심에서 평등 중심 가치를 지향하고 있으며, ③ 능력이나 능률을 중시하는 합리주의로부터 인간성, 정서 등을 존중하는 온정주의로 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권위 중심에서 평등 중심 가치의 지향은 근대사회의 가치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근대사회의 원리인 능률, 합리주의로부터 정서, 온정주의 등으로 변화 되는 것은 근대에서 벗어나 탈근대화로의 지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가까운 인간관계’의 중시 현상도 넓은 사회나 국가 등 커다란 사회로부터의 이탈 성향의 증대와 보다 작은 단위의 개인의 자립과 개인생활의 충실 등 개인 중심으로의 변화의 중간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며 이것 역시 근대사회와 탈근대사회사이의 어떤 접합현상으로 보고 있다(李廷秀, 1990 : 153-182).

미래 사회의 가치관 변화와 관련된 위의 몇몇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근대사회에서 탈근대사회 혹은 미래 사회로 진입해 감에 따라 근대사회의 원리인 권위주의로부터 평등주의로의 지향, 사회중심, 집단중심으로부터 개인중심으로의 지향성 등은 계속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후기산업사회 혹은 탈근대사회적 특성으로 보여지기도 하는 새로운 가치관 변화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래목표 달성 보다는 현재 생활을 중시하는 현실 만족주의 경향과 각 개인의 개성과 욕구가 중시되는 개별화 경향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성과 합리주의를 중시했던 근대적 가치지향이 줄어들고 감성, 정서적 가치지향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3. 영역별 청소년의 가치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알아보기 위한 몇몇 조사와 실증적 연구들이 있어 왔으나 그 실시 시기와 대상영역들이 다양하여 일관성 있는 결과나 변화의 추이를 찾아내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실증적 연구들 중에서 비교적 최근(1991년, 1992년)에 이루어진 연구물과 청소년 가치관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최근 연구들과 연계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1980년대 중반에 이루어진 연구물들을 중심으로 영역별 청소년의 가치관과 그 변화를 찾아 보고자 한다.

대표적인 연구물들은 한국궐립조사연구소의 우리나라 청소년 가치관을 세계 10개국과 비교한 것으로서, 「한국과 세계청소년의 의식」에 관한 제 1차(1985), 및 제 2차(1991) 보고서와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의 ‘청소년 의식구조 조사연구’(1985), 한국교육개발원의 ‘청소년 의식구조 및 형성 배경’(1983), MBC의 ‘91 MBC청소년 백서’(1991),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월보’의 청소년 의식과 태도에 관한 설문조사 보고(1992), 한국청소년연구원의 ‘한국 청소년의 실태와 문제’(1991) 등의 결과들이다.

각 연구들의 조사 대상이었던 청소년들의 수, 연령, 성별, 직업 등 표본의 성격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모두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사한 영역의 의식 및 가치관을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종적, 횡적 비교분석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다루어질 가치관의 대상 영역은 앞의 1장에서 예시된 여러 영역 중에서 보다 포괄적이면서도 사회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 추이를 대표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① 자아 및 타인관, ② 직업관, ③ 사회 및 국가관, ④ 윤리관, ⑤ 인생관의 다섯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1) 자아 및 타인관

청소년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며 또 자신과 관계가 깊은 타인을 어떻게 보느냐

나에 관한 자아와 타인의 관점을 알아 보는 내용은 지향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나 像에 관한 것과 또 실제 자신이나 타인의 능력, 특성 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관점 등으로 구별되어 측정되는 경우가 많다.

(1) 자아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아 인식이나 자아상에 있어서 두드러진 현상은 자신의 능력, 사회성 등 능력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면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규범 요인으로 볼 수 있는 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이다(정원식 외, 1985 : 61).

1985년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의 ‘청소년 의식구조 조사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89.8%가 “노력만 하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나는 친구들과 비교적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75.8%나 되었다.

이 점은 최근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생에 대한 자신감 정도를 알아 보았던 한 조사 결과(MBC, 1991 : 130)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37.1%), “아무리 애써도 자신의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의견(21.2%)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잘 모를 때가 많다”는 청소년이 많은 점(61.4%)(정원식 외, 1985 : 61)등은 자신의 행동이나 삶에 대한 규범적 측면에는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부모관

근대의 바람직한 부모의 상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3년과 1988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한국과 세계청소년의 의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상을 엄격형과 친구형으로 구분할 때 한국 청소년은 친구형의 부모를 엄격형 부모보다 훨씬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과거에 비해 점차 더 친구형의 부모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서구 국가들에 비하면 아직 가부장적 권위를 갖는 아버지상

의 강도가 한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엄격형 부모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엄격형 母를 선호하는 비율은 11개국중 2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한국궐립조사연구소, 1991 : 159-160).

또한 요즘 우리 나라 청소년들은 부모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고 건전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구 지향적이고 이기적 성향이 큰 자신들에 비해 부모들은 한국 지향적이고 이타적 성향이 크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최운실, 1992 : 69).

(3) 기성세대관과 또래집단관

부모에 대한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인식과는 달리 일반 기성세대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1983년의 한국교육개발원의 「청소년 의식구조 및 형성 배경」 조사연구 결과에서 청소년들은 기성세대가 폐쇄적이며 권위주의적이고 획일적이며 보수적인 것으로 보는 등 부정적이고 전근대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점은 1985년의 「청소년 의식구조 조사연구」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전체 응답자의 52%가 어른들은 자기만 알고 남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68%가 어른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보고 있으며 80%가 어른들은 공중도덕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정원식 외, 1985 : 78).

이러한 기성세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최근의 조사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청소년들은 일반 기성세대들이 이기적이며 자신밖에 모르고 소극적이며 보수적이고 감정적이며 비합리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최운실, 1992 : 69).

같은 세대에 속한 주위 또래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점은 긍정적인 시각에서 점차 부정적인 시각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3년 조사에서는 청소년은 같은 또래의 청소년들이 대체로 개방적, 자유주의적이고 이성적, 현실적, 의욕적, 진취적으로 보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이재창 외, 1983 : 119), 1985년 조사에서는 자신의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자기만 알고

남을 생각할 줄 모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청소년(52.6%)이 그 령다(47.4%)고 생각하는 청소년 보다 더 많았다.

그러나 근자에 들어와 청소년들은 스스로를 점차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 는데, 자신들의 또래집단에 대해 서구 지향적이며 진취적인 근대적 성향과 함 께 이기적이고 소극적이며, 감정적이고 이성보다는 정에 끌려 판단하고 행동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최운실, 1992 : 68).

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의 자아 및 타인관을 정리해 보면 청소년들은 스스로의 지적, 사회적 능력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신감을 갖 고 있으나 도덕적, 규범적인 면에서는 확신이나 자신감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진다. 부모들을 보는 눈은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엄격형보다는 점차 민주적 이고 근대적인 친구형 부모를 선호하고 있지만 서구 국가들과 비교할 때 여전히 가부장적이고 엄격한 부모를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아직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전통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가치관과 부모상이 잔재해 있음을 시사해 준다.

기성세대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부정적 시각에는 세대간의 불신감과 함께 다른 세대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도 영향을 주었으리라는 추측을 가능 케 해 준다.

기성세대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또래집단에 대해서도 점차 부정적인 시각 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 세대들의 제반 능력면에 있어서 보다는, 생활 태도나 행동 등에서 보이는 도덕적, 규범적 측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더욱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직업 및 근로관

청소년의 직업 및 근로관에 관한 조사 내용은 주로 청소년들의 직업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청소년들은 어떤 형태의 직업을 선호하여 또 실제 어떤 종 류의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가? 청소년들은 근로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 으며 근로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등의 문제를 탐

이 다루고 있다.

위의 질문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점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직업 선택의 기준은 근래에 들어오면서 수입보다는 점점 더 직업 안정성을 중요시함을 알 수 있다. 통계청의 사회통계 조사의 자료에 따르면 1980년에는 취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수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으로 안정성(27%), 발전성(14%)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3년 뒤인 1983년엔 안정성이 제일 많이 지적되었고(39%) 그 다음에 수입(23%)과 발전성(20%)을 지적했다. 5년후인 1988년엔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의 비율이 더 높아져서 43%나 되고 그 다음에 수입(25%)과 발전성(15%)을 지적하는 순서는 변함이 없었다(송광성 외, 1991 : 166).

또한 수입보다는 자기 발전성이나 사회적 기여도 및 보람 등을 중요시하는 경향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85년 조사에 따르면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직업이라도 택하는 것이 좋다”는 문항에 “그렇다”라고 한 응답자가 전체의 79%에 달하고 있고(정원식 외, 1985 : 35), 또 최근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업 선택의 준거 및 요건으로 ‘장래 및 자기 발전성’(55.7%)과 ‘사회기여도 및 보람’(14.1%)을 지정한 청소년 수가 ‘보수’(8.4%)를 지정한 청소년보다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다(최운실, 1992 : 66).

둘째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의 형태에 있어서, 보수는 높지만 위험하고 힘들고 지저분한 일들보다는 비록 보수가 낮더라도 안정된 사무직의 일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최운실, 1992 : 66), ‘일이 쉽고 바쁘지 않은 대신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일’ 보다는 ‘비록 일이 고되고 바쁘더라도 권한과 책임이 위임되는 직장’을 훨씬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1개국의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고된 일을 감수하더라도 책임과 권한을 위임해 주는 직장을 선호하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1 : 244).

또한 청소년들이 원하는 직업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1991년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장래 희망하는 직업은 선생님이 가장 높게(14.0%) 나타났으며 그 다음 회사원, 기술자, 사업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등의 직업을 종래의 선호 직업이던 의사, 관사, 변호사 등보다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BC, 1991 : 132).

셋째로, 사람이 왜 일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근로의 목적에 관한 청소년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44.7%),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36.7%), 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18.0%)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1 : 257).

이러한 반응은 5년 전과 비교해 볼 때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는 응답율은 증가한 반면 ‘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일한다는 응답율은 감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전자의 응답율은 최하인 반면 후자의 응답율, 즉 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일한다는 비율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근로의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돈만 있으면 일하지 않는다’(17.6%)는 청소년보다 ‘돈이 있어도 계속 일을 한다’(81.2%)는 청소년이 훨씬 많은데 이 점 역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1).

위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볼 때 오늘날 한국 청소년들은 직업을 선택하거나 선호하는 데 있어서 수입보다는 안정성, 개인적 발전과 보람을 중요시함으로써 물질주의적 특성보다는 비물질주의적 가치관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사회일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자’ 일하려는 한국 청소년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에서 근로관에 있어서도 사회 중심적 가치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일에 있어서 책임과 권한이 주어진다면 어렵고 힘든 일을 감수할 수 있다는 생각과 근로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점 등에서 비교적 건전한 직업관과 근로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한편 아직 근대 산업

사회적 가치관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많이 잔재해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3) 사회 및 국가관

청소년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사회에서의 성공 요인을 무엇으로 보는가?, 사회가 어느 정도 건전하고 정의롭다고 보는가?, 사회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보는가?, 사회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으며 불만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그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며 국가에 관해서는 청소년들이 자국 및 자국인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국가에 대한 긍지나 애국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 기존 연구물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우선 사회에서 성공 요인에 대해 요즈음 청소년들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을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다. 1991년과 1992년에 이루어진 3종류의 조사(송광성 외, 1991; MBC, 1991; 최운실, 1992) 결과 응답자의 50%이상 청소년들이 학력이나 신분, 가문 등의 귀속요인보다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을 사회적 성공의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둘째로, 이러한 긍정적 시각과는 대조적으로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건전성 정도와 문제를 보는 시각은 매우 어둡고 부정적이다. 1985년도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84.8%가 우리 사회가 각박해졌다는 데 긍정하고 있으며, 75.2%가 우리 사회는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차이가 심하다고 보고 있고, 68.0%가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정직하면 오히려 살기 힘들다고 생각하며, 75.9%가 공해가 심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정원식 외, 1985 : 82).

최근의 조사에서는 우리 사회가 퇴폐적이라고 보는 청소년이 82.8%나 되고 부당하고 불공평한 사회라고 보는 청소년도 80.2%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 대다수가 현재의 사회를 ‘문제 사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최운실, 1992 : 67). 이러한 문제 중에 ‘사회 폭력 및 사회 범죄의 증가’, ‘과열 입시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 등을 주요하게 지적하고 있다.

셋째로, 청소년들이 그들이 속한 사회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에 관해서는 불만율이 만족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꺾림의 조사 결과를 보면 1983년도에 비해 1988년도 조사에서는 만족율은 크게 줄고(53.0%에서 17.2%로 감소) 불만율은 크게 늘어났음(42.7%에서 79.3%로 증가)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회에 대한 불만율은 세계 11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만 이유로서는 ① 대부분의 일들이 서열에 의해 결정되고 가문이나 배경이 너무 중시되고 있기 때문, ② 올바른 일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 ③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 등이 지적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사회적 불만의 이유가 주로 ‘빈부격차 극심’이나 ‘환경 보호 무관심’ 등에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유독 ‘서열, 가문, 배경 중시’가 청소년들의 주요한 사회적 불만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로, 우리 나라 청소년들은 사회에 대한 불만은 매우 높으나 국가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긍정적이며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도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대부분(86.0%)의 청소년들이 자신이 한국 사람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으며 ‘한국을 위해 공헌하고 싶다’는 청소년들도 87.4%나 되었다. 이러한 응답율은 세계 11개국중 2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특이할 만한 것은 ‘한국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의 이익을 희생해도 좋다’라는 항목에 대한 긍정율이 5년 전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72.9%에서 62.2%)는 사실이다 (한국꺾림조사연구소, 1991 : 283).

위의 조사 결과를 요약해 보면 오늘날 한국의 청소년들은 사회에서의 성공은 신분, 가문 등의 귀속요인보다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등의 업적주의적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아직도 우리 사회는 ‘서열, 가문, 배경 중시’등 귀속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사회에 불만을 갖는 주요 원인이 되어 세계 11개국 중 청소년들의 사회에 대한 불만율을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는 달리 우리 나라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국가관을 가지고 있고 또 외국 청소년에 비해 애국심도 매우 높지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의사는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 중심적 가치관의 감소와 개인 중심적 가치관의 확산 현상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으나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아직 사회중심적, 국가 중심적 사고와 가치관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도덕 및 윤리관

청소년의 도덕 및 윤리관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존 연구물마다 그 다루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두 가지 분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전통 윤리라고 볼 수 있는 효경심, 부양관, 장유유서관 등에 관한 것으로서 우리의 전통 윤리를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으며 서구적 가치관의 영향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며 둘째로, 공중도덕이나 일반 에티켓들을 어느 정도 따르고 있는지에 관한 것과 이와 관련해서 남을 생각할 줄 모르는 이기주의나 편법주의 경향이 어느정도 나타나고 있는지에 관한 것 등이다.

우선 전통 윤리에 관해서, 한국의 청소년들은 아직 전통 윤리를 수용하고 따르는 경향이 짙는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9년과 1984년 두 차례에 걸쳐 청소년대책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모님 말씀에 대해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우선 복종하고 나중에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대다수이고 옳지 않은 경우 거부해야 한다고 한 경우는 약 30%에 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79년보다 1984년 조사에서 복종해야 한다고 한 응답율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최일섭, 1986 : 218).

부모의 부양관에 있어서도 1983년도와 1988년도 꺾림조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부모님이 연로하시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모님을 돌봐드리겠다”고 한 응답율이 전체의 69.4%를 차지하고 있어서 세계 11개국

중 2위를 기록하고 있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1). 그러나 1991년에 한국 청소년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드시 모시고 살겠다”는 청소년은 30.6%에 그치고, “모시고는 싶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37.4%),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21.9%),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될 것이다”(9.6%)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유유치관에 있어서도 1973년과 1984년의 청소년대책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차 안에서 노인이나 연장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1973년 조사에서는 극소수이고 대부분 “무조건 양보한다” 혹은 “되도록 양보한다”고 응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역시 양보하겠다는 응답율이 1984년도 조사 결과에서 조금씩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최일섭, 1986 : 220).

둘째로, 오늘날 우리 나라 청소년들은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이타정신이 적어지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편법을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어 본 1983년과 1988년의 갤럽조사에서 도움이 필요한지를 물어 보아서라도 도와 주겠다는 적극적 반응은 1983년 37.9%의 응답율에서 1988년 34.2%의 응답율로 줄어든 반면 그가 도움을 청해 오면 길을 알려 주겠다는 소극적 반응은 60.8%에서 64.2%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외국과 비교해 보면 호주, 미국, 스웨덴 청소년들이 적극적 의사가 60% 정도로 많은 반면 한국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992년 조사 결과에 있어서도 ‘급한 불일을 보러 가던중 길가에서 아파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에 “무조건 돕겠다”는 응답은 39.2%에 그치고 있고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겠다거나(35.7%) 연락이나 해 주겠다는(17.9%)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돕지 않겠다는 응답도 7.2%나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만일 상대방이 부탁받은 일을 들어주는 대가로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돈이나 대가를 치르더라도 일을 성사시키겠다”는 편법주의적 경향이 51.1%로 나타나 “절대 그런 편법을 쓰지 않겠다”

는 정당주의 성향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최운실, 1992 : 67).

셋째로, 청소년의 ‘관념상의 도덕 및 윤리관’과 ‘행동상의 도덕 및 윤리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점은 1983년에 실시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청소년 의식구조 및 형성 배경’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도 잘 알 수 있는데 청소년들이 가치 지향과 현실 인식의 괴리가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이재창 외, 1983 : 206). 즉 청소년들이 관념적으로는 강한 도덕주의적 지향을 나타내고 있는듯 하지만 실제 현실의 행동에 있어서 미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조사 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우리 나라 청소년들에게는 효경심, 부양관, 장유유서관 등의 전통적인 윤리들이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외국과 비교할 때 한국 청소년들에게는 전통 윤리와 가치관이 높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기본 윤리라고 볼 수 있는 공중도덕 정신이나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정신 등은 외국에 비해서 부족하며, 설혹 관념적으로 인식하고 있더라도 현실에서 따르지 못하는, 즉 생각과 행동의 불일치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인생관

청소년의 인생관을 가장 잘 반영해 주고 있다고 보이는 청소년들의 인생목표에 대한 관점은 개인 지향적인 것과 사회지향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국가나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는 청소년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반면에 ‘자신의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 혹은 ‘자기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등을 인생 목표로 삼는 청소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에서 1973, 1979, 1984년도의 3차에 걸쳐 실시한 의식조사의 결과를 보면 “인생을 즐겁게 산다”를 인생 목표로 삼는 청소년들은 그 응답율이 29.3% (1973년), 40.2%(1979년), 46.7%(1984년) 등으로 점

차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국가나 사회를 위해 봉사한다”를 목표로 삼는 청소년들의 응답율은 32.7%(1979년)에서 26.2%(1984년)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궤립조사연구소에서 1983년도와 1988년도에 걸쳐 조사한 조사 결과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이 인생 목표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59.4%),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16.3%),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16.1%),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7.2%) 순으로 꼽고 있다. 특히 1983년도와 1988년도의 결과를 비교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하는 것’의 응답율은 49.1%(1983년)에서 59.4%(1988년)으로 대폭 늘어난 반면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21.0%(83년)에서 16.3%로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언제 삶의 보람을 느끼는가에 대해서 우리 나라 청소년들은 ① 일에 몰두할 때, ② 사회를 위해 도움 되는 일을 할 때, ③ 친구와 함께 있을 때, ④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등을 꼽고 있다. 서구 국가들의 경우 친구와 함께 있을 때에 삶의 보람을 느낀다는 청소년들이 많은 데 비해서 한국, 중국에서는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를 위해 도움되는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낀다는 응답율은 한국이 11개국 중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다(한국궤립조사연구소, 1991 : 322).

MBC에서 1991년에 청소년들에게 선호하는 삶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행복한 가정 생활(36.9%)이나 자신의 취미에 맞는 생활(27.6%)의 응답율이 높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8.4%)이나 높은 사회적 지위(1.8%)를 지직한 청소년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청소년들의 인생 목표나 좋아하는 삶의 유형들에 관한 조사들은 오늘날 우리 나라 청소년들이 사회 지향적 가치관에서 개인 생활의 보람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개인적 삶의 방향으로 점차 변모해 가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 청소년들에 비해 한국 청소년들은 사회 봉사를 중요한 삶의 목표로 삼는 등 여전히 사회 지향적 가치관과 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청소년 가치관 변화의 추이와 전망

이 글에서는 청소년의 가치관을 청소년들이 인간과 사회의 제반 현상들을 어떻게 바라보며 또 어떤 것을 선호하는가에 관한 인식 및 신념체계, 그리고 정의적 성향 등을 중심으로, 가치관의 다양한 영역 중에서 자아 및 타인관, 직업 및 근로관, 사회 및 국가관, 도덕 및 윤리관, 인생관 등 다섯 영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가치관의 내용을 알아보았다.

앞서 소개한 청소년 가치관의 의미, 영역별 가치관 내용의 분석을 기초로 하여 현재의 청소년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과거에 비해 어떻게 변해 왔고 또 미래에는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에 관해서 진단해 보고 전망해 보고자 한다. 청소년 가치관이 어떻게 변해 왔고 또 변해갈 것인가를 파악하는 데에는 2장에서 논의했던 전통사회, 근대사회, 미래사회의 구분에 따른 가치관 유형의 분류들이 중요한 분석의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청소년 가치관의 변화는 종적인 측면과 횡적인 측면의 양면에서 분석해야 할 것이다. 종적인 측면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즉 과거에서 현재까지 시기별로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에 초점을 두게 되고 횡적인 측면에서는 동시대, 혹은 같은 시기에 다른 나라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어떻게 같으며 또 다른지 비교를 통해 가치관의 성격이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 청소년 가치관의 시간 변화에 따른 종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생관이나 근로관에 있어서 집합주의, 혹은 사회 중심적 가치관이 약화되어가고 개인 중심적 가치가 점점 더 증가해 가고 있다. 인생의 목표를 ‘사회에 봉사하는 것’에서 찾기 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혹은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 등에 두는 청소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선호하는 삶의 유형도 ‘행복한 가정 생활’이나 ‘자신의 취미에 맞는 생활’을 추구해 가고 있다. 또한 일을 하는 목적을 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데 두는 청소년들 보다 ‘자기 발전을 위하는데’ 두는 청소년들이 점차 증가해 가고 있

다.

둘째,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권위주의적인 가치보다는 민주주의적이고 평등주의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엄격형의 부모 보다는 근대적이고 민주적인 친구형의 부모를 선호하는 청소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전통적인 장유유서관이 점차 약화되어가고 있는 점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직업관에 있어서 물질주의적 성향보다는 비물질주의적 성향이 증가하고 있다. 직업을 선택하는 조건으로 수입보다는 안정성이나 일의 보람 등을 고려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고 직업의 종류 중에 수입이 많지만 힘들거나 지저분하고 힘든 일은 기피하는 반면 비록 수입이 작더라도 안정되고 전문적인 일을 원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넷째,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사회관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귀속주의적 성격보다는 업적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회에서의 성공 요인에 대해 학력이나 신분, 가문 등의 귀속요인보다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을 성공의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사회에 대한 불만은 점차 증가해가고 있으며 기성세대나 자신들과 같은 청소년 세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증가하고 있다.

다섯째,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전통적인 윤리 의식이 점차 약화되어가고 있다. 효경심, 부양관, 장유유서관 등 전통 윤리의 각 부문에 있어서 수용하고 따르고자 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위와 같은 5가지 특징들을 총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본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가치관 변화의 추이로 볼 수 있다. 이제 다른 나라, 특히 선진 외국과의 횡적인 비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나라 청소년 가치관 변화의 위치를 가늠해 보고 또 미래의 변화의 방향을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의 총적인 비교를 통해 제시한 변화 방향은 횡적인 비교와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즉 우리 나라 청소년들은 선진 외국 청소년들에 비해서 사회 중심적 가치, 권위주의적 가치를 지향하는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또 외국 청소년들에 비해

서 우리 사회를 귀속주의적 성격이 강한 사회로 보고 있으며, 전통 윤리를 훨씬 더 수용하고 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주는 11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대표적인 조사 결과들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때’ 삶의 보람을 느낀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한국이 세계 11개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근로의 목적을 ‘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일하는 데 두는 청소년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엄격형 부모보다 친구형부모를 선호하는 한국 청소년들이 많지만 서구국가들에 비하면 아직 가장장적 권위를 갖는 아버지상이 강조되고 있으며 엄격형 부모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엄격형 어머니를 선호하는 비율은 세계 11개국중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부모님이 연로하시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돌봐드리겠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세계 11개국 중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사회에 대한 불만율이 세계 11개국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제일 높은 불만 이유를 유독 우리 나라 청소년들만이 ‘서열, 가문, 배경 중시’ 등의 사회의 귀속적 요인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는 서구 외국 청소년들에 비해 아직 전통적 가치관이나 윤리의식이 많이 잔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선진 외국 청소년들에게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 및 개인 중심적 탈 근대적 가치관들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는 덜 보여지고 있으며 여전히 일과 사회 봉사 활동을 중시하고 또 사회적 목적의 성취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근대산업사회적 가치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종적인 비교와 횡적인 비교의 결과를 종합해서 청소년의 가치관을 요약해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가치관은 점차 사회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권위주의에서 평등주의로 변하고 있고, 전통적 윤리의식은 점차 약화되어가고 있음으로써 보다 서구적이고 근대적 가치가 지향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대의 선진 외국 청소년들

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통윤리의식과 근로의식등이 강하고 사회 중심적 가치관을 높게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가치관은 아직 근대산업사회적 특성을 많이 보여주는 반면 선진 외국 청소년들에 비해 탈근대적이고 후기산업사회적 성격이 아직 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것은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모해 갈 것인가를 전망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즉 앞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도 앞서 장에서 소개되었던 현실 만족주의나 자기표현 중심주의 등의 미래사회적 특성을 지닌 가치관들이 지향되리라고 추측된다. 사회적 지위상승, 목적 달성을 중요시하고 근검, 절약, 인내 등을 중요 덕목으로 삼는 가치가 퇴색되어 가고, 자기 자신의 삶과 현실에서의 쾌락이나 행복 추구 성향이 강해지는데 현실 만족주의나 자기표현 중심주의 등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

그동안 추구되어 왔던 엘리트주의적이고 출세지향적 청소년관이 퇴색되면서 보다 대중적 인간(mass man)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중요시 되고 그에 따라 각 개인의 개성이 강조되는 개별화, 다양화된 삶 속에서 자기의 표현과 내면적 성장에의 관심이 증대될 것이다.

이것은 또한 기존의 권위체계나 수직적 인간 관계의 약화와 함께 보다 더 민주적이고 평등한 인간 관계가 지향되고 또래집단의 문화에 동조하려는 성향이 커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앞으로 예측되는 현실만족주의, 자기표현 중심주의로의 가치관 변화의 양상은 벌써 그 조짐들이 보이는데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성공 보다 행복한 가정 생활이나 자신이 만족하는 삶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청소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이라든지 비록 수입이 많아도 힘든 일들은 기피하고 있는 현상들, 고민 상대로 부모보다는 친구들을 많이 선택하고 있는 점, 선호하는 부모상, 친구상 등이 변해 가고 있는 점 등 최근의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그 정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 가치관의 변화 양상과 그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

으로 앞으로의 청소년 지도와 대책의 방향이 적절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문 요약

청소년기는 가치관 형성의 결정적인 시기이며 청소년들이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고 또 그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청소년 문화의 성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또 적절한 지도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가치관이란 말이 다른 유사한 개념들과 그 의미가 뚜렷이 구별되지 않은 채 복합적으로 섞여지고 있지만 개인의 외현적인 행동보다는 내재적 인지과정 및 취향과 관계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도 가치관의 의미를 개인과 사회의 제반 현상에 대한 청소년의 내면적 사고방식과 취향으로 파악하고 5개 영역(자아 및 타인관, 직업 및 근로관, 사회 및 국가관, 도덕 및 윤리관, 인생관)의 가치관을 알아 보았다. 각 영역별 가치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로, 청소년들은 자신의 지적, 사회적 능력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신감을 갖고 있으나 도덕적, 규범적인 면에서는 부정적 자아개념을 보여준다.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엄격형 부모보다는 민주적이고 근대적인 친구형 부모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기성세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부정적 시각이 강하고 자신과 같은 또래집단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각에서 부정적 시각으로 변해가고 있다.

둘째로, 청소년들은 직업을 선택하거나 선호하는 데 있어서 수입보다는 안정성, 개인적 발전이나 보람등을 점차 더 중요시하고 있다. 근로 목적이나 당위성을 ‘개인적 발전’에서 찾는 청소년이 늘고 있으나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데서 찾는 청소년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로,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가 귀속적 요인 보다는 개인의 능력, 노력 등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는 경우가 많으나 아직도 이러한 귀속요인의 영향을 많

이 받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것이 청소년들이 사회 불만을 갖게 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사회에 대한 불만율은 매우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관은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애국심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로, 효경심, 부양관, 장유유서관 등의 전통적인 윤리의식이 점차 약화되어가고 있으나 외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중도덕 정신, 이타정신 등이 외국에 비해 부족하며, 관념과 행동의 불일치 성향을 보여준다.

다섯째, 인생의 목표나 선호하는 삶의 형태를 사회봉사나 보람보다는 개인 생활의 즐거움과 행복에 두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각 영역별 가치관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종적으로 비교해 보면 점차 권위 중심에서 평등 중심으로, 사회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변해가고 또 전통윤리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과 횡적 비교를 해보면 우리 나라 청소년들에게 여전히 권위적, 사회중심적, 전통적 가치가 많이 잔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한국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평등주의, 개인주의 등 근대적 가치들이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더불어 이미 선진 외국에서 그 조짐이 보이고 있는 현실만족주의, 자기표현주의 등의 탈근대적이고 후기산업사회적 가치관들이 지향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 과제

1. 오늘날 청소년 가치관의 진단이 왜 필요하며 그 의의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2. 가치관의 개념과 그 영역에 대해서 검토한다.
3. 사회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가치갈등의 성격을 살펴보고, 전통사회, 근대사회, 미래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가치의 유형들을 대별해 본다.
4. 자아 및 타인관, 직업 및 근로관, 사회 및 국가관, 도덕 및 윤리관, 인성관 등 제반 영역에 따른 청소년 가치관의 성격을 규명해 본다.
5. 각 영역별 가치관을 시간 변화에 따른 종적 비교, 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횡적 비교 등을 통해 분석하여 가치관 변화의 추이를 파악하고 또

앞으로의 변화의 방향을 전망해 본다.

참 고 문 헌

- 고범서(1992), 가치관 연구, 나남
- 다모츠 센고꾸(1990), “일본의 청소년”, 청소년 문화, 한국청소년연구원
- 문화방송(1991), '91 MBC 청소년 백서
- 송광성 외(1991), 한국 청소년의 실태와 문제, 한국청소년연구원
- 이윤구(1990), “90년대 청소년의 세계와 한국의 과제”, 한국청소년 연구
제1권 제3호, 한국청소년연구원
- 이재창 외(1983), 청소년 의식구조 및 형성 배경, 한국교육개발원
- 이정수(1990), 현대 일본인의 의식구조, 동명사
- 임희섭(1987), 사회변동과 가치관, 정음사
- 정범모(1977), 가치관과 교육, 교육신서 제1권, 배영사
- 정원식 외(1985), 청소년 의식구조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최운실(1992), “오늘의 청소년, 그들의 의식과 태도를 진단한다”, 교육월보
1992년 5월호, 교육부
- 최일섭(1986), “청소년 가치의식의 변화와 전망”, 해방 40년 가치의식의 변
화와 전망, 서울대 출판부
-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5), 한국과 세계 청소년의 의식, 제1차 조사보고서
-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91), 한국과 세계 청소년의 의식, 제2차 조사보고서

3.

학교교육과 청소년문화

—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

개 관

이 장에서는 청소년문화의 바탕이 되는 중등학교에서의 의도적, 비의도적 교육 내용이 우리 나라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았다. 먼저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로 나누어서, 수업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공식적 학습 내용의 질적 빈약성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둘째로 ‘획일성’과 ‘위계성’이라는 상호 연결된 핵심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중등학교에서의 생활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은 획일주의, 권위주의와 위계 질서에 대한 순종, 형식주의와 결과우선주의, 폭력에의 순응, 비교우위주의와 경쟁적 동료관계의 수용이라는 잠재적 교육과정을 학습하게 된다는 것을 논의하고, 이러한 획일성과 위계성이 우리나라의 전체 사회·문화구조 및 역사적 경험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변화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주제어

중등학교 교육, 청소년 문화, 공식적 교육 내용, 비의도적 교육내용, 표면적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 학교 문화, 핵심 문화

* 이응숙, 한국교육개발원 책임연구원

교육을 ‘문화의 전승’으로 정의하는 인류학적 관점을 따른다면, ‘문화는 곧 교육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교육은 전 세대들이 계속 축적해서 현재의 기성 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를 교육의 내용으로 하여, 새로운 세대인 학생들을 문화화(文化化)시킴으로써, 그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기능을 갖는다고 본다.

문화가 교육 내용이라는 것은 또한 학교에서의 교육 내용은 전체 교육 내용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사회의 새로운 세대는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는 교육만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며, 청소년 시기에는 가정 이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된다는 점에서, 학교에서의 교육 내용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더구나 우리 나라의 중등학교 학생들은 세계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긴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시간도 상당 부분 학교와 관련있는 일, 즉 숙제 및 기타 학습을 하는데 보내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학교에서의 교육 내용은 다시 교과서와 교사의 설명, 교장 교감 교사의 훈화등을 통해서 전달되는 의도된 교육 내용(표면적 교육과정)과 의도된 바는 없으나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생활 경험을 통하여 여연중에 학습하게 되는 의도되지 않은 교육 내용(잠재적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중등학교에서의 이러한 두가지 교육내용에 의해서 학생들이 어떠한 학습을 하게 되는가를 각각 살펴본 후, 이들이 우리나라 전체의 사회 문화적 특성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논의하도록 한다.

1. 중등학교 교육과 공식적 학습내용

중등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 있는 수업 중의 학습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수업 시간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간이기 때문만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업의 시간에도 학생들이 수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우선은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으로 수업 전과 방과 후의 시간이 거의 다 채워진다. 뿐만 아니라 숙제가 많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은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도 숙제를 하거나 베끼고 있다. 또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과 고입 연합교사를 눈앞에 둔 중학교 3학년 학생은 가능한 모든 시간에 공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이 거의 다 수업 및 이와 관련된 학습 활동으로 채워진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공식적 학습내용은 어떤 것인가? 이를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볼 것이다.

1) 중학교¹⁾

우리나라 중학교의 수업은 대부분 주입식, 일제식으로 ²⁾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제 5차 교육과정에 의해 어느 과목보다도 큰 폭으로 교과서가 개편된 국어의 경우, 일부 중학교 교사들은 국민학교와 유사한 방식의 학생 활동 중심 수업을 하고 있다.(그러나 상당수의 중학교 국어 교사들은 여전히 철저히 주입식인 문장해설식, 독해 중심 수업을 하고 있다.) 과학의 경우에도 학교나 교사에 따라서는 교과서에 제시된 실험·관찰 활동의 대부분을 실제로 실시하기도 한다.(그러나 국민학교와는 달리 중학교 과학교과서는 활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또한 제시

1) 이 절과 다음 절의 내용은 상당 부분 필자의 다른 연구(“교육내용과 수업 방법-일제식 주입식 수업 실태와 원인”)의 일부 내용을 발췌 수정한 것이다.

2) ‘주입식 수업’은 대체로 교사가 일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의미하며, ‘일제식 수업’은 대체로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고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똑같은 방법으로 학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의미한다.

된 실험 관찰 활동을 실제로 모두 다 실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예외는 있지만, 실습이나 표현 활동을 주로 하도록 되어있는 교과를 제외한 교과들, 특히 수학·영어·사회·역사·도덕 교과의 수업은 대부분 철저하게 주입식, 일제식으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교과서의 내용을 읽고, 교사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판서 내용을 필기하고, 문제를 풀고, 교사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대부분의 수업 시간은 채워진다.

이러한 중학교 수업의 교육 내용 선정 방식에 있어서의 특징은 교과서의 모든 내용(만)을 거의 빠짐없이, 비교적 균등하게, 나열식으로 다룬다는 점이다. 이렇게 선정된 교육 내용은 주로 교사들이 교과서의 전체 내용을 읽어 가면서 해설식 설명을 하거나, 또는 따로 읽는 시간을 준 후 단답형/이분법형 질문으로 구성된 문답식 설명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제시된다. 특히 중요한 내용은 별도로 판서를 해준다. 이외에는 시간 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화를 이야기해 주거나 미리 숙제로 내준 학생 조사내용 발표를 시키는 정도이다.

교사의 질문은 대부분 전체 학생이 함께 대답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국민학교에 비해서 개별 학생의 답변 기회는 훨씬 적다(고등학교보다는 약간 많지만). 또한 개별 학생의 답변 기회가 있을 때에도 국민학교와는 달리 답변을 지원하자는 학생은 드물며, 대개 앉은 순서나 번호대로 답변을 하거나 교사가 지명하는 학생이 답변한다. 즉 학생들의 개별 답변은 수업에 참여하는 기회라기보다는 학생들이 공부했는지 확인하고, 수업에 주의하도록 만드는 기회로서의 역할을 한다.

때로는 예외적으로, 학생들의 발표나 실험이 수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나, 본격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학생활동 중심 수업이라고 해도 대개는 교과서에 제시된 활동에 한해서 학생들이 경험, 의견 발표나 실험을 해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수업에 있어서, 교과서는 학생들이 배우

게 되는 지식의 테두리를 정해 주며, 그 지식이 어떤 형식으로 다듬어져서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가 하는 것만이 교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에 비해서 미국 영국 등 서구 학교의 수업 시간에는 교과서에 얽매이는 대신에 학생 생활과 관련된 작문, 관찰 등을 하거나, 불평등이나 비도덕성 등과 같은 사회 문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현실적인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한 두마디 언급하는 것 이상으로 깊이있게 다루어지는 일이 드문 우리나라의 수업과 대조를 이룬다.

서구의 수업이 우리 나라의 수업과 대비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질문을 누가 하느냐가 완전히 반대라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교사에게 질문을 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국민학교에서만 조금씩 관찰된다). 즉 ‘질문’은 주로 ‘아는 사람(교사)’에 의해서 던져짐으로써, 학생들이 그 답을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는 일종의 ‘시험’의 역할을 할 뿐, 학생들이 ‘무엇에 대해서 잘 모르고 궁금해 하는가’를 교사에게 알려주지 못한다.

이러한 우리 나라와 서구 학교의 수업의 차이는 교과서 내용 구성상의 차이와 평가 방식의 차이를 반영한다. 우리 나라의 교과서는 수많은 주제에 대해서 사실적인 지식들을 조금씩 압축적으로 나열하는 백과사전적인 구성으로 특징지어진다. 또한 교과서 내 출제원칙의 객관식 상대평가제도는 교사들이 교과서의 내용을 제시된 순서대로 구석구석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이에 비해서 서구의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의 내용 구성은 각 주제를 비교적 깊이있게 다루도록 되어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국어, 수학 등 일부 과목 이외에는 아예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교과서가 있다고 해도 교과서에만 구애되지 않는 수업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학교시험 출제에 대해서는 가르친 교사가 완전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즉 서구 학교의 교사들은 자신이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시험에서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교과서의 내용을 착실히 해설해 나가는 수업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2) 인문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수업 또한 철저한 일제식 수업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모든 학습활동은 일제식으로 이루어지며, 중학교 수업에 비해서 일제식의 개별 조별 학습활동조차도 훨씬 더 적게 이루어진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의 수업 또한 주입식 수업의 범주에서도 벗어나지 않는다. 즉 교사가 일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수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중학교에서의 수업은 교과서의 낱말 뜻을 풀이해 주고, 여러 가지 사실들을 나열해 놓고 하나씩 설명해 줌으로써, 단편적인 사실들을 무조건 외우도록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주입식 수업인데 비해서, 고등학교의 주입식 수업은 좀 더 변형된 형태로 이루어진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입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양이 많은 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을 쉽게 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즉 입학 시험에 나올 만한 교과서의 내용을 추출하여, 논리적으로 연결된 항목화된 지식으로 요약(제구성), 판서해주고, 항목들 간의 관계를 설명해 준다. 이는 학생들이 전체의 줄거리를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쉽게 외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수업은 학생들이 썬을 필요 없이 쉽게 소화할 수 있는 지식을 전달해 준다는 점에서 “암죽식(암죽 먹이기식)수업”이라고 불리우기도 한다(이인효, 1990).

인문계 고등학교라고 해서 모든 교사가 이런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로서의 여러 해 동안의 경험과 노력으로 ‘입시 전문가’가 된 ‘유능한’ 교사들만이 이런 수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암죽식 수업은 교장, 학부모, 학생들의 환영을 받고, 암죽식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들은 다른 교사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의 수업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표 1> 에는 이러한 인문계 고등학교 수업의 원리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나라 교과서 제도 및 입시제도의 특징을 같이 제시하였다.

〈표 1〉

인문계 고등학교 수업의 원리

인문계 고등학교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교과서 제도 및 대학입시 제도의 특징	수업의 원리
(가)국정, 검인정 교과서 제도와 교과서내 출제 원칙 (나)백과사전적인 지식 나열식 교과서와 거의 전과목에 대한 객관식 문항의 출제 관행 (다)한정된 교과서 내용중에서도 외문의 여지가 없는, 정답이 확실한 문제만이 출제 가능함(따라서 숙련된 교사라면, 교과서 어느 부분에서 어떤 형태로 출제되는지 알 수 있음) (라)과목에 따라 크게 다른 배점과 이에 따른 주요과목/주변과목의 분리	〈교과내용 선정의 원리〉 (1)가르치는 지식의 범위를 ‘교과서 내용’으로 한정한다.(검인정 교과서의 경우 8종의 전체 교과서 포함) (2)모든 교과서의 모든 단원을 빠짐없이 골고루 가르치되, 각 단원내에서는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을 지적해 주고 집중적으로 가르침으로써 암기할 양을 줄여준다. (3)학생이 알아야 할 교과서 내용의 수준을 정해 준다.(시험에 나올 만한 교과서 내용중에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 지식의 범위가 어느 정도 인지 알려준다.)
	〈교과내용 제시의 원리〉 (4)학생의 질문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가능한 한 제한함으로써, 수업 시간을 절약하고 수업이 산만해지는 것을 막는다. (5)①간결한 논리, 압축된 형태의 판서, ②“간결한 논리로 연결된 단답형/이분법형 질문의 사용”, ③“학생들에게 익숙하면서 너무 길지 않은 예외 제시”, ④“설명 방식의 다양성”, ⑤“다양한 유도어의 사용”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도와 집중도를 높여준다. 그러나 과목이나 학급에 따라서, 교과내용 제시를 다르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예 : 국사 수업에서의 ‘해설 형식의 설명’, 공부를 하려는 아이들로 구성된 학급에서의 ‘교과서 내용을 증립적 입장에서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 ‘주요과목’이 아닌 1, 2학년 수업에서의 ‘재미 있는 예외의 제시’)

다음에 제시하는 수업 중의 교사의 설명 내용은 이상과 같은 수업의 원리를 따를 때 학생들이 학습하는 지식이 극단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 평양 간 직통전화 개설, 외울 게 아니에요. 주관식은 안 나오고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 정도만 알면 돼요.”, “남북한 기본 관계에 대한 잠정 협정’을 우리끼리는 ‘잠정 협정’이라고 하지. 주관식으로는 안 나오니까.” “중남미’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중속이론’이지.” “이해는 대학 가서 하기로 하고” “「교과서를 읽은 후」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튼 두음법칙과 모음조화는 알타이어의 특징이라는 것만 알면.” “그 다음에는 알아두지 않아도 됩니다. 언어학에서의 연속성은 출제는 안 되고 있지요.” “이 문제는 아직 출제되지 않았습니 다만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는 ‘Where is this?’를 쓰기도 해. 그러나 대학입시에서 그거 맞다고 하면 자기만 손해야.”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상과 같이 시험 그 자체와 유사한 수업 방식으로 시험용의 단편적인 정답들을 끊임없이 제시해 주는 교사들의 설명을 듣거나 질문에 답하면서(전체 문답에서는 대개 상위권 학생중에서도 일부만 답을 한다.), 또는 교과서나 유인물에 필기를 하면서(수학과 같이 판서가 많은 과목 이외에는 공책에 필기하는 일은 드물다.), 수업 시간과 보충수업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자율학습시간, 그리고 독서실과 가정에서 하는 자습은 이처럼 교사들이 시험을 위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을만큼 골라서 암기하기 쉽게 만들어 준 지식들을 반복해서 외우고 문제를 풀어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소와 모의고사 직전에는 주로 국어, 영어, 수학과, 정기고사 직전에는 주로 기타 과목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학습된다. 그러나 이처럼 열심히 암기한 지식들 중에서 입학 시험 이후에도 필요한 지식들은 많지 않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수업은 이처럼 교육내용 선정 방식에 있어서 지나치게 출제 가능성 여부에 의해 제한받는다라는 문제가 있지만, 교육내용 제시 방식이

학생들의 이해도와 집중도를 높이는데 효율적이라는 점에서는 중학교의 주입식 수업보다는 나은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문계 고등학교의 암묵식 수업중에서도 최선의 형태인 ‘체계적 지식 위주의 이해식 수업’의 경우에도 교과서의 한계에서 벗어나거나 학생들의 의문을 수업 내용으로 수용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암묵식 수업은 현실적으로 환영받는 수업일 뿐, 바람직한 수업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인문계 고등학교의 수업 방식은 우리나라의 교과서 제도 및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적응기제로서, 입학시험 전문가로서의 ‘유능한’ 교사들에 의해 오랫동안 발전 확산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 제도나 입학시험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대학 합격이라는 학생들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만족시키는 데 효율적인 인문계 고등학교 수업의 원리들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3) 실업계 고등학교³⁾

실업계 고등학교의 수업은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를 순환 근무하는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반과목과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만 근무하는 교사들이 가르치는 실기과목으로 양분된다. 이중 일반과목은 인문계 고등학교 근무 경험을 가진 교사들이 가르친다는 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수업과 유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오히려 중학교의 수업처럼 나열식의 전형적인 주입식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다음의 2가지 이유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암묵식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교재연구와 수업 준비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즉 교과서 분석, 대학입시 경향 파악, 참고서 분석, 보충 설명이나 사례 제시를 위한 참고도서 읽기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3)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수업관찰 기회는 극히 제한된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논의는 앞으로 수정 보완될 여지가 많다.

그러나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들은 학생의 시험 성적을 높여 달라는 교장 학부모 학생들의 압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들과 같이 수업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대다수가 처음부터 실업교육을 희망한 것이 아니라, 낮은 성적으로 인해 대학 입학을 포기한 것이라는 점은 이들이 학습 자체에 흥미를 갖지 않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실업계 고등학교의 수업 분위기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비해서 훨씬 산만하며, 이는 다시 교사들의 수업 의욕을 감퇴시켜 수업 준비를 하지 않게 만드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2년 이상 근무하다가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보된 교사들은 교재연구와 수업 준비를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또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런 교사들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인문계 고등학교(취업반 제외)에서는 3년간 가르치도록 되어있는 교과서를 2년 2년반 동안에 다 가르친 후 복습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교과서의 내용을 중학교에서와 같이 모두 다 나열식으로 가르치기에는 수업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나 교과서를 1번씩만 다루면 되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교과서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내서(재구성하여) 가르치지 않아도, 진도를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실업계 고등학교나 인문계 고교의 비진학반에서 이루어지는 주입식, 일제식 수업은 수업방식에 있어서는 중학교 수업과 유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이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차이점은 실업계 고교나 인문계 고교 비진학반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갖는 기대수준이 중학교에 비해서 매우 낮다는 데에 있다. 즉 학생들이 수업에 불참하거나 뒤에서 딴 장난을 하는 것이 쉽게 용납되며, 학생들이 요구하면 20, 30분만에 수업을 끝마치는 교사들도 있다(이기연, 1992).

이는 모든 실업계 고등학교의 일반과목 교사들이 수업을 소홀히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진학반 교사들이나 ‘명문’으로 알려진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사들

은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나쁜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원하는 학생은 어떻게 해서든지 전문대학이라도 진학을 시키는 것이 진정으로 학생을 위하는 길’이라고 믿는 교사들은 일부 학생이나마 입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무보수의 보충수업까지 자원해서 담당하기도 한다.

실기(전공) 과목의 경우에는 그 과목을 학생들이 얼마나 중시하는가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 태도나 교사의 기대 수준이 달라진다. 즉 취직이나 자격증 획득을 위해서 그 과목이 중요한 경우에는 교사나 학생들이 모두 열심히 수업에 참여한다. 이처럼 중시되는 과목이 반드시 실업계 학교가 표방하고 있는 목적에 일치하는 과목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학생이 원해서라기 보다는 성적 때문에 할 수 없이 진학했다는 것을 교사와 학부모들이 모두 인식하고 있는 한 농업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비교적 열심히 참여하는 실기과목은 기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측량’ 과목인 반면, 농업과 관련된 전공 과목에는 절반 이상의 학생이 여러가지 이유로 수업에 불참하는 것이 관찰되기도 했다.

이러한 실기과목은 교실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이론 부분과 실습장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실습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론 부분은 일반과목과 같이 철저하게 일제식, 주입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일반과목과는 달리 교과서가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교사들은 교과서의 내용을 정정하거나 자신의 경험 또는 다른 참고서적의 내용으로 보충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실습 부분도 역시 일제식으로 이루어지지만, 학생들의 실습활동 중심이므로, 주입식 수업의 여지는 적다. 실습수업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루어지는가는 학생들의 관심도 이외에 실습도구가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가에 달려있다. 대부분의 실업계 고등학교는 충분한 실습도구를 갖추고 있지 않고, 그나마도 고장난 상태인 것이 많아서, 실습도구 하나에 여러 명의 학생들이 배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특별히 열심이거나 주도권을 잡는 일부 학생 이외에 다른 학생들의 실습 기회 자체를 빼앗아, 이들이 수업에 관심을 잃고 수업 분위기를 흐리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실업계 고등학교 수업의 특징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 기회 자체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대신에 인문계 고등학교와는 달리 시간 여유가 있는 학생들에게, 특별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기회만은 제공된다.

4) 논 의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 나라 중등학교에서의 교과서 내용만을 일제식, 주입식으로 전달하는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하게 되는 지식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의 특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 (1) 잡나한 사항들에 대한 단편적인 퀴즈형 지식 (깊이 있는 서술적 지식의 결여).
- (2) 시험에서 답을 쓸 수 있을 만큼만 선별적으로 암기한 후 잊어버려버리는 시험용 지식(필요한 자료를 찾아서 스스로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의 제외).
- (3) 흑백이 확실한 정답형 지식 (관점에 따라 정답이 다를 수 있는 지식의 제외).

이러한 지식의 교육은 1960년대의 우리 나라의 상황, 즉 ‘기본적인 지식과 암기력, 인내심을 갖추고 소수의 엘리트들이 지시하는 대로 열심히 일하는 숙련 노동자’에 의해서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던 상황에서는 매우 적절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1990년대의 우리나라의 상황은 창의적이고 조직적이며 자발적으로 일하는 다수의 고급 전문지식인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공식적 교육내용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수업이 일제식, 주입식이라는 특징을 가진 것은 근대 학교의 성립 이후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조선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는 TV 드라마나 민속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당에서의 교육장면이 주로 ‘학생들이 훈장을 따라 천자문을 암송하는 모습’이라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 전통 교육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서당의 “훈장은 글자 해독과 뜻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수준에 맞는 내용을 본 교재에서 발췌하여, 같은 천자문 책이라도 아동에 따라서 교재편찬을 달리해”(이숙례 조연순, 1989:33-34) 주기도 하는 개별적 능력별 교육내용 선정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교육내용 제시 방식에 있어서도, 암송이 끝난 후에는 훈장의 설명만이 아니라, 학생 상호간의 질의 문답을 포함한 다양한 문답식 교수 방법과 접장(훈장의 수제자)이 중심이 되는 상호학습 등 결코 주입식이라고만 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었다. 평가 방식 또한 개인차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즉 각 학생이 정해진 내용의 학습을 끝내면, 훈장 앞에 나가 배운 내용을 암송해 보고, 훈장이 허락해야 다음의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강’이라는 평가 방식이 사용되었다.(위의 글)

이처럼 학생들의 개인차를 중시하고, 교사가 교육내용 선정에 대해서 커다란 자유를 가졌던 전통 교육이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교과서의 내용에 완전히 구속되는 획일적인 형태의 주입식 학교 교육으로 대체되었다는 사실은, 현재의 교육 역시 계기만 있으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임을 보여 준다.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 나라 중등 학교의 ‘백과사전적 나열식 교과서 내용 구성’과 ‘교과서내 출제 원칙의 객관식 위주 상대 평가 방식’, 그리고 ‘일제식, 주입식 수업 방식’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학생들의 공식적 학습 내용의 질적 빈약성’의 문제는 해결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는 학생의 개인차가 중시되고 교사가 교육 내용 선정의 자율권을 갖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2. 중등학교 교육과 비의도적 학습내용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과서 내용이나 이에 대한 교사의 설명 내용 등 ‘표면적 교육과정’에서 의도한 교육 내용만을 학습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을 포함한 학교 생활 속에서의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표면적 교육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잠재적 교육과정’⁴⁾을 또한 학습하게 된다.

이러한 잠재적 교육과정의 원천으로서 김중서(1987)는 1) 학교의 생태인 목적성, 강요성, 군집성, 위계성, 2) 학교 내의 인적 요소인 학교 행정가, 교사, 학부모, 아동간의 상호작용, 3) 사회 환경의 세가지를 들었다.

그러나 필자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원천으로서 ‘학교 문화’⁵⁾의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학교 문화’는 학교의 생태와 학교 내의 인적 요소를 포괄하며, 학교 외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상호작용한다고 보기 때문이다.(학교문화의 개념과 우리나라 중등학교 문화의 특성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이응숙, 1992 참조)

우리나라 중등학교에서의 수업 및 교사 학생들의 일상 생활에 대한 참여관찰과 심층 면담 결과에 의하면, 교육부나 학교에서 의도한 바와 상관 없이 학교에서의 생활 경험을 통하여 문화화(文化化)되는 과정에서 우리 나라 중등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학습 내용(잠재적 교육과정)으로서 두드러진 것은 다음의 5가지를 들 수 있다.

- 1) 획일주의
- 2) 권위주의와 위계 질서에 대한 순종
- 3) 형식주의와 결과우선주의
- 4) 폭력에의 순응
- 5) 비교우위주의와 경쟁적 동료관계의 수용

다음에는 편의상 이러한 비의도적 학습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한다. 그러나 이들은 상당 부분 상호연관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이들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하도록 한다.

4)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교의 물리적 조건, 제도 및 행정적 조직, 사회 및 심리적 상황을 통하여 학교에서는 의도한 바 없으나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에 학생들이 은연 중에 가지게 되는 경험”이라는 김중서(1987)의 정의가 널리 인용되고 있다.

5) 학교문화라는 말은 최근에 상당히 유행하고 있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가는 쓰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필자는 문화와 교육에 대한 인류학적 정의의 토대로 (이응숙, 1989 참조), 우리 나라의 중등학교 문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 있다.

1) 획일주의

외국학교와 비교했을 때 우리 나라 학교문화의 특징으로서 (위계성과 함께)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획일성이며, 이는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마찬가지이다.

국정·점인정 교과서 제도와 교과서내 출제원칙을 따르는 독점적인 대입 학력고사 제도, 그리고 획일적인 상대평가 제도에 의해서 학교의 교육내용은 똑같거나 거의 유사한 교과서의 내용으로 한정된다. 중등학교 수업에서는 교과서 이외에 참고서·문제집 교사제작 유인물 등도 사용되지만, 이는 모두 교과서를 토대로 제작된 것이다.

수업 진도 또한 같은 학교 내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통일된다. 전체 학년에서 동일한 시험을 동시에 보기 위해서는 진도가 통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수업 방법에 있어서도 문답, 교사 강의, 개별 문제풀이 등 어떤 활동을 하건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학교 환경 또한 직사각형의 건물 및 교실, 일렬로 늘어선 교실과 복도, 일렬로 늘어선 책상, 심지어는 교실 뒤의 환경 미화관 및 학생작품 게시판의 위치와 구성, 각종 서류에 이르기까지 학교나 학급의 특성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통일(다시 말하면 획일화)이 ‘학교의’ 주요한 추구목표의 하나인 것 같다. 종례시간에 교감이 지적한 사항들 중에서 2가지가 이것에 관련되어 있다. 하나는 ‘출석부 기재가 교사들마다 틀려서는 안되니 기재를 통일되도록 할 것’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1학년은 아무래도 국민학교의 버릇이 남아 있으니 자율 학습의 지도가 요망되는데 그러한 지도는 학년별로 통일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중학교 신규 교사의 일기에서)

“환경미화라는 것은 각 반마다 비슷비슷했는데, 정해진 란(게시판, 학습란, 작품란, 발전란)에 붙여진 내용은 거의 다 똑같은 정도였다. 정해진 란 이외에는 만들지 말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던 탓인지 별다르게 시도한 흔적이 보이는 반

은 없는 것 같았다. 반마다의 특성을 살리려고 애쓴 흔적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총략) 그러한 창의성도 정해진 틀이 완고할 때는 제대로 기를 못퍼는 모양이다. 교실마다 어찌면 그렇게도 똑같은 모습인지 그야말로 환경미화라는 것은 학교의 획일성의 전형이다.” (중학교 신규 교사의 일기에서)

새로 발령 받은지 한 달도 안되는 교사가 이와 같은 관찰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학교에서는 통일과 획일성이 학생들은 물론 교사들에게도 강요되고 있다. 심지어는 교직원회의의 운영방식조차도 통일되어 있어서, 정해진 사람 (교장, 교감과 주임 교사들) 만이 정해진 순서대로 발언 (전달사항 및 훈화) 을 할 뿐이다.

외국학교의 경우 수업내용, 진도, 교실구조, 교실 환경미화 방법 등 어떤 영역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획일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서구학교의 경우에는 교실환경이나, 수업방법이 유사한 학급은 두 학급도 찾기 어렵다. (외국학교의 참여관찰 결과는 이용숙 등, 1986; 이용숙 등, 1990; 이용숙, 1992; 신세호 등, 1991 참조). 획일성을 강조하기로 유명한 일본의 학교도, 우리나라에 비하면 획일적인 정도가 훨씬 떨어진다. (필자는 일본 국민학교 2개교와 국내 일본인 학교 1개교에서의 참여관찰 기회를 가진 바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학교의 철저한 획일성 속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은 자신도 모르게 획일주의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게 된다. 획일적인 주위 환경과 학생들의 능력이나 취향의 차이가 무시되고 선택의 여지가 주어지는 일이 거의 없는 생활 속에서 학생들의 개성이나 창의성, 또는 자기와는 다른 생각을 가졌거나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은 상실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권위주의와 위계질서에 대한 순종

‘위계성’은 ‘획일성’의 뿌리인 동시에 또 다른 얼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획일성과 관련이 깊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학교에 나타나는 획일성은 중앙집권적인 위계성에 의해서 유지되며, 또한 다양성을 허용하게 되면 현재

와 같이 강한 위계가 유지되기 어렵다.

외국학교에서도 위계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로 잠재적 교육과정의 개념을 도입한 잭슨(Jackson, 1968)의 「아동의 교실생활」에서는 미국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인생의 3가지 일(잠재적 교육과정) 중 하나로 ‘권력’(power)⁶⁾을 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학교에서의 위계 관계는 그 강도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위계의 고리가 유난히 길다는 점에서도 다른 나라의 추종을 불허한다. 「교육부－교육청－교장－교감－교무주임/연구주임/학생주임교사－일반주임교사－경력교사(평교사)－신임교사(평평교사)－반장－부반장－조장－분단장－부장－일반학생」으로 이루어지는 긴 위계의 고리 속에서,⁷⁾ 신임 교사나 신입생은 ‘순종과 인내가 편하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배워나가게 된다.

교직원들 간의 위계관계는 공적인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일상 생활에 있어서도 계속 강조된다. 특히 “교장과 교감은 교사들에게 있어 보다 높은 직위에 있는 상관으로서 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공동체’인 교사 집단의 ‘어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어른’에 대한 올바른 예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져 ‘어른’인 관리자들은 위사람으로서의 권한과 권위를 누리고 교사들에게는 손아랫사람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가 강조된다. (같은 교사집단 내에서도) 남 교사집단은 여교사집단에 대해, 주임교사집단은 평교사집단에 대해, 기혼여교사 집단은 미혼여교사 집단에 대해, 그리고 담임교사 집단은 비담임교사 집단에 대해 보다 주도적인 영역에서 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점함으로써 상대적인 ‘어른’의 지위에 있게 된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점하는 하위 집단의 교사들은 그들의 ‘어른’으로서의 지위에 바탕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의 하위집단의 교사들에 대한 사회화 작업을 담당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위세를 드러낼 뿐 아니라 하나의 체계로서의 학교가 유지되도록 한다.”(정향진, 1992 :

6) 권력 이외에는 ‘군중’(crowds)과 ‘상찬’(praise)을 들었다.

7)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각 부서별 주임 교사 밑에 다시 기적 교사가 있으며, 또한 평교사들간에서도 담임교사와 비담임교사간의 위계가 뚜렷하다(정향진, 1992 ; 이인호, 1990)

63~64)

다시 말해서, 신임 교사들은 스스로의 경험과 ‘어른’의 지위에 있는 선배교사들로부터 듣는 이야기(충고, 훈계, 다른 교사들에 대한 험담, 농담 등)를 통해서 이런 위계관계를 배워 나간다.

“교감과 가장 가까이 마주 보는 자리는 ‘귀머거리 3년, 병어리 3년’의 자리라고들 한다. 급기야는 ‘반신불수’의 자리라는 농담까지 돌렸다. 교감 하(下)의 교사직은 ‘충충 시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하기는 신규교사를 ‘새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중학교 신임교사)

“같은 부서의 주임이 내게 잠시 이것 좀 해 달라고 일을 주는데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자기 교과와 지도안을 쓰는 일이었다. 다른 사람의 지도안을 베끼는 것이었는데 나더러 잠시 좀 해 달란다. 나는 무척 기분이 나빴지만 할 수 없었다.”(중학교 신임교사)

같은 교사들 사이에서 이처럼 상하관계가 나타나듯이, 같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상하관계는 뚜렷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반장, 부반장 또는 각 부장들은 학생들을 조용히 시키고 공부시키며, 정렬시키는 책임과 권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자습지도, 숙제검사, 출석검사 등 교사 업무의 일부를 수행한다. 따라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교사와 학생 사이의 매개자’, 또는 ‘준교사’의 지위를 갖게 되고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학습하게 되는 반면, 일반 학생들은 이들의 ‘지도’와 ‘지시’에 순종하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영어부장을 겸하고 있는 반장이 아침 자습시간을 이용하여, 칠판 가득히 중요한 영어 문법을 판서해 주고 하나 하나 설명까지 해 주는 것이 관찰되었는데, 이 학생의 설명 능력은 정규 영어 교사에 비해서 크게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전과목에 대해서 과목부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이 학교의 한 교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과목부장들 중에는 능력있는 애들이 많아요. 시험 때가 되면 애들이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심지어는 예상문제를 만들어서 복사해 가지고 예비시험까지 보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제가 미리 내놓은 진짜 시험문제와 똑같은 게 너무 많아서 당황할 때도 있어요.”

우리 나라의 교사와 학생들이 이처럼 강한 위계관계의 고리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결정권의 상부독점을 의미한다. 즉 대다수의 교사들과 학생들은 능력 발휘의 기회나 필요가 별로 없는 삶을 살게 되며, 이런 풍토 속에서는 개혁을 위한 노력이나 시키지 않는 일을 하는 창의성보다는 창의적이지는 않더라도 시키는 일만 잘 하는 것이 환영받는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3) 형식주의와 결과우선주의

위계성이 획일성의 뿌리라면 우리나라 중등학교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형식주의와 결과우선주의는 획일성과 위계성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교장이나 교사들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결정권을 갖지 못하고, ‘잠음방지’와 겉으로 드러나는 ‘공평성’을 기치로 내세우는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획일적인 교육과정과 학교운영 지침을 따라야 하며, 마찬가지로 교내에서는 교사들이 교장 교감의 학교운영 지침을 따라야 하고, 학생들은 교사와 임원학생들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학교에 형식주의와 결과우선주의가 번성하게 만든다.

우리나라의 중등학교는 이중체제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일 정도로 공식적인 것과 실체가 다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시간표와 실제 시간표가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학부모들은 육성회, 새마을어머니회 등의 공식적인 학부모회비 이외에 찬조금을 내지 않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학교와 교사에 대한 비공식적인 ‘재정적 후원’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은(이인호, 1990)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학급회이나 특별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책정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인문계 고등학교와 많은 중학교에서는 한 달에 한두 번 이하만 실제로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교행사를 가능한 한 학과 수업 시간을 피해

서 특별활동 시간에 하는 데에다, 교사 임의로 이 시간에 자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급일지에는 꼬박꼬박 학급회의나 특별활동이 시행된 것으로 기록된다.

모든 교사가 학생들의 입학성적, 평균성적, 환경미화 성적 등으로 평가되고, 일정한 액수의 육성회 후원금과 학부모회 회원수를 일률적으로 할당받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주어진 목표 달성이나 교사들간의 경쟁을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가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건 그들이 다른 교사들에게 뒤떨어지지 않고 ‘주어진 목표를 달성했는가’이다.

많은 교사들이 수업지도안을 베껴으로써 형식적으로는 학교의 요구에 순응한다면, 학생들은 숙제를 베껴으로써 교사들의 요구에 순응하는 겉모습을 보여준다. 많은 중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쉬는 시간은 물론 아침 보충수업 자습시간과 일부 수업시간까지도 다른 학생의 숙제를 베끼는 데 사용하고 있다. 숙제는 하루에도 몇 시간씩 걸릴 만큼 많은 데에다가, 숙제를 안하면 점수가 깎이거나 매를 맞는 등의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다수인 학급 상황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숙제 내용을 일일이 검사하거나 수업에 사용하는 일이 드물다는 것은 이러한 ‘형식적인 숙제하기’의 관행이 가능하게 만든다. 교사들도 학생들이 숙제를 베끼는 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로 인해서 걱정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숙제 내주는 방식이나 숙제검사 방식을 바꾸는 경우는 드물다.

이처럼 실제 내용과는 상관없이 형식상으로만 ‘한 것’으로 보이면 별 문제가 안 생기고, 반면에 불필요한 일이라고 해도 형식적으로나마 ‘한 것’으로 되어있지 않을 때에는 벌을 받게 되는 일은 학교 생활의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실제 생활에서는 협동보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말로는(특히 시험답안에는) 협동을 중시해야 하며, 실제 생활에서는 절약(예: 여러 과목이나 여러 학년의 필기 내용을 하나의 공책에 쓰기)이 불가능하거나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말로만 절약을 중시한다는 것을 대부분의 학생이 일찌감치 깨닫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학교생활을 했는가 보다는 시험성적 등 눈에 보이는 결과에 의해서 평가받는다는 것도 학교생활 속에서 반복해서 학습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처럼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일상 생활을 통해서 ‘실제와 보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고 ‘실제와는 상관없이 형식적으로나마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만 벌을 받지 않으며’, ‘과정 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재 기성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인 상급자가 볼 때에만 일하는 척 하거나 남들에게 실제 이상으로 바쁜 척 하는 현상, 그리고 어떤 일의 내용 보다는 얼마나 형식에 맞추어 깨끗하게 기간 내에 제출했는가 중시되는 현상의 만연은 바로 이러한 학교에서의 ‘형식주의와 이중성의 일상화’ 경험의 결과는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4) 폭력에의 순응

중등학교에서의 체벌의 일상화 현상은 교사와 학생간의 위계관계의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교사들은 자기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교사(특히 신입교사)에 대해서 자신들의 행동의 타당성에 대한 설득과 자기들과는 다른 행동을 배척하는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경향, 즉 획일화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획일성 또한 체벌의 일상화에 기여하게 된다.

학생 체벌이 허용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논란이 있어왔고, 지나치게 심한 체벌로 인한 교사와 학부모간의 법정 투쟁이 기사화되기도 한다. 또한 국민학교에서도 많은 교사들이 체벌을 사용한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여학교에서도 남학교처럼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 약한 정도의 체벌은 일반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등학교에서의 체벌이 얼마나 심하며, 왜 그러한 심한 체벌이 계속되는지는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 어렵다. 다음은 남자 중학교에서의 심한 체벌에 대해서 한편으로 놀라면서, 그러한 체벌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한 신입교사의 일기 내용 중 일부이다.

〈3월 3일〉

4교시에 입학식 예행연습이 있었다. 예행연습 동안 아이들을 정돈시킨 체육교사는 거의 호통조의 구령으로 일관했다. 연습을 한참 하고있던 중 갑자기 1학년(신입생)이 서 있는 줄 가운데서 “툭” 하는 소리가 났다. 체육교사가 1학년의 어떤 학생의 따귀를 내려친 것이었다.

나중에 이 장면을 나보다 1년 먼저 교사가 된 친구에게 분개조로 이야기했더니 그저 당연하다는 식이다. 아이들은 그렇게 대해야 하며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남자들은 맞아야 된다는 교사들의 믿음은 어디에서 근거하는 것일까? 단지 그러한 방식이 편하기 때문은 아닐지 모르겠다. 아이들 역시 그러한 외적인, 물리적인 통제방식에 길들여져 있어 자기 통제의 능력을 발달시킬 기회가 없는 것인지도, 악순환이다. 말을 듣지 않아서 때리게 되고 그러한 외적인 통제 때문에 자기통제의 능력이 개발되지 못하게 된다면 말이다. 이것이 현실이라면 교사들은 이것이 악순환의 고리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고리의 한쪽은 교사들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이다. 오늘 있었던 입학식 예행연습은 연습의 효과 이외에 그것 자체가 하나의 통과례의 역할을 하는 듯 했다. 그래서 연습이 가져온 잠재적인 효과의 하나는 ‘엄격하고 거칠게 다루어지는 곳’이 중학교라는 것.

〈3월 9일〉

...〈중략〉...

○○○선생은 아이들에게 무척 부드럽게 대해주는 듯이 보인다. 그렇지만 그 교사는 벌써 여러번 내게 아이들을 때려서라도 초반에 길을 잡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1년 내내 피곤하다는 주의를 주었다. 그리고 내 시간에 자기반 아이들을 많이 때려달라고 부탁을 하기까지 했다. 그 선생의 요지는 이 아이들은 선생이 잡아서 시키지 않으면 공부할 하지 않는 아이들이라 때려서라도 공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선생 말이 아주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태도에는 아이들에 대한 일종의 체념 같은 것이 깔려있다. 그러한 태도는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전달이 될 것이다.

...〈중략〉...

오늘 경력이 1년 정도인 여선생이 수업을 마치고 아이들을 2명 교무실로 데리고 왔다. 수업시간에 장난을 쳤던 모양이었다. 이 교사는 서랍에서 매를 꺼내더니 별로 엄하거나 심각한 얼굴도 하지 않은 채 그러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이의 손바닥을 대여섯 차례 때렸다. 내가 아꼈었던 것은 그 교사가 매질을 하였다는 그 사실보다는 오히려 매를 맞고 난 아이의 표정 때문이었다. 그 아이는

교사가 보지 않는 틈을 타서 얼굴에 ‘아주 같잖고 웃긴다’는 식의 표정을 지었던 것. 차라리 그 아이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손을 잡으면서 잘 타일렀더라면 그 아이는 적어도 그런 표정은 짓지 않았을 것이다.

〈3월 23일〉

교사들의 폭력은 정말 문제이다. 오늘도 이 선생과 김 선생이 아이들을 때리고 마구 췄다. 특히 이 선생은 아주 악랄했는데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라 마구 잡이로 뺨을 치고 발길질을 했다. 수업에 들어가려고 교무실을 나서는데 교부실 바로 앞에서 극도로 흥분하여 한 학생(덩치가 큰 걸로 보아 3학년 아니면 2학년일 것이었다)을 치고 차고 있었다. 물론 소리를 질러가면서 말이다. 옆에서 한 남 선생이 말릴 정도였으니.(이하 생략)

위에 제시한 신입교사의 경험이 특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 기회에 확인할 수 있었다. 필자가 관찰한 남자 중학교와 남녀공학 중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수업에 들어갈 때 출석부 교과서와 함께 지휘봉이나 매를 들고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는 칠판을 가리킬 때 쓰려는 것이라기 보다는 교탁을 두드리거나 학생들을 때리기 위한 것이었다. 젊은 여교사들도 대부분 매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그러한 매가 전혀 효과가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한 학급에서는 숙제를 안해 온 남학생들 10여명이 젊은 여교사에게 엉덩이를 매로 한 대씩 맞고 돌아오면서 대부분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많은 학생들은 중학교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몸으로 때우는 것’을 숙제하기보다 더 편하게 느낄 정도로 체벌에 대한 인내심을 키우게 된다. 한편 이로 인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교사에게 맞게 되는 일부 하위권 학생들은, 웬만한 체벌에는 동요하지도 않게 된다. 따라서 그들이 말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교사는 점점 더 심한 체벌을 사용해야 하는 체벌의 악순환이 생긴다.

또한 어쩌다가 체벌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신입교사가 있는 경우 학생들은 그 교사의 시간에 다른 시간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라도 하는 듯 자유분방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웬만큼 단단한 결심을 하지 않은 교사는 일년도 안되어서 다른 교사들처럼 체벌의 필요성을 신봉하게 된다.

이런 상황은 학생들 스스로가 체벌을 하지 않으려는 교사에게 “수업 분위기를 위해서 체벌을 해달라”고 요구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 주변 불량배와 일부 교내 불량학생들의 폭력의 위협 속에서 사는 남학생들은 이렇게 해서 교사들로부터도 폭력의 위협을 받으며 살게 된다. 교사들의 체벌에 익숙해지전(즉 맷집을 기름),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 자기만은 체벌을 피하려 하건, 아니면 스스로 폭력을 휘두르는 비행집단으로 사라진 간에 학생들은 폭력에 순응하게 된다. 이처럼 남학생들이 학교에서 폭력에 익숙해지고, 폭력을 수용하게 된다는 것은 군대에서의 폭력 수용경험과 이어져서, 우리나라 사회 전체를 폭력적인 사회로 만드는 것은 아닐까? 경찰의 폭력, 인신 매매단의 폭력, 갯패 집단의 폭력 이러한 사회문제들의 씨앗은 결국 우리 학교에서의 체벌의 일상화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5) 비교우위주의와 경쟁적 동료관계의 수용

중등학교의 위계성 확실성은 대학입시에 있어서의 치열한 경쟁이라는 현상과 결합하여, 중등학교에서 시험이 일상화되게 만든다. ‘모든 학생이 시험을 자주 보면 볼수록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될 것’이라는 확실적인 교장 교감 또는 학부모들의 믿음은 일사불란한 중등학교 지휘체계를 통해 학교시험 횟수의 경쟁적 증가라는 현상을 발생시킨다.

실업계 고등학교 이외의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은 시험의 홍수 속에서 산다. 우선은 가장 커다란 대학입학 시험의 압박이 계속 존재하며, 정규교사, 모의교사, 배치교사, 도지정교사 등의 공식적인 학교시험도 한 달에 한두번씩은 있다. 이에 더해 학급 평균성적으로 평가받는 교사들의 경쟁으로 인해서, 공식적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각종 예비시험이 담임교사와 각 과목교사, 반장, 부반장, 학습부장 또는 과목부장에 의해서 수시로 치루어진다. 따라서 일부 인문계 고등학교와 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는 거의 매일 시험 또는 예비 시험을 보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우리나라 중등학생들은 이와 같은 각종 시험에 대한 준비와 그 결과에 대해서 교사 및 친구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므로, 거의 매일 그리고 하루에도 몇차례씩 시험에 대해서 듣고 말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

“항상 며칠 후에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허덕허덕 시험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새 몇 달이 지나있어요. 이렇게 시험이 자주 있으니까 만성이 되어서 시험을 봐도 걱정이 안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자주 봐도 걱정을 하게 돼요. 걱정하는 만큼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해서 그렇지요.” (인문계 고등학교 여학생)

중등학교에서 시험의 일상화는 무엇보다도 이처럼 시험이 자주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지만, 실제 시험 때문에만 학생들이 시험의 일상화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중등학교에서 수업관찰을 해 보면 수업 자체가 바로 시험이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교과서 내용 해설’과 함께 중등학교에서의 수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업형태 중 하나는 교사주도의 분답식 수업이다. 즉 교사가 단답형 또는 이분법형 질문을 하면, 전체 학생 또는 지명된 학생이 답을 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이때 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에서”에 대해서 묻거나 아니면, 정답 여부를 묻는 교사의 질문내용은 학생들이 답해야 하는 시험문제와 비슷하다(더 상세한 내용은 신세호 등, 1991, 참조).

“후백제를 세운 인물이 누구예요?”

“후백제를 언제 세웠어요?”

“무신정변 아까 몇 년에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통일 문제는 반드시 출제된다. 통일의 주체는?”

“자유총선거를 실시해서 만들어진 정부는 연방정부인가, 단일정부인가?”

“(소셜 내용에서) 회오리 바람이 결국 뭐를 암시하는 거지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전체 학생이 답을 할 때 실제로 답을 하는 학생들

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주로 상위권 학생들이 답을 할 뿐 나머지는 묵묵히 앉아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중하위권 학생들은 시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상 수업에서도 실패의 경험, 즉 잘난 학생들이 대답하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개별 학생을 지명하여 답을 하도록 할 때에는 수업은 더욱 더 시험과 유사해진다. 국민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답변을 자원하기 때문에 주로 손든 학생중에서 지명하여 답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자원하는 학생도 드물고 손을 들게 할 시간도 없는 중등학교 수업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번호나 이름을 지명하여 발표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답변을 잘못하면 꾸중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 학생 지명방식의 문답은 바로 일종의 ‘1구두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시험 그 자체와 유사한 수업방식으로 시험용의 단편적인 정답들을 끊임없이 제시해 주는 수업을 받으면서 매일 시험을 보거나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 (실업계 고교 이외의) 우리나라 중등학교 학생들, 특히 인문계 고교 학생들이 시험과 경쟁 노이로제에 걸리지 않는다면 이상할 지경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험이란 항상 절대평가로서의 중요성보다는 상대평가로서의 중요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시험이 학생들의 매일매일을 지배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항상 다른 학생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경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신의 점수가 얼마나 높아졌는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학생들의 점수에 비해서 자신의 점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가 문제이다. 또한 자신의 점수가 아무리 낮다고 해도 다른 학생들이 더 낮은 점수를 받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간의 친구관계는 ‘친구가 경쟁자이고 경쟁자가 친구’인 각박하고 소원한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학진학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의 경우 대학에 붙을 때까지 진정한 친구 사귀는 것을 보류한다는 의미에서(정재걸, 1991) ‘유예(문화)적인 친구관계’라고 부를 수도 있

고, “서로 경쟁을 하지만 경쟁의 고풍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김소희, 1991) ‘계약관계적인 친구관계’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이러한 유예적인 친구관계 또는 계약관계적인 친구관계는 반드시 모든 학생집단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한 학생들은 오히려 친구관계에만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기도 한다. 시험 성적이 좋지 않고서는 교사들이나 다른 학생들, 특히 성적이 좋은 학생들로부터 대우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적이 나쁜 학생들은 자기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학교내외의 친구들로부터만 위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김소희, 1991). 학교에서 실패 경험을 공유하는 학생들과의 친구관계에 대한 이러한 지나친 집착은 비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상위권 학생들의 계약관계적인 친구관계 이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6) 논 의

이상에서 우리나라 중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생활 속에서의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는 어떤 문제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획일주의, 권위주의와 위계질서에 대한 순종, 형식주의 및 결과우선주의, 폭력예의 순응, 비교우위주의 및 경쟁적 동료관계의 수용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 보았으나, 이런 문제들은 상당 부분 상호관련되어 있다.

특히 우리 나라 학교의 핵심문화(core culture)라고 할 수 있는 ‘획일성’과 ‘위계성’은 이러한 중등학교에서의 비의도적 학습내용의 원천이자, ‘공식적인 학습내용의 질적 빈약성’ 문제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한편, 학교의 획일성과 위계성은 다시 그 뿌리를 다음과 같은 우리 나라의 역사적 경험과 사회 문화 구조에 두고 있다.

첫째,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사회구성원들간의 위계관계를 강조하는 가부장적인 문화를 갖고 있었으며, 이는 최근까지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각종 조직의 구성원들은 가부장적인 위계관계를 갖는 경향이 있다. 즉

학교의 기관장(교장)은 학교내에서는 ‘가장’의 역할을 갖게 되며, 연봉서열과 직위에 따라 학교안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를 갖게 된다. (우리나라 학교에서의 가부장적인 ‘학교의 어른’으로서의 역할과 서구 학교 교장의 ‘학교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의 비교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필자의 「외국학교에서의 학교장의 역할」 참조.)

둘째, 일제 식민지 시대에 효율적인 식민정책을 위해 극도로 중앙집권적인 관료체제가 성립되었으며, 해방 이후의 비민주적 정치세력의 득세로 인해 강력한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는 최근까지도 유지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 나라의 학교 또한 관료체제적인 성격을 강하게 갖게 되었다. 우선 학교의 ‘상급기관’(교육부, 교육청)에 대한 절대적인 종속관계가 유지되어 왔고, 학교 내에서도 ‘학교는 하나의 행정기구’라는 인식이 교직원들 사이에(특히 교장, 교감, 주임 교사들) 폭넓게 공유되었다. 이러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는 관료체제 내에 있는 관료나 교사들의 독창성을 용납하지 않는 한편, ‘핑계 대기’와 ‘무사안일주의’가 만연하게 만든다.

셋째, 식민지 경험과 6.25 전쟁은 전통적인 신분질서의 와해를 가져왔으므로 우리나라는 안정된 최근세사를 겪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신분상승의 가능성이 훨씬 폭넓게 열린 경험을 하게 되었다. 과거제도와 학문승상의 전통을 가진 우리 나라에서 교육은 자연히 신분상승의 왕도가 되었으며, 이는 인구급증 현상과 결합하여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수요가 우리 나라 경제의 한계로는 수용할 수 없을 만큼 폭발적이 되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 교육(상급학교 진학 가능한 학생 수, 학급임원 자리, 높은 등수, 높은 내신등급, 교사의 관심 등)은 ‘한정된 재화(limited good)’가 되었으며, 이러한 한정된 재화를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해야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문제에 관한 한 다른 사람의 이익은 곧 자신의 (또는 자식의) 손해’라는 강박관념 속에서 살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짚으로 들어나는 비행평성(예: 우열반)은 용납하지 않는 한편, 비공식적으로는 촌지, 과외, 입학 부정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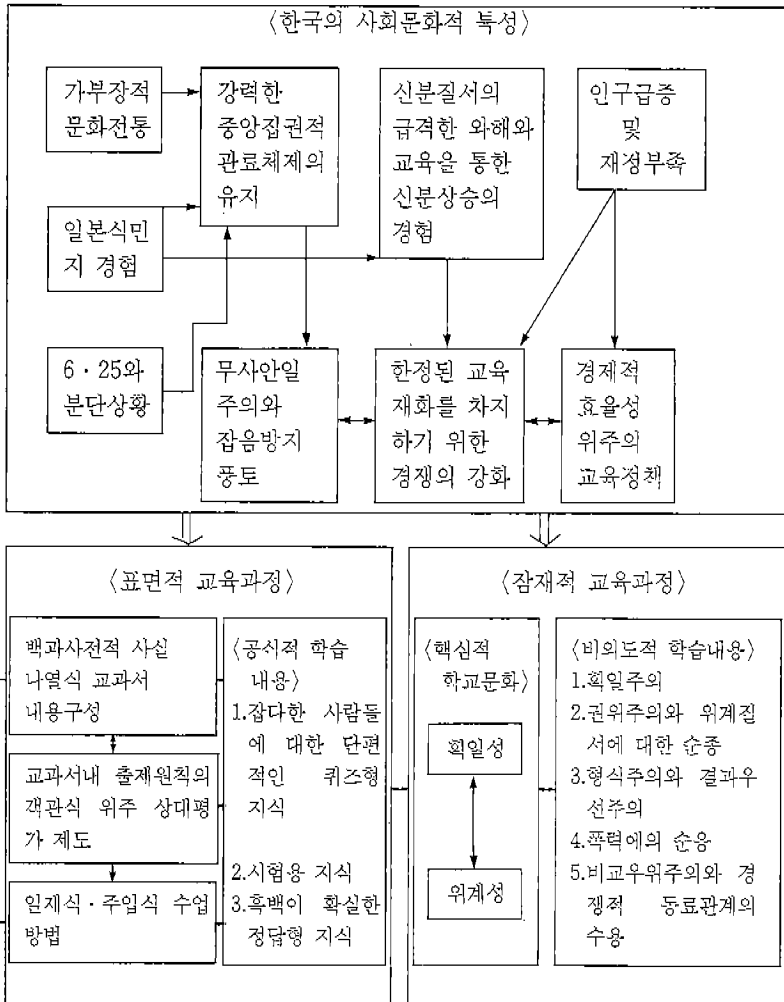
한정된 재화를 차지하려는 경쟁을 하게 되었다. 이는 중앙집권체제에 의한 무사안일주의와 결합하여, 교육적 효율성 보다는 '확실적인 형평성 유지를 통한 잡음의 방지'를 더 중시하는 교육제도 및 교육정책이 유지되게 만들었다.

넷째, 교육수요 급증과 재정의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나라 정부는 교육적 효율성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교육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교육적 효율성보다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한 대표적인 정책은 과대규모 학교의 유지라고 할 수 있다. 1991년도 우리 나라 국민학교의 학교당 평균 학생 수는 762.0명(중학교는 893.6명)으로, 특수한 도시 국가인 싱가포르(1,049.5명)와 홍콩(712.1명)을 제외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은 실정이다. 특히 프랑스, 서독, 이태리, 캐나다 등 서구 여러 나라의 국민학교 평균 학생 수는 89.5명(프랑스)에서 146.1명(캐나다) 정도로 우리나라의 1/5-1/9 정도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훨씬 뒤떨어지는 나라들인 이디오피아, 케냐, 세네갈, 니팔, 방글라데쉬, 페루, 인도네시아 등도 152.2명-363.5명 정도로 우리나라에 비해 절반도 안된다(한국교육개발원, 1991). 인구밀도나 교육환경 등에 있어서 우리 나라와 비교적 유사하다는 일본의 경우에도 학교 규모를 줄이려는 노력이 꾸준히 계속되어 1990년의 국민학교 평균 학생 수는 378.5명, 중학교 평균 학생수는 476.2명에 불과하다. 이는 학교 규모가 줄어들수록 생활지도가 잘 되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학교 규모가 커져서 수십명의 교사들이 한 학교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학교가 관료조직화될 가능성이 커짐을 의미한다.

3.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한국 중등학교에서의 학습내용과 사회 문화적 특성과의 관계

그러나 우리 나라 청소년 문화의 뼈대를 이루는 중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내용과 우리 나라 사회·문화구조와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도식화가 변화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문화구조나 중등학교 문화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항상 변하고 있다. 중등학교에서의 학습내용과 직결되는 변화만 해도 이미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 움직임 및 전교조 활동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학교에서의 교직원들간의 위계성은 눈에 띄게 약해지고 있다(이인호, 1991). 또한 학부모들이 교사의 체벌을 더 이상 무조건 용납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⁸⁾ 중산층 지역의 경우에는 남학교에서도 교사 체벌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외에도 1994년도부터 실시되는 대학입시제도에서의 대학별 본고사 도입과 6차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학교와 학생들의 선택 과목 확대에 의해, 앞으로 학교의 획일성도 약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중등학교에서의 의도적, 비의도적 교육내용을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발전은 앞으로 상당 기간 크게 제약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우리 나라 중등학교 교육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때, 우리나라 발전의 초석이 되어야 할 청소년 문화는 어떤 모습을 갖게 될까?

개별적 경쟁의 지나친 강조와 친구 사별 기회의 상실로 인한 협동심 및 공동체 정신의 부족, 결과만 좋으면 과정에서의 부조리에는 눈을 감는 이중성, 정답지향성과 표현력 및 토론경험 부족으로 인한 흑백논리적인 사고방식과 이로 인한 잦은 의견충돌, 창의성과 생각하는 훈련 부족으로 인한 무소신, 남(특히 높은 사람)에게 밉보이지 않는 것에 집착함으로 인한 무사안일주의와 형식주의의 득세, 각종 폭력에 노출될 것을 불안해 하면서도 남이 당하는 폭력으로부터는 눈을 돌리는 무관심과 체념.

8) 전국 각급 학교 학부모 90여명의 면담결과에 의하면, 학교에 항의를 한 경험이 있는 중 고등학교 학부모의 경우 항의의 원인은 과도한 체벌에 있었던 경우가 가장 많았다(김영하, 1992).

청소년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모순들이 과연 우리의 학교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가 되돌아보고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문 요약

3. 요약 및 결론에 제시된 [그림 1]이 본문 요약에 해당됨.

연구 과제

1. 중등학교의 공식적 학습내용의 질적 빈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내적, 외적 변화가 필요한가?
2. 우리나라 중등학교의 잠재적 교육과정으로는 본문에서 논의된 5가지 이외에 어떤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가?
3. 우리나라와 외국의 학교에서 나타나는 잠재적 교육과정은 어떻게 다른가?
4. 사회 문화의 변화와 교육의 변화는 어떤 관계를 갖는가?

참 고 문 헌

- 김소희 (1991),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생활과 성적의 의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화 (1992), “학교 행정가 및 교사와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교육개발, 제 14권 제1호.
- 김종서 (1987), 잠재적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신세호·박부권·김영화·박현정·이용숙·이인호·정재철 (1991), 한국교육의 종합이해와 미래구상(II), 제 IV 장, “교육내용과 수업방법: 일제식 주입식 수업 실태와 원인”, 한국교육개발원
- 이기연 (1992), 농촌 고교 교육의 사회적 기능—두툼 고등학교 교육에 관한 문화기술적 분석,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숙례·조연순 (1989), “조선조에서 일제시대에 걸친 초등교육의 내용 및 방법 연구”, 초등교육연구 제3집.
- 이용숙 (1986), “문화기술지(ethnography)와 간학문적 공동연구”, 교육개발, 제8권 제3호.
- 이용숙 (1989), “교육인류학의 기본 개념과 전망에 대한 논의”, 새교육, 1989년 10월호.
- 이용숙 (1991), “외국에서의 학교장의 역할”, 사학, 1991년 가을호.
- 이용숙 (1992), “한국 중등학교 문화의 특성”, 한국청소년연구 제3권 제2호.
- 이용숙·김영준·백은순·이근남·조덕주·김소연 (1986), 교수-학습 자료 활용 실태 및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인류학적 국제비교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용숙·정환규·박금화 (1988), 국민학교 수업방법의 개선을 위한 문화기술적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용숙·이재분·소경희·전영미 (1990), 국민학교 교육현상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학교와 가정에서의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이인호 (1990), “인문계 고등학교 교직 문화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 논문
- 이인호 (1991), “학교의 의사결정과 교사”,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현장의 변화와 전망 세미나 보고서, pp. 185~215.
- 정재걸 (1991), “학생들의 삶과 유예 문화”,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현장의 변화와 전망 세미나 보고서, pp. 151~170.
- 정재걸 (1992), “학생들의 일상적 삶의 시간표”, 교육개발, 제14권 제1호, 37-42.
- 정향진 (1992), 교사 집단내 위계성의 재생산 기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 한국교육개발원(1991), 한국의 교육지표.
- Jackson, Philip W. (1968), *Life in Classrooms*,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Lee, Yongsook (1987), *Academic Success of East Asian Americans: An Ethnographic Comparative Study of East Asian American and Anglo American Academic Achievement*,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Monograph 12.

4.

청소년의 성문화

개 관

산업사회에 들어서 가장 큰 변화를 이루어온 영역 중에 하나는 여성이 남성과 나란히 동등한 교육의 기회와 취업의 기회를 누리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남녀의 기질적 차이나 성역할 분담에 대한 생각들을 종교적 신념처럼 지니고 있는 교육자들이 여전히 많다. 또한 무비판적으로 서구의 남녀관계를 소개하는 대중매체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막강하다. 더구나 입시위주의 교육체제 속에서 청소년들은 새로운 형태의 남녀유별적 공간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청소년들은 일관성이 없는 남,여성관을 가지게 되고 또 한편 이성애에 대한 과도한 환상을 길러가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혼란된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열어갈 청소년들이 지금부터 훈련을 해 가야 할 바람직한 남녀평등 문화의 내용과 방식을 소개한다.

주제어

유교적 성별문화, 산업사회적 남녀평등, 남녀유별, 성차, 성역할, 성비, 남녀 공학과 이성교제, 가정과 기술 과목, 고정관념, 남성의 여성화, 여성의 남성화, 양성성, 개성, 민족자존적 전통부활운동과 신보수주의, 유니섹스 문화, 대중문화와 프리섹스, 음란 비디오와 성폭력

* 조혜정, 연세대학교 교수

1. 청소년의 성문화를 분석하는 세가지 차원

요즘 청소년들과 관련하여 자주 듣게 되는 발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요새 아이들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단 말야.” 남녀가 똑같아지는 모습에 몹시 염려스런 표정을 짓는 분들은 대개 나이가 많고 남녀 유별적 의식에 투철한 분들이다. 그들은 청소년들을 기성세대와 구분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런 면에서 청소년들이 성차를 넘어서서 하나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음을 보지 못한다. 블루진이나 자유스러운 옷차림, 자유분방한 걸음걸이, 스스럼없이 웃는 웃음, 누가 있든 없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자기 목소리껏 떠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보수적인 질서에 익숙한 어른들에게는 눈살 찌푸릴 일이다. 그들은 “이런 일을 여자가 하면 특히 감정이 상한다.” “삼강오륜을 어기고 인간관계에 마땅히 있어야 할 기본적 질서를 깨뜨린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확실히 여성다운 남성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유니섹스화한다고 말해 버릴 수 있을까?

또 한편 우리는 요즘 청소년들이 과도하게 연애에 관심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런 면에서 요즘 청소년들은 예전 못지 않게 남녀유별적인 태도가 있다. 예전에는 아예 남녀의 생활공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애교를 부린다거나 ‘여성다운’ 매력을 풍겨서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아볼 노력을 하는 여자들은 드물었다. 여성들만의 세계에서 자기 나름의 특성을 드러내며 살았다. 이런 경우는 남녀유별반과 남녀공학반을 비교해 보아도 그대로 드러나는 차이이다. 남녀유별학교나 유별반의 경우는 각자가 개성을 드러내면 그만이지만 공학반인 경우는 이성에 대해 따로 신경을 쓰게 된다. 남학생들은 ‘남성다운’ 매력을 풍겨보려고 걸음걸이나 외모나 어투에 신경을 쓰게 되고 여학생들 역시 ‘여성다운’ 매력을 풍기려고 애써 수동적이고 다소곳한 태도를 지니려 하게 되는 것이다. 봉건적 유형의 남녀유별문화의 핵심이 안채와 사랑채라는 공간적 구분에 있었다면 현대적 남녀문화는 태도의 차이를 부각하면서 여전히 유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남녀는 정말 어디까지 같고 어디까지 다르며 또 어떻게 길러져야 하는가? 여성들이 공적 영역에 대거 진출하고 있고 남성들이 자녀교육과 가정 일에 많은 관심을 쏟기 시작한 이른바 산업사회적 핵가족화 시대에 들어서서도 성별문화는 따로 있어야 하는 것인가? 지금 청소년들은 성에 따라 어떤 다른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또는 몸담고 있는 문화는 이대로 좋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상당히 많은 글에서 이미 논의되었다. 남녀를 구별하고 차별하기 전에 개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대하는 것, 남녀를 불문하고 스스로 자기 삶을 잘 꾸려갈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을 것, 남녀를 불문하고 각자의 취향과 소질을 살리는 평생일을 갖게 하는 것, 남녀가 서로를 이성으로 인식하기보다 동료로서 서로를 만날 수 있게 하는 것, 이성간의 사랑을 할 때도 서로를 신비화시키기보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알아갈 수 있고, 대화를 통해 건강한 관계의 나무를 키워가게 하는 것, 성관계 역시 전인적 만남의 한 과정으로 맺어가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 남녀 간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의 장이 늘 열려있어야 할 것 등이 그 해답의 골자를 이룬다 (또 하나의 문화 편, 1984).

이 글은 위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보다 그 해답을 알면서도 실천이 되고 있지 않는 우리 교육계를 분석하는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내가 이러한 접근방식을 택한 이유는 현재의 청소년들이 나름대로의 문화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에서 비롯한다. 현재의 청소년들은 학교체제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성별문화와 대중매체와 주위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성문화에 흡수되거나 반응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을 뿐이지 자기 나름대로의 문화불 만들어 갈 공간과 시간이 주어져 있지 못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몸짓을 관찰하여 그들을 이해하기 이전에 그들을 그렇게 반응하게 하는 환경과 조건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 청소년들의 성에 따른 문화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 문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세 가지 영역을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최근에 급격히 일고 있는 신보수주의적 남녀유별론의 대두와 관

련이 있다. 그동안 정신없이 근대화를 추진해온 것에 대한 반성으로 “동양을 다시 찾자”는 민족자존회복운동이 강하게 일고 있는데 이와 연결하여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라는 명제가 대중 속에, 특히 교육자들 사이에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런 언설이 나온 배경과 교육계의 신보수적 여성관은 청소년문화에 적잖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두번째는 가족문화의 부재를 메꾸는 상업주의적 문화환경과 관련이 된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대로 대중매체는 남녀간의 연애와 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 내면서 청소년들의 생각을 이성에 관한 생각으로 몰아가고 있다. 가정중심의 문화는 급격한 변동을 겪으며 사라져 버렸고 현대도시문화 속에 외로움을 타는 청소년들은 이성에 대한 호기심을 부추켜 돈 벌기에 급급한 장사꾼들의 미끼가 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이성에 대한 관심은 이른바 성별문화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세번째 차원은 현행입시체제와 관련이 깊다. 오로지 공부를 잘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으로 되어있는 학교풍토에서 남녀의 자기표현과 관계형성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2절에서 신보수주의의 문제를 다루고 3절에서 대중매체와 입시위주교육체제를 함께 다루고자 한다.

2. 남녀유별을 극대화한 사회에서 극소화한 사회로 가는 과도기에 일고 있는 신보수주의적 언설

여기서는 산업자본주의화와 민족자존, 그리고 전통부활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먼저 봉건적 남녀유별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 근대 초기의 분위기를 상기해 보자. 1922년 1월 8일자 동아일보 사설은 아래와 같이 시작된다.

“甬人의 자매되는 청년여자에게 고하노라. 제군은 규방을 출하여 태양에 面하여 立하라.”

이 논설은 여성들이 그동안 가계를 잇는 아들 낳는 기계나 가정의 노예같은 생활을 해 왔는데,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소유자가 되어 각자의 재능을 각 방

면에서 발휘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논설문은 쓴 식자(남성)는 여성들에게 자신의 “진면목을 철저히 노출하고 진정한 생명을 가진 자유의 인격자가 되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 글의 마지막 구절은 “제군이 完實한 후에 제 2조선이 비로소 완실할 것이니라.”이다. 남녀유별을 극대화한 농경사회에서 그것이 극소화된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는 모습을 잘 그려내 주고 있다 하겠다.

우리가 성별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먼저 이러한 근대 초기의 역사적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할 것을 강요당한 현실과 강력한 제국들이 호시탐탐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을 이용하려는 국제질서 속에서 자주독립을 유지해 가야 하는 현실이 그 당시의 시대상이었다. 조선말기 농경적 봉건체제는 급격히 붕괴하고 자생적 근대화의 기운이 일기 시작했지만 그 기운은 미약했다. 그런 가운데 국민국가체제를 확립한 서양의 자본주의적 팽창세력이 세계 방방곡곡에 손을 뻗기 시작했고 그 막강한 힘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남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이에 강력하고 새로운 근대국가를 형성하는 길이 급박한 과제로 등장하였고, 당시 개화지도자들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국력을 길러 가고자 하였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근대국가의 국민의 범주에는 여성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전에는 ‘소리없이’ 안채에서 살림이나 해온 여자들을 어떻게 나라일에 보탬이 되는 인력이 되게 할 것인지가 당시 엘리트들의 숙제였다는 것이다. 봉건적 관습의 질곡이 초래한 결과는 인재의 부족이었고, 새로운 사회의 근본은 많은 새로운 인재와 숙련된 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한 당시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여성해방을 외친 것이다. “남녀는 일급살이 되면 한 자리에 앉아서는 아니되며 빗을 함께 써서도 아니되고 옷을 한데 걸어서도 아니된다.”는 등의 긴 금지사항은 파기되었다. 당시의 남성 지식인들은 이런 시대적 맥락에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진출을 해서 나라의 산업을 살리고 자녀를 근대적 시민으로 길러내며 남성들과 협력해서 나라의 주권을 되찾고 또 더욱 발전시켜나갈 것을 극히 강조했던 것이다. 이들은 남녀유

별의 문화를 깨뜨리고 남녀가 한데 섞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미래를 꿈꾸었다.

이로부터 한세기가 흐른 지금 남녀는 한데 어우러져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어느 직장에서도 여성들이 끼지 않은 곳이 없고 대학진학율도 남녀의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70년전 선조들의 꿈이 이루어진 것일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여성들은 여전히 임금과 승진상에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고 주요직에 오르려면 많은 남자가 들이는 서너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성에 따른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한껏 발휘해야 한다는 선조들의 명제는 여전히 현실이라기보다는 명제로 남아있다. 여학생들은 여전히 “여자의 본분은 가정에 있다”라는 암시를 주는 교육을 받고 있으며 남학생들 역시 “남자는 모름지기 출세를 해야 한다”는 식의 교육을 받고 있다. 여자에게는 ‘가정’을, 남자에게는 ‘기술’을 가르치는 유별적 관행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서 앞으로 오는 세대는 남녀가 모두 가정인이자 사회인으로 자아실현을 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근대적 명제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언설이 보수적 경향을 부채질하고 있다. “여자아이들이 너무 남성화 되었으니 치마를 입히자.” “여교사들이 많아서 남자아이들이 여성화되고 있다. 남교사를 많이 채용하도록 하자.” “여자가 너무 날쌔다. 동방예의지국으로서의 진면목을 되찾자.”는 언설이 그것이다. 남녀평등의 명제에 거부감을 보이면서 남녀유별에 대한 언설이 새롭게 일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교육계에 강하게 일기 시작한 이러한 ‘남성의 여성화’와 ‘여성의 남성화’에 대한 우려와 이에 따른 신중의 남녀유별관은 우리의 근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격적 근대화가 일본의 통치기에 추진되었고 일제 36년간 남녀문화는 알게 모르게 일본적 유형을 따랐던 것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일제 때 틀을 갖춘 대중교육은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지속되었고 우리 교육계의 보수성은 그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1980년대 들어서면서 교복자율화와 남녀공학 등 약간의 변화가 이는 듯 하였지만 다시 입시위주 교

육이 강화되면서 교육은 경직되고 보수적 성향으로 돌아버렸다. 여성관은 일제시대 이후 줄곧 매우 보수적인 형태로 존속되어 왔으며 최근에 일고 있는 복고주의적 언설은 이를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복고적 언설이 대두된 배경을 잠시 살펴보자.

식민지시대에는 식민지국가의 이등국민으로, 해방후에는 피난민으로, 갖은 고생을 해온 기성세대는 나라를 되찾고 또 경제성장을 어느 정도 이룬 지금 새롭게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곧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자존과 개인으로서의 자부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는 경제가 부흥한 제 3세계 사회에서 어김없이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동안 생존에 급급하여 방치해 두었던 문화적, 심리적 공허함을 메꾸려는 시도로서, 위기상황의 인식이자 전환을 이루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하는데 이 위기상황을 지혜롭게 넘겨야 다음 단계로의 성숙이 가능해진다(조혜정, 1990).

일반적으로 제 3세계의 경험을 살펴보면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은 그동안 외세에 의해 받은 압제에 비례해서 커지며 합리적이기보다 감정적이다. 그리고 대개 그 구체적 방식은 전통을 부활시키려는 노력으로 나타난다. 이슬람계 국가에서 강력하게 종교가 부활하는 것이나 우리 사회에서 유교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고 문중조직이 재활성화되며 부권을 회복하자는 외침이 일어나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이 와중에 전통적 남녀관계로 되돌아 가자는 외침도 일기 시작한 것이며 남녀가 비슷해지는 것에 대한 공포와 우려, 부권의 상실에 대한 위기감이 일반 교육자들 간에 대두된 것도 이와 관련된 현상이다.

이상적인 문화는 자기들의 전통을 잘 살려내는 문화이다. 그런 면에서 전통을 찾기 시작한 지금의 움직임은 매우 소중하다. 우리는 우리가 찾아야 할 전통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심각하게 던져야 한다. 그동안 문화적 단절과 혼돈을 경험한 사회일수록 우리가 찾아야 할 전통이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을 진지하게 풀어야 한다. 상황변화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부족할수록 국수주의적인 민족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 우리가 찾으려는 전통은 과부재

가를 금지하고 여자를 안방에 가두어 두려는 식의 남녀유별적 전통이 아니다. 근본을 새로운 상황에 맞게 살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에 대한 ‘효’가 부계혈통제도를 다시 찾아 시부모께 효도하라는 식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효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게 일차적으로 감사를 표시하고 그런 심성을 바탕으로 현재의 공동체적 사회생활을 이루어 가자는 것이며 동시에 미래세대를 잇는 영속적 공동체성을 살려가자는 철학이다. 유교적 전통부활은 유교의 보다 본질적인 정신을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게 부활 시켜가는 것을 의미하지 신분제사회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남녀유별에 관해서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산업자본주의사회는 자유경쟁과 분업을 그 기본 토대로 한다. 집단적 통제와 변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 농경사회와는 달리 산업사회는 창의력과 개인의 도덕성을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다. 예전에는 농사를 짓거나 글을 읽는 등 신분에 맞는 한가지 일을 잘하면서 인간관계에서 모나지 않으면 되었지만 이제는 남이 못하는 한가지 일을 잘하는 사람이 더 평가를 받고 필요한 사회이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 비슷해서 한마음으로 협력을 해 갔지만(기계적 협동), 이제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재주와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바로 그런 다양함을 토대로 협력해 나가는(유기적 협동) 사회이다. 전통부활은 적어도 이런 사회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원리적 차원을 간과한 감정적 복고주의나 보수주의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형성에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조선시대와 같은 엄격한 남녀유별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은 여전히 이성을 인간이기 이전에 이성으로밖에 볼 수 없고 그런 맥락에서 여자교사를 여자로 보고 장난을 치는 일도 일어나는 것이다. 남녀 간의 개방적 교제와 성관계를 부각시키는 대중문화에 밀접하게 접해 있는 이들 청소년들이 이중성을 띠게 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다. 학생들을 단순히 ‘날라리’와

착실한 학생으로 나누고, 이성교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을 낱라리라고 낙인찍기에는 이 사회는 너무나 성개방적이 되어버렸다. 이런 이중성을 간과한 교사 중에는 학생들에게 노골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대학에 가서 실컷 연애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식의 회유책을 쓰는 이도 있다. 이제 이러한 이중성은 견어버려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지?

성역할이 크게 바뀌고 있고 더욱 그러해야 한다는 면에서도 역시 같은 현상을 보게 된다. 여학생이건 남학생이건 우선 자신들의 적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리고 그 적성을 최대한 살려갈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우리는 원칙적으로 동의할 하고 있다.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우선 자신의 개성을 충분히 살려내는 것,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면 남녀가 모두 자신속에 있는 ‘여성성’과 ‘남성성’을 한껏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현대교육의 하나의 주요 목표인 것이다. 이제는 남자건 여자건 일차적으로 자신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꾸려 갈 수 있어야 하고 이런 생활자립은 사실상 정신적 자립과 민주적 생활양식, 더 나아가 창의성 개발과도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서 ‘양성적’ 인간이 되는 것, 그리고 개성있는 인간이 되는 것은 청소년 성별 문화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최우선 원리의 자리를 차지한다(정진경, 1987).

교과과정과 관련시켜 볼 때 이 원리는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실현되고 있다. 학교에 진학하는데 남녀차별이란 없으며 최근에는 성차별 내용이 아직 잔재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교과서도 개정하였다. 또 ‘가정과목’과 ‘기술과목’의 분리도 시대착오적이라는 점에 동의하여 남녀가 함께 듣거나 선택을 할 수 있게 고쳤다. 교사들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맞추어 채용시에 성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게 되어있고 월급 등에서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실행에서는 여전히 지체현상이 보인다. 남녀공학반도 아니라거나 교실이 모자란다거나 기술교사를 따로 뽑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남학생은 기술, 여학생은 가정을 배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양성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 사실 남학생들에게 가정은 필수여야 하고 여학생들에게 기술은 필

수여야 할지도 모른다. 기본적으로 가정과 기술에 대한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데 가정교육이 그런 것을 편파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봉건적 체제에서 길러진 부족한 자질을 보충하는 것은 바람직한 청소년 성별문화를 이루어가는데 핵심적 과제일 것이다. 그동안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단거나 여자가 너무 날뛰면 안된다는 식의 생각이 가로막아온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장려제’를 쓸 수도 있다. 집단으로 협력하는 능력이 부족한 여성들을 위하여 축구와 같은 놀이를 많이 시킨다거나 남을 보살피는 감수성이 약한 남학생들에게 감정적 능력을 길러주는 식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신보수주의적 풍토를 이런 모든 일들을 실행 차원에서 미루어 버리게 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와 사회간의 괴리, 청소년 자신 내부의 이중성을 더욱 심화시켜 가고 있는 것이다.

3. 극단적 입시체제교육과 상업주의가 부추기는 성문화사이에서 방황하는 청소년

그동안 학생들을 성과 관계없이 자신들의 능력과 개성을 발휘하는 식으로 교육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극단적 경쟁을 바탕으로 한 입시 위주 교육현장은 남녀평등과 개성교육에 있어 파행적 현상을 빚고 있다. 개화기에 여성교육이 처음 실시되고 해방 후 공학교육이 실시되었으며 1970년대 이후 교육자율화와 중고교 공학 교육이 실시됨으로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교육이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듯 하였다. 그러나 대학진학에 목을 매다는 식으로 중등교육이 이루어지면서 학교 당국이건 교사건 학생이건 부모건 오로지 시험성적에만 신경을 쓰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남녀 간의 건전한 상호문화를 만들어가는 작업은 뒤로 미루어져 왔다.

남녀공학의 예를 들어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 남녀공학의 취지는 분명하다. 남녀가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어릴 때부터 함으로써 서로를 사회생활의 동료로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엄격한 남녀유별적 상황에서 자란 사람

일수록 이성을 대하면 어색해져서 제대로 협력관계를 이루지 못한다. 현대사회에서는 성과 관련없이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협력을 해 가야 하는데 그것이 어려운 것이다. 부부관계에서도 남녀유별적 상황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는다. 현대적 부부는 단순히 바깥일과 안에 일을 나누어 하는 역할분담의 면에서만 만족하지는 않는다. 부부관계의 질을 중시하며 서로 경험을 나누고 많은 대화를 하며 자녀들을 서로 협력하여 길러가는 것을 중시한다. 그런 만큼 상대방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머니 외의 이성과는 별 접촉이 없었던 사람일수록 그런 이해를 위한 바탕이 부족하여 여자만 보면 얼굴을 붉히고 성관계를 떠올린다거나 공연한 환상에 젖어 제대로의 만남을 이루어 가지 못한다. 남존여비적 생각을 아직도 가진 경우는 여자를,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리며 자기에게 서비스를 하는 사람 정도로 보는 경향이 남아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갖가지 부적응 증상을 보이게 된다. 남녀공학은 이런 문제점을 줄이고 복잡한 사회관계를 이루어가야 하는 현대사회에서 남녀가 서로 상관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상관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일터에서나 가정에서 진정한 협력자이자 동반자가 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는 기본적인 상호작용의 장인 것이다.

그런데 남녀공학의 이런 원리는 실행되고 있지 못하다. 앞에서 언급한 입시 위주교육에서 성적을 올린다는 면에서 볼 때 역효과를 낸다는 차원에서 반대가 많으며 최근에는 남녀비율이 기울어서 합반을 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사소한 이유를 들어 남녀를 갈라놓고 있다. 그동안 남녀공학을 하던 고등학교들이 다시 남녀각반으로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그 이유는 부모들이 공부에만 전념해야 할 자녀들이 몸치장이나 이성교제에 관심을 쓰는 것이 못마땅해서 남녀각반을 쓰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해 와서라고 한다. ‘입시전쟁’에서 살아남는 것을 지상의 목표로 할 때 인간교육이란 뒷전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런 퇴보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남녀유별의 관행이 낳고 있는 문제는 사실상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남녀가 서로를 잘 알아갈 수 있는 장이 없다는 식으로 처리될

문제가 아닌데 이 근거는 바로 이들이 살고 있는 학교외적 상황에 있다. 아무리 공부에만 전념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상태라 해도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라도 텔레비전을 보고 영화를 본다. 구체적으로 대중매체가 부추기는 연애와 성에 대한 호기심은 공부에만 전념하라는 명령이 강할수록 더 커질 수 있다. 이성간의 애정관계가 대중매체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남녀 간의 연애와 성관계가 온통 청소년들의 마음을 들쭉거리게 하는 문화적 상황에서—MBC의 ‘사랑이 뭐길래’와 ‘질투’는 국민학생들까지 법석을 하며 본 프로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즐겨보는 ‘드래곤 볼’과 같은 일본수입만화에 나오는 성에 관한 이야기는 중학생들을 이미 성에 도사가 된 것처럼 스스로를 느끼게 한다.—남녀는 전통적인 남녀유별이 아니라 현대적인 남녀유별 문화에 급격하게 동화되고 있는 것이다.

남자는 여자의 일생을 책임지는 능력있고 책임감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여자는 그런 능력있는 남성을 사로잡을 ‘귀여운 여자’로서의 매력을 지녀야 한다는 새로운 고정적 남,여성상이 대중매체를 통해 청소년들의 뇌리에 박히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남녀는 상상 속에서건 실제로건 자기의 짝을 찾아 많은 시간과 정력을 쏟는다. 얼마 전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과 이런 문제로 면접을 한 일이 있다. 그 면접에서 알아낸 것은 입시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경우 입시스트레스가 클수록 이성에 대한 공상으로 그 스트레스를 푼다고 했고, 이런 심리를 알아챈 교사들도 “조금만 참아라, 대학만 들어가면 여자들이 막 따라 다닐 것이고 너희들이 원하는 연애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며 그런 감정을 부추긴다고 했다. 한편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돌린 적이 있는데 질문 중에 이런 것이 있었다. “당장 돈이 20만원이 생긴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놀랍게도 많은 남학생들이 여자친구와 돈다든가 포르노를 본다든가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의 답을 하였다. “10년 후에 자신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장래 직업을 적은 학생들이 못지 않게 많은 여학생들은 “멋진 왕자님 만나 작은 신혼방에서 오붓하게 사랑을 꽃피우겠죠.” 라든가 “예쁜 모습으로 화장도 하고 짧은 치마에 긴머리를

나폴 거리며 멋진 사랑을 하고 있을 것 같다.” “어느 회사에서 사장, 상무, 과장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한 여자 김대리가 되어 있을 거다.”라는 이성으로서 사랑받는 미래에 대한 답을 한 경우가 많았다. 대중적인 여성지가 광고해 온 “성공하는 남편, 사랑받는 아내”의 상이 뿌리를 단단히 내린 모습이다.

청소년들은 자기를 이해해 주기보다 욕박지를 준비 태세를 하고 있는 어른들의 세상이 싫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대상을 에타게 찾고 있는 것이며 마침 대중매체에서는 그러한 이상적인 인물을 줄기차게 그려내 주고 있다. 같은 또래의 연인들, 반말을 스스럼 없이 하고 잘못을 포용해 주며 함께 잘못을 저지르면서 낱낱대는 관계가 몹시 마음에 든다. 현재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억압적 관계와는 판이한, 권위주의와는 거리가 먼, 특히 자기 부모가 보여주고 있는 부부관계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형태의 관계에 이들은 자꾸만 끌리는 것이다. 자유롭고 말이 통하고 서로만을 사랑해 주는 관계, 그러면서 야릇한 이끌림을 분위기로 깔고 있는 새로운 ‘공주’와 ‘왕자’ 이야기가 이들을 심하게 유혹하고 있다.

이렇게 성관계에 집착하고 연애에 빠져서 다른 많은 의미있는 관계를 무시해 버리는 문제는 현대사회를 괴패하고 피상적 사회로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또하나의 문화, 1991a ; 1991b). 이성 간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외 많은 중요하고 의미있는 관계들이 있다. 부모와의 관계가 그렇고 친구와의 관계가 그렇고 동료와의 관계가 그렇고 또 공동체적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입시와 천박한 대중문화 산업의 사이에서 부유하고 있는 현재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삶이 삭막하다고 느끼는 만큼 이성관계에 집착하게 되고 감각적이고 일시적인 관계에 매혹당하고 있다. 특히 가족문화가 없는 경우일수록 청소년들은 또래문화에 집착하게 되고 이성애에 지대한 가치를 부여하거나 성에 집착하게 된다.

낭만적 사랑과 성에 관련하여 남녀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남학생들은 성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는 반면—잘못된 지식이지만 알고 있다.—여학생들은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는 경향이 강하다. 서로간에 생각을 나누는 장이 없

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이성교제는 자칫하면 남자가 유도하는 대로 가기 쉽고 성적으로 빠지기 쉽다. 성적 경험을 반강제적으로 하게 된 여학생들은 자포자기하여 스스로를 ‘날라리’로 간주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날라리’로 낙인 찍힌 집단이 갖는 한 특성 내지 특권은 이성교제를 스스로 함없이 한다는 점을 드는데, 이런 면에서 청소년들이 갖는 이성교제에 대한 생각은 또 한번 굴전의 과정을 거쳐 왜곡된 개념을 만들어간다.

이런 문제의 해결책은 우선 남녀 간에 만남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는 데서 찾아진다. 남녀공학을 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우선 남녀가 자연스럽게 만나서 함께 많은 활동을 벌여 가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흑인과 백인이 한 교실에서 공부하면서 부딪혀 보고 그 결과 서로가 다른 것 보다는 같은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체험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듯이 남녀관계도 마찬가지로 밀접하고 다양한 상호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언어될 수 있는 ‘상식’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 이성교제를 남녀의 친구관계와 뚜렷이 구별하여 이상화하거나 신비화하는 식의 인식을 바꾸어갈 필요가 있다.

남녀공학의 중요성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질 경우 역효과를 낼지도 모른다는 또 다른 우려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는 성역할 내지 태도 교육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문제이다. 남녀공학에 관한 인터뷰에서 한 교사는 반대의 의견을 표하면서 그 이유를 여성들의 지나친 여성화에서 찾았다. 그에 의하면 자신있고 남과 협력해 가는 인간이 되기보다 여성으로 자신을 규정하는 풍토가 강한 상황에서 남녀공학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여학생들을 주눅들게 하고 남학생들 또한 획일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남녀공학의 여학생들은 능력을 기르기보다 일찍부터 남학생 눈에 들기 위해 온순해지고 눈치를 보고 발표도 하지 않는 경향이 보인다고 하며, 남학생들 역시 남학생들만 있을 때는 섬세한 모습도 스스로 함없이 드러내었는데 여자들 앞이라는 의식이 있어서

그런 모습을 애써 숨기려 한다는 것이다. 서로를 인간으로 만나기 보다 이성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면 남녀공학의 장점은 별로 살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교사의 말대로 지금과 같은 교육체제에서는 남녀공학을 하려면 보다 많은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아무런 준비 없이 남녀공학을 했을 때 나타날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나 교사는 이제 남녀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고정적인 성역할 개념에 매이지 않으며 동시에 바람직한 이성교제와 성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4. 실천적 제안 : 호흡을 같이 하면서 함께 새로운 성문화를 만들어가기

남녀관계나 성역할에 관한 한 사회는 엄청나게 변한 것이 사실이고 우리는 우선 이 점을 인정해야 한다. 봉건적 관념에 젖어온 기성세대는 우선 자라는 세대, 남녀가 함께 학교를 다녔고 물질적 빈곤보다 문화적 빈곤의 외로움에 익숙하며 시각매체를 보면서 자라온 세대와 엄청나게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나 급격하게 사회가 변화해 왔으며 따라서 세대간의 이해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이런 상태에서는 성급하게 서로를 이해하려고 한다거나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먼저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예를 들어 그들에게 자신들이 읽은 책을 추천한다거나 자신들이 겪은 가난에 대해서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그들이 지금 읽고 있는 만화책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지며 그들이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놓고 함께 토론을 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역사적 전방에서 자신을 성찰해보고 우리가 선 자리와 앞으로 향해 갈 자리를 알아가기 위해 보다 열린 시각과 양성적

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생리적 굶주림은 없으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다양한 경험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텔레비전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 교육에 관심을 가진 이들은 현대인의 심리, 현대사회와 부부관계, 연애결혼과 성문제 등에 대해 좀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제상황에서는 특별활동 등을 통해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 이루어내야 할 구체적 목표를 가지고 자신들의 능력을 한껏 발휘해 볼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만남을 자연스러운 성교육과도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남녀상호문화는 우선 스스로 없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이성 간의 성적 매력은 그러한 포괄적 상호작용에서 아주 작은 일 부분에 지나지 않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지금은 청소년들이 성개방 풍조에 정신이 팔려 있는 상황이다. 봉건적인 성의식은 변화되어야 하지만 그 대안이 곧 전면적 성개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성개방이 현대인의 유일한 쾌락의 원천인 것처럼 인식되어서는 안 되며 또 쾌락의 차원에서만 인지되어서도 안 되는 것인데 성에 대한 언설의 이중구조와 상업주의는 이러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는 데 부채질을 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직접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바람직한 형태의 남녀공학문화를 만들어 남녀가 다양한 만남을 통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성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 학부모가 협력하여 아이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지금 아이들은 공부만 하라고 들볶아대는 부모의 압력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도 이성애에 급급한다. 도저히 자신들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로 연애에 대한 환상을 키워가며 어른들이 퇴폐풍조라고 비난하는 디스코장에 가고 노래방에 가며 마약을 취하고 또 성에 탐닉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의미있는 관계가 주어져야 하며 가정내 화목이라든가 ‘부권의 회복’ 문제도 이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부권의 회복은 아버지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돈만 벌어 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실제의 의미있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도범을 보이고 사랑을 주며 의미있는 경험을 나눔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부모나 교육자는—대부분의 교육자는 동시에 부모이기도 하다—고정관념에 대한 자기성찰 작업을 먼저 진지하게 해 가야 할 것이다. 때로는 잘 한다는 것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 구세대적 감성으로 일일이 편여를 하기보다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바라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앞서가는 교사들이 알아두어야 할 이 시대의 상식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근본적으로는 입시위주의 교육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은 풀리기 어렵다. 이 체제 아래서는 절대로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인간이 인간을 인간으로 만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입시위주의 교육 체제를 장기적 전방에서 풀어 가면서 이와 복잡하게 얽혀있는 고리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교육문제는 여러가지로 얽혀있고 복잡한 만큼 자포자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런 만큼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을 열심히, 그리고 착실하게, 여러 차원을 뚫어보면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본문요약

이 글에서는 성에 관련된 청소년문화를 세 차원의 현상과 연결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산업사회에 들어서서 남녀평등적 원리가 주창된 근대사와 최근 신보수주의적인 남녀유별문화가 대두되는 현상을 연결시켜서 청소년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기성세대의 성문화를 알아보았다. 청소년들의 성문화의 내용중에는 이러한 기성세대에 순응하는, 아니면 적어도 순응하는 척 하는 부분이 다분히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순응 문화는 청소년문화의 분열, 내지 이중성을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다.

두번째로 청소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중매체를 가정문화의

부계상황과 연결시켜 살펴보았다. 의미있는 관계가 적어지고 외로움이 커지는 산업사회적 핵가족상황에서 청소년들이 또래와의 이성관계에 집착하는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세번째 상황, 곧 입시를 위해 공부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봉건적 성역할관념에서 벗어났지만 다른 한편 급격하게 '성공하는 남편, 사랑받는 아내'라는 근대적 남, 여성상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남녀유별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여학생들은 '귀여운 여인'이 되기 위한 수동성에 스스로를 길들이며 남학생들은 한 귀여운 여자를 차지할 갖가지 방법들을 익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의 성문화는 봉건적 남녀유별문화에서 현대적 남녀유별문화로 급격하게 바뀌어 가고 있으며 근대 초기 개화기 지식인들이 꿈꾸어 왔던 남녀의 개성이 살려지고 국력을 쌓아가는 방향과는 상당히 빗나가고 있다. 지금은 건전한 청소년 성문화를 위한 작업들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시기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성세대의 성문화에 대한 자체검점이 필요하며 동시에 엄청난 세대차를 보이는 청소년들과 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원칙만을 정할 것이 아니라 실행 차원에서 보다 많은 연구와 실천을 해야 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상적인 남녀공학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작업과 가정과 기술 과목을 남녀 모두가 듣게 하는 것, 특별활동 등을 통해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이 직접 부딪치면서 함께 일을 해 가는 기회를 갖게 하는 일들을 추진할 수 있다. 보다 양성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을 길러가는 일과 남녀가 자연스럽게 만나고 협력해갈 수 있는 관계의 바탕을 깔아가는 일은 우선 청소년들의 만남의 장이 많이 만들어져야만 가능하며 동시에 입시위주의 교육체제를 바꾸어가야만 크게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과제

1. 지금 청소년들이 즐겨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라디오 방송을 함께 보거나 들으면서 그들이 왜 그것을 즐겨 보는지 토론을 통해서 알아본다.

2. 사랑이나 성관계에 관해 남녀가 가진 정보의 차이는 매우 크다. 그러한 현상을 알아보고 이유를 생각해 본다.
3.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날라리’로 분류되는 학생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보고 그렇게 구분하는지 그 기준을 알아보고 이런 분류가 바람직한 청소년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어떤 효과를 내는지 분석해 본다.
4. 교사나 교장 등 기성세대가 가진 성문화는 어떤 특성을 지니는가? 같은 세대 내에서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자기또래의 성문화에 대해 연구해 본다.
5. 자신이 가진 이성관계에 대한 생각이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정관념적인 것은 아닌지? 또는 그냥 대중매체에서 하는 주장을 별 생각없이 받아들이고는 자신을 ‘현대적’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않은지? 친한 동료들과 여성학 관련 비디오를 보면서 생각을 나누고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가진다.

참고문헌

- 또 하나의 문화(1984), 평등한 부모 자유로운 아이, 평민사.
- 또 하나의 문화 (1991a), 새로 쓰는 사랑이야기,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 또 하나의 문화 (1991b), 새로 쓰는 성이야기,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 정진경 (1987), “성역할연구의 양성적 시각”, 한국여성학 3집.
- 조혜정 (1990), “유교적 전통부활운동과 사회변동”, 연세사회학 10, 11 합본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5.

사회집단과 청소년문화

개 관

청소년문화에 대한 관심은 학자들에 의해서보다 대중매체 종사자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청소년문화는 성인문화 또는 기성문화와의 차별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의 외모와 옷차림, 취미 생활과 기호식품 등은 성인의 그것들과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여기서는 문화의 세대 간의 차이점을 강조하여, 생활양식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인 사회계층의 중요성을 경시한 기존 연구를 반성하면서, 청소년문화의 계급성을 논의한다.

먼저 청소년문화의 다양성을 전제하고 청소년문화의 무계급성과 계급성에 대한 학자들의 시각을 소개한 후 한국 청소년문화에서 계급성의 측면을 논의한다.

주제어

청소년문화, 중등학교문화, 사회계층, 사회집단, 인구집단, 학교문화, 학급문화, 수업문화, 동아리문화, 계급재생산, 직업문화, 여가문화

* 이용교, 한국청소년연구원 주임연구원

1. 청소년문화의 대두와 다양성

1) 청소년문화의 대두

최근 청소년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은 ‘뉴키즈 충격’과 무관하지 않다. 1992년 2월 17일 밤에 일어난 ‘뉴키즈 온더 블럭’의 공연 소동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한동안 뉴키즈 충격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사건을 보는 관점이 초기와 ‘청소년문제’에서 ‘청소년문화’로 바뀐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실 어른들은 이 땅에는 청소년문화가 없다고 보거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보아 왔다. 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자녀가 있을 법한 40대의 4명 중 3명이 청소년문화는 없거나 존재 여부를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10대 청소년 5명 중 2명이 ‘청소년문화’는 있다라고 한 의견과 대조된다(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8 : 449). 다시 말해서 청소년들은 청소년문화가 있다고 주장하고 부모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럼 청소년문화는 무엇인가? 문화는 한 집단의 생활양식을 뜻하므로 청소년문화는 ‘청소년들의 생활양식’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청소년문화라는 용어에는 청소년과 다른 세대의 생활양식에 다른 점이 있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실제로 성인문화 혹은 어른문화와 청소년문화의 차별성에 대한 논의는 해묵은 이야기거리이다.

우리의 관심은 청소년문화의 존재여부가 아니라, 청소년문화는 동질문화인가 아니면 이질문화인가의 여부이다. 지금까지 청소년문화에 대한 논의를 보면 청소년문화가 성인문화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청소년문화를 단일한 문화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과연 그러한가?

청소년문화가 동질문화라는 관점은 청소년들의 생활양식이 대체로 매우 유사하다는 시각이다. 청소년들이 즐기는 음악과 취미생활, 좋아하는 연예인과

웃,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는 어른들의 그것과 일정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관점은 일견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과연 단일한 집단인가? 청소년육성법이나 청소년기본법에 서 말하는 청소년의 연령범위(9세에서 24세)가 너무 넓기 때문에, 청소년의 연령범위를 사회통념에 따라서 턴에이저(13세에서 19세)나 중고등학생연령층(12세에서 17세)으로 좁혀서 볼 때에도 청소년을 단일한 집단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

2) 청소년문화의 다양성

이용숙은 ‘한국중등학교문화’를 기준에 따라서 나뉘는 여러가지 하위문화로 나눌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학교단계를 기준으로 ‘중학교문화/고등학교문화’의 구분이 가능하고, 학생의 성별을 기준으로 ‘남학교문화/여학교문화/남녀공학학교문화’의 구분이 가능하며, 학교단계와 성별을 동시에 고려하면 ‘남자중학교문화/……/남녀공학고등학교문화’ 등의 6개의 하위문화로 구분할 수도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이용숙, 1992 : 16).

이러한 분류는 ‘한국청소년문화’를 이해하는 데도 매우 유익할 것이다. 그런데 소수이지만 학생이 아닌 청소년이 있고, 학생의 경우도 소속학교나 성별 이외에도 가족의 사회계층이나 사회계급, 그리고 거주지역에 의해서도 청소년들의 문화는 매우 상이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문화가 동질일 것이라는 관점은 설 땅이 좁아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문화가 단일한 문화인 것처럼 인식된 데에는 ‘청소년문화’란 낱말이 생긴 역사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2. 청소년문화와 사회계급

1) 청소년문화를 보는 시각

청소년과 청소년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다분히 역사적이고 유행적인 성격이 강하다.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체계적이기보다는 유행처럼 번덕스러웠고, 청소년문화에 대한 관심은 학자들보다는 대중매체 종사자에 의해서 크게

나타났다.

청소년과 청소년문화에 대한 주된 관점은 청소년은 성인과 전혀 다른 집단이기 때문에 성인을 보는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사회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회계급’(social class)이란 낱말을 사용해 왔는데, 청소년은 이전 세대와는 달리 풍요한 사회에서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성인과는 다른 ‘인구집단’으로 보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지극히 미국적인 시각을 반영한 것인데,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미국학자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므로 청소년문화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청소년에 대한 초기의 연구는 주로 심리학자나 교육학자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이들은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심리를 이해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것인지에 관심이 있었다.

청소년에 대한 사회학자의 관심은 1920년대 후반 Margaret Mead가 ‘사모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청소년의 삶은 해당사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촉발되었다.

미국사회학회는 1934년 봄에 청소년사회학의 연구과제를 논의하였는데, E. B. Reuter는 기초강연에서 앞으로의 연구과제는 “청소년은 성인들의 세계와 얼마나 떨어진 세계에서 사는지” 그리고 “청소년들은 스스로 성인집단과는 다른 ‘우리집단’에 속한다고 얼마나 느끼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Talcott Parsons는 청소년의 생활양식은 성인들의 생활양식과 뚜렷이 구분된다고 보고 이를 ‘청소년문화’라고 했다. 즉 성인들은 생산적인 노동 관습에 순응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데 반하여, 청소년들은 소비에 열중하고 쾌락 추구적이며 무책임한데 이를 ‘청소년문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Parsons의 시각은 후세 학자에 의해서 다소 수정되거나 세련되었으나, 미

국 주류 사회학은 그의 시각을 중요한 준거틀로 수용해 왔다. 특히 제2차세계 대전후 미국과 소련을 양블록으로 하는 체제경쟁하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청소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세대로 미화되고, 그들의 삶에 ‘계급’과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금기시되었다.

2) 청소년문화의 무계급성

Hollingshead의 경우 이미 1941년에 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사회적 행위(계급 상황)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연구하여, 한 청소년의 계급지위는 그 청소년의 사회적 행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식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발표는 냉전상황하에서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했다.

청소년연구에서 고전적인 연구의 하나가 Colman의 연구이다. 그는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학교를 통해서 다원주의의 진수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즉 미국과 같은 개방사회에서 개인의 지위는 성취능력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가정했다.

그러나 조사자료는 그의 가정과 모순되게 계급분석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그의 정치적 신념과 달랐기 때문에, 그는 다원주의와 함께 ‘청소년문화’를 연구하였다. 그는 오늘날 고등학생은 사회의 나머지와 ‘단절’되어 친구들과 작은 사회를 구축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소년’이란 낱말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틴에이지’(teenager)는 전후 소비자사회(consumer society)란 용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풍요한 사회에서 자란 청소년은 그들의 가족배경이 노동자계급일지라도 중산층의 소비유형을 추종하기 때문에, 청소년층에 대한 마케팅은 다른 인구집단과 전혀 달라야 한다는 시각이다. 예컨대 팜프릭은 수용자의 사회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든 청소년이 열광하는데 이러한 환경의 조성에는 대중매체의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사회계급’의 고전적 의미는 생산수단의 소유 유무에 의한 분류인데,

대개의 청소년은 생산수단과 무관하기 때문에 성인사회의 분석을 위해서 사용된 계급이란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 있다.

3) 청소년문화의 계급성

그러나 ‘사회계급’을 권력과 권위의 소유 정도에 따라서 판별한 Ralf Dahrendorf의 시각을 취한다면 한 청소년의 사회계급은 부모나 그가 속한 가족의 사회계급과 무관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학교를 매개로 해서, 사회적 불평등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깊게 침투되고 구조화된다. 애컨대, 학교는 단순히 연령별로 나누어진 집단이 아니고 계급을 분리한다. 학교는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것을 지연시키고 성인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가르칠 뿐만 아니라 계급불평등과 계급관계를 재생산한다.

청소년문화의 계급성은 그들의 모든 생활양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중에서 청소년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학업, 직업, 그리고 여가생활을 분석하여 보면 청소년문화의 계급성은 드러난다.

David Downes(1966)는 ‘꿀복아이들’ 문화연구를 통해서 청소년의 계급적 지위는 교육과 노동의 기회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여가생활의 선택과 접근기회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와 노동에서 소외된 노동자계급 청소년은 여가를 통해서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그들은 여가생활에서조차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청소년문화 속에도 계급불평등이 있다는 주장은 기존의 ‘청소년문화’론의 개념적인 틀을 근본적으로 흔리게 된다. 청소년사회학의 중심에 계급을 놓으려는 시도는 연령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급과 연령의 관계, 특히 연령이 계급의 한 종개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문화의 분석은 그들의 일상생활을 성인의 그것과 비교해서 기술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회계급이 청소년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직장

에서, 가정에서, 지역사회 등에서, 그리고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기회, 이익, 그리고 통제력 등을 통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은 작업장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학교에서는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의 일상생활을 사회계급별로 비교연구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 점에서 청소년문화의 한 면을 볼 수 있는 사회화과정을 거주지역별로 연구한 황정규 등의 연구는 매우 의미있는 자료이다(황정규 외 3인, 1989).

황정규 등은 청소년의 사회화과정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지역사회의 인구학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조건들에 의하여 커다란 차이를 나타낸다는 통념을 수용하여, 도시아파트지역, 농촌지역, 광산지역, 공단지역 청소년의 사회화과정을 연구한 바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기의 사회화과정은 그들의 가정적 배경과 생활 주변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도시아파트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그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농촌이나 광산촌 또는 근로 청소년에 비하여 월등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으며 그들의 생활공간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농촌이나 광산촌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조금만 여유가 있고 자녀의 교육에 열의를 갖고 있는 학부모들은 도시로 이주하거나 자녀를 도시지역의 학교에 취학시킨다. 따라서 학교의 풍토는 도시와 농촌, 광산촌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황정규 외 3인, 1989 : 407).

다음 절에서는 청소년의 삶을 크게 학교생활과 직장생활, 그리고 여가생활로 나누고, 각 생활에서 계급성을 찾아본다.

3. 한국 청소년문화의 계급성

1) 학교문화

‘교육과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논쟁들은 사회과학계에서 해묵은 것이다. 학교교육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회이동을 촉진시켜 평등사회의 구현에 기여한

다는 논리가 허구임이 밝혀지면서, 교육과 사회적 불평등은 교육사회학자와 사회학자들의 주된 연구과제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다. 그러나, 학교상황에서 청소년문화에 대한 최근 연구는 학급문화(조영달, 1992), 동아리문화(이인규, 1992), 학교문화(이용숙, 1992) 등을 분석할 때, 학생들의 사회계층별 주요한 변인으로 다루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조영달은 학급문화의 중심은 '수업문화'인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문화에 대한 기존 논의가 수업문화를 경시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의 한 고등학교 사회과 수업중 1시간을 정밀 분석하였다. 그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서 교사의 의사전달 속도가 학생의 이해보다 앞서기 때문에 학생들은 무조건 암기하려 하여 사고가 크게 위축되거나 왜곡된다고 주장한다(조영달, 1992 : 15-16).

이인규는 학교에서의 클럽활동의 부진원인이 클럽활동에 필요한 교육여건이 미비하고,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로 인해 학교, 행정가, 교사, 학생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기존의 시각은 일부 설득력이 있으나 동의하기 어렵다고 한다.

대신에 그는 클럽활동이 클럽활동답게 이루지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학교 문화의 미성숙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특별활동에서의 학생의 자발성, 학생집단의 자생성, 의사결정의 자주성은 특별활동의 본질적 성격에 해당되는 데, 동아리문화를 대항 이데올로기로 파악하고 통제하는 학교행정가가 가장 큰 제약 요인이라고 한다(이인규, 1992 : 27-29).

이러한 시각은 또 다른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용숙은 한국 중등학교 문화의 특성을 획일성, 위계성, 교육내용의 질적 빈약성, 여유의 부족, 형식주의와 이중성, 체벌의 일상화, 시험의 일상화 등 7가지로 요약한 바 있다. 그 중에서도 획일성과 위계성은 한국 중등문화의 토대이며, 획일성과 위계성이 상호작용하면서 다른 문화적 특성들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이용숙, 1992 : 17-29)

위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살필 수 있는 것은 오늘날의 학교문화가 바람직한 한 이상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한편 학교교육에 대한 비판에 직면

한 많은 교육자들은 학교가 동네북이냐고 항변한다. 가정과 사회가 없는 학교는 없기 때문에 많은 이러한 학교문제는 사회문제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조혜정은 좋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그녀는 학력경쟁에서 가정적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전제하고, 계급재생산 기능을 하는 학교교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학군이동, 과외, 존지, 그리고 영양관리를 통해서 가정적 지원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조혜정, 1991 : 5-12).

대부분 선진자본주의 사회의 경우는 주거지의 분리에 의해 계급재생산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집값이 비싼 동네에 좋은 학교가 있어서 학생들의 학력과 대학진학율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거주지에 따른 차별은 서울의 ‘8학군’의 문제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계층상승을 바라는 가정은 이사를 다닐 것이고, 이사를 통한 학군선택은 가난하더라도 집값이 강하면 이사를 할 수 있다는 유동적 측면과 특정 지역에 이사할 재력이 되지 못하므로 계급이동은 어려워진다는 부동적 측면이 있다.

또한 입시전쟁이 치열해지면서 과외공부, 교사에게 부모가 가져다 주는 존지, 입시생을 위한 영양, 가정이 제공할 수 있는 공부하는 분위기, 감정 관리 등이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변수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재력과 어머니의 뒷바라지로, 현재 많은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학습보조를 위해 부업을 선택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조혜정, 1991:9).

1991년에 실시된 한 조사는 이러한 주장을 실증하고 있다. 즉 ‘지난 학기에 학교수업 이외에 한 적이 있는 과외학습’은 부모의 사회계층에 따라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부모의 사회계층에 따라서 분석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가구주학력별” 자료를 보면, 가구주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는 과외, 학원수강, 학습지구독을 많이 하고, 가구주의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는 과외학습을 전혀 하지 않거나, 부모나 형제에게 배우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문화방송, 1991 : 226).

또한 위의 조사에 따르면, 본인이 수험생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겪었던 일

〈표 1〉 가구주학력별 자녀의 학교수업외 과외학습 실태

가구주학력	과외	학원	학습지	부모형제	없다	합계(실 수)
국졸이하	4.2	38.6	23.3	24.2	22.0	17.4(249)
중 졸	8.7	50.3	23.5	21.7	13.5	29.2(419)
고 졸	13.0	53.3	26.8	19.5	12.6	39.7(569)
대졸이상	28.0	61.3	34.2	20.9	8.5	13.9(199)
합 계	12.3	51.0	26.3	21.1	13.9	100.0(1435)

중에서, 가구주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가정에서는 “성적때문에 부모님이 크게 다투셨다”, “부모님의 몸이 몹시 약해지셨다”, “공부하기 좋은 곳, 학교나 학원이 가까운 곳으로 이사했다”, “가족의 여름휴가를 취소했다” 등에 대한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문화방송, 1991 : 233-234).

이처럼 학교문화와 학생들의 학습문화는 사회구조와 가족배경 그리고 그것의 불평등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2) 직업문화

‘청소년과 직업’은 매우 중요한 논의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근로청소년에 관한 연구도 이 범주에서 볼 수 있지만, 근로청소년을 막연히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아직도 지배적이어서, 청소년의 직업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청소년과 직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어떤 청소년이 왜 특정 직업을 택하느냐, 현재 직업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와 부모의 직업이 자녀의 직업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느냐에 몰려 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람의 직업선택에 가장 결정적인 변인은 학교교육이라는 신념이 지배적이다. 이미나의 연구도 청소년의 직업선택과 임금수준 그리고 승진 등은 학교교육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즉 한국의 노동시장은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노동

자들의 임금에 그들의 노동시장의 위치에 영향을 받는다. 청소년의 직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은 단순히 교육에서의 성취도뿐 아니라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와 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직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업성취도를 올려야 할 뿐 아니라, 내부노동시장에도 배치되어야 한다(이미나, 1991 : 135-149).

청소년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국제조사 자료에 비추어 볼 때에도 우리의 젊은이들(만18세-24세)은 고정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고, 고졸미만의 저학자는 대부분 비숙련 단순노동자이거나 숙련 기능공이고, 대재 이상의 고학력자에게만 전문직 자유업이 개방되어 있으며, 고졸자에게는 사무직이 주류이다.

이 때문에 직장과 직업에 대한 소속감이 약하고, 기회만 되면 다른 직장으로 전직하려 하며, 실제로 이직을 자주 하고 있다. 즉 조사대상자의 절반이 전직경험이 있고, 직장생활 경험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고연령층일수록 전직경험은 훨씬 많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전직하겠다는 전직의사도 높아서 노동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것 같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5 : 313-326).

또한 부모의 학력은 직업선택에 영향을 주고 직업은 수입과 재산에 영향을 주어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학력과 직업선택에 상관관계가 높다는 실증적 연구가 있다(최현숙, 1986).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청소년의 직업문화는 학교에서 소외된 집단들의 문화란 성격이 매우 강하다. 중학교졸업 이하인 사람이 근로청소년의 주류를 형성했던 1970년대가 지나고, 이제는 근로청소년의 주류가 고등학교재학자나 졸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없다”는 인식은 아직도 불식되지 않고 있다.

최근 직장의 민주화로 인하여 생산직에 대한 인간적 배려는 많이 나아졌지만, 배우고 싶은 열망을 채우지 못하고, 학력면에서 떨어져 사회적 신분면에서 뒤졌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뿌리깊기 때문이다(이화수, 1992 : 56-61).

실제로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소년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은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이른바 3D)이 많으므로 직업에 대한 자գ심

이 낮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공단지역에 근로청소년회관을 설치하여 노동문화를 육성하고, 노동자 스스로도 노동조합활동 등을 통해서 노동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학력의 향상으로 인하여 근로청소년의 절대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서, 청소년의 직업문화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의미가 약화되고 앞으로는 ‘청년의 직업문화’에 대한 관심이 요청될 것이다.

3) 여가문화

청소년문화 중 여가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높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청소년문화를 여가문화를 중심으로 파악한다. 청소년들이 즐겨듣는 음악, 즐겨보는 잡지나 영화, 그리고 먹거리와 생활용품으로 청소년문화를 인식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청소년은 생활시간 중 공부하는 시간이 길고 여가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가생활을 즐길 여유가 적고, 여가생활을 누릴 만한 주변여건도 미흡한 실정이다.

수업이나 작업의 부담이 적은 일요일이나 공휴일의 경우에도 청소년들은 텔레비전을 보거나 별로 하는 일 없이 보내고 고작해야 친구들과 만나서 소일을 하고 있다. 운동, 악기연주, 영화연극감상과 같이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여가활동은 소수의 청소년만이 하고 있다(문화방송, 1991 : 273-274; 한국개발조사연구소, 1991 : 421-422). 두 가지 조사자료는 조사대상이 다르고, 응답방식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은 선진국 청소년의 여가생활에 비교할 때 매우 빈약하다. 참고로 한국청소년이 지난 일년 동안 경험한 여가활동과 스웨덴 청소년의 여가활동을 비교하여 보면, 한국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은 그 종류에 있어서나 경험 빈도에 있어서 너무나 빈약함을 알 수 있다(이용교, 1990 : 248 ; 문화방송, 1991 : 278-281).

(표 2) 청소년의 휴일 여가활동

여 가 활 동	문화(2가지)	겔럽(중복응답)
텔레비전,라디오,잡지를 듣거나 보며 지낸다	52.9	57.6
별로 하는 일 없이 편히 지낸다	23.3	29.7
이성친구나 동성친구를 만난다	19.8	58.3
가족과 함께	질문없음	40.1
공부를 한다	18.0	질문없음
독서를 한다(겔럽/독서나 음악감상)	16.0	47.7
종교활동을 한다	15.9	질문없음
음악감상이나 악기를 연주한다(겔럽/악기연주)	14.8	9.7
운동을 하거나 스포츠를 관람한다(겔럽/운동)	14.3	20.9
취미생활	질문없음	14.3
영화,연극을 관람한다 (겔럽/스포츠관람포함)	10.1	33.9
물건을 사거나 구경하러 다닌다	6.5	15.2
여행을한다(겔럽/근거리여행)	2.3	10.8
기타	1.4	7.7

그러나 최근 여가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청소년들이 여가생활할 때 필수적인 가전제품과 관련제품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커지면서 청소년들의 여가생활은 청소년집단별로 차별화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청소년이 개인용으로 소유하는 문화기구는 급속히 증가되고 있어서, 카세트라디오의 경우는 거의 보편화되고(73.5%), 카메라(31.6%), 텔레비전(27.4%), 오디오(19.4%), 전자오락기구(17.1%), 컴퓨터(16.6%)를 소유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문화기구의 소유 여부는 성별, 계급별, 지역별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송광성의 3인,1991:180-183).

즉 전자오락기구와 컴퓨터는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정도 많이 소유하고, 카세트라디오와 오디오는 고등학교생이, 카메라, 텔레비전, 전자오락기구, 컴퓨터 등은 중학생이 더 많이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집단 간에 여가생활에 대한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한편 지역별로는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고 문화생활용품이 더욱 보편화되고 있는 도시지역일수록

〈표 3〉 한국과 스웨덴 청소년의 여가활동

여가활동 종류	한국	스웨덴	
	13~18세	9~14세	15~24세
영화 관람	66.9	89	93
박물관 관람		78	59
편지쓰기		74	68
교회참석		65	41
연극 관람	11.8	60	44
수집 활동		54	26
사진 찍기		53	72
수예		49	44
춤추기		45	84
그림 그리기		44	30
일기 쓰기		37	27
수공		24	42
작문		16	8
연구활동		11	30
음악회 관람	14.1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오디오, 전자오락기구, 컴퓨터의 소유여부에 있어서는 2-3배의 차이가 있다. 이는 자본주의하에서 청소년의 여가생활이 여가상품의 구매력에 의해서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한가지 예로 많은 사람들은 청소년들 사이에 만연하는 일본문화를 크게 우려하고 청소년들의 호기심이나 유행으로 가볍게 다루는 경우도 있는데 청소년문화는 문화산업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문화의 상업성, 기술성, 기금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청소년 문화 중 외래문화의 침투가 빠른 부분은 시장성이 있어야 하고, 이 시장의 점유는 기술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문화의 수용자는 구매력을 갖춘 상류층부터 시작된다.

우리나라 청소년중 일본문화의 주된 수용자는 누구인가? 이 땅에서 일본문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압구정동의 ‘로데오’거리이다. 그 문화가 반포를 거쳐

봉천동까지 가는 데는 현해탄을 건너기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문화의 첨병역할을 하는 ‘접시안테나’를 소유한 가정과 월 2만부 정도 수입되는 ‘NON-NO’를 사 보는 사람은 아직 우리 사회의 상류층이다. 그리고 일부 상류층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입고 있는 왜색풍의 옷은 외제처럼 보이는 국산품(Made in Korea)이다.

4. 맺음말

이 글은 청소년문화에 대한 기존의 논의가 ‘청소년문화’는 ‘성인문화’와 다르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에서 쓰여졌다.

청소년문화의 독자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문화 속에서도 성인문화에서와 같이 ‘계급성’을 찾아볼 수 있고, 이는 청소년문화를 이해하는데 청소년의 연령과 성의 변인만큼이나 중요한 변수임을 밝히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청소년문화란 개념이 나오게 된 역사적 경위를 살펴보고, 청소년문화의 무계급성과 계급성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한국 청소년문화의 현실을 학교문화, 직업문화, 여가문화로 나누어서 정리해 보았다. 청소년문화의 계급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적기 때문에 이 글은 결론을 유보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를 촉구하면서 글을 맺는다.

본문요약

문화는 한 집단의 생활양식을 뜻하므로 청소년문화는 청소년들의 생활양식을 의미한다. 또한 이 낱말은 청소년과 다른 세대의 생활양식에 차이점이 있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청소년문화는 어문문화 또는 기성문화와의 차이점이 지나치게 부각되면서 청소년문화 내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빈약했다. 이는 청소년이 또 하나의 인구집단으로만 부각되고, 청소년문화를 논의할 때 문화의 결정변수의 하나인 사회계급에 대한 고려가 약한 역사적 배경 때문이다.

미국의 주류사회학은 청소년문화의 차이를 사회계급보다는 풍요한 사회에

서의 개인의 선택과 기호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대부분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계급이란 시각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들의 생활양식은 대중매체와 유행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학업, 직업, 그리고 여가생활의 선택은 자신이 속한 가족의 사회계급에 의해서 제약되고, 이러한 불평등은 재생산되기 때문에 청소년문화는 계급성을 떨 수 밖에 없다.

한국 사회에서도 청소년들의 학교 선택은 개인의 적성보다는 가족의 사회계급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고, 같은 학교유형에서조차 학군이등, 과외, 춘치, 그리고 영양관리 등을 통해서 계급 불평등은 재생산되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고졸자와 대졸자의 사회적 대접의 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취업을 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직종에서 일하는 비율이 높고 아울러 직업인으로서의 정체감이 낮다.

이러한 차이는 여가문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청소년의 옷차림과 취미등에서 계급성은 쉽게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자세히 보면 그들이 입는 옷의 상표, 취미생활의 종류, 어울리는 또래집단 등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과제

1. 한국에서 ‘청소년문화’란 낱말이 사용된 역사적 유래를 살펴본다.
2. 청소년문화를 무계급문화로 보는 시각의 주장을 정리하고, 한국 사회에서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3. 청소년문화를 계급문화로 보는 시각의 주장을 정리하고, 한국 사회에서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4. ‘산업체 부설 상업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문화’와 같이, 특정 청소년집단의 문화를 연구한다.
5. ‘생일문화’, ‘폰팅’ 등과 같이, 청소년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생활양식

을 연구한다.

참고문헌

- 문화방송(1991), '91MBC청소년백서.
- 송광성 외3인(1991), 한국청소년의 실태와 문제, 한국청소년연구원.
- 이미나(1991), “청소년의 교육과 직업성취”, 한국청소년연구 제2권 제1호, 한국청소년연구원.
- 이용교(1990), “스웨덴의 청소년정책”, 외국 청소년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 이용숙(1992), “한국 중등학교 문화의 특성”, 한국청소년연구 제3권 제2호, 한국청소년연구원.
- 이인규(1992), “고등학교 동아리 문화의 현실과 과제”, 한국청소년연구 제3권 제1호, 한국청소년연구원.
- 이화수(1992), “근로청소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와 대처방안”, 우리 청소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와 대처방안 연구발표대회, 체육청소년부 청소년대회의 광장.
- 정환규(1991), “학교교육과 불평등문제”, 한국청소년연구 제2권 제3호, 한국청소년연구원.
- 조영달(1992), “학급문화의 중심으로서의 수업문화”, 한국청소년연구 제3권 제1호, 한국청소년연구원.
- 조혜정(1991), “청소년의 평등한 삶을 위한 과제”, 한국청소년연구 제2권 제3호, 한국청소년연구원.
- 한국궐련조사연구소(1985), 한국과 세계청소년의 의식.
- 한국국제노동법 및 사회보장학회(1991), 고교과정에서의 노동교육을 위한 연구.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1988), 문화예술 수용 및 향수능력 실태 조사연구.
- 황정규 외3인(1989), 한국인의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Geoff Mungham and Geoff Pearson(1976), *Working Class Youth Culture*,
London, RKP.

6.

청소년의 생활시간

개 관

우리나라 청소년의 생활시간에 대한 연구는 여가시간에 대한 관심을 제외하면 매우 빈약하다. 다행히도 한국방송공사에서는 1981년부터 매 2년마다 국민생활시간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통해서 청소년의 생활시간을 일부 파악할 수 있다.

청소년의 일상생활의 주기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일(day)과 주(week)이므로 국민생활시간조사는 평일, 토요일, 일요일의 시간별 활동을 조사하였다.

청소년의 생활시간은 학업시간이 과도하게 많아서 생활필수시간과 여가시간 등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청소년들은 학교수업시간이 좋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여가시간이 늘어나길 간절히 바란다.

주제어

생활시간, 시간량, 시간대, 생활양식, 활동생활양식, 대외생활양식, 생활주기, 시간유형, 수련활동시간, 국민생활시간조사

* 이용교, 한국청소년연구원 주임연구원

1. 시간에 대한 관심

“시간은 금이다”라는 금언은 우리 귀에 매우 익숙하다. 또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시간관이나 생활시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빈약하다. 여가시간에 대한 연구가 더러 있지만, 청소년의 전체적인 생활시간의 내용이나 변화에 대한 관심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의 생활시간을 연구한 자료가 빈약하기 때문에 이 글은 다음 몇가지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한국방송공사에서 1981년부터 매 2년마다 「국민생활시간조사」(최근호 1991)를 하고 있다. 이 국민생활시간조사는 평일, 토요일, 일요일의 ‘시간량’과 ‘시간대’를 조사하고, 조사자료는 전국민, 남녀별, 연령별, 남자연령별, 여자연령별, 직업별, 학력별, 지역별, 시도별로 통계처리되어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생활시간도 이 자료를 통해서 일부 파악할 수 있다. 청소년의 주류가 10대이고 학생집단이기 때문에, 연령별 자료 중 10~15세 집단과 16-19세 집단의 자료, 직업별 자료중 학생의 자료, 학력별 자료 중 국재, 중재, 고재, 대재 집단 등의 자료로 청소년의 생활시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사보고서로는 학생이 아닌 청소년집단의 생활시간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첫째, 근로청소년, 재수생, 군복무청소년, 무직청소년과 같이 학생이 아닌 청소년의 생활시간은 알 수 없다. 둘째, 학생 청소년집단이라 하여도 학교유형별로 생활시간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국민생활시간조사의 ‘전산자료’에서 청소년집단만을 따로 분류하여, 자료처리를 다시 한다면 상세한 자료를 얻을 수 있겠으나 이것은 희망사항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2)의 「한국 청소년의 생활양식에 관한 연구」는 청소년의 ‘활동생활양식’과 ‘대화생활양식’을 조사하여, 청소년의 인구학적 변인별로 그 차이를 밝히고 있다. 활동생활양식의 경우 청소년집단별로 요일별 활동의 종류, 시간, 장소, 접촉인물, 동기와 만족도 등으로 세분하여 분석하였

다.

이 조사연구는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첫째, 청소년집단을 근로청소년, 재수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등 5개 하위집단으로 나누어서, 국민생활시간조사에서 소홀히 다루어진 근로청소년과 재수생의 생활시간을 학생집단과 비교해서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생활시간에 행한 활동의 종류뿐만 아니라, 장소, 접촉인물, 동기, 만족도 등에 관한 폭넓은 정보를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조사보고서는 현재보다 10년 전에 조사한 것으로서 현재 청소년의 생활시간을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생활시간에 대한 주관적인 욕구를 파악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한국청소년연구원(1991)의 「청소년 수련활동 참여시간 확보방안 연구」는 중고등학생의 ‘생활시간’을 조사하고, ‘수련활동시간’의 확보방안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학생의 일상생활시간을 활동이 지니고 있는 특성과 시간량에 따라 크게 수면시간, 학교수업과 그외의 공부시간, 식사 신변잡일 등 생활필수 시간, 그리고 여가시간으로 나누어서 파악하고 있다. 학생청소년의 집단은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로 삼분하고, 이 밖에도 성별, 지역별로 생활시간을 파악하였다.

이 조사연구는 두 가지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 중 중고등학생집단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활시간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학생청소년도 소속집단별, 특히 고등학생은 계열별로 차이가 있을 것임을 전제하고 연구하였다. 둘째, 시간량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함께 시간에 대한 욕구(좀더 늘었으면 하는 시간, 좀 더 줄었으면 하는 시간, 가장 해보고 싶은 활동 등)를 상정하고 있다.

계속해서 위의 세 가지 자료에 기초하여 한국 청소년의 생활시간을 시간의 유형, 활동시간의 내용과 분배, 생활시간에 대한 욕구, 시간활용방안 등을 논하고자 한다.

2. 시간의 유형화

시간의 유형화는 크게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유형(시간의 주기)과 시간에 일어난 행위에 바탕을 둔 유형(생활행동시간)으로 대별할 수 있겠다.

시간의 주기는 일반적으로 일, 주, 월, 연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초, 분, 시간과 같이 일보다 더 작은 시간을 재는 단위와 순(열흘), 보름, 계절 등과 같이 연보다 작은 다양한 중간 단위, 그리고 10년, 세대(30년), 세기(100년)등 연보다 큰 단위가 있다. 그러나 이 중 자연주기인 일과 사회적 주기인 주가 현대인의 생활시간 사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일단위로 통학을 하거나 통근을 하고 주단위로 수업 시간표나 노동시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일과 주가 가장 중요한 생활주기이다. 물론 월, 반년(학기), 연(학년) 등에 의해서도 생활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간과할 수 없지만, 일상생활의 주기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일과 주이다.

이처럼 시간의 주기에 대해서는 논자 간에 별 차이가 적지만, 시간에 일어난 행위에 바탕을 둔 생활행동시간의 분류는 다양하다.

국민생활시간조사는 생활행동을 대분류(13가지)와 중분류(32가지)로 나누고 있다. 하나의 행동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질 때에는 주된 행동에 선택하고, 각 생활활동의 시간량은 15분을 기본단위로 하여 정리했다.

이 생활시간조사는 생활행동을 수면, 식사, 신변잡일, 일, 학업, 가사, 교제, 휴양, 여가활동, 이동, 신문·잡지·책, 라디오, 텔레비전 등으로 대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방식은 전체 국민의 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계된 것으로 전체국민 속에서 청소년의 생활시간을 비교하는 데는 유익하겠으나, 청소년의 하위집단의 생활을 파악하는데는 다소의 재분류가 필요하겠다. 즉 청소년의 경우 학업과 일이 주된 활동이고 다른 활동은 주변적인 데 비하여, 이 분류표는 일에 대한 중분류가 없고, 대중매체와 접하는 시간을 매체별로 분류하였으

며 가사와 여가활동을 지나치게 세분하고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생활양식연구는 수면을 제외한 활동생활양식을 10가지로 대분류하고, 다시 52가지로 세분류하고 있다. 10가지의 활동은 작업, 학업, 놀이, 오락, 취미, 운동, 매스컴, 종교, 모임, 이동, 생활유지, 한가담소 등이다. 이 분류들은 청소년의 생활양식에서 작업과 학업에 중점을 두고, 기타 활동도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분류는 작업을 고정수입을 위한 일과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분하고, 학업을 학교수업과 과외수업 등으로 구분하였다. 반면에 대중매체와 관련된 활동은 매스컴으로 대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분류는 청소년의 생활양식을 지나치게 세분해서 실재를 개략적으로 파악하는데 다소 혼란스럽다. 놀이, 오락, 취미, 운동, 한가담소의 경우 대체로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조금씩밖에 할 수 없고 어떤 한 행동의 의미를 파악하기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중분류는 20가지나 된다. 또한 모임을 만나는 사람의 종류별로, 이동을 이동수단별로 나누는 것도 남독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활동을 성취추구활동, 탐락추구활동, 사교적활동, 생활유지활동 등 네 가지로 범주화한 것은 매우 의의있는 시도인 것 같다. 즉 학업, 작업, 운동 등을 성취추구활동으로; 놀이 오락, 매스컴, 한가 담소 활동은 탐락추구활동으로; 종교, 모임을 사교적 활동으로; 생활유지, 이동을 생활유지활동으로 나눈 것은 청소년 생활시간 이해에 한 좋은 분석틀이다.

한국청소년연구원의 청소년 활동시간 연구는 학생청소년의 생활시간을 특성과 시간량을 고려하여 크게 수면시간, 학교수업과 공부시간, 식사 신변잡일 등 생활필수시간, 여가시간 등 네가지로 나누고, 다시 수면, 식사, 준비시간, 이동, 학교수업, 학교외 학습, 공부, 가사, 교제, 여가, 독서, TV시청시간 등 12가지로 세분했다.

이 연구는 학생청소년의 시간을 비교적 간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분류하고, 생활시간에 대한 청소년의 욕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청소년의 생활시간에 대한 기존연구 세 가지의 생활시간 분류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재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생활시간의 유형

한국방송공사의 국민생활시간조사 (19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청소년생활양식연구 (1982)	한국청소년연구원의 청소년활동시간연구 (1991)
수면	(수면)	수면시간
식사		식사시간
신변잡일	생활유지 - 식사 - 낮잠 - 세면, 화장, 치장, 세탁, 청소, 병원 - 기타	준비하는 시간(세수등)
일	작업 - 고정수입을 위한 일 - 학비를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 - 용돈을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 - 집안일, 심부름 - 기타	
학업	학업	학교수업시간
- 수업 및 학교행사	- 학교수업(학교과외등 포함)	학교 외의 학습시간
- 과외활동	- 과외수업	공부하는 시간
- 학교외의 학습	- 자습 - 통신교육 - 기타	
가사		가정 내의 일하는 시간
- 취사		
- 청소		
- 세탁		
- 재봉, 편물		
- 실용품사기		
- 육아, 어린이돌보기		
- 가정잡일		
교제	모임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
- 개인적 교제	- 직장에 관련된 모임	
- 사회적 교제	- 학교에 관련된 모임	
- 학관에 관련된 모임	- 남녀미팅, 데이트	

-동창회, 동향회

휴양

-쉬기, 휴식

-병, 정양

여가활동

-관람, 구경, 감상

-스포츠

-승부놀이

-행락, 산책

-배워두어야 할 일, 취미

-기능, 자격공부

-어린이와의 유희

-각종 씨클 모임

-계모임

-기타

한가, 담소

-사색

-담소

-전화

-편지쓰기, 편지읽기

-기타

놀이, 오락, 취미

-게임

-표현활동

-감상

-야외놀이

-악기연주

-고고, 춤

-음주, 담배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

-기타

운동

-실내구기

-실외구기

-육체미, 유도, 태권도, 복싱, 합기도

-체조

-달리기, 줄넘기, 수영, 싸이클링

-기타

이동

-등근

-통학

-그외의 이동

이동

-버스, 전철, 기차

-합승, 택시, 자가용

-걸기

-기타

이동하는 시간

신문 잡지 책

-신문

-잡지, 책

매스컴

-인쇄매체(신문, 잡지, 책 읽기)TV시청시간

-전파매체(라디오, 텔레비전)

-기타

책읽는 시간

라디오

텔레비전

종교

-예배, 불공, 미사, 수련회, 성가대, 심방

-성경, 불경 학습

-기타

3. 생활시간의 현황과 문제

1) 청소년의 일과

청소년 생활시간의 현황은 다른 인구집단과의 비교, 청소년의 하위집단 간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국민생활시간조사를 보면 청소년의 생활시간은 성인과 비교할 때 다음과 몇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학업시간이 과도하게 많아서 학업 이외의 다른 생활시간이 거의 없다. 15세 이하 청소년의 학업시간은 8시간 이상이고, 16세이상 청소년은 9시간을 넘고 있다. 청소년의 대부분이 학생이고 학생의 본분은 학업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학업시간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둘째, 학업시간의 과도함으로 말미암아 ‘생활필수시간’이라 할 수 있는 수면, 식사, 신변잡일 시간조차 최소한에 그치고 있다. 청소년은 수면시간은 물론이고, 식사와 신변잡일을 하는데도 항상 쫓기고 있는데, 16세이상 청소년의 경우 성인보다 생활필수시간이 1시간 이상 적다. 셋째, 학업시간의 과도함은 여가시간도 크게 제약하고 있다. 교제, 휴양, 여가활동, 신문, 잡지, 책읽기, 라디오청취, 텔레비전시청 시간을 여가시간이라고 할 때 청소년의 여가시간은 성인들보다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반 정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들의 과도한 학업시간은 청소년을 ‘일의 세계’에서 추방하고 있다. 인간이 일을 통해서 삶을 배운다고 할 때, 청소년은 수입을 위한 일은 물론 ‘가사’조차 거의 분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일상생활을 통한 학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의 생활시간에 대한 이러한 현황과 문제점들은 청소년의 하위집단별 평일과 주말의 생활시간 세부내용을 보면 더욱 분명하다. 청소년의 생활시간은 학업시간이 과도함에 따라서 다른 생활시간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즉 학업시간이 많은 순서인 고등학생 > 중학생 > 국민학생 > 대학생의 순서대로 시간적 여유 없이 살아가고 있다.

〈표 2〉

청소년과 성인의 평일 생활시간

(단위 : 시·분)

생활시간/집단	청소년		성인
	(10—15세)	(16—19세)	
생활필수시간			
—수면	8.29	7.08	7.54
—식사	1.28	1.29	1.47
—신변잡일	54	52	1.02
노동시간			
—일	4	50	5.06
—가사	21	14	2.00
학업시간			
—학업	8.19	9.25	44
여가시간			
—교제	24	23	1.02
—휴양	39	34	48
—여가활동	37	31	29
—신문, 잡지, 책	14	17	29
—라디오	19	35	36
—텔레비전	2.04	1.16	2.10
—(매스콤중복)	51	49	1.05
이동시간			
—이동	1.04	1.22	1.08

청소년들의 생활시간은 시간대별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국민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비교적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고등학생의 일과를 보면, 아침 6시 30분경에 잠에서 깨어나 학교 갈 준비를 하고, 7시에 등교하여 공부를 한다. 오후 1시 30분경에 점심을 먹고 다시 공부하기 시작하여 밤 11시에 잠들 때까지 공부의 연속이다. 중학생은 고등학생에 비교하여 다소 늦게 등교하고 학교 후에는 TV를 시청할 시간이 있다는 것 정도의 차이이다.

다음의 표는 해당 시간대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정리했기 때문

〈표 3〉 청소년 하위집단별 평일과 주말의 생활시간

생활시간	연령		학력			
	10~15세	16~19세	국재	중재	고재	대재
<평일>						
필수시간	10.51	9.29	10.24	10.18	9.17	10.17
노동시간	25	1.04	21	27	27	1.16
학업시간	8.19	9.25	7.17	9.22	10.29	5.39
여가시간	4.17	3.36	4.51	3.46	3.15	6.12
이동시간	1.04	1.22	58	1.09	1.21	1.54
<토요일>						
필수시간	11.04	9.46	11.30	10.38	9.36	10.45
노동시간	46	1.21	38	53	47	1.41
학업시간	5.53	6.35	5.26	6.23	7.20	2.52
여가시간	6.08	5.56	6.22	5.53	5.46	8.24
이동시간	1.10	1.34	1.01	1.19	1.35	1.38
<일요일>						
필수시간	12.21	11.29	12.40	12.05	11.15	11.22
노동시간	1.11	1.26	55	1.30	1.15	1.29
학업시간	2.37	3.32	1.57	3.14	3.57	2.04
여가시간	8.40	7.56	9.01	8.01	7.55	9.05
이동시간	37	56	37	35	54	1.26

에 여가시간이 과소평가된 감이 없지 않지만, 달리 해석하면 우리나라의 청소년에게는 고정된 시간대로서 여가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수업이 끝난 방과 후라도 ‘학업’을 하는 청소년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2) 학업시간

청소년의 학업시간은 연령, 학력 그리고 요일별로 차이가 있다.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학업시간이 늘어나서, 고등학생을 정점으로 하여 크게 줄어든다.

〈표 4〉 청소년들의 평일 생활시간대

시간대	연령		학력			
	10-15세	16-19세	국재	중재	고재	대재
06/01-60	수면	수면	수면	수면, 잠일	수면, 잠일	수면
07/01-60	잠일, 식사	이동, 학업	=	=	=	수면, 잠일
08/01-60	학업	학업	이동, 학업	학업	학업	이동
09/01-	학업	학업	학업	학업	학업	학업
12/31-	학업, 식사	=	=	=	=	=
13/46-	학업	학업	학업	학업	학업	학업
17/31-60	TV	학업	TV	TV	학업	학업
18/01-60	TV	학업	TV	TV	학업	이동
19/01-60	TV	학업	TV	TV	학업	식사, TV
20/01-60	TV	학업	TV	학업, TV	학업	학업, TV
21/01-60	학업, 수면	학업	학업, 수면	학업, 수면	학업	학업, TV
22/01-60	수면	학업	수면	수면	학업	학업
23/01-	수면	수면	수면	수면	수면	수면

청소년의 학업시간은 학교수업과 학교외학습 시간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국민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는 학교수업시간과 학교외학습시간이 모두 증가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학교수업이 적거나 없기 때문에 전체 학업시간이 줄어들지만, 학교외 학습시간은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고 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과중한 수업시간과 학교의 학습시간에 시달리고 있다. 고등학생 내에서도 인문계학생은 실업계학생보다 평일에 1시간 이상씩 더 많이 공부하고(한국청소년연구원, 1991 : 55-60), 재수생은 고등학생보다 하루에 1시간 이상 더 많은 학업시간을 갖는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 295).

이는 대부분의 학교가 정규수업시간이 끝난 후에도 ‘자율학습시간’이란 명목으로 학생들을 학교에 ‘잡아두고’, 학생들은 방과 후에도 과외수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학교 이외의 곳에서 정기적으로 학과수업의 보충을 위해 공부하는 학생은 중학생의 절반 이상, 고등학생의 7할 이상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한국청소년연구원, 1991 : 58).

〈표 5〉 청소년의 일일 학업시간

학업시간	연령		국제	학력		
	10—15세	16—19세		중재	고재	대재
<평일>						
합 계	8.19	9.25	7.17	9.22	10.29	5.39
수업, 학교행사	6.11	7.01	5.21	7.03	7.57	3.22
과외활동	10	10	14	7	9	20
학교외학습	1.58	2.14	1.43	2.12	2.24	1.58
<토요일>						
합 계	5.53	6.35	5.26	6.23	7.20	2.52
수업, 학교행사	4.03	4.07	3.53	4.12	4.44	53
과외활동	5	8	7	3	8	16
학교외학습	1.46	2.20	1.26	2.08	2.28	1.44
<일요일>						
합 계	2.37	3.32	1.57	3.14	3.57	2.04
수업, 학교행사	5	12	5	3	13	4
과외활동	3	5	4	2	7	10
학교외학습	2.28	3.16	1.48	3.10	3.38	1.50

3) 여가시간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여가시간은 없고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만 있을 뿐이다. 국민생활시간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여가시간은 평일에 4시간, 토요일에 6시간, 일요일에 8시간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가시간은 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하면 줄어들어서, 고등학생이 가장 적고 반대로 대학생은 비교적 많은 여가시간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에게 여가시간의 양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여가활동이 텔레비전 시청에 지나치게 몰려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중학생의 경우 평일 여가시간의 절반 이상(50.4%)을 텔레비전 시청으로 보내고, 이러한 현상은 여가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주말에 더 심각해서, 여가시간 중 텔레비전 시청시간이 점유하는 비중이 각각 53.8%, 56.1%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청소년들의 텔레비전 시청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이 여

〈표 6〉 청소년의 일일 여가시간

여가시간	연령		국재	학력		
	10-15세	16-19세		중재	고재	대재
<평일>						
합 계	4.17	3.36	4.51	3.46	3.15	6.12
교제	24	23	29	19	20	1.31
휴양	39	34	41	37	35	38
레저활동	37	31	58	16	25	52
신문, 잡지, 책	14	17	17	12	13	54
라디오	19	35	10	28	31	58
텔레비전	2.04	1.16	2.16	1.54	1.11	1.19
<토요일>						
합 계	6.08	5.56	6.22	5.53	5.46	8.24
교제	50	53	44	55	52	2.10
휴양	38	38	41	36	37	38
레저활동	51	42	1.11	29	40	1.19
신문, 잡지, 책	17	23	14	18	22	54
라디오	16	44	9	25	40	1.07
텔레비전	3.16	2.36	3.23	3.10	2.35	2.16
<일요일>						
합 계	8.40	7.56	9.01	8.01	7.55	9.05
교제	1.22	1.26	1.26	1.17	1.28	2.25
휴양	40	37	42	38	35	34
레저활동	1.05	59	1.32	40	58	1.09
신문, 잡지, 책	21	33	21	20	31	59
라디오	32	47	11	36	43	1.03
텔레비전	4.40	3.34	4.49	4.30	3.40	2.55

가시간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거나 깊은 사색을 하지 않고 단순히 텔레비전만 시청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다행히도 텔레비전 시청시간은 청소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줄어들고, 대신에 라디오를 듣거나 신문, 잡지, 책을 읽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여가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레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간은 아직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집단에 비해서 국

민학생의 레저활동시간이 많은 것은 분류상 ‘아이들놀이’가 포함되어서 과대평가된 것이다. 고등학생의 경우 관람 감상, 스포츠, 승부놀이, 행락 산책, 취미활동, 기능·기술 공부 등이 모두 포함된 레저활동시간이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평균 1시간을 넘지 못한다.

4. 생활시간의 욕구와 활용방안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8시간 일하고, 8시간 잠자고, 8시간 쉬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공부하는 시간이 하루 10시간 내외이고, 여기에 통학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11시간이 넘기 때문에 여가시간의 부족은 물론이고 수면시간조차 부족하다.

이 때문에 시간에 대한 청소년의 욕구는 학교수업시간이 줄고, 여가시간과 친구들 만나는 시간이 늘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잠자는 시간과 책읽는 시간은 늘고, 과외시간이 줄어서 집에서 자습하는 시간은 늘었으면 한다.

생활시간의 활용은 삶 자체이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의 삶을 이해하고 이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생활시간은 학습시간이 지나치게 많

〈표 7〉 생활시간에 대한 욕구

순위	늘었으면 하는 시간	백분율/	순위	줄었으면 하는 시간	백분율
1	여가시간	21.8	1	학교수업시간	40.3
2	친구들 만나는 시간	19.1	2	TV시청시간	15.9
3	잠자는 시간	17.5	3	학교외 학습시간	13.7
4	책읽는 시간	15.2	4	잠자는 시간	9.6
5	집에 혼자 공부시간	10.5	5	가사시간	9.4
6	TV시청시간	7.9	6	집에 혼자 공부시간	4.0
7	식사시간	3.3	7	식사하는 시간	2.6
8	학교외 학습시간	2.8	8	친구들 만나는 시간	2.4
9	가사시간	1.3	9	책읽는 시간	1.4
10	학교수업시간	0.6	10	여가시간	0.8

아서 다른 생활시간에 여유가 없고, 여유시간조차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시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다음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의 교과과정상 학업시간을 줄이고 정규수업이 지난 후의 시간활용은 개인에게 맡긴다.

둘째, 교과과정에 편성된 음악, 미술, 체육, 자치활동시간 등을 '임시과목시간'으로 전용하는 것을 금한다.

셋째, 중고등학교에서 동아리활동을 장려하고, 매년 동아리연합회와 학생회 주관으로 축제를 열도록 지원한다.

넷째, 청소년에게 시간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시간활용법을 가르친다. 이러한 내용을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경험담을 나누게 하여 체득하게 한다.

다섯째, 여가시간이 다소 많은 주말과 방학 중에는 청소년들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나 사회단체가 많은 활동거리를 제공하거나 청소년지도자를 파견한다.

본문요약

청소년의 생활시간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생활시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빈약하다.

시간의 유형을 시간의 양과 그것의 주기성에 따라서 보면, 일상생활의 주기 중 일과 주가 가장 대표적이다. 또한 시간에 일어난 행위에 따라서 보면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국민생활시간조사에 의하면 생활행동을 수면, 식사, 신변잡일, 일, 학업, 가사, 교제, 휴양, 여가활동, 이동, 신문·잡지·책, 라디오, 텔레비전으로 대분류하고, 이를 다시 수면, 식사, 신변잡일은 생활필수시간; 일과 가사는 노동시간; 학업은 학업시간; 교제, 휴양, 여가활동, 신문 잡

지 책, 라디오, 텔레비전은 여가시간; 이동은 이동시간으로 범주화할 수도 있다.

청소년 생활시간의 특징은 학업시간이 하루 9-10시간으로 과도하게 많아서 다른 생활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수면, 식사, 신변잡일 시간조차 최소한에 그치고, 항상 쫓기듯이 생활한다. 여가시간은 그 시간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TV시청으로 보내고, 다소 여유가 있는 주말도 소극적인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청소년집단 내에서도 학업시간이 과중한 순서, 고등학생>중학생>국민학생>대학생의 순으로 시간적 여유없이 살아가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생활시간에 대한 욕구는 학교수업시간이 줄고, 여가시간과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이 늘었으면 하는 것이다. 아울러 TV보는 시간이 줄어서 잡자는 시간과 책읽는 시간이 늘고, 야외시간이 줄어서 집에서 자습하는 시간이 늘었으면 한다.

연구과제

1. 중고등학생의 학교수업시간의 양과 질에 대해서 토론해 보자.
2. 중고등학생의 방과후 생활시간의 합리적 이용방안에 대해서 토론해보자.
3. 청소년들이 주말을 '청소년활동'으로 보낼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해 보자.
4. 인간의 시간관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아보자.

참고문헌

- 한국방송공사(1991), 1990년도 국민생활시간조사.
- 한승희 외(1991), 청소년 수련활동 참여시간 확보 방안, 한국청소년연구원.
- 황정규 외(1982), "한국 청소년의 생활양식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 청소년의 생활과 산업사회의 사회과 교육.
- 형성사(1984), 노동시간의 역사.

7.

청소년의 여가생활

개 관

청소년문화는 문화창조 주체자의 연령, 주거지역, 계층, 이념, 소속집단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학자에 따라서도 매우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여가문화와 청소년문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별문제로 하고 청소년의 여가생활에 대한 개략적인 논의를 하고자 한다. 현대 생활에서 여가는 이미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청소년의 여가시간은 점점 늘어나며 특히 학교교육의 정상화 추세로 학생들이 임의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다.

본 장에서는 여가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과 현재 청소년의 여가이용 실태, 여가시간, 여가이용 장소 및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여가를 바람직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여가, 레크리에이션, 놀이, 여가의 순기능, 여가의 역기능, 여가욕구, 대중여가 시대, 여가교육, 여가선용, 여가 스트레스, 청소년 유해환경

* 권이중,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1. 여가의 개념과 기능

1) 청소년과 여가

청소년기는 사춘기에서 성인기로 이어지는 과도기에 속하는 시기로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전한 발달 및 성숙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의 장래를 좌우할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바르게 선도, 육성하는 것은 사회의 중요한 책임이다.

또한 청소년은 미래 사회와 국가에서 중심적 역할과 위치를 담당하게 될 중요한 자원일 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청소년인구의 비율이 30%를 상회하고 있어 청소년을 어떻게 건전하게 육성하느냐 하는 문제는 국가 장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은 무관심과 방치 또는 잘못된 이해와 지도 등으로 문제행동이 심화되어 사회문제화되고 있으며, 특히 학교는 비정상적인 교육으로 인하여 교육현장은 교육의 병폐나 교육의 위기를 실감하게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육, 사회 병리현상이 만연되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발생요인은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되며 환경적 요인은 가정, 학교, 사회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환경과 청소년비행은 많은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비행은 주로 여가시간에 일어나며 또한 여가시간이 많을수록 청소년 비행이 많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들에 따라서 여가교육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다(Godbey, 1978). 청소년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의 모든 연구들은 청소년의 휴식공간, 놀이공간, 놀이활동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성적이 우수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여가를 잘 이용하며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는 경향이 있다.

또한 최근 한국사회는 급속한 민주화, 국제화, 산업화, 정보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는 다양한 경험과 자기표현력을 가진 개성 있는 청소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경험은 여가선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은 지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덕·체·지가 고루 갖추어진 전인적 활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여가의 이용은 성장기 청소년의 인격형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성숙한 개인의 완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건전한 여가와 레크리에이션은 청소년들에게 신체적·심리적·지적 발달뿐만 아니라 능동적 인간이 되게 하며 규칙을 지키고 공정성을 존중하는 습관을 기르게 한다. 더욱이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협동적이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시켜 주며 소질을 계발하고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여가문제는 청소년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즉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선도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자유스럽고 풍요로우며 기쁨을 갖는 생활을 하게 하는 적극적인 의미로써 여가는 이해되어야 하며 앞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여가에 대한 지도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2) 여가의 개념

일반적으로 여가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하루 24시간 중 학업이나 생업, 수면, 식사 등과 같은 생명의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활동을 제외하고 남은 시간으로, 보수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그러나 여기에 좀더 범위를 줄여서 어떤 바람직한 가치를 지닌 것을 여가로 파악하기도 하는데 레저현장에서는 여가시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기의 가치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Miller는 “자유시간(free time)이란 필수적인 일과 생존에 필요한 일을 끝낸 후의 임의로 보낼 수 있는 시간이며, 여가시간(leisure time)이란 여가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며, 여가(leisure)란 자유시간이나 여가시간과는 다른 것으로 자신을 재창조할 수 있는 활동으로서 여가시간을 사용해서 자신을 풍요롭게 하고 자아를 완성할 수 있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설명

하고 있다(Miller, 1963 : 5).

한편 Torkildsen은 여가를 시간으로서의 여가, 활동으로서의 여가, 목적 그 자체로서의 여가, 종합적 개념으로서의 여가 등으로 구분하였는데 시간으로서의 여가란 앞에서 언급한 ‘자유로운 시간’은 모두 여가라는 것이고 활동으로서의 여가란 여가는 특별한 활동이라는 것으로 레크레이션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 목적으로서의 여가란 여가는 수단이 아니며 목적 그 자체라는 것이다. 즉 생업(또는 학업) 활동을 하고 남은 시간이 여가가 아니라 여가를 위해서 생업 활동을 한다는 것으로 현대인들이 소위 말하는 ‘놀이(여가) 위해서 일한다’는 측면을 설명한 것이다(George Torkildsen, 1986:174-180).

여가의 개념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레크리에이션, 놀이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레크리에이션은 오락, 취미, 기분전환 등을 뜻하는 것으로 일에서 시달린 몸과 마음을 후련하게 풀어주고 내일의 벅찬 활동에 새로운 힘과 의욕을 일으켜주는 활력소가 되는 것으로 여가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과 관련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놀이는 본능적이며 그 자체에 목적을 가진 무의식적 활동이며 보다 유흥성을 띄는 것으로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좀더 범위를 넓혀서 청소년이나 어른들의 유희나 놀이를 포괄하기도 한다. 그리고 관광이나 사회체육과 같은 스포츠 등도 모두 여가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본장에서는 여가를 시간적 개념으로서 본업 이외의 남은 시간 모두를 지칭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한다. 왜냐면 청소년의 여가문제를 거론함에 있어 본업 외의 모든 시간에 대한 지도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여가시간 중에서 가치로운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여가라면 이미 여가문제를 다룰 의의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Hawkins는 여가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여가교육은 생활의 질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자유로운 시간을 건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고 하며 어떤 형태의 여가교육이든 여가교육의 목적은 여가에 대한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에 는 여가에 대한 태도, 지식, 기능, 행동을 포함한다고 한다(Donald Hwakins, 1972 : 107-110). 그리

고 레크리에이션이나 놀이는 여가시간에 이루어지는 바람직하며 가치로운 활동으로서 정의하며 좁은 의미의 여가를 지칭한다.

3) 여가의 기능

여가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기능론적 시각과 갈등론적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즉 여가의 기능을 순기능적인 면에서 볼 때 신체,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고 사회적 발달에 공헌을 하며 재생산 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부연하면 개인적 측면에서 긴장완화의 기능, 기분전환의 기능, 자아형성, 태도·성격 형성, 일·정서적·사회적 보상 기능이 있으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회학습의 기능, 재생산의 기능, 사회적 통합의 기능, 문화적 기능, 사회문제 해결 기능 등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Dumazedier는 여가의 기능을 휴식, 기분전환, 자기개발의 세 가지로 들고 이들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개인이 각자의 취미에 따라 행하는 제 활동의 총체를 여가라 하였다.

한편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고도의 생산력 발전이 창출해내는 사회적 자유시간과 자유의 영역이 인간 발전을 위한 여가시간으로서가 아니라 자본의 이윤추적을 위한 상품소비의 장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으며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치열한 개인주의적 경쟁은 거기서의 성공을 소비의 형태로 표출하는 과소비적 소비를 부추기게 되며 현존의 여가제로부터 어느 집단이 이익을 보는가가 문제가 되어 어떤 집단이 자기들 몫으로서 합당한 보상을 여가활동에서마저도 누리지 못할 때 문제가 되기도 한다. 즉 일부 상위계층의 여가생활이 과소비를 조장하고 배금주의로 흐를 때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며 오히려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면이 생긴다.

특히 성인들의 무분별한 여가행태는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이를 모방하게 되고 청소년들 간에도 놀이의 양태가 서로 다름으로써 여가로 인한 좌절감과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 것이다.

4) 현대생활과 여가

여가의 향유가 보편화된 것은 비교적 근래의 일로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고도의 산업화와 기술발달의 결과로 기계화, 자동화로 대량생산이 이루어지면서 노동자의 평균근로일수와 노동시간이 단축되면서부터이다. 생산성이 향상되자 임금-소득 증가와 생활 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졌고 가전제품의 대량 보급으로 가사노동이 대폭 절감되고 복지정책 등의 확대로 생활이 안정됨으로써 일반대중에게도 여가 향유의 기회가 골고루 공유되는 여가의 대중화 시대 즉 대중여가시대 (mass leisure age)가 열리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여가는 일을 위한 휴식의 시간 이상의 의미를 띠고 그 자체가 만족스러워야 할 활동으로서 간주되게 되었다. 즉 여가 자체가 목적이 된 것이다. 서구 사회에서는 근면하게 일하여 경쟁에서 이김으로서 내세워의 신의 구제를 바라던 프로테스탄트의 생활윤리가 무너지고 현세적이며 낙천적인 생활윤리가 차츰 주류를 이루어 가는 추세이며 가정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일을 하는 것은 악덕이 되어 버렸다.

Torkildsen은 여가 증대의 원인으로서 기술의 발달로 인한 제품생산의 증가, 가사일이나 다른 필수적인 일에 있어서 노동을 감소시키는 장치의 개발, 개인의 역할을 결정해 주던 교회나 가정과 같은 사회기관의 영향력의 감소, 가처분소득의 증가와 무한한 물질주의, 사회의 변화와 노동에 대한 가치관의 증가 등을 들고 있으며, 또 Jensen은 여가와 레크리에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기술의 발달, 자동화, 교육, 이동의 편리성(여행 등), 수입의 증대, 도시화, 노동시간의 단축, 가치관의 변화 등을 들고 있다.

국민 1인당 GNP가 4천~5천 달러를 넘어설 때가 사회교육 욕구나 여가에 대한 문화적 욕구가 극도로 분출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소득이 향상됨으로써 근면하게 일만 하던 생활에서 여유를 가지고 생을 향유하려는 방향으로 가치관이 변화함에 따라 여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소위 '레저붐'이라는 용어도 등장하게 되었다. 주말마다 대혼잡을 이루는 고속도로의 자동

차 물질만 보더라도 국민의 여가에 대한 생각을 읽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도 자유로운 시간을 생을 즐기는 시간으로 보내려고 하는 사고를 하게 되었으며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여가시간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 여가내용

1) 여가의 분류

여가는 시간 특성에 따라 하루 일과 종료 후의 여가, 주말여가, 연말의 여가, 평생 근로 후의 여가 등으로 구분되거나 평일형, 주말형, 휴가형, 가정내형, 가정외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또한 여가에 대한 만족도, 가치관, 여가시간, 여가비용, 이용방법 등을 구분해서 볼 수도 있지만 흔히 여가활동이라 함은 여가 이용방법 즉 여가행태를 말한다. 여가 행태의 분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청소년 여가 활용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라 할 수 있는 고영복의 연구는 여가를 크게 활동형, 소극형, 중간형, 부정형으로 나누고, 활동형에는 운동, 낚시, 등산, 여행, 견학, 답사, 봉사활동, 종교활동, 씨름활동, 단체활동, 예능활동 등이, 소극형에는 독서, 음악감상, 사색, 공상, 라디오청취, 텔레비전 시청, 바둑, 장기, 영화·연극관람, 스포츠 관람, 잡담 등이, 중간형에는 집안일 돕기, 산책, 쇼핑, 데이트, 취미활동, 공작활동, 수예, 뜨개질 등이, 그리고 부정형에는 전자 오락, 낮잠, 당구장, 음주, 화투·카드놀이 등이 있다고 분류하고 있다(고영복, 1980). 또한 정신적 활동(공부, 토론회, 독서 등), 신체적 활동(스포츠, 하이킹, 등산 등), 사회적 활동(봉사활동, 문화활동, 방문 등), 오락적 활동(경기관람, 게임, T.V시청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한편 Jensen은 여가활동에 가치를 두고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타인에 대한 봉사, 창조적 활동, 능동적 참여, 타인의 행위에 대한 감정적 참여, 오락 등 시간 때우기 활동, 사회나 개인에 대한 파괴적 활동 등으로 구분하고 타인에 대한 봉사를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사회나 개인에 대한 파괴적 활동은 자신이

나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경우로서 범죄, 일탈, 약물중독, 도박 등으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로 보고 있다(Jensen, 1977 : 12-14).

이러한 여가 이용 방법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으며 현대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만 보더라도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 중에서 비디오를 갖추고 있는 만화가게, 집에서 하는 전자오락(컴퓨터 오락), 디스코장, 카페, 롤러스케이트 그리고 최근의 성인들로부터 일부 청소년에게까지 파급되고 있는 노래방 등도 있다. 그리고 이중에서는 Jensen이 언급한대로 사회에 해를 끼치거나 자신에 대한 파괴적인 활동 등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 여가이용 실태

1990년 한국청소년연구원에서 서울 남녀 중고등학생 600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하루 생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면시간이 하루 평균 6시간 55분(평일:6시간 34분, 일요일:8시간 9분)이며, 학교수업, 공부시간 외에 자신의 의사대로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은 평일에는 2시간 4분, 토요일에는 4시간 22분, 일요일에는 5시간 59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일의 경우 인문고(1시간 44분)와 실업고(2시간 43분) 학생간의 평균 여가시간의 차이는 약 1시간에 달하며 이것은 양 집단의 학교 수업시간, 공부시간의 차이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지역 전체 학생 청소년들이 즐기고 있는 취미활동의 분포는 T.V 시청·라디오 청취(23.5%), 독서활동(신문, 잡지, 소설 읽기: 17.2%), 예술 감상(영화, 미술, 음악 감상: 15.4%), 체육활동(11.2%), 표현활동(글쓰기, 미술창작, 악기연주 등: 8.3%), 야외놀이(등산, 낚시, 산책 등: 5.5%), 실내게임(바둑, 장기, 트럼프, 화투 등: 3.7%), 운동경기 관람(2.7%) 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즐기는 활동으로는 실내게임, 야외놀이, 체육활동, 운동경기 관람 등이며, 여학생이 선호하는 활동은 T.V시청·라디오 청취, 독서활동, 예술감상, 표현활동 등이다(김정명, 1990).

또한 문화방송에서 1991년에 전국단위의 만13세~18세 남녀청소년을 대상

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하루 평균 자유로운 시간은 3시간 이상(42.8%), 2시간정도(24.8%), 1시간 정도(11.3%), 2시간 30분 정도(9.9%), 1시간 30분 정도(7.1%), 30분 이내(4.0%) 순서로 나타났으며 휴일날 주로 하는 일은 (두 가지를 고르게 했음) T.V·라디오·잡지(52.9%), 별로 하는 일 없이 지낸다(23.3%), 친구와 만나다(19.8%), 공부(18.0%), 독서(16.0%), 종교활동(15.9%), 음악감상·악기연주(14.8%), 운동·스포츠 관람(14.3%), 영화·연극관람(10.1%), 쇼핑, 여행,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문화방송, 1991).

이러한 최근의 조사들은 12세~22세의 청소년 1,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김 종선(1985)연구나 고영복(1980)연구와 별 차이가 없다.

위와 같은 조사결과로 볼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도 적극적인 여가활동보다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가장 선호하는 유형은 T.V나 라디오 청취인데 좀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유해환경과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등으로 인한 문제이다. 이것은 여가이용 시설이나 장소의 부족 등이 가장 큰 원인이며 적은 비용으로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센터 등의 설치를 필수화함으로써 청소년뿐만 아니라 국민전체가 건전한 마음과 건강한 신체를 갖도록 유도함으로써 국가의 힘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가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사회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적절한 방법으로 해소시키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으며 특히 공부압력으로부터 시달린 청소년들이 이를 극복하지 못해 탈선의 길로 빠지고 있다. 청소년들이 그들의 욕구불만을 해소할 적절한 여가장소나 시설이 있어야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성인들을 위한 장소나 이를 모방한 장소들이 주변에 산재하고 있어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즉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유해업소, 유해인쇄매체, 유해영상매체, 유해화학물질 등이 주변에 널려 있을 정도이다.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에 이런 유해환경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3. 여가욕구와 여가선용

1) 여가욕구

현대의 인간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가시간이 많아지고 있는 반면에 역설적으로 기계화되고 자동화된 업무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를 강하게 느끼게 되며 또한 도시화된 현대생활은 인간을 고립되게 함으로써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자아를 표현하고픈 충동을 느끼게 한다. 특히 청소년은 그 발달단계에서 볼 때 아직은 미완성의 단계이며 심리적 이유기 상태에 있어 정서적·심리적으로 안정을 바라며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여가시간이며 여가활동을 통해서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학생 청소년은 공부압박으로부터 탈피하고자 몸부림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따라서 여가에 대한 욕구가 성인보다 오히려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욕구는 흔히 1차적 욕구와 2차적 욕구로 구분되며 욕구에 있어서 Maslow의 욕구 5단계는 욕구의 위계를 인정하고 하위단계에서 점차로 상위단계로 추구하고 있다고 보았다. 1단계는 신체적·생리적 욕구로서 의·식·주·성(性) 등의 기본적 욕구이며, 2단계는 안전에 대한 욕구로서 생명, 생활, 외로부터의 자기보호 욕구, 3단계는 사회적 욕구로서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이며, 4단계는 존경에 대한 욕구로서 존경, 자존심, 승인 등의 욕구이며, 5단계는 자기실현의 욕구인데 레크리에이션은 생리적 욕구나 안전에 대한 욕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소속 및 애정의 욕구나 존경의 욕구, 자기실현의 욕구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한다고 한다. 그리고 레크리에이션이란 본래가 자기표현, 자기해방, 그리고 자기확장의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실현을 위한 좋은 계기와 과정이 레크리에이션에 있다고 한다(이종각, 1990 : 80-92).

이러한 여가에 대한 욕구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여가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첫째, 시간으로서 일과시간, 휴일, 주당 근무 시간, 휴가 등 둘째, 주

변환경으로서 친구, 가족, 종교, 지역사회의 분위기나 규범, 작업(학업)환경, 셋째, 경제적 여유로서 여가생활에 필요한 제 경비, 넷째, 경험으로서 기존의 경험에 근거한 기대, 가치 규범, 다섯째, 이용가능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여섯째, 이용가능한 시설이나 장소, 일곱째,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능력, 기능, 여덟째, 개인의 심리적 욕구, 아홉째, 여가와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 열째, 사회적 환경의 영향과 사회의 가치관 등이 있다.

또한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로 분리할 수도 있는데 내적인 요소로서는 의지, 가치관, 인성, 개성, 취향, 욕구 등이 있고 외적인 요소로서는 나이, 성, 수입, 직업, 거주지, 교육정도, 시간 등을 들 수 있다.

2) 여가와 스트레스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어린이, 청소년들도 성인과 똑같이 복지혜택을 즐기고자 한다. 여가시간을 보내는 데는 금전적인 지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개별화 과정은 청소년들이 금전적 지출에서도 성인과 똑같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개별적인 생활양식은 성인과 똑같이 보내고 싶어하지만 여러 면에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것들이 청소년과 성인사이에 발생하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적 갈등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여가 스트레스라고 한다. 스트레스는 잘만 이겨내면 건강하고 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면 건강에 지장이 있고 인간발달에도 장애요인이 되며, 정신적·신체적 병리현상을 가져오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어느 사회든지 전체 청소년들 중에서 10~15%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병리현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병리현상은 심리, 정서, 학업, 사회관계 등 매우 다양하다. 청소년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세는 두통, 불안, 초조, 열등의식, 정신적 산만, 식사거절, 위장병, 불면증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가정, 학교, 사회환경 등에서 찾아 볼 수 있지만 여가

때문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도 있다. 청소년들에게 여가 때문에 각종 심리적 병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라고 주장되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교육기간이 길어지고 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청소년들의 생활이 매우 어렵게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문화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청소년기는 길어지고 여가시간도 많아진다. 성인기는 직업적, 법적,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가정적 영역에서 스스로 선택을 해야하고 배우자 선택이나 성(性)적 영역에서도 선택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성인들과는 달리 부모에게 정서적·내적으로 의존관계에 있으면서도 동년배들과 가치, 규율을 형성코자 하기도 한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가족과의 종속관계에서 벗어나 동료집단과의 관계 형성에서 여러 형태의 문제와 위기감을 가지게 되는데 여가를 보내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종전에는 가족 공동체 속에서 공존의 생활이었는데 비하여 지금은 개별화, 자립적인 생활이 일찍부터 요구되기 때문에 교육, 직업, 이성교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며 따라서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되는데 여가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현대사회는 여가시간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물질 위주의 사고방식과 계층간의 소비양식의 차이, 그리고 과소비로 인한 위화감 등으로 인해서 여가양식에도 차별이 있게 되고 이를 타인과 비교하게 됨으로써 불만감을 갖게 되고 심하면 스트레스로 된다(Klaus, 1990).

특히 청소년들은 생리·신체적 발달이 빨라지고 가정,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이유기가 빨라지면서 친구들과의 집단생활의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동료집단과의 생활은 여가시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여가에 대한 욕구를 가정이나 학교에서 충족시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나름대로의 여가를 추구하려고 하고 잘못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여가이용에는 금전이 필수적인 문제인데 개인적인 여가비용이 부족하거나 타인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적다고 느끼게 되면 불만과 스트레스가 쌓이게 된다. 이러한 불만과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발달에 정신적·신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친구관계에 있어서 원만한 생활을 방해함으로써 사회화과정에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여가생활에 대한 불만은 일탈로 변할 수도 있다. 즉 여가에 대한 불만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상당한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음성적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알콜, 흡연, 약물중독에 빠질 수 있으며 하루 계층의 청소년들이 이러한 활동에 더 많이 빠진다는 보고도 있다(Jensen, 1977). 따라서 여가는 직업청소년, 학생청소년 할 것 없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우리는 많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청소년의 여가생활

여가의 생활은 시대에 따라 매우 다르고 다양하게 나타난다. 즉 고대나 중세의 여가생활과 현대의 여가생활은 같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또한 장소에 따라서, 즉 문화나 지리적 배경, 역사, 전통이 서로 다른 국가마다 여가를 즐기는 양태도 또한 다르다. 여기서는 이러한 여가양태를 전부 고찰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여가생활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기에는 자아인식이 시작되면서 자아상(self-image)을 표출하는 놀이가 점차 많아지고 자아상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단체놀이와 같은 ‘사회적 놀이’와 ‘경쟁적 놀이’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청소년기 후반으로 갈수록 놀이의 참여동기로서 자아존중과 이성을 포함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되며 이러한 사회적 놀이나 경쟁적 놀이를 통해서 청소년들은 소속감에 의한 사회적 안정감을 추구할 뿐 아니라 긍정적인 자아개념, 독립심, 자신감 등이 배양되는 것이다. 이런 놀이의 예로는 경쟁적 놀이로서 각종 게임, 스포츠, 콘테스트 등이 있고 사회적 놀이로서 레크레이션 활동, 디스코장 가기, 롤러스케이트 타기, 클럽활동 등이 있다.

청소년의 여가생활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문제는 청소년기만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즉 어린 시절부터 현재 청소년이 발달과정에서 어떻게 여가시간을 보내왔느냐를 살펴봄으로써 연령별, 단계별 변화과정을 이해해야

한다(Gustav Mugglin, 1972 : 43-104).

청소년이 여가생활을 하는 장소에 따른 여가유형을 살펴보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가정의 문화공간에서부터 여가생활을 시작한다. 가족의 구성원, 가정의 공간 등에 따라 여가생활이 달라지며 현재의 청소년들은 주택의 구조나 가족관계가 급격히 변화함으로써 가정내에서의 놀이나 여가생활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으며 옛날과 같은 인간적인 면이 줄어들어 바람직한 사회관계를 형성하는데 장애가 되는 면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주택구조도 가족의 여가생활을 염두에 두고 설계해야 하며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고 이웃과 공동으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하며 주택 내에서도 가구의 배치 등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이웃 중심의 여가생활이다. 어린이들이 주로 보내는 활동 공간은 집에서 50m 이내이며 골목이나 길거리에서 보내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 전기의 젊은이들도 집 주변이 활동무대가 되고 있음을 볼 때 동네나 이웃 환경이 중요시되어야 한다. 이들이 주로 하는 활동은 동적 여가, 정적 여가, 사회성 여가 등으로서 그 장소가 주택가 주변이나 인근의 학교, 놀이터 등이 되고 있다.

셋째, 시, 읍, 면의 공공시설 중심의 여가생활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청소년회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많은 선진국에서는 지역사회마다 각종 청소년 복지시설이 건립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여가를 보내고 있다. 또한 도서관, 박물관, 각종 문화시설 등도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1874년 Settlements에 청소년센터를 건립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넷째, 종교단체를 이용한 여가생활이다.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청소년의 여가생활을 위한 시설, 프로그램 확보가 가장 잘 되어있는 기관 중의 하나가 종교기관이다. 종교단체나 기관이 청소년 여가생활에 기여한 바는 매우 크며 이런 의미에서 종교단체나 기관을 이용한 여가가 적극 고려되고 그 역할을 확

대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자연공간을 이용한 여가생활로서 산책로, 자전거 전용도로, 잔디밭, 가족놀이 장소, 수련장소 등을 이용한 여가활동이다. 외국에서는 마을과 마을 사이를 산책할 수 있는 인도나 산책로, 자전거 전용도로, 수련장, 캠프장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찾아다니며 자연공간을 마음껏 이용하여 여가를 즐기고 있다. 또한 이런 활동은 주로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유럽 등에서는 하루계층 청소년들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제도화 하여 운영하고 있다.

여섯째, 각종 사회체육시설을 이용한 경우로서는 각종 구기종목 시설, 실내외 수영장, 스키장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체육이 잘 발달된 나라에서는 청소년들도 사회체육 협회에 가입하여 스포츠를 통한 여가를 보내며 심신을 단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사회체육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최근에 매우 고조되고 있다.

일곱째, 각종 청소년센터 및 시설을 이용한 취미활동을 통한 여가생활이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단순히 관객으로서 참여할 수도 있고 직접 참여할 수도 있는 연극, 영화관, 또는 음악회, 합창단 등이나 여가생활 프로그램을 통한 취미 활동 즉 사진, 무용, 공작, 독서 등을 하는 것이다. 이런 취미활동을 통하여 여가를 유용하게 보낼 뿐 아니라 개개인의 잠재력이나 기능을 키울 수도 있다.

여덟째, 국가간, 국제간의 시설 및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여가생활이다. 국제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청소년,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청소년, 국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세계 모든 나라에서는 국제 시설을 이용한 각 국가간의 청소년 교류를 통한 여가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상에서 청소년의 여가생활을 생활권 영역으로 생각하여 보았다. 다시 부연하면 여가생활은 가정에서 출발하여 동네, 이웃 중심, 지역사회 단체 및 문화시설 등 미시적 생활공간에서 거시적 생활공간으로 확대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

4) 여가선용 방법

먼저 여가를 즐기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한국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문화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몇가지 선행되어야 할 내용을 주제 중심으로 나열하고 여가를 즐기는 방법을 진술하고자 한다.

(1) 건전한 여가 문화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한 몇가지 제언

① 청소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확대되어야 하고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② 청소년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지역사회 단위의 여가시설(청소년 여가센터의 건립)을 갖추어야 한다.

③ 여가 지도자의 훈련 및 배출이 필요하다. 대학에 청소년 지도학과를 확대·신설하여 청소년 지도자 양성과정에서 여가선용 지도과정을 이수토록 한다.

④ 청소년들의 여가생활에 대한 성인(기성세대)들의 긍정적인 태도변화가 필요하다. 노는 것, 공부하는 것, 일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생활태도를 길러주어야 한다.

⑤ 청소년 여가문화(청소년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기관의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 사단법인 한국청소년학회 부설 연구기구로 설치,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⑥ 청소년 단체 활동의 우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들의 사회단체활동 참여자는 학교의 내신성적 등에 일정비율을 반영하는 것을 제도화 한다.

(2) 여가를 즐기는 방법

① 가정에서의 여가 훈련이 필요하다. 모든 교육이 그러하듯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긍정적인 여가선용 문화는 가정에서 부터 생활을 통하여 배워야 한다. 부모가 여가시간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여가문화 형성도 영향을 받는다.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의 집단놀이와 함께 여

가습관을 습득하고 여가활동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② 학교에서의 여가교육의 실시가 요구된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여가시간도 허용하지 않고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은 학업에 방해가 된다는 일방적 해석에 의하여 또는 변칙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특별활동시간이나 예능, 체육시간을 무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여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여가선용을 위한 내용을 교과교육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건전한 여가선용 프로그램이 뒤따라야 한다. 여가문화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청소년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 여가산업의 긍정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④ 청소년들은 어느 면에서는 음악, 춤, 의상, 이성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기본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부 또는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건전하게 유도 또는 인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⑤ 가족중심 여가문화의 정착이 요구된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최근 적극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 여가문화 지도방법은 가족 구성원 중심으로 여가시간을 보내고 가족 중심의 활동의 장에서 가족 중심의 여가내용을 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여가를 즐기는 방법이다. 가족구성원이 함께 여가시간을 보내는 한 시간, 장소, 내용에 문제 없이 청소년 여가는 건전할 수 있다.

본문요약

여가는 광의로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말하며 협의로는 어떤 바람직한 가치를 지닌 것을 여가로 파악하며 구체적으로 레크레이션과 같은 바람직한 활동을 말하기도 한다.

현대는 고도의 산업화와 기술발달의 결과로 기계화, 자동화로 대량생산이 이루어지면서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임금-소득 증가로 인한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여성들의 가사노동이 대폭 절감되고 복지정책 등의 확대로 생활이 안정됨으로써 일반대중에게도 여가 향유의 기회가 골고루 공유되는 여가의 대

중화시대 즉 대중여가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전한 성장이 요구되며 덕·체·지가 고루 갖추어진 전인적 인격형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는 개성있고 자기표현력이 있는 창조적인 인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여가생활을 통해서 갖추어질 수 있는데 그것은 여가생활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가는 계층간의 위화감이 표출되거나 과소비적 형태로 나타남으로써 역기능을 하기도 하며 특히 성인들의 무분별한 생활은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감각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문제행동을 일으킬 소지도 있다.

청소년들의 여가실태를 보면 주로 소극적인 수동적인 여가를 즐기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은 공부압력 때문에 실제로 여가시간이 매우 부족하며, 여가장소나 공간 등이 부족해서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유해업소나 유해매체 등 유해환경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학생 청소년들도 앞으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등으로 여가시간이 훨씬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여가선용을 위한 여가교육이 적절하고도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여가지도자 양성과 같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청소년을 위한 여가시설, 공간, 프로그램 등이 보다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과제

1. 여가의 개념과 기능을 살펴본다.
2. 현대생활과 여가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본다.
3. 청소년들이 주로 즐기는 여가유형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알아본다.
4. 청소년의 여가생활의 문제점과 그 원인 및 대책을 알아본다.
5. 여가선용의 방법과 여가교육의 필요성을 알아본다.

참고문헌

고영복, 김인자, 안해균(1980), 청소년의 여가활용 실태에 관한 연구, 국무총

리 기획조정실.

권이중(1991), 사회교육개론, 교육과학사.

권이중, 남정결(1988), 사회교육 및 청소년 프로그램 편람, 교육과학사.

김정명, 이종원, 노혁(1990), 청소년전용 놀이마당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김종선(1986), “청소년의 여가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청소년과 사회체육, 한
국사회체육진흥회.

이종각(1990), 현대사회와 레크리에이션, 보경문화사.

문화방송(1991), '91 MBC 청소년백서, 문화방송.

Donald Hawkins(1972), Leisure Education, in Edwin J. Staley & Norman
P. Miller(eds.), *Leisure and the Quality of Life*, Washington, D. C. :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and Recrea-
tion.

George Torkildsen(1986), *Leisure and Recreation Management*, Cam-
bridge : University Press.

Godbey G.(1978), *Recreation, Park and Leisure Service*, Philadelphia : W.B.
Saunders.

Jensen Clayne R.(1977), *Leisure and Recreation*, Philadelphia : Lea &
Febiger.

Miller, N. P. and Robinson, D. M.(1963), *The Age of Leisure*, Belmont
(Calif.) : Wadworth Publishing Co.

Gusav Mugglin(1972), *Freizeitstätten für Kinder und Familien*, Z rich : Pro
Juventute.

Klaus Hurrelmann(1990), *Familienstre , Schulstre, Freizeitstre*, Weinheim;
Basel : Beltz.

8.

대중매체와 청소년

개 관

오늘날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은 일종의 거대한 지배권을 형성하여 어느 누구도 이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되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미디어의 영향에 의한 사회문화적 역기능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나 환경 자체에 대해 의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문제점 파악, 그리고 그 대책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장에서는 먼저 우리 나라의 미디어 환경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지적한 후 대책에 관해 언급하기로 한다.

주제어

대중매체, 청소년문화, 현대사회, 미디어 환경, 청소년비행, 미디어교육

* 최창섭, 서강대학교 교수

1. 서 론 : 현대사회와 매스미디어

현대인은 미디어 환경이란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 환경을 이루고 있는 미디어나 환경 자체에 대해 의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저 무의식적으로 신문과 잡지를 읽고 TV와 영화를 보곤 한다. 실제로 아침에 눈을 떠서 잠을 깨까지 미디어와 접촉하는 시간이 매우 많지만 이에 대해 별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미디어, 특히 매스미디어의 질적·양적 발달에 따른 여파는 어느 사회에 현대인의 생활 속에 깊숙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즉, 미디어 환경에 의한 사회문화적 역기능이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문제점 파악, 그리고 그 대책에 관한 논의는 매우 시의적절한 시도라고 할 수 있겠다.

오늘날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은 일종의 거대한 지배권을 형성하여 어느 누구도 이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되었다. 사회의 변화나 발전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체제와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최창섭, 1984 : 26-31). 즉, 사회체제 내의 한 하부체제에서의 변화는 또 다른 하부체제의 변화를 유발시키며 이러한 현상은 계속 연쇄반응 효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개인 수준에서의 변화는 사회 수준의 변화를 초래하고 사회 수준에서의 변화는 또 다시 개인 수준의 변화를 일으키는 점층적 상호작용 효과를 유발시킨다. 특히 하부체제 중의 하나인 매스미디어는 사회의 각 하부체제를 연결시키는 상호작용과 문화전송의 본래적 기능을 갖고 있는 동시에 인간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개인 및 사회에 중요하고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사회체제와 매스미디어를 상호 연결관계로 파악한다면 매스미디어의 내용은 그 사회 문화의 산물인 동시에 생산자라는 관계가 형성된다. 그리고 생산자로서의 매스미디어는 일반 대중의 인식 방법, 사고 방식, 행위 양식, 사회적 관계 등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매스

미디어가 수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수용자 또한 미디어 내용에 영향원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미디어의 영향력의 막강함이 정기능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역기능적인 면에서도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하겠다. 예를 들면, 매스미디어는 어린이와의 관계에 있어, 인격 형성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어린이의 태도·가치·신념 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매스미디어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는 세대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머니와 더불어 텔레비전과 같은 매스미디어에 접하게 되며 어머니의 자장가 대신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나 소리를 배움(背音)으로 하여 잠이 들고 깨어난다. 또 이들은 사물의 움직임에 대한 개념을 텔레비전의 광고 화면을 통해 가장 먼저 터득하며, 광고 음악을 통해 리듬 감각과 울동을 익힐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꿈을 키우고 밤하늘의 별을 헤며 미래상을 형성하던 시절의 어린이들과는 달리 요즘의 어린이들은 텔레비전, 만화 등의 주인공과 더불어 자라나고 그들을 흉내내는 가운데 자신들의 미래상을 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텔레비전 세대의 아동들은 아버지보다도 텔레비전이 더 좋을 수도 있으며, 적어도 오늘날의 많은 어린이들이 아버지와 접촉하는 시간보다 텔레비전과 더불어 지내는 시간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와 같이 어린이와 매스미디어 노출의 문제는 오늘날 전체 미디어 환경에 따른 문제들 중의 일부분일 뿐이다. 거의 사회 전반에 걸쳐 매스미디어의 영향이 미치고 있으며, 그러한 사이에 대중 안에서 개인의 소외와 획일화된 인간의 형성 등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본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미디어 환경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지적한 후 대책에 관해 언급하기로 하겠다.

2. 미디어 환경의 현황

먼저 매체별로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미디어 환경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방송분야를 보면, 현재 우리 나라는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가구가 TV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광고문화연구원). TV 시청량도 보급률에 못지 않아, 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 심한 경우에는 취침시간을 뺀 일과의 약 3분의 1인 5~6시간을 TV 시청에 소비하고 있는 것을 나타냈다(최창섭, 1983: 1). 이를 주당 평균으로 환산하면 17시간 11분, 연평균으로는 894시간 15분에 이르고 있다. 다시 일수로 계산하면 약 38일로 1년 중 1개월 이상을 TV와 함께 지낸다는 엄청난 TV 시청량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시청량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루어진 일련의 변화인 컬러 방영의 시작, 아침 방영의 재개, UHF 교육 TV의 개설과 함께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다. 더구나 통신 위성 발사 계획, 유선 TV 방송망 도입, 급속한 비디오의 보급 등으로 시청량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라디오의 경우에는 각 가정의 1~2대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한 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중 22% 정도가 1시간 가량 라디오를 청취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약 30분 정도가 17%, 약 2시간 및 3시간 이상이 각각 18%로 밝혀졌다(오택섭, 운용, 1983: 17). 특히 라디오 청취 행위는 대부분 동반 행위라는 점에서 행위자의 연령, 직업 등의 입장에 따라서 매우 높은 청취율을 보이는 계층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신문의 경우인데, 우리나라의 신문 1일 발행 부수는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 1천만 부에 이른다고 한다. 여기에 주간지, 월간지, 격월간지까지 합하면 엄청난 숫자가 된다.

그리고 잡지는 4천 3백여종이 발행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이러한 잡지에 거의 무비판적으로 노출될 때 생기는 문제점이다.

영화의 경우도 일반 대중이 외화에 무비판적으로 노출될 때 야기되는 문제점이 지대하다는 점이다.

광고 분야의 경우는 1988년 한 해 국내 총 광고비는 1조 5천억원으로 GNP의 1.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방송광고공사, 1990 : 1981-88). 이를 좀 더 분석해 보면 신문, 잡지, TV, 라디오 등 4매체 광고비가 1조원으로 전체 광고비의 80.1%, 해외 광고, 옥외, DM, 기타 광고비가 19.9%를 차지하였다. 이를 다시 매체별 광고비 내역으로 살펴보면 신문이 4천 6백 30억원으로 36.2%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으며, TV가 4천 4백 40억원(34.8%), 잡지 6백 52억원(5.1%) 라디오 5백 15억원(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업종별로는 식품·음료가 2천억원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했으며, 의약품 1천 3백 60억원(13.3%), 화장품·세제 8백 78억원(8.6%), 서비스·오락 6백 16억원(6.0%) 등이다.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신문·잡지 등을 통한 광고는 전혀 규제가 없이 노출된다는 점이다. 즉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못할 광고들이라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반적으로 대중들은 자신이 의식하든 안 하든, 좋은 싫든 깨어나서부터 잠들기까지 하루 일과 중 많은 시간을 매스미디어와 접하고 있다. 1990년대에도 매체 환경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먼저 전파 매체와 관련해서 예상되는 변화를 보면, 통신 위성예 의한 직접 방송, 민영 TV와 CATV의 실시, 광고 시장의 본격 개방, 시청율 조사제도의 실시, TV의 종일 방송, 라디오 방송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인쇄매체의 경우는 신문 지면의 증가, 신문 기업의 다각 경영화, 새로운 인쇄매체의 등장(레저·스포츠 등), 업계·전문지 등의 등장, 지방 중소도시의 지역신문 발간 등이 이미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제작 측면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기술의 발달 등이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몇가지 특성이 있다(최창섭, 1983 : 4-5).

첫째는, 정보의 홍수문제이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급변하고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현대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복잡한 정보를 수용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해야 하는데 그러한 시간과 능력이 없

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자기 생활에 적용시키지 못함으로써 현대인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앨빈 토플러는 이러한 현상을 「미래의 충격」에서 다루고 있다. 즉, 현대인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충격과 두려움을 지니며 살고 있는데 이것은 매스미디어를 비롯한 각종 테크놀로지의 급격하고 고도한 발달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정보의 홍수시대에서 많은 양의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설사형’ 수용자에서 탈피, 정보를 잘 소화하여 취사선택할 수 있는 ‘소화형’의 수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두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현대 미디어 환경의 특성은 언어의 편향적 섹취 문제이다. 즉, 각종 매스미디어에 접하는 현대인 또는 새로운 세대는 이미 구두적인 언어보다는 청각적인 언어에 더 적응이 잘되는 세대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요즘은 각종 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전달수단으로 TV, 비디오, 슬라이드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메시지를 제공하는 송신자 입장에서의 모든 사회 체제에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현상은 대중 매체를 통한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일반화 속에서 개인간의 내적 감정이나 사상을 주고 받는 인간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을 찾아볼 수 있겠다. 즉, 현대 사회의 파행적 성격을 특징지을 수 있는 인간성 부재, 대화 단절 등의 원인이 바로 이러한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비활성화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세번째로는 정보 시대가 되면서 공간 개념이 보다 확장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과거의 농경 시대와는 다른 산업 사회의 특성이라 할 수 있겠는데, 농경시대는 작은 마을 단위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 마을에서 모든 정보가 유통되었으나 산업화 또는 기계화가 되면서부터 거리의 공간 개념이 보다 넓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전국이 일일생활권에 속하게 되었다. 이는 작은 마을에 뭉쳐 있던 사람들이 멀리 공간을 초월하여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에서, 그것은 산업화로 얻은 하나의 장점이기는 하다. 그런데 정보화 시대는 한 단계를 더 넘어서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동시간 동공간의 시대를 이루게 된다. 다시 말하면, 정보화 시대란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시대를 의미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동시간 동공간을 형성하는 시대를 말한다. 이렇게 동시간권, 동공간권으로 엮여지면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통신위성, 컴퓨터, TV 스크린 등 고도로 발달된 매스미디어(특히 뉴미디어)이다.

이러한 정보화 시대에 돌입하면서 물론 서로 떨어진 곳에 있으면서도 만나지 않고 의사를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다는 편리함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편리함이 과거의 공간시간적 차이가 있던 시대와 비교하여 모두 기능적으로만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정신적 성장에 필요한 일정기간의 시간을 갑자기 생략해 버림으로써 빛는 내적 갈등이나, 자연을 직접 접하지 못하고 간접적인 경험에 의해서만 인식해야 하는 도회지 어린아이들의 불균형 성장을 볼 수 있겠다.

이 외에도 일일이 지적할 수 없을 만큼 오늘날 미디어 환경은 널리 깊숙히 현대인의 생활영역에 들어와 다양한 생활환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변화는 곧 인간의 정신 세계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겠다.

이제 이와 같은 미디어 환경이 빚을 수 있는 영향 및 문제점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3. 미디어 환경의 문제점

앞에서 언급한 미디어 환경이 현대인들에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매스미디어가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 때문이다. 즉, 매스미디어의 역할 내지 기능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예를 들자면 이산가족찾기 TV 방영이 매우 좋은 본보기이다. 이는 모든 사람의 관심을 한데 묶는 일을 TV

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음을 잘 보여준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비단 TV 매체 뿐만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매스미디어가 수용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매스미디어의 기능에 대한 보다 다변적인 검토는 미디어 환경에 의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매스미디어의 문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용자의 자세를 획일적으로 만든다는 점에 있다(최창섭, 1983 : 6). 매스미디어는 개인과 대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지만 그 근본적인 존재 이유는 공통성을 창조하기 위한 것이다. 공통성이란 어떤 점에서는 획일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존재하려면 대한민국 사람이 똑같이 생각해야 하고 똑같은 언어를 써야 하며, 똑같은 습관을 가져야 하고 똑같은 제도를 숭상하도록 만들어주어야 할지도 모른다. 어쨌든 획일화된 제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도태되어 사회적으로 낙오자가 되고 만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제도나 언어를 한군데로 묶어주는 역할을 매스미디어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즉, 사회 안에 존재하는 매스미디어는 그 사회가 가고자 하는 획일적이고 공통적인 방향을 도와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매스미디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하는 인도자가 된 것이다. 한편 어느 사이언스가 TV는 안방 손님의 차원을 넘어 안방 주인이 되고 심지어는 가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항상 우리 주위에 TV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하게 되어, TV가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며, TV가 우리의 실생활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상 TV는 현실의 세계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 흉악하고 괴상한 행위는 TV에 비추어지기 쉽지만 평범하고 따뜻한 이야기는 TV에 등장하기 어렵듯이 TV는 그 속성상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같은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것만을 전달해 주지는 않는다.

또한 TV를 ‘미지의 세계를 향한 창문’이라고 말하곤 하는데 창문은 각기 창문마다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최창섭, 1983 : 7). 그 첫째 특성은 창문의

크기이다. 즉, 이 창문의 크기에 의해 우리가 볼 수 있는 넓은 외부 세계를 제한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TV라는 창문은 그 제한된 크기 때문에 시청자로 하여금 제한된 만큼의 세계만을 볼 수 있도록 시야를 한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창문의 단절 기능이다. 창문은 그 성격상 창문 밖의 소음과 열기, 냄새, 흥분, 즐거움, 미움 등을 모두 차단한다. 즉,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끼는 갖가지 숨결들이 창문에 의해서 막히고 마는 것이다. 결국 시청자들은 창문을 통해 죽은 세계를 보면서도 마치 산 세계를 보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된다. 세번째는 창문의 색깔이다. 우리는 창문에 칠해진 색깔로 인해 이미 채색되어진 세계를 보게 된다. 즉, 바깥 세계는 매스미디어의 창문이 빨강이라고 알려주면 빨간 것으로 인식되고 푸르게 표현하면 푸른 것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실제의 세상은 푸르더라도, 매스미디어를 통해 우리가 보는 세계는 빨간색일 수도 있고 검은색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창문의 세 가지 본질적 특성에 의해 우리가 매스미디어를 통해 보는 세계는 실제와는 다른 허구의 세계이며, 채색되고 변질된 세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단순히 화면이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 살아 있는 세계는 아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바로 매스미디어의 창문을 누가 움직이느냐에 따라 그 색깔과 크기와 내용이 달라진다는 데 있다. 즉, 어떤 내용을 어떤 색으로 칠하고 차단할 것인지는 매스미디어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매스미디어에 접하는 다수의 일반 대중은 매스미디어의 단추를 누르는 사람의 의향에 따라 좌우되게 마련이다.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각자 바라는 바에 따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결국 피동적인 존재로 남아 매스미디어에 중독되어 버리고 마는 결과를 빚게 된다. 중독된 상태에서는 이성이나 마비되어 어떠한 내용을 받아들이는지 또 왜 받아들이는지도 모르게 되며, 이러한 마비 상태에 이르도록 이끄는 데 가장 적합한 기술은 환상의 세계를 창출하는 것이다. 메시지는 환상의 차원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된다고 하며, 대표적인 환상의 세계로는 드라마, 공상만화, 스포츠 등을 들 수 있다. 심지어는 말장난으로 일관하는 드라마는 마치 탁구게임을

보는 것 같아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의 정신을 빼앗아 갈 지경으로, 뒤늦게야 시간을 낭비했고 건강을 해쳤음을 깨닫게 된다.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대상을 10분 이상 계속해 보기는 힘들다고 한다. 그러나 TV는 시청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계속해서 화면 전환을 하고, TV의 마력에 이끌리게 되면 1시간 이상 수시간을 TV에 빼앗기게 된다. 2~3초에 한 번씩 바뀌는 빠른 화면 전환은 연속적인 긴장을 조장하기 때문에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TV를 본다고 하는 시청자들의 경우에 오히려 TV 시청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는 역효과를 낳게 되기도 한다. 결국 TV는 우리의 육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올바른 사고 방식, 가치 판단 등 정신면에서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겠다.

또한 매스미디어는 가치관 전도와 물질만능 현상의 조장이라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그 좋은 예로, 모든 드라마의 해피엔딩은 윤리 문제는 커녕 출세를 한다든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다거나 하는 배금주의 사상을 부추기고 있다. 비인간적으로 돈을 번 주인공에게 시청자들은 박수를 보내게 된다. 그 과정에서 인권의 침해와 같은 비윤리적 행위는 모두 도외시되며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시청자들은 착각을 하게 된다.

가치관의 전도 문제는 신문의 경우에도 찾아볼 수 있다. 즉 거의 매년 전개되는 각종 명목의 모금시에 성금을 많이 한 사람의 이름과 적게 한 사람의 이름이 활자 크기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단돈 10원이라도 최선을 다한 성금 그 자체에 아름다움과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 그 많은 직업 중에 유독 고등고시 합격자 명단만이 신문에 실리는 것도 출세지향주의를 조장하는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물질적인 가치와 권력지향적인 가치만을 조장해주는 매스미디어의 잘못된 가치관을 경계해야 한다.

광고의 문제에 있어서도 한편으로는 소비절약을 호소하는 매스미디어가, 다른 한편에서는 광고를 통해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도록 소비행위를 자극·조장하고 있다. 더욱이 매스미디어의 자극에도 새로운 물건을 사지 않는 사

탐은 뒤떨어지고 도태되는 인상을 받게 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한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의 전도는 건전한 성에 대한 인식을 선정성으로 바꾸어 놓았고, 인간의 생에 대한 근본적인 의지를 권력과 불의에 대한 탐욕으로, 자신에 대한 존경심을 자만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불완전성에 대한 의식을 불안과 초조로, 레크리에이션을 끝없는 경쟁으로 바꾸어 놓고 말았다. 그런가 하면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휴식을 도파로 바꾸어 놓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매스미디어로 인한 인간가치관의 전도가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면으로 치우치게 되면서 야기되는 문제가 바로 비인간화 현상이다. 흉악해진 청소년 범죄, 당혹스러울 만큼 경시된 인간가치와 인권, 비윤리적 패륜범죄들, 사회전반에 만연된 한탕주의·찰나주의 등은 바로 인간의 비인간화라는 최대의 아이러니가 빚어낸 부서운 결과물이다. 예를 든 몇가지 외에도 인간보다 물질을 더 중요시하는 현상을 주위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상에서 매스미디어에 의한 개인적 사회적 폐해나 역기능에 대해 살펴본 것으로, 이들 문제점에 따른 해소책이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뒤따라야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매스 미디어에 그저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수용자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선별하고 취사선택하는 적극적인 수용자의 자질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4. 청소년 비행과 미디어 환경

범죄는 인간 사회의 한 속성으로서 원죄 개념 이래 인류의 맥락 속에 상존하여 왔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 현상이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현대 사회가 갖는 제반 특성, 즉 고도의 산업화와 분업화, 교통 통신의 발달, 도시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주의 하에서의 소비 성향의 증대, 이에 따른 부의 집중,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교육의 보편화에 따른 사회·문화적 욕구의 다양화 및 기대수준의 상승, 여기에서 유발되는 성취 목적과 성취 수단간의 간격과 극대화 등 범죄 행위 유발 요인으로서의 인적, 사회적 변수와 사회, 문화적 요인의

복잡화로 범죄율의 급증은 물론, 범죄 행위 자체의 포악화와 극렬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1960년대를 ‘폭력의 시대’라 명명할 정도로 도시 범죄, 폭력 범죄, 조직적 극렬주의, 마틴 루터킹 목사나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등 살인 범죄, 집단적이고 폭력적인 반전운동 등 현실세계에서의 범죄 및 폭력의 증대를 경험한 미국 등 선진산업사회에서 목격하였으며, 이같은 상황은 선진 산업사회로 발전, 전환 중에 있는 국가에서도 심각한 당면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산업화, 도시화 등 사회의 급격한 구조적 변동과 이러한 변동을 감당할만한 대안적 가치관이 부재한 요즈음의 우리 사회에서는 날로 포악해지는 범죄 현상과 더불어 더욱 더 심각성이 증폭되고 있는 청소년 비행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확대, 심화되어 위기감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비행에 대한 사회의 위기감은 이제 단순히 경고의 차원을 넘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화되고 있으며, 그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밤거리에 모여 있는 청소년들을 타일러서 일찍 귀가시키고, 싸움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말리는 어른들의 모습은 이제 이미 과거의 도덕적 유산으로 남고, 늦은 귀가길에 폐지어 있는 청소년들을 보게 되면 저만큼 피해 돌아가고, 혹은 청소년들의 싸움을 보게 되면 피하는게 상책이 되어버리게 작금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비행의 문제는 많은 사회적 특징과 문화적 요인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청소년의 가치관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매스미디어의 환경은 가히 위협적이다. 범람하는 성인용 비디오, 영화, 만화, 전자오락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간신문과 안방의 TV에서까지도 우리의 청소년들은 무차별적으로 많은 폭력과 범죄에 포위당해 있다. 얼마 전에 발생한 대홍동 어린이의 여동생 살인사건은 그 사회적 충격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그 범죄행위의 구체적 모방이 매스미디어를 통한 모방이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10살난 어린이가 동생이 귀찮게 군다고 해서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집에 불을 지른 다음에 그가 본 폭력비디오의 내용을 소재로 우편배달부가 집에 와서 동생을 죽이고 집에 불을 질렀다고 뽀뽀스럽게 경찰에 신고한, 회한한 폭력비디오의 소재가 될 법한 이 사건은 이제 우리의 분명한 현실이다.

이와 같이 현대산업사회에서 그 심각성이 날로 증가되는 청소년 비행의 문제는 이제 단순히 비행의 차원뿐만이 아니라, 가장 극악한 범죄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에 매스미디어의 환경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며, 청소년 비행의 주된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 비행의 문제는 이제 그들을 둘러 싸고 있는 매스미디어 환경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청소년 비행과 매스미디어 환경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문제를 극복하고, 청소년의 새로운 가치관 확립에 부응하는 매스미디어의 바람직한 위상과 그 환경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청소년 주변 사회적 특징, 매스미디어의 영향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청소년 비행과 폭력증대의 원인을 기타 사회적 특징과 더불어 매스미디어에서의 비행이나 폭력묘사와 관련지어 매스미디어가 청소년 비행의 주원인일 것이라 가정하게 된 데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증대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청소년 비행의 특성, 원인, 정도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가 매스미디어를 통해 유포되고 있고, 그 같은 비행을 뉴스로 다룸으로써 비행에 관한 수용자의 주의력, 공포감, 참여감, 혹은 기대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비행문제가 하나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로서가 아니라, 게임을 즐기듯 단순한 흥미거리로 보이게 하고, 또 비행에 대한 빈번한 노출이 비행에 관한 일종의 무감각 현상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이러한 문제는 비행과 관련된 매스미디어의 영향의 제반 가능성, 즉 감각을 둔화시키고 가치기준을 저하시키며, 비행행위 현실을 왜곡시키며; 대형 범죄를 보도함으로써 범죄 행위 혹은 일탈 행위에 대한 합법성(legitima-

cy)를 제시하고, 폭력이나 악에 대한 자의적 수용 태도를 증대시키며, 범죄 기술을 전파하고, 청소년 비행이나 특정 형태의 일탈 행위를 묘사함으로써 비행 행위의 직접적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셋째, 매스미디어 중에서도 특히 텔레비전 매체는 교육 수준에 무관하게 전 연령층에 쉽게 수용될 수 있다는 특성과 프로그램(혹은 기사) 내용의 많은 부분이 비행과 관련된 폭력이나, 그와 유사한 내용이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거브너와 그의 동료들은 미국 TV프로그램을 분석, 골든 타임대의 오락 프로그램 내용중 82%가 폭력프로그램임을 밝히고 있다)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근거들을 토대로 청소년 비행과 관련하여 매스미디어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의 대부분은 초기에는 인과관계 연구에서 출발하여 후기에는 기능론이나 상황론, 혹은 이용충족론으로 발전, 매스미디어가 비행을 일으키는 직접적 원인으로서 보다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매개변수로 간접적, 혹은 잠재적 영향력을 미치는 기여적 요인일 것이라는 데로 집약되고 있는 듯하다.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로 1978년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에서는 청소년 비행과 매스미디어 간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가를 파악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서울의 13개 중고등학교와 직업 청소년, 불광동 소년원의 14세에서 24세의 남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비행 행위의 유무, 성격 특성, 사회적 배경을 독립변수로 하고, 매스미디어의 형태, 사회가치관을 변수로 설정하여 상호관계성을 검토하는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비행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간에 매스미디어 형태상에 어느 정도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 이같은 차이는 시청 형태 자체나 기호 프로그램의 유형에 대한 것보다는, 이용 방법이나 단위 프로그램에 대한 느낌 등에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커뮤니케이션 효과 연구에서의 선택적 인지(selective perception), 선택적 과지(selective retention) 이론이나, 이용충족이론(uses & gratifications theory) 등과 연결되는 것으로 동일한 미디어 내

용이라고도 정상적인 상황하의 청소년들은 오락적 수단이나 시간소비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데 반해, 비행 청소년들은 자신의 범죄 행위를 합리화하거나 보강하는 쪽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둘째, 매스미디어에서 묘사한 비행 주제에 대한 관심은 비행 청소년이나, 일반 청소년 모두 정적인 관심도를 보이면서도 비행 청소년의 관심도가 높은 차이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디어의 비행 내용이 비행 행위를 유도한다든가, 비행수법을 고무시킨다고 결론을 제기할 수 없지만, 비행 집단과 일반 집단간에 매스 미디어의 비행 주제에 관한 흥미도나 노출상의 분명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에드윈 폴의 연구 결과와는 상치되고 있다.

셋째, 호화로운 가정환경이나 아름다운 사랑의 장면 등에 대한 비행집단과 일반집단의 반응상에 대한 차이를 볼 때, 비행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비행이나 폭력 등 악과 관계된 좋지못한 내용 뿐만 아니라, 현실과 지나치게 괴리되거나 지나치게 이상적인 ‘좋은 내용’이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비행 행위 유발동기의 기여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도 비행 청소년 집단이나 비행 행위를 호의적으로 보는 청소년들에게는 좋은 내용이든 나쁜 내용이든, 모든 미디어 내용이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 정당화 내지 현실화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넷째, 비행이나 사고 내용에 대한 관심도가 편부, 편모, 고아 등 가족 상황이 좋지 못한 청소년에서 높고, 호화로운 가정 환경이나 폭력적 내용 등에 대한 반응에서도 이들 집단이 비행 행위와 관련된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정환경이란 변수가 비행 동기로서 크게 작용한다는 종래의 여러 연구결과와 일치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속성분석 결과 비행 집단 청소년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일반 집단에 관한 한 경제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가족 관계를 비롯한 인간 관계와 관련된 변수가 중요하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겠다.

다섯째, 매스미디어 형태를 종합해 볼 때, 지금까지 폭력이나 비행 연구의

주관심의 대상이 되어 온 텔레비전을 비롯한 전파매체는 물론, 혼자 사고하며 은밀히 볼 수 있고, 또 섹스나 비행 수단 등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저속한 류의 주간지, 월간지, 성인 만화 등이 청소년 비행 유발의 원인 중의 한 요인으로서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비행 집단 청소년에서만 성인만화 구독율이 높고 또 주간지나 성인만화를 학습적 혹은 자세한 정보추구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범죄 집단에서 높은 사실과 관련,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다.

2) 바람직한 매스미디어 환경

위와 같은 조사결과와 같이 매스미디어 내용이 비행 행위 유발의 직접적 원인 혹은 방아쇠적 역할(trigger effect)을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정환경과 사회적 환경 등과 함께 비행 행위를 합리화시키고, 현실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특히 비행 집단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매스미디어의 내용이 비행 행위 수행에 이용되거나, 잠재적 가능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이 나타난다. 인간의 한 행위를 설명하는데 그 결정적 요인으로서 매스미디어를 파악하기보다는 그 행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조건과 환경에 대한 영향으로 매스미디어를 파악할 때,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 즉 가치관이 형성되고 새로운 육체적, 정신적 변화를 맞이하여 세상에 대한 눈을 뜨는 청소년 단계에서 매스미디어의 올바른 교육은 따뜻한 부모의 손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위 연구결과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는, 매스미디어의 환경 문제로 구체화시킬 수 있으며, 그 해결책으로서 청소년의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는 매스미디어 환경의 개선이 한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청소년의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매스미디어 환경의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선 매스미디어는 청소년의 가치관을 선별하여 ‘인간화’라는 맥락

에서 주체-자주의식, 창조-발전의식, 질서-협동의식을 바탕으로 전인적, 도덕적 인간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둘째로, 매스미디어는 청소년들의 독특한 정서와 그들만의 문화를 개발, 발전시킴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구축, 널리 보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상호간의 문화적 차이, 갈등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셋째로, 매스미디어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의식을 고양시킴으로써 통일조국을 준비케 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위와 같이 매스미디어가 청소년의 가치관과 문화형성에 좋은 계도자가 되어주고 안내자가 되어 줄 때, 우리는 한번쯤 건강하고 자신있는 한 젊은이가 자신의 선행이 자신이 본 TV에서 본뜬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기대하게 될 것이다.

5. 결론 :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미디어 그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미디어의 내용이나 수용자의 자질·속성에 따라 결국 어떤 하나의 가치를 지향하게 된다. 특히 상업주의적 바탕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자유경제 체제하의 매스미디어 제도는 다양성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저급성·편의성·감각적 오락성의 속성을 지닐 수 밖에 없도록 고착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다. 이러한 상황은 매스미디어를 범죄·폭력·현실과 지나치게 괴리된 허구의 세계 등에 관한 묘사로 충만하게 만들었으며, 그 결과 현대 사회에서의 청소년 범죄나 폭력의 증대 현상을 일으킨 주범으로 매스 미디어가 지목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미디어 연구의 많은 부분이 미디어의 수용자에 대한 효과, 영향 등에 집중되어 왔으며 특히 매스미디어의 역기능적 효과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반면에 매스미디어 이용의 긍정적 방향 모색이나 개선책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은 대부분의 사람들로 하여금 매스미디어가 무엇이고 그 역할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지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평가하여 비판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만든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현대 사회의 수용자들은 전파매체를 중심으로 시청각이라는 새로운 언어(인식수단)의 문명 속에 살면서도 이 새로운 언어에 대한 이해나 접근 방법에 대해 거의 교육받지 못한 채 전통적 문자 문명에만 머물러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매스미디어의 급작스런 유입, 발달에 따른 전통 문화와 서구 문화의 갈등이라는 점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매스미디어 자체에 대한 보다 근원적이고 포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미디어 교육(Media Education)이라 부른다. 지금까지 무비판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매스미디어에 접해왔던 소극성을 탈피하여 수용자의 의식제발을 통해 스스로 매스미디어를 이해하고 선별하여 자신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취사선택하는 적극적인 수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외국의 많은 나라에서는 이러한 점을 미리 깨달아 수용자의 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미디어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근자에 들어 미디어 교육에 대한 논의가 점차 일고 있는 형편이기는 하나 보다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에 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러한 의식 제발 교육을 통해서 수용자의 미디어 수용 자질을 높게 되면 자연히 매스미디어는 단계적이고 하나의 목표만을 제시하는 편협성에서 탈피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내용을 통한 질의 향상에 노력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교육은 성인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매스미디어를 접하고 사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더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도 있다. 특히 초·중·고 학생을 비롯한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우리 사회도 매스미디어로 인한 많은 역기능적 폐단들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데에 기인한다.

정치, 사회, 문화적 배경 안에서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대두되는 온갖 문제를 대상으로 그 해결책을 추구해 오고 있다. 그리고 그 변혁과 온갖 개혁의 주축이 되는 기본 주제와 기준의 대부분은 인간성의 회복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인류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는데 중세의 르네상스나 종교 개혁, 프랑스 혁명 등이 그 좋은 예이다.

그러나 산업혁명으로 인한 과학기술의 고도한 발달은 오히려 인간성 상실이라는 중대한 문제점을 수반하고 등장했다는 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즉, 과학기술의 문명 안에서 그 주인공이어야 할 인간이 오히려 스스로 만든 산물에 얽매이는 입장에 처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대 기술문명을 지배하는 서구문명의 성격을 소로킨 교수는 ‘현대적 위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Sorokin, 1941 : 13-39). 즉, 지금까지 중세 이후부터 근세를 지배해 오고 있던 감각 문화와 사회의 근본적인 양상이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쇠퇴해 가고 있으며, 급속히 와해의 위기에까지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세의 관념주의가 몰락함과 동시에 대두된 경험적이고 감각적이며 관능적인 형태의 감각 문화가 현대 사조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러한 감각 문화는 오늘날에 이르러 인간생활 전반에 걸쳐 그 존속양식에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것이다. 매스미디어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하는 감각 문화의 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더구나 미디어가 그 내용물을 운반하는 매체로서 부각될 때 기술과 예술성 또는 기술과 윤리성, 예술성과 윤리성 등의 독특한 상관관계를 간과해서는 더욱 안된다(서정숙, 1983 : 5). 여기서 미디어의 내용물이 단순히 기업적 상품으로 그치고 마는가 아니면 인격의 표현 수단이며 삶을 표현하는 예술의 형태로서 인간 본성의 하나인 커뮤니케이션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즉, 현대 기술혁명의 모태가 되어온 과학기술적 권리를 존중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 위치를 정립하고 인간을 그 본인의 존엄성과 품위를 회복할 수 있는 노력을 한다는 측면에서 매스미디어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본문 요약

오늘날 사회전반에 걸쳐 매스미디어의 영향이 미치고 있으며, 이것은 정치·경제·문화·교육·가치관 등 모든 분야에서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매스미디어의 문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용자의 자세를 획일적으로 만든다는 점이다. 또한 매스미디어는 가치관 전도와 물질만능 현상을 조장하기도 한다. 그 예로, 즐거이를 무시한 드라마의 해피엔딩은 윤리 문제는 커녕 출세를 한다든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다는 하는 배급주의 사상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이 현대인들에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매스 미디어가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 때문이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그 심각성이 날로 증가되는 청소년 비행의 문제는 이제 단순히 비행의 차원 뿐만 아니라, 가장 극악한 범죄로 구체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에 매스미디어의 환경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는, 매스미디어의 환경 문제로 구체화시킬 수 있으며, 그 해결책으로서 청소년의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는 매스 미디어 환경의 개선이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청소년의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매스 미디어 환경의 바람직한 모습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선 매스미디어는 청소년의 가치관을 선별하여 ‘인간화’라는 맥락에서 주체-자주의식, 창조-발전의식, 질서-협동 의식을 바탕으로 전인적, 도덕적 인간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둘째로, 매스미디어는 청소년들의 독특한 정서와 그들만의 문화를 계발, 발전시킴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구축, 널리 보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상호간의 문화적 차이, 갈등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셋째로, 매스미디어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의식을 고양시킴으로써 통일조국을 준비케 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서 매스미디어 자체에 대한 보다 근원적이고 포괄적인 교육의 필요성

이 제기되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미디어 교육(media education)이라 부른다.

지금까지 무비판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매스미디어에 접해왔던 소극성을 탈피하여 수용자의 의식계발을 통해 스스로 매스미디어를 이해하고 선별하여 자신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취사선택하는 적극적인 수용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계발 교육을 통해서 수용자의 미디어 수용 자질을 높이게 되면 자연히 매스미디어는 단계적이고 하나의 목표만을 제시하는 편협성에서 탈피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내용을 통한 질의 향상에 노력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교육은 성인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매스미디어를 접하고 사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더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연구 과제

1. 우리나라의 미디어 환경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해 본다.
2. 미디어 환경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에 대해 논의해 본다.
3. 청소년비행과 매스미디어 환경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청소년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매스미디어의 바람직한 위상에 대해 논의해 본다.

참 고 문 헌

- 광고정보(한국방송광고공사, 1990년 1월호) 및 광고연감, 1981-88.
- 서정숙(1983), 미디어 교육을 위한 시안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오백섭, 윤용(1983), “라디오의 위력과 광고효과”, 라디오 청취형태 및 라디오 광고 위력 조사, 한국방송공사.
- 최창섭(1983), “미디어 환경과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 사목 90호.
- 최창섭(1984), “모니터 교육”, 현대사회와 대중매체, 한국여성단체 협의회.
- Jerry Mander, 최창섭 옮김(1983), TV무용론, 문장사.
- Pitirim Sorokin(1941), *The Crisis of Our Age : The Twilight of Sensate Culture*, First printing-Lawell Institute, New York: E.P. Dutton & Co. Inc.,

9.

청소년문화와 대중음악

개 관

오늘날 대중가요 시장의 가장 중요한 수용층은 청소년이다. 그러나 대중가요문화에서 청소년은 사실상 문화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문화 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판매 대상으로 존재할 뿐이다. 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억압적 질서 속에서 유일한 탈출구로 대중가요를 찾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소외된 대상으로서의 처지를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중가요의 생산과정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청소년들의 다양한 대중가요 수용 방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의 대중가요 수용 행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청소년 자신의 문제라기 보다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의 반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주제어

청소년문화, 대중가요, 문화산업, 하위문화, 상상적 편입, 상징적 저항, 팬클럽, 청소년들의 문화적 주체성

* 김창남, 음악평론가

1. 청소년문화로서 대중가요의 중요성

텔레비전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오늘날 우리 대중음악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용층은 10대 청소년들이다. 흘러간 가요를 들려주는 일부 쇼 프로그램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요 프로그램이 10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가수과 노래로 채워져 있으며, 방청객에서 환호하는 청중의 대부분이 이들 청소년들이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새 음반의 대부분이 청소년을 겨냥한 것이며 실제 이들 10대 청소년들의 반응에 따라 가요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가수들의 인기 판도가 좌우된다.

청소년들이 가요 시장의 판도를 장악하게 된 것이 정확히 언제부터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80년대부터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상업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모든 대중문화는 항상 그 시대의 가장 적극적인 구매층을 가장 중요한 수용자로 상정하게 마련이다. 60년대까지 대중가요 시장의 가장 중요한 수용층은 직장을 가진 성인층이었다. 당시의 경제수준에서는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층만이 대중가요를 구매할 수 있었다. 성인층이 가장 중요한 수용층이었던 당시까지의 대중가요는 그래서 주로 성인들의 생활 감정을 담고 있었으며 노래는 가사 위주의 형태를 갖고 있었다.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대학생들의 문화 욕구가 증대하는 70년대에 오면 가요시장의 가장 중요한 수용층은 20대의 청년층이 된다. 그래서 70년대의 가요는 청년층의 정서를 반영한 것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가사보다는 선율을 중시하는 낭만적 성격을 띤 노래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통기타 가요와 그룹사운드 음악이 본격적으로 가요 시장에 등장한 것도 이 시기의 주요 수용층이 청년층이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80년대로 들어오면서 가요 시장은 10대들이 주도하게 된다. 경제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중산층 출신의 10대 청소년들이 대중가요를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80년대 이후 대중가요가 철저히 리듬 위주로 변하게 된 것도 이들 10대의 취향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이후 90년대로 넘어 오

면서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그 수용연령도 차츰 더 낮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은 단지 대중가요의 수용층일 뿐 아니라 이제는 대중가요의 생산자로서도 차츰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 고교생 신분으로 가요계의 스타로 탄생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나 일찌감치 청소년 시절부터 음악에 몰두하여 대학을 포기하고 곧장 스타가 된 ‘서태지’의 예처럼 이제 10대의 역할은 단순히 대중음악의 수용자로 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이 대중가요, 나아가 대중문화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수용층을 이루고 있는 것과 실제 대중문화의 내용이 얼마나 청소년의 삶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개의 것이다. 문제는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대중문화의 내용이 사실상 청소년들 자신의 삶의 내용과는 무관한 것이며 그래서 청소년들의 삶과 그들의 문화가 심각한 괴리를 안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이 말은 청소년들이 대중문화의 가장 중요한 수용층을 이루고 있음에도 이들이 실상 대중문화의 주체가 아니라 철저히 문화 상품의 소비자로서, 즉 문화 산업의 이윤추구의 대상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의 방향은 이들을 문화의 객체, 혹은 구매 대상이 아닌 문화의 주체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이는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문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끔 하는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중가요가 지적 관심의 영역으로 대두된 것은 그리 오랜 일이 아니다. 대중문화 전반이 그랬듯이 대중가요 역시 천박한 것으로만 매도되면서 이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그다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청소년문화와의 관련성 속에서 가지는 대중가요의 문화적 의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80년대 중반 진보적인 노래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대중가요에 대한 지적인 조명 역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필자 등이 참여한 무크 {노래1—진실의 노래와 거짓의 노래}는 대중가요를 중심으로 다룬 첫 연구성과로 의의를 갖는다(김창남 외, 1984). 이 책

에서는 한국 대중가요의 역사를 시대별로 나누어 사회적 배경의 관련 속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 대중 가요의 현실순응 논리와 문화 식민주의적 상황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후 대중가요에 대한 지적 관심은 대체로 대중가요의 체제순응주의와 문화 식민주의적 성격에 대한 관심으로 모아지고 있다(이영미, 1991 : 229-239). 그러나 청소년문화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속에서 대중가요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지적 작업의 성과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비단 대중가요만이 아니라 청소년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의 부재와 연관되는 것으로 ‘뉴키즈사태’ 같은 돌발적인 사건이 있을 때에만 간헐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문제가 떠오르다가 곧 사라지곤 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여전히 청소년문화는 지적 관심의 변방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청소년들이 대중문화의 가장 중요한 소비층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청소년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없으며, 청소년 문제와 대중문화의 문제를 따로 두지 않고 연결지어 생각하는 속에서만 이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 역시 찾아질 수 있다 할 것이다.

2. 대중가요의 생산과정

1) 대중가요 생산의 경제 원리

흔히 많은 사람들은 대중가요를 가곡이나 클래식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생각한다. 즉 가곡이나 클래식 같은 고급 음악에 비해 심미적 수준이 낮고 그래서 다수의 대중 사이에 유행되는 노래가 대중가요라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대중가요는 문화 산업적인 구조의 산물이 아니라 단순히 기호와 취향의 산물로 이해된다. 청소년들이 대중가요를 좋아하는 현상을 걱정스럽게 보면서 그들이 가곡이나 클래식을 좋아하도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그런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올바른 시각이라 할 수 없다. 대중가요가 가곡이나 고전 음악보다 수준낮은 것이라는 생각도 잘못된 편견에 지나지 않으며 대중가요가 단순히 대중의 취향이나 기호의 반영이라는 생각도 대중 가요의 생산 과정에 개입하는 정치·경제적인 구조의 논리를 보지 못하는데서 오는 단견

에 지나지 않는다. 청소년들더러 대중가요 대신 가곡을 들으란대서 청소년들이 그러지도 않으려니와 가요 대신 가곡이나 고전 음악을 듣는다고 해서 청소년문화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중가요를 포함한 대중문화는 무엇보다도 생산 주체와 소비 주체의 명백한 분리를 특징으로 한다. 생산 주체는 자신의 동기와 논리에 의해 대중가요라는 상품을 생산하며 소비자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이 상품을 구매해서 소비한다. 이런 과정은 예컨대 운동화나 옷과 같은 상품의 생산 소비 과정과 사실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것은 자본과 상품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에서 뿐이다.

대중가요는 누가 생산하는가. 우리는 흔히 대중가요 작곡가와 가수, 연주가, 제작자 등을 대중가요의 생산자로 생각한다. 그러나 보다 큰 맥락에서 보면 문제는 달라진다. 작곡가의 창작 행위는 음반 회사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작곡가와 가수, 연주가를 조직하고 이를 하나의 상품으로 묶는 것은 음반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의 힘이다. 작곡가와 가수, 연주가, 제작자 등은 음반회사라는 거대한 산업조직적 체계 내에서 행해지는 생산 과정의 작은 분업적 단위일 뿐이다. 아무리 좋은 노래도, 아무리 뛰어난 가수도 음반 회사에 의해 발탁되어 음반으로 제작되지 않으면 가수도, 대중가요도 될 수 없다. 요컨대 하나의 문화 산업으로서의 대중가요의 생산은 자본가를 정점으로 하여 그에 의해 고용된 문화적 노동자와 생산적 노동자들로 구성된 산업 조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때 생산의 내용과 형식을 결정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자본가이다. 작곡가와 연주가, 가수의 작업은 기본적으로 자본가에 의해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다. 대중가요의 생산 주체가 개별 작곡가나 가수가 아니라 음반 기업으로 표상되는 산업 조직이며 그것을 움직이는 것이 자본가라고 보면 대중가요의 생산 과정에 작용하는 일차적인 생산의 동기가 무엇인지는 자명해진다. 그것은 무슨 심미적이거나 예술적인 동기가 아니라 경제적인 동기이다. 즉 돈을 버는 것, 최대 이익을 획득하는 것이 대중가요를 생산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이며 목적인 것이다.

최대 이윤의 획득은 대량 소비에 의해 가능해진다. 대중가요 문화 속에서 수립된 갖가지 제도, 관행, 장치 등은 모두 대량 소비를 조장하기 위해, 즉 많이 팔기 위해 마련된 것들이다. 요즘의 대중가요가 청소년들을 주요 대상으로 생산되고 있는 것도 결국은 대량소비를 위해서이다. 가장 적극적으로 음반을 구매하는 청소년들을 집중 공략함으로써 최대의 이윤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적극적인 수용층을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삼게 되니까 자연히 대중가요 전반이 다양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늘 그 노래가 그 노래 같고 이 가수의 목소리나 저 가수의 창법이나 별 차이를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 대량 소비를 위해서는 수용자들의 취향을 가능한 한 동질화시킬 필요가 있게 된다. 중장년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뽕짝 가요를 리듬감 강한 고고나 디스코류에 결합시키는 것은 수용자 전체층의 감각을 평균화시켜 최대의 이윤을 획득하고자 하는 목적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대중가요가 가장 적극적인 수용층을 집중적으로 겨냥하여 제작됨으로써 획일적인 성격을 갖는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지만 그러한 획일성은 교묘한 ‘차이의 전략’에 의해 은폐된다. 여기서 ‘차이의 전략’이란 사실상 같은 것임에도 마치 다른 것인 양 ‘차이’를 조작해 냄으로써 수용자들이 획일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려는 전략이다. 그것은 이블테면 가수들의 개성의 강조, 의상이나 헤어스타일의 독특한 꾸밈, 춤과 율동의 변화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노래 자체는 가사의 내용이나 선율의 진행, 편곡의 형식 등에서 사실상 차이가 없는 노래들임에도 대중은 이러한 주변적 요소들에서 차이와 변화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는 사실상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며 다만 획일성을 은폐하는 ‘허구적인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한 허구적인 차이의 전략이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 이른바 스타 시스템이다. 개인이 가진 외형적인 차이가 개성으로 신비화되면서 스타는 탄생한다. 영웅화되고 신화화된 스타는 ‘차이’를 추구하는 대중을 모아들이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된다. 즉 스타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대량 소비의 장치이다. 실제로 스타 시스템은 20년대 경제 불황기를 극복하기 위해 할리우드의 영화사들이 ‘손님꼐기’의 방

편으로 특정 스타를 우상화하기 시작한 데서 비롯되었다. 최근에는 음반회사나 프로덕션 등 문화산업이 특정 스타를 ‘제조’해내고 ‘펜클럽’까지도 조직하여 관리하는 새로운 상술도 일반화되고 있다. 예컨대 얼마전 물의를 빚었던 ‘뉴키즈온더블럭’은 프로덕션이 일정한 기준하에(이를테면 잘 생긴 미남형, 근육질형, 압습한 유니섹스형 등) 심사를 통해 멤버를 선발하고 춤과 노래를 훈련시킨 후 매스컴을 동원해 만들어낸 ‘제조된 스타’의 대표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스타 시스템 역시 대량 소비를 보장하는 중요한 이윤 확보의 장치인 것이다. 대중가요 시장에서 이미 상업성이 인정된 요소는 그 시장성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끊임없이 채택되고 조장된다. 그런 가운데 몇가지 공식이 만들어진다. 대중가요가 수십년간 끊임없이 담아내고 있는 ‘사랑과 이별의 신화’가 그런 공식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 대중가요의 절대 다수가 이 ‘사랑과 이별의 신화’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몇가지 상투적인 단어와 상투적인 분위기가 조합되어 거의千篇일률적인 사랑 타령이 만들어진다. 엄청나게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따지고 보면 이들 노래는 모두 몇가지 상투적인 유형의 반복이며 변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시장성을 유지하는 공식이 고수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시류에 빠르게 적응하여 기존의 상품을 노후화하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이 이루어진다. 인기를 잃은 가수는 곧 폐기처분되며 새로이 인기를 얻는 가수는 식상하리만큼 방송에 등장한다. 아주 빠른 시간안에 뽑아낼 수 있는 이윤을 최대한 뽑아낸 후 곧 새로운 상품이 등장하는 것이다. 한 가수가 등장하여 인기를 얻고 사라지면서 새로운 스타가 등장하는 기간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목소리형 가수에서 비디오형 가수, 다시 댄스형 가수로 인기판도가 바뀌는 것도 사회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새로운 인기 상품을 개발하는 문화 산업의 논리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대중가요 생산의 정치 원리

대중가요를 생산하는 일차적인 지배 원리는 자본주의적 이윤 추구의 경제

논리이지만 보다 큰 테두리에서 경제적 원리까지를 규정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배원리는 정치적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중문화를 지배하는 정치 원리는 흔히 두가지의 측면을 중심으로 한다.

첫째는 대중을 비합리적이며 쾌락적인 존재로 변질시키는 조작이다. 즉 대중을 현실로부터 도피시키고 정치적 부관심을 조장함으로써 통치의 수동적 객체로 재생산하는 것이다. 청소년층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이러한 측면이다. 현재 한국의 청소년들은 기성 세대의 지배적 가치관이라 할 수 있는 업적주의, 출세주의의 가치에 의해 엄청난 억압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른바 입시지옥의 왜곡된 교육 환경에서 매년 100여명의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청소년들이 일시적이나마 도피할 수 있는 공간은 대중문화, 특히 대중가요뿐이라 할 수 있다. 기성 세대의 눈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대중가요와 가수에 대해 열광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은 사실 이러한 억압적 가치 체계에 대한 자구적 몸부림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도피의 기제 속에서 청소년들은 일시적인 욕구의 충족을 추구하지만 그것은 글자 그대로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러한 도피적 쾌락에 탐닉하면 할수록 청소년들을 억압하는 지배적 가치 체계는 공고화되는 것이다.

둘째는 대중문화 속에 자본주의의 지배적 가치관과 이데올로기를 고도로 은폐된 방식으로 삼입함으로써 대중이 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을 내면화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대중문화의 갖가지 매체들에서 반복적으로 조장되는 자본주의적 ‘신화’들이다. ‘어느날 갑자기 스타가 된 신데렐라의 신화’는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이러한 신화들에 의해 누구나 노력하면, 혹은 누구나 운만 좋으면 언제든 성공할 수 있으며 부와 인기를 얻을 수 있다는 식의 왜곡된 세계관이 은연중 내면화된다.

대중가요의 생산 과정에 개입하는 정치적 지배원리는 국가에 의해 행해지는 검열 제도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국가는 검열 제도를 통해 대중가요의 내용이 체제가 허용하는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가요에 대한 검열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맨 먼저 음반으

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악보와 가사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전 심의를 통과한 노래만 음반으로 제작될 수 있는데 제작된 음반은 다시 공연에 납본되어 사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사전 사후에 걸친 심의를 통과한 가요만이 시중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판매가 가능하다고 해서 다 방송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중가요의 인기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방송매체를 탈 수 있기 위해서는 다시 방송 심의를 통과해야만 한다. 방송 심의는 각 방송국의 심의실에서 행해지며 이를 통과한 가요만 방송될 수 있다. 판매는 가능하지만 방송은 안되는 가요도 있고 MBC에서는 방송되지만 KBS에서는 방송되지 못하는 웃지 못할 경우가 드물지 않게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이중 삼중의 검열 장치를 통해 걸러진 가요만이 수용자의 귀에 닿을 수 있으니 대중가요가 모두 고만고만한 모양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즐겨 듣고 부르는 가요들이 모두다 사실상 청소년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성인의 세계, 이를테면 허구적인 사랑과 이별의 세계를 노래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검열과 무관하지 않다. 청소년들의 억압된 삶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깨닫게 하는 내용의 노래는 검열을 통과할 수 없는 것이다.

3. 청소년들의 대중가요 수용 방식

경제적인 이윤 극대화의 논리와 정치적인 검열을 통해 생산되는 대중가요에 대해 수용자들이 가질 수 있는 선택의 범위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수용자들의 선택은 생산 과정에 의해 제공된 범위 내에서, 즉 김완선이나 서태지나와 차원에서나 가능할 뿐이다. 한 사람의 음악적 감수성과 취향은 그가 속한 음악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누구든 낯선 것 보다는 자주 접하는 것을 좋아하게 마련인 것이다.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가곡보다 대중가요를 더 좋아하는 것은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대중가요의 압도적인 환경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대중의 소비선택 과정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것이다. 음반 회사와 방송사 가요 담당자 간의 뒷거래

나 인기 조작 등이 심심치 않게 이야기거리가 되는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대중가요 수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이 선택하는 가요의 범위는 음반 산업과 방송이 제공하는 범주안에 있을 수 밖에 없으며, 특히 TV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과 라디오의 음악프로그램의 영향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수용 행위는 청소년 집단이 가진 물질적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몇가지의 범주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청소년을 단일한 범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청소년은 그가 속한 계급이나 지역, 사회 집단 등에 따라 결코 단일하지 않은 하위 집단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대중가요에 대한 그들의 수용 행위 역시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1) 실제적 편입의 유형

실제적 편입이란 청소년들에게 부과되는 지배적 가치 체계가 요구하는 물질적 조건을 실제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에 대해 별다른 모순이나 저항을 느끼지 못하는 부유층의 청소년들의 문화수용 방식이다. 이른바 압구정파 혹은 오렌지족이라 불리는 청소년층의 문화가 그런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장애에 대한 불안이나 현실적 조건과 욕구 사이의 괴리 같은 것을 느끼지 않으며 그래서 그들의 문화는 늘 새로운 스타일의 추구 자체를 지향한다. 그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스타일은 미국이나 일본의 청소년들의 문화에서 차용된 것이 대부분이며 이들이 도입한 스타일이 청소년 문화 전반의 유행을 선도한다. 이들은 대중가요를 줄길 오디오 기기를 가지고 있으며 음반을 구매하고 가수의 콘서트를 구경하는데 필요한 돈을 별 어려움 없이 지불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 컴퓨터와 전자기기를 다루며 음악행위를 즐기기도 한다.

2) 상상적 편입의 유형

상상적 편입은 부모 세대에 의해 부과되는 지배적 가치체계를 수용하지만 실제 현실적 조건과 가치체계의 모순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계층의 청소년들에

게서 나타나는 유형이다. 이들은 오렌지족처럼 부유층은 아니지만 일정한 정도의 욕구 충족은 가능한 중산층 출신의 청소년들이다. 그들은 예컨대 ‘좋은 대학에 가야하고’, ‘출세해야 하며’,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부모 세대의 가치관에 저항하지 않지만 그러한 기대수준과 자신의 현실적 충족 가능성 사이의 괴리와 그것으로 인한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 그들은 그러한 괴리를 문화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상상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되며 그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 대중가요 문화인 것이다. 그들은 오렌지족의 청소년들이 보여주는 스타일을 모방하고 지배적 가치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스타에 열광하는 방식으로 대중가요를 수용한다. 스타일의 모방과 스타에 대한 동일시는 이들이 경험하는 현실적 조건과 가치체계 사이의 간극을 메워주고 그래서 지배적 가치체계 속으로 편입해 들어가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그러한 편입은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다만 상상적인 것에 불과하다. 스타의 옷을 모방해 입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열광하는 순간을 벗어나 현실로 돌아오면 다시 그는 입시지옥 속에 놓여있는 힘 없는 청소년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3) 상징적 저항의 유형

이는 부모 세대의 가치관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의 상징적인 방식을 통해 이에 대한 저항을 표현하는 방식의 수용 행위이다. 가장 중요한 방식은 부모 세대가 배제한 청소년들만의 또래 집단을 추구하는 것이며 그 가장 전형적인 예가 팬클럽이다. 팬클럽은 단순히 스타에 대한 열광과 동일시의 욕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인들이 배제한 청소년들만의 공동체에 대한 욕구라 할 수 있다. 그들이 팬클럽에서 벌이는 의식은 그들 특유의 의식과 정서를 반영하는 상징적 행위이며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스타는 단지 그러한 공동체를 매개해 주는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불과 한두달 사이에 우상이 바뀌는 요즘 대중가요의 현상은 청소년들의 대중가요 수용 행위가 단지 스타에 대한 동일시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님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수용 행위

는 청소년집단 나름의 능동적인 문화수용 행위라 할 수 있지만 ‘스타’를 중심으로 매개된다는 점에서 드러나듯 기본적으로는 지배적인 가치체제나 질서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표현하는 저항은 다만 상징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다.

4) 대안 추구의 유형

자신이 처한 현실적 조건과 대중가요가 제공하는 지배적 가치 사이의 모순이 상상적이거나 상징적인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임을 깨달을 때 청소년들은 나름대로의 문화적 대안을 추구하게 된다. 청소년들의 풍물패 활동이나 노래모임 등은 그러한 예가 된다. 그들은 환상속으로 도피함으로써 현실의 문제를 잊으려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현실을 이해하고자 하며 나름대로 현실속에서 주체성을 찾고자 노력한다. 가장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의 방향은 이러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의 대안 추구 행위는 학교나 가정에서 억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소년들이 스타를 우상화하고 팬클럽을 만드는 등의 행위에 대해 우려를 감추지 않는 부모나 학교가 나름대로의 문화적 대안을 추구하는 청소년들의 행위는 철저히 억압하고 있는 모순이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문화의 불모성으로 연결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4. 마무리

청소년은 아동에서 성인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이며 일종의 통과의례의 기간에 해당한다. 성인과 아동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회질서 속에서 청소년들은 양쪽 세계 모두로부터 배제되기 쉬우며 사회 속에서 일종의 금기 영역으로 치부되기 쉽다.

그러나 청소년은 성인도 아동도 아닌 또 하나의 뚜렷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이며 그들 특유의 삶의 방식과 욕구를 가지고 있다. 흔히 그 욕구는 성인 위주의 질서 속에서 억압받게 되는데 청소년들은 대중가요의 세계 속으로 빠져

듬으로써 그러한 억압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대중가요를 열광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대중가요 수용을 막는 것은 억압으로부터의 유일한 탈출구마저 막아버리는 행위와 다름이 없으며 사실 그것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들의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돈을 벌고자 하는 문화산업이 청소년들에게 정당한 문화적 출구를 제공하기 보다는 좀더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상품을 만들어 파는 데에만 진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즉 청소년들을 정당한 문화적 주체로 인정하기 보다는 이윤 추구의 공략 대상으로만 간주하여 그들의 정서를 점차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청소년문화의 문제는 단순히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지배적 가치관, 문화산업의 구조 등 보다 넓은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 전반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청소년들을 방치해 둘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문화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대중가요의 생산과정과 그 성격에 대해 과학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며 자신들의 삶의 현신을 바르게 반영하는 문화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안을 훈련시켜야 한다. 또 그들 스스로 창조적인 문화 행위를 영위할 수 있도록 가능한 공간을 마련해주고 자신들의 문화적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집단을 조직해 주어야 한다. 여러 사회단체들에서 나름대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청소년 노래모임 같은 것은 그런 점에서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청소년문화의 문제가 단지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사회의 전반적 문제가 총체적으로 집약되어 있는 문제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문 요약

대중가요가 지적 관심의 영역으로 대두된 것은 그리 오랜 일이 아니다. 특

히 청소년문화와의 관련성 속에서 가지는 대중가요의 문화적 의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나 실제로 청소년들이 대중문화의 가장 중요한 소비층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청소년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없으며, 청소년 문제와 대중문화의 문제를 따로 두지 않고 연결지어 생각하는 속에서만 이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 역시 찾아질 수 있다.

텔레비전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오늘날 우리 대중음악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용층은 10대 청소년들이다. 청소년들은 단지 대중가요의 수용층일 뿐 아니라 이제는 대중가요의 생산자로서도 차츰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

청소년들이 대중가요, 나아가 대중문화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수용층을 이루고 있는 것과 실제 대중문화의 내용이 얼마나 청소년의 삶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개의 것이다. 문제는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대중문화의 내용이 사실상 청소년들 자신의 삶의 내용과는 무관한 것이며, 청소년들의 삶과 그들의 문화가 심각한 괴리를 안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즉, 청소년들이 대중문화의 가장 중요한 수용층을 이루고 있음에도 이들이 실상 대중문화의 주체가 아니라 철저히 문화상품의 소비자로, 즉 문화산업의 이윤추구의 대상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청소년문화의 방향은 이들을 문화의 객체, 혹은 구매 대상이 아닌 문화의 주체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이는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문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끔 하는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연구 과제

1. 대중가요의 생산 과정과 그 성격에 대해 과학적으로 인식해 본다.
2. 청소년들의 대중가요 수용 행위와 그 문제점에 대해 분석해 본다.
3. 청소년들이 창조적인 문화 행위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해 본다.

참고문헌

- 김창남 외(1984), 노래1—진실의 노래와 거짓의 노래, 실천문학사.
- 김창남 외(1986), 노래2—인간을 위한 음악, 실천문학사.
- 김창남(1991), 삶의 문화 희망의 노래, 한울.
- 이영미(1991), 민족예술운동의 역사와 이론, 한길사.
- 정준영(1988), 대중음악의 사회학적 일연구, 서울대석사학위논문.
- 한국사회언론연구회(1990), 현대사회와 메스커뮤니케이션, 한울.
- 강현두 편(1987), 한국의 대중문화, 나남.

10.

국제화와 외국문화의 수용

개 관

첫째, 국제화시대의 양상과 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청소년의 바람직한 상(像)을 생각한다.

둘째, 오늘의 청소년이 전세대로부터 이어받은 가치관의 내용을 깊이 생각하고, 그 전통적 의식과 미래상 사이의 괴리의 내용을 밝힌다. 민족원형에 내재하고 있는 갈등 요소와 국제화 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요소를 생각하고, 그 새로운 역사적 조건을 충분히 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한다.

셋째, 국제화시대는 갖가지 외국문화에 접촉할 기회가 많다. 이를 물리적인 힘으로는 막을 수 없으므로 스스로의 원형을 자각하고 그 기반 위에 선택의 척도를 정해야 한다.

주제어

국제화 시대, 가치관, 전통적 의식, 미래상, 외국 문화, 국제 공동체, 민족 원형, 한민족 원형, 세계관, 정보화, 국제화

* 김용운, 한양대학교 교수

1. 넓은 시야의 필요성

우리 민족에게 있어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의 문제는 국제화와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현실문제로 대두되었다. 십년 전만 해도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큰 변화들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이 맞이할 앞으로의 세대는 지금보다도 더욱 빠르고 심한 변화를 겪을 것이다. 한세대 전만 해도 세계적인 석학들이 미래에 관한 예언을 했지만 모두 빗나갔다. 특히 국제적인 정치·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완전히 예언과 틀렸던 것이다.

21세기를 전망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특히 요즘에 강조되는 바는 기술혁신에 의한 생활양식의 변화, 그리고 정보화사회의 진입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 등이다. 이것을 일일이 검토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시각은 인류사의 흐름에서 보는 입장일 것이다. 긴 인류사의 흐름에서 지금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으며, 과거와 현재의 조명에서 미래의 여러 면을 추측하는 일이다.

인류사는 농업시대, 공업시대, 그리고 정보화시대에 돌입했다. 그때마다 요청되는 국가·사회의 제도는 다르다. 농업시대는 부족사회, 공업시대는 국민국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맞고 있는 정보화시대에는 국제화사회이다. 세계 어느 구석의 일이든지 발생 즉시 순식간에 전세계를 돌며 곳곳에 충격을 준다. 정보와 정보가 상승작용을 거듭하면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야말로 ‘불확실성’의 상황이 가속화될 것이 분명하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기존의 어떤 사상이나 가치관도 설득력을 잃고만 탈이데올로기의 시대이다. ‘원인과 결과’가 단락적인 관계로는 어떠한 일도 설명될 수가 없다. 그보다 더 높은 선에 서서 실상을 상호작용의 입장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조직, 직장, 사회, 국가, ……., 나아가서는 세계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극적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국제화와 정보화의 상황을 인식하기 위한 세계관과 상호작용의 사고가 절실하게 요망된다.

2. 정보화와 국제화

정보화의 진행은 정보의 범람으로 각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었고, 정보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국제화를 가속시켰다. 이데올로기의 종언 이후 최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민족분쟁’이다. UN이 창설된 이래 해마다 많은 나라들이 독립하여 가입하고 있다. 이미 소련 내의 여러 민족은 각기 독립을 주장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내분도 민족성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게 했다. 그 외에도 캄보디아 문제, 중동 문제 등등……, 이 움직임들의 공통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현상들은 정보화 현상의 중요한 일면이다. 그동안 강력한 군사력에 의해 억눌려 왔던 민족 문화들이 이제 정보화와 더불어 급격하게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정보화란 수많은 정보의 범람으로 그 선택의 범위가 넓어졌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 전까지는 공산주의나 대국의 군사력이 강요하는 이데올로기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소수 민족들에게 스스로 선택할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다. 정보가 범람하는 가운데 민족 단위에서 선택하는 것은 정치 이데올로기나 종교적 교리 보다는 민족의 무의식적 집합체가 오랜 세월 동안 축적해 온 민족의 기본적 가치관, 즉 ‘원형’이 뚜렷한 기준이 된다. 정보화 사회는 개성의 시대이며 국제화 사회에서는 민족의 개성화가 요청된다. 즉, 정보화는 국제화를 촉진시키면서 한편에서는 민족 고유의 기본적 성격을 부각시킨다. 청소년에게는 이질적인 각 민족의 원형을 서로 이해하고 극복하는 지혜와 거시적인 시야가 요청된다.

정보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은 세계 여러 나라 사이에 있었던 완충 지대를 없게 한다. 항공기, 전자 통신은 직접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하게 한다. 완충 지대의 상실은 직접 타민족의 원형과 자민족의 원형을 만나게 한다. 그 결과 국제간의 상호의존 관계를 촉진하는 한편 그만큼 빨리 긴장 관계도 야기시키고 있다. 최근에 있었던 로스엔젤레스의 흑인과 한국인과의 사이에 있었던 갈등도 그 좋은 보기이다. 세계는 분명히 하나의 집단을 형성해가

고 있는데, 다양한 문화 집단의 원형은 그것을 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지도자나 학자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제화 시대에 대처하지 않는다. 외교, 국제 수리, 관세 문제, 무역 협정 등에는 관심이 있어도 각 민족 집단 사이에 내재하는 원형의 마찰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다. 여러가지 복잡한 법률적 수속과 관료 조직에 질식하고 있는 가운데 기계화된 여러 제도에 비인간화가 진행되어 왔다. 우리 자신의 기본적 가치관을 재검토하지 않는 한 국제화 사회에 어울리는 책무의식, 자기의식도 없다.

타의 원형, 타문화에 대한 편협한 태도는 더욱 더 많은 분쟁을 야기시킬 것이다. 이에 대처하는 길은 교육 제도와 그 내용의 개선 이외의 길은 없다. 그 목표는 국제적·세계적 단위가 된 사회에 스스로의 문화 의식을 승화시키고 적용할 수 있는 인간형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원래 교육이란 매우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 이미 개발된 지식, 제도, 기능 등을 기반으로 하기에 그 초점은 현재에 있으며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화를 위한 교육은 선배들이 마련한 제도, 기술의 모방만으로는 할 수 없는 내용이 될 것이다. 그 내용은 인종차별, 이질 문화에 대한 야량, 다른 나라의 정치, 경제 제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외국어 교육은 필수적이다. 이는 입시용이 아닌 실지 사용할 수 있는 회화와 작문 지식이 위주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외국어 교육은 단순히 어학 지식만을 목적으로 하지않고 적극적으로 그 나라 문화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어 하나를 갖는 것이 자국 외의 또 하나의 세계를 갖는 것과 같다'라는 경구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중·고등학교 학생의 여름·겨울 방학을 이용하는 현지교육(home stay)은 대폭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외국인 교사의 채용도 권장해야 할 것이다.

3. 민족원형

민족이란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이며, 그 문화에는 민족원형(民族原型)이 관통하고 있다. 원형은 민족 고유의 가치관으로 조상의 평균적 체험 속에서 형

성된다. 일단 형성된 원형은 마치 개인에게 있어서의 세살 적 버릇처럼 변화하지 않는다. 민족어는 그 대표적인 것으로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것이다. 이와같이 각 민족은 그 고유의 원형을 변변히 이어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형은 각 민족 고유의 사고유형을 결정하여 역사를 움직인다. 즉, 민족의 갈림길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유사한 역사적 상황 아래서는 시대마다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이므로 민족의 역사 전개 양식에 하나의 법칙성을 제기한다.

원형 그 자체에는 우열이 없다. 청소년은 우리의 민족원형의 소재를 파악하고 그것을 오늘의 시대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승화시킬 수 있는 의지를 지녀야 한다. ‘옛 그릇에 새로운 술을 담근다’는 경구도 있다. 자신의 원형을 시대적 요청에 여과해 가는 슬기를 지녀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원형의 성격과 미래사회에 대한 의지가 크게 요망되는 것이다. 역사는 원형과 시대적 환경과의 긴장관계에 의해 전개되어 왔다. 그러므로 우리의 민족원형에 대한 성찰은, 현재 한국민의 위상을 밝히고 미래의 전망을 가능케 한다.

원형은 민족의 집단적 무의식이기도 하다. 오늘날 한국민의 집단적 무의식에는 시대마다 이 나라 국민이 체험한 갖가지 일들이 무의식의 층에 충격을 남기고 내재되어 있다. 한국민의 집단적 무의식은 먼 선조들로부터 이어받은 것으로, 한국적 마음의 기본틀, 즉 ‘원형(原型)’인 것이다. 한국어가 처음 형성된 시기와 거의 같은 때에 한국민의 원형도 생겼다. 그것은 먼 태고 때의 일이며 그때의 조상의 평균적 체험이 원형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외적인 사건을 오감(五感)을 통해서 인식하고 그것을 원형에 투영한 후 그 실상을 이미지화 한다. 원형은 그 틀에서 투영된 사실을 해석하고 원초적인 상(像)을 그려놓는다. 이는 신화적이고 설화적인 내용일 수도 있다. 한국인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산신령, 도사, 장수, 도깨비, 영동할매’ 등의 이미지도 원형의 소산이다. 저마다의 민족이 타민족과 다른 원형을 갖는 것도 이러한 각 민족의 상(像)의 바탕이 되는 역사체험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인 특유의 원형의 내용에서 한국인 초기의 민족사적인 역사체험을 짐작

할 수 있고, 역으로 초기의 민족의 역사체험에서 원형을 상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 한민족의 원형은 타민족뿐만 아니라 인류의 원형과도 공통되는 부분도 있다. 이는 한민족이 인류의 일부로서 타민족과 공유하는 역사체험을 갖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우리의 민족원형이 다른 민족의 원형과 공성, 공영의 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1) 원형 형성의 요소

민족의 역사체험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째로 ‘풍토’와의 관계다. 민족성원의 공통의 체험 가운데 기후, 지세, 홍수, 가뭄의 영향처럼 중요한 요소는 없다. 둘째로 기본적 사회구조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저마다의 사회구조는 다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회는 폴리스였었고 한국인에게는 ‘마을’이었다. 이 마을 구조가 한국 민족의 심성(원형)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해안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다. 기후는 온대이며 사계절의 구별도 명백하다. 산지가 많아 한반도 어디를 가도 산이 보이지 않는 곳이 없다. 특히 남한의 산들은 2천미터 미만으로 소위 비산비야의 구릉지대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한반도의 지형은 북고남저, 동고서저이다. 큰 강들이 산지에서 다량의 토사를 실어내려 분지와 평야부를 형성했다. 평야부로의 진출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평야부의 주변과 구릉지대가 고대 한국인의 주요한 생활무대였다. 북에서 남으로 뻗은 태백산맥에 기점을 두고 동에서 남서부로 뻗은 지맥이 있고 그 가운데를 흐르는 주요한 강, 바로 이곳을 배경으로 상류의 분지를 중심으로 둔 마을이 형성된 것이다. 그리하여 각 강마다 특유의 완결된 경제권과 문화권을 형성하게 된다.

이를 기점으로 심한 기온차, 변덕스러운 일기, 홍수, 가뭄 등을 피하기 위해 마을은 분지나 평야부의 주변, 즉 산기슭의 좁은 계곡물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마치 포도송이처럼 웅기종기 모여서 살았다. 때문에 마을은 대규모적인 수리관계 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자연의 흐름을 적절히 이용한 혈연

중심의 두레, 품앗이 정도의 공동작업으로 충분하였다. 즉, 마을은 자급자족을 이상으로 삼았다. 각 마을마다 향약, 향교, 두레, 품앗이, 제, 서당, 성황당 등이 있었고, 엿·술까지도 자가생산하였다. 따라서 자율신경이 무척 강했다. 마을·혈연의 강한 연대의식은 그만큼 남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었다. 강외의 좁은 지류마다 마을이 있었고 또 그 강을 중심으로 완결된 한 문화권·경제권은 다른 강을 중심으로 둔 문화권·경제권과는 거의 관계없는 생활을 가능케 했다.

2) 한국 원형의 특색

강한 생명력; 심한 기온차, 번덕스러운 일기, 홍수와 가뭄, 그리고 3년에 한번꼴로 체험한 외침은 한국인으로 하여금 생(生)에 대한 강한 집착, 즉 생애적(生愛的)인 성격을 갖게 했다. 민족시인 한용운은 그의 시 ‘님의 침묵’에서 ‘아, 님은 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시다’라고 노래하고 있다. 즉, 사람은 죽어도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심청전」·「장화홍련전」 등의 한국설화들도 일단 죽고도 다시 돌아오는 줄거리로 되어 있다. 춘향전의 주인공은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자신의 마음만 굳게 간직하고 있으면 기어코 좋은 날이 오고야 만다는 정신에서 산다. 만일 그 좋은 날이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기다림의 마음은 한(恨)으로 응고되고 만다.

영웅이 없다; 우리나라 설화에는 영웅이 없다. 서양의 설화를 보면 악마나 괴물이 나와 인간을 괴롭힐 때 등장하는 사람은 젊고 씩씩한 영웅이다. 그런데 한국의 설화에서는 민중이나 노인이 등장한다. 유명한 ‘현화가’ 설화를 보아도 금방 알 수가 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수로부인에 관한 설화가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왜침 때에 민중 차원에서 의병운동이 일어난 것도 같은 맥락이며, 요즘도 곧잘 데모가 일어나는 것도 이와 같은 한민족의 심성(원형) 탓이다.

장수가 자라지 못했다; 한국의 설화에는 장수가 될 만한 특출한 아이가 태어나면 후한이 두려워 그 아이를 죽여 버리고 만다는 내용이 있다. 강한 지도

력, 민중을 응집시키는 힘 등을 두려워하는 냉사회성 때문일 것이다. 한국사회에서의 출세형은 부철한 인물의 경우보다 첫째 평소 눈에 띄지 않고, 둘째 모나지 않아야 했다. 특출한 인물, 즉 장수로 지목되면 거위가 제거되었다.

춘향과 보쌈의 논리; 한끝이나 경주 첨성대는 동양문화전통 가운데에서 한국인의 명분주의적 사고가 성공한 좋은 보기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명분에 구애를 받음으로써 오히려 좌절할 수도 있다. 춘향전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여인이 정절(명분)을 고수하여 그 보람으로 남편이 성공하여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춘향과 같이 행복한 여인은 드물다. '여자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명분이 있다. 하지만 홀로된 젊은 여인이 언제까지나 홀로 살 수는 없다.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보쌈'의 근거이다. 즉, 나는 재가를 할 마음이 없었는데 폭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다른 남자를 섬겼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민족의 원형이 명분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에 그만큼 보쌈의 기회도 많다. 이 사고유형은 정치에 있어서도 쿠데타로 나타난다. 한국의 정치사가 명분론, 즉 정통성의 시비(특히, 당쟁) 속에 반정(反正, 쿠데타)으로 점철되어 온 것은 해방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춘향과 보쌈', '정통론(正統論)과 쿠데타', '논리주의와 싸움이'로 이어진다. 한국인은 논리를 잘 전개하다가도 곧잘 모든 모순을 얼렁뚱땅 한마디로 덮어버리는 수가 많다. 최근의 한국의 정치논리를 보아도 금방 알 수가 있다.

파벌주의; '팔을 안으로 굽히는' 식의 사고는 좁은 골짜기 안에서만 살아온 마을의 배타적인 심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임진왜란은 조선의 당파싸움이 자초한 일이 었고 일제식민지는 폐쇄와 문벌싸움의 결과였다. 해방 이후도 마찬가지였다. '이승만과 이기붕(전주이씨), 박정희와 경상도(지역주의), 김일성과 김정일(가족주의)' 어김없이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는 것이다. 출세하자마자 맨 먼저 고향으로 내려가 자신의 아내부터 구하는 이도령식의 미학이 아직 까지도 여전한 것이다. 오늘날 대학 캠퍼스 내에서의 동문회에 대한 집착, 동아리주의도 그 예외는 아니다.

위기에 강하다; 한국인의 오랜 천수답식 농법의 경험은 집중호우의 홍수와 가뭄을 잘 이용할 줄 아는 능력을 내포하게 했다. 즉, 가뭄에서 홍수로, 홍수에서 가뭄으로 급변하는 기후를 이용할 줄 아는 한국인은 어지러운 정세를 잘 이용하여 쟁하고 해뜰 날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할 것이다. 임기응변식 경영(patch work)과 급변적 경영(crach program) 방식으로 국제정세를 이용한 경제성장은 그 좋은 보기이다.

3) 한민족 원형의 가능성

원형 그 자체는 선·악, 자·타의 구별이 없는 본능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상(像)이 그것에 여과되어 의식의 세계로 돌아올 때는 강력한 충동을 수반하게 된다. 외부로부터의 상이 원형을 통과하면서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즉, 원형은 사고의 틀이자 그 경향을 정하는 것이다. 한국인에게는 이도령식의 미학이 있다. 출세의 외욕이 이도령식의 미학을 거치게 되면 강력하게 ‘팔을 안으로 굽히게’ 된다. 또한 이와는 다르게 한국민 모두에게 신바람의 계기가 주어지면 그 외욕을 통과하면서 민족사에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원형 그 자체는 원광석처럼 소박한 형태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현대적 상황에 어울리도록 승화시키면 엄청난 에너지를 수반할 수 있고, 역으로 비록 무의식적일지라도 원형의 틀에 역행할 때는 자학적인 태도로 나타날 수도 있다. 즉, 원형 그 자체를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서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마을적인 원형인 ‘팔을 안으로 굽히는’ 심성은 민족적인 위기상황에서 의병운동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국민국가 형성에는 결정적인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파벌, 문벌, 지역벌을 만들어냈고 지금까지도 국민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국가의 형성에는 강한 지도자 밑에 응집할 수 있는 조직성과 지도자의 책무의식(noblesse oblige), 조직성원의 응집력을 요청한다. 지도자 체중의 마을의식을 책무의식으로 전환시켜야 하고 전체 구성원의 합리적 행동이 필요

한 것이다. 국제화 사회에 있어서는 오히려 부족국가적인 심성(팔을 안으로 굽히는 의식)이 부정적임이 틀림이 없다. 전환기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 경제적인 측면 보다는 지도자의 희생정신과 국민적 차원의 개혁의지이다. 한국민의 숙원은 우리의 원형을 국민국가에 적응시키는 민족적 작업에 있음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4. 정보화시대의 나라사랑

나라사랑의 과제는 항상 청소년들에게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민족이 하나로 영원히 어여가기 위한 길이며 민족의 뿌리를 지키는 길이다. 그러나 나라사랑도 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갓난아이에 대한 것과 다 성장한 아이에 대한 사랑의 방법이 다르듯이 시대에 따라 달라야 한다. 농업시대의 나라사랑과 식민지시대의 나라사랑, 민주화·정보화·국제화가 된 오늘날의 나라사랑의 방법은 분명히 다르다. 정보화사회의 특성의 하나로 다양한 사회조직을 원만히 유지하고 그 속에서 스스로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을 첫째로 삼아야 할 것이다.

1) 우리의 반성

청소년들은 어김없이 오늘의 세대가 지닌 정신적 유산을 이어받는다. 약 70년전 전세계를 놀라게 한 늑대소년 두명이 인도의 밀림에서 발견된 일이 있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늑대에 의해 양육되었던 것이다. 두 소녀의 모습은 인간이었지만 행동은 틀림없는 늑대이었다. 인간도 환경에 따라 늑대와 같아진다는 무서운 사실을 암시해주는 실례이다. 요즘 사회의 일각에서 ‘한국병’이라는 말이 나올만큼 우리 사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부패는 영락없이 늑대사회의 정신유산의 결과인 것이다.

한국은 근대화, 특히 5·16 이후에는 군사적 가치관을 추진력으로 삼아 우리의 전통적 정신·제도·외형 등을 청산하여 최적공업사회를 형성하였다. 모든 것이 규격화되어가고 공업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대화와 대량생

산은 물신숭배의 풍조를 만들어냈다. 그리하여 대규모의 교육시설, 유흥오락 시설, 음식점 등 공업사회의 미학에 맞는 문화현상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공업화 과정에서의 변화는 경제적인 혜택과 함께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발전한다’라는 미명아래 그 속에 잠재하는 문제점을 의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종래의 가치관이 산업조직에 매몰되어 버린다.

한국의 근대화는 군사적인 가치관 아래 ‘잘 살아보자’라는 구호와 함께 단기간에 당장의 경제효과만을 구하는 데에 급급하였다. 한국인의 평등주의적인 원형은 다양화보다도 균질적인 사회를 쉽게 형성하였고, 이 균질적인 사회의 식은 불균형적인 사회현상을 불러왔다. ‘쟁하고 해뿔 날 있다’, ‘사람팔자 시간문제’라는 말도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된 의식이다. 특히 균질화된 민중의식은 민주주의를 외치는 절차를 일률적이고 기계적인 행동과 구호의 외침으로 일관하게 하였다.

2) 정보화시대의 대응

정보의 범람으로 문화현상의 다양화와 가치관의 다극화가 이루어졌다. 거대화된 생산공장에서의 규격화된 물건의 대량생산 보다는 풍부한 정보를 통한 개성적인 상품이 요구된다. 이 점은 인간성에 관해서도 적용이 되어 오늘날 지향되는 획일화된 인간형 보다는 주관이 뚜렷하고 개성이 강한 인간의 배출을 요망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선진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보사회는 단순히 정보수단으로만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단계부터 합리적인 산업사회를 거쳤을 때 거기에 정보적 요소가 가미됨으로써 조속히 발달된다. 오늘날 한국사회가 당하고 있는 위기는 정보적 요소를 무시한, 기능 중심의 가치관에만 크게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정보화와 윤리성

정보화·국제화가 가속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바로 도덕성·윤리성에 관한 것이다. 한세대 전만 해도 전혀 문제시되지 않았던 일들도

정보전달 매체의 발달로 이제는 안방까지 재빨리 전달되어 민중의 윤리의식을 자극한다. 정보화사회는 탈이데올로기 현상을 낳게 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체계화된 이데올로기가 급변하는 사회정세에 어울릴 수 없음을 뜻한다. 때문에 민중의 자연법에 입각한 보다 보편적인 윤리의식이 범인류적 차원에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정치적 양상은 일찍이 인류가 체험한 적이 없는 대중적 민주사회가 가속화 될 것이다. 정보전달의 발달은 참여의식을 자극, 시민사회의 경험이 없는 한국은 혼란에 빠질 위험이 많다.

이를 막기 위해 오늘날의 청소년은 두가지 면에서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는 윤리성이고, 둘째는 넓은 뜻에서의 학문적·지식적 소양이다. 특히 정보화사회가 요청하는 윤리성의 인지와 근대화의 과정에서 만들어져 오늘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불신숭배의 청산이 있다. 이는 한국의 공업화에 이어 정보화 과정에서 풀어나가야 할 필연적·숙명적인 과정이기도 하다.

우선, 한국인의 원형에는 공(公)개념이 결여되어 있음을 깨닫고, 공의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간 한국인의 윤리는 마을 중심이었다. 대부분의 한국인이 마을단위 이상의 조직생활을 체험한 것은 겨우 해방 이후부터였다. 도시의 인구만 양적으로 팽창했지, 국민국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민의식은 형성되지 않았다.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 중대한 문제이다. 한국분단이 지금처럼 장기화된 가장 큰 이유는 민족일체감에서의 공개념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지역감정을 더욱 악화시켰고, 특히 지도자의 공개념은 책무의식으로 표현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지도자에게는 그것이 없다. 5공시대의 엄청난 범죄적 행위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람은 거의 없다.

2천년대를 향하는 청소년의 마음가짐은 공개념과 함께 진정한 민족적 일체감을 지녀야 한다. 좁은 마을적 심성은 국가와 민족의 차원으로 승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국제적 상황은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분위기로 성숙해질 것이다. 이에 한국인으로서의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해 좁은 마을적 가치관을 탈피한 청소년을 기대한다. 단순한 전문인이 아닌 넓은 적응력을 지닌 교

양인으로 성장해야 한다. 민족적인 소망을 성취해야 할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원형을 자각하고, 그것을 정보화·국제화 시대의 현실로 승화시켜 통일한국의 문화의식을 고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미래의 대응은 오직 ‘교육’으로만이 가능하다. 오늘의 우리 교육에는 진정한 의미의 비판정신이 없다. 교육의 규모는 커졌으나 그 의미와 목표에 대한 성찰에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즉, 철학정신이 뿌리내리지 못한 것이다. 우리의 교육은 이러한 전체적인 면을 충분히 인식하고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 새롭게 재정비해야 한다.

민족원형은 변함이 없으나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승화될 수 있고, 한편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무비판적인 추종은 타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민족원형은 시대적 상황의 자각과 함께 긍정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 화랑정신은 한민족의 원형 위에 유·불·선의 정신을 소화해낸 것이다. 이는 신라 청소년들의 윤리성을 높였고 민족의 통일을 낳게 했다. 90년대 청소년들은 분명한 목적의식 아래 철학을 확립하여 발전적인 위상을 향해 나아가 할 것이다.

5. 외국문화의 수용

산업사회화는 후진국에 있어서는 서구화를 뜻했다. 때문에 우리도 이미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원형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후진국에서는 그 원형의 충격에 반발하기도 한다. 인도의 세포이반란, 중국의 의화단사건, 한국의 동학혁명 등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었다. 국내에서 민족주의의 운동이 일어난 것도 공통이다. 그러나 세제사의 흐름을 외면한 소박한 민족주의는 한결같이 좌절한다. 원래 원형은 보수적이며 불합리한 충동으로 폭발하는 경향이 있다. 주관적이고 대중적인 운동의 성격을 갖기도 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내재하고 있다. 오직 교육만이 그 맹목적 에너지를 제어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바로 원형을 현실의 흐름에 승화시키는 일이며, 구체적으로 지난날의 주관적·감정적·충동적 행위가 얼마나 나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는가를 성찰해야 한다. 둘째, 산업화사회에서 야기된 원

형과 현실의 갈등을 소화해야 한다. 분명히 우리의 원형은 현대적인 조건과 갈등이 있다. 그 갈등을 청산해야 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의 원형에는 마을적인 요소가 너무나 짙었다. 이를 현대적인 위치에서 바로 조명하여 재검토 해야 한다.

국제화도 급격한 외국문화, 특히 경제적으로 앞선 미국, 일본의 문화가 무절제하게 이미 유입하고 있다. 이때 우리의 청소년들은 원형을 자각함으로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취사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우리는 일제 36년간의 가혹한 통치를 받아, 한국어와 성씨의 말쑥까지 당했었다. 그러나 한국민의 원형은 건재하며 오히려 일본 전통문화에 대해서는 깊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대 일본의 상업문화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분별하게 물들어 있다. 그 내용은 일본의 문화가 아닌, 서구의 젊은이들의 공통된 형태로 세계적인 유행문화라 할 수 있다. 이는 결코 반가운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제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오직 우리 자신의 문화전통 속에서 적극적으로 외국문화를 소화할 때만이 한국화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방어 보다는 적극적인 우리 자신의 문화정책이 요망되는 것이다.

앞으로 불과 십년 사이에 어떤 일이 지구 규모에서 생길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현실은 지구상의 자원과 그에 의존하는 인간의 필요성 사이에 매우 긴장된 평형이 유지되어 있고 앞으로 몇년 사이에 그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식량과 인구 문제에 관한 경고는 이미 1798년에 맬더스의 인구론에 있다. 그 내용은 인구가 식량의 공급을 웃돈다는 것이다. 현재 이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현재 세계인구의 반 정도가 기아선상에 있다. 현재 세계인구는 맬더스시대의 약 4배, 거의 35년만에 배로 증가했다. 이 증가율에 따르면 21세기 초엽에는 세계 인구는 약 70억이 될 것이다. 인구는 식량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자원에 대해서도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 공업화는 지하자원을 고갈시킨다. 석유, 가스, 석탄 등의 화석연료의 사용은 맬더스가 걱정한 식량문제에 대한 경고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되어 가고

있다. 어렵으로 잡아 에너지의 소비량은 십년마다 배증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 각처에서 모토로 삼고 있는 것이 공업화의 촉진이므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더 증가할 것이다. 공업화 속에서 지하자원의 고갈을 막는 길은 대체에너지의 개발, 즉 태양에너지, 조수를 이용하는 연료에너지 등의 이용이다. 또한 세계적인 규모로 진행되는 오염과 환경파괴가 있다. 공업 유해폐기물의 배출에 관한 국제규모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제화교육의 과정에는 이처럼 국제적 규모로 진행되는 인구, 환경오염, 에너지고갈 등의 문제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개발과 공업화, 소비의 극소화 등에 관한 교육문제가 중요하며 이 문제에 관한 가치관이 새롭게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전세계의 경제성장은 매우 불균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격차가 바로 국제분쟁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이기도 하다. 즉 세계인구의 1/3이하의 사람들이 세계총생산량의 5/6를 갖고, 2/3이상의 인구를 갖는 지역에서 1/6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다.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세계규모의 환경문제는 자원의 독점, 경제이익의 불균형과 어울려 해결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 한민족 원형의 특색인 자연과 인간의 어울림의 정신을 적극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

6. 맺음말

대항해시대 이후 지금까지 ‘세계는 하나’, ‘지구가축’이라는 구호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양상은 어김없이 물리적으로도 세계가 하나임을 실감시키고 있다. 각 민족과 국가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상호의존의 의미를 이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 행성지구라는 하나의 세계에서 인류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필연성을 지닐 시기이다. 국제화는 그 이상을 전제로 해야 될 것이다. 국제법만을 준수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세계를 하나로 묶는 아무런 이론도 없다. 상호의존, 공통의 이익의 인식 이외에는 어떤 대안도 없는 것이다.

세계 각 지역의 지역화는 놀라운 현상이다. NAFTA(북미경제권), EC(유럽공동체)가 형성되면 필연적으로 한국·일본을 중심으로 극동지역을 하나로 묶는 경제권이 구상되는데 현실적으로는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감정은 아직 청산되지 못한 형편이다. 최근에는 피차간에 반일(反日), 혐한(嫌韓)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사이에는 여러차례의 전쟁과 심한 적대감정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인 요청이 그러한 감정문제를 극복했다. 감정 보다는 이성의 승리라고 할 수 있으며 교육의 효과도 있었다. 우리에게도 해방 이후의 다분히 감작적인 반일, 반공교육에 대치되는 이성에 기반을 둔 새로운 교육이 크게 요청되는 바이다.

우리의 가능성은 원형을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으로 적응시킬 때 발휘된다. 국제화는 다양한 가치관,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 상대를 이해하는 지성적 야량, 감정 보다는 지성, 세계를 거시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철학 등이 요청된다. 한민족의 원형은 생애적인 성향, 평등의식, 교육열, 강한 혈연의식, 순발력, 성취의욕 등에 있다. 국민국가 형성에 좌절의 요인을 기인하기도 했지만 일단 그 약점을 청산한다면 한국인은 국제화사회에서 매우 유능한 인재들로 활약할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은, 국제화·정보화의 양상과 우리 민족의 원형과의 관계를 인지하고 미래를 직시할 수 있는 방향에서 실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본문요약

현재 세계사는 국제화에 진입하고 있다. 즉 세계는 하나의 집단을 형성해 가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문화집단의 원형은 그것을 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국가지도자나 학자들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제화시대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외교, 국제수지, 관세문제, 무역협정 등에는 관심이 있어도 각 민족집단 사이에 내재하는 원형의 마찰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다. 또한 타의 원형, 타문화에 대한 편협한 태도는 더욱 더 많은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 대처하는 길에는 교육제도와 그 내용의 개선 이외의 길은 없다. 그 목표는 국제적, 세계적 단위가 된 사회에 스스로의 문화의식을 승화시키고 적용할 수 있는 인간형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을 통하여 원형을 현실의 흐름에 승화시키고, 지난날의 주관적, 감정적, 충동적 행위가 얼마나 나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는가를 성찰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산업사회에서 야기된 원형과 현실의 갈등을 소화하여 그 갈등을 청산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원형은 민족 고유의 가치관으로 조상의 평균적 체험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사고의 틀이자 그 경향을 정하는 것이다. 이를 현대적인 위치에서 바로 조명하여 재검토해야 한다.

국제화로 급격한 외국문화가 무절제하게 유입하고 있다. 이때 우리의 청소년들은 스스로의 원형을 자각하고, 그것을 정보화, 국제화시대의 현실로 승화시켜 통일한국의 문화의식을 고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스스로의 원형을 자각함으로써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외국문화를 취사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오직 우리 자신의 문화전통 속에서 적극적으로 외국문화를 소화할 때만이 한국화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방어보다는 적극적인 우리 자신의 문화정책이 요망되는 것이다.

연구과제

1. 국제화시대의 양상과 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청소년의 바람직한 상을 모색해 본다.
2. 민족원형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 한민족의 민족원형에 대해 논의를 해 본다.
3. 국제화사회에서 타민족문화와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본다.

청소년 유해환경의 이해와 규제

개 관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각종 사회환경은 청소년 문제나 비행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그런데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학문적, 이론적 규명노력은 매우 부진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각종 규제와 자율적 정화 노력들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해환경에 대한 명확한 학문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사회적으로 관리하고자 할 때 그 법리적, 사회적 근거는 무엇인가? 다음으로 유해환경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

주제어

유해성, 유해환경의 상대성, 유해시설 및 장소, 유해물품, 유해행위, 유해정보환경, 침해의 원리, 도덕원리, 파터널리즘, 유해환경의 규제.

* 이광호, 한국청소년연구원 주임연구원

1. 유해환경의 개념과 분류

1)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학문적 이해-개념적 특성

청소년 유해환경이라는 개념은 청소년 문제나 비행과 관련하여 일반 사회에서나 학계에서 가장 널리 쓰여지고 있는 용어 중의 하나이다. 특히 1985년에 ‘청소년 건전육성’이 정부의 청소년 정책의 주요 목표로 등장하게 되는 것과 동시에 건전육성을 저해하는 청소년 주변환경과 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의 개념이나 범주 등에 대한 학문적, 이론적 인식은 대단히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향락문화추방시민운동보고서, 1990:93). 청소년 유해환경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이론적 미비는 학문적 관심의 소홀이나 결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유해환경이 지니고 있는 유해성 판단기준의 모호함과 다양성 자체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유해환경과 그 유해성은 환경의 분류범주에 의해서뿐 아니라 청소년의 연령, 정신적 발달의 정도와 사회의 전통과 문화적 정도에 따라 각각 달리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소년 유해환경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은 논자에 따라, 또 성인과 청소년에 의해서 각각 달리 규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은 대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매체, 물(物), 장소, 기회, 행위 등’(藤本哲也, 1985: 18-19 ; 靑少年育成國民會議, 1985: 9)으로 정의되고 있다. 즉, 청소년의 유해환경이란 청소년이 인간적으로 성숙·발전해 가는데 장애(障害)가 될 수 있는 모든 물리적·문화적·정신적 요소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때 유해환경의 유해성은 환경의 성격과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서적이거나 향락업소와 같은 환경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성적 감정을 자극하거나 폭력성을 조장하며 혹은 청소년의 범죄를 유발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요소들이 유해성으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완구류와 같은 유해물품의 유

해성은 성적 감정을 자극하고 혹은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위해(爲害)를 줄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지적된다(藤本哲也, 1985 : 18).

이렇게 볼 때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의 인간적 육성과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리적·문화적·사회적·심리적 요소들과 청소년과 주변환경 요인 간에 이루어지는 유해적인 상호작용의 총화, 즉 반응과 영향관계의 체계(강대근, 1984 ; 한준상, 1991)로 간주할 수 있다. 유해환경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부분 요소들, 즉 사회·심리적 요소, 문화적 요소, 물리적 요소 및 구조적 요소들로서 상호작용하는 사물, 외부적 기대와 압력, 상황, 조건 등을 개념 규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저해하는 유해환경이란 청소년들의 성적 감정을 자극하거나 폭력성을 조장하고 비행을 촉진하는 등의 인간적인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환경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유해환경은 청소년의 정서적·정신적인 성장에 비교육적인 힘을 발휘하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또는 교육적 공해(公害)’로 규정할 수 있다.

청소년 유해환경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교육적 공해’의 요건, 즉 유해성의 요소는 크게 ‘청소년 건전 성장의 저해’, ‘피해’ 및 ‘비행화’의 세 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 건전 성장의 저해’로서의 유해성 요건은 유해환경의 가장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에는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성적 감정을 자극할 소지가 있거나 폭력성을 조장하고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경향성들이 포함된다. 특히 범죄성의 유발과 조장, 공포심의 조장, 청소년의 도덕심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등이 유해요소로 강조되기도 한다. 둘째, ‘피해’의 유해성 요건은 청소년의 정상적인 정서발달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요소들로서 유해환경에 대한 법적 규제의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에게 공포심을 부여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재산상의 손해나 위해를 미치는 요소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셋째, ‘비행화’의 요건은 유해환경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이나 비행의 조장과 범죄성의 유발 가능성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다. 그런데 유해환경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는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통념화되어 있는데 반해 이를 뒷받침해 줄 만한 경험적인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의 개념적 특성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矢島正見,1987) 첫째,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다. 유해환경의 판단 기준은 청소년의 연령이나 정신적 발달의 정도 및 사회적·문화적 풍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리 규정된다. 예를 들어 비행의 경향성이나 징후가 많은 청소년이나 연령이 낮은 청소년들의 로울러 스케이트장, 전자오락실 및 디스코장 출입 등은 문제행동의 유발을 조장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지만, 그러한 시설이나 장소가 그 자체로서는 결코 유해환경이나 장소로 규정될 수 없으며 되어서도 안된다. 또한 TV, 비디오, 만화, 잡지 등의 대중매체와 정보매체들의 유해성에 대한 판정 기준은 문화적 풍토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즉, 비교적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어 성에 대한 사회적 허용도가 높은 서구 사회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성적 호기심의 자극에 대한 유해성의 요건과 기준이 한국사회와는 매우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유해환경의 개념적 상대성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사실에 주목하도록 한다. 우선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는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가치체계의 와해를 겪으면서도, 적어도 청소년의 건전 성장과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나 판정기준 설정에 있어 별다른 사회적 저항이나 논의 없이 많은 사람의 가치기준과 일상 경험에 기초하여 쉽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 사회적으로 민주화가 가속되고 사회적 도덕적 가치가 다양해짐으로써, 앞으로도 유해환경의 유해성 판정에 대한 합의나 관리가 지금과 같이 별다른 사회적 저항 없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최근 들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노래방에 대한 정부의 유해환경으로서의 간주와 법적 규제(정부는 1992.6.13일자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노래방에 대한 단속근거를 마련하였음)에 대해 노래방 업주들의 생존권 위협이라는 취지의 조직적 반발은 이러한 우려의 좋은 사

레이자 시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유해환경의 효과적인 개선과 대처를 위해서는 우선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인 논증과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유해환경의 개념적 상대성으로 말미암아 유해환경에 대한 법적·사회적 관리와 통제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의 이중성을 띌 수 있게 된다. 청소년 유해환경이 매우 상대적 개념인 관계로 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적 규제의 결과는 청소년의 인간적 발달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플러스 측면과 오히려 장애요인의 제거와 함께 그 자체의 건전한 활용이나 기회마저도 봉쇄하게 됨으로써 빚어지는 마이너스 효과가 동시에 수반된다. 유해환경의 사회적 관리의 이중적 효과는 청소년의 이용률이 높고 스스로 유해하다고 판단하며 비행관련성도 비교적 높은 전자오락실, 소극장, 만화가게, 비디오 가게 등(한국청소년연구원, 1990)을 규제하려고 할 때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 유해환경의 개선 노력은 매우 신중하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유해성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나 금지보다는 바람직한 건전환경이나 교육환경의 적극적인 조장이 훨씬 효과적인 대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유해환경이란 연속적이며 과정적인 개념이다. 유해환경은 개체와 환경간의 일회적이고 일시적인 반응과 영향관계로 규정되지 않는다. 청소년 환경의 유해성은 청소년과 환경간의 지속적인 반응과 영향관계에서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정서발달을 저해하는 여부에 의해 규정된다. 또한 유해환경은 결과적인 의미가 아니라 개체와 환경의 반응과 영향 관계의 과정 그 자체에서 작용하고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나 대처가 일회적으로 끝날 경우에는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사회적 관리 자체가 매우 제도화되어 있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셋째, 청소년 유해환경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해환경의 유해성 요건 중에서도 ‘피해’의 요소는

청소년에게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작용될 수 있다. 단지 유해환경의 개체에 대한 영향의 정도와 개체의 환경에 대한 대응과 반응이 연령이나 신체적 발달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해환경이 성인과 청소년 모두에게 일정한 기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허용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즉, 그 차이의 근거는 개체의 유해환경에 대한 반응정도의 차이—성인들은 청소년에 비해 환경에 대한 접촉이나 관계에서 적절한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고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와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같은 유해환경의 개념적 특성은 청소년 유해환경의 사회적 관리나 법적 규제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2) 청소년 유해환경의 분류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의 존재형태는 하나의 물(物)이나 매체, 장소 혹은 기회나 행위 등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된다. 따라서 유해환경을 어떻게 분류하여 범주화할 것인가는 효과적인 사회적 규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제로서 매우 주요한 과제이다. 그런데 청소년의 삶의 과정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유해환경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우선 청소년 유해환경은 환경 자체의 기본적 성격에 따라 자연적 유해환경, 물질적 유해환경, 제도적 유해환경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자연적 유해환경은 지역의 기후, 지리 등 자연적 입지조건, 음향, 공기, 일조, 수질 등 주변의 자연조건 등의 좋지 않은 반응과 영향관계를 포함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세계적 관심사로 등장하면서 한국사회에서도 주요한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수질오염이나 공기오염 및 소음공해 등 각종 자연환경의 공해는 일반사회 뿐아니라 주요한 청소년 유해환경의 일종이다. 둘째, 물리적 유해환경은 각종 공간, 구조물, 시설과 설비품들 중 청소년의 발달과 건전육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다. 물리적 유해환경에는 지금까지 유해환경에 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주시하고 지적해온 향락퇴폐업소, 유흥·유기장, 각종의 불건전한 놀이마당과 장소 등이 해당된다. 셋째, 제도적 유해환경은 물리

적, 자연적 환경과 달리 청소년과 관련된 각종 사회, 문화적 요소들 중에서 청소년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각종 사회이념, 가치, 문화 등과 사회나 학교규칙 등의 각종 규정과 제도 등을 말한다. 예를 들면 현재 한국사회의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나 지나친 경쟁, 학벌지향적 자원배분과 가치지향성 등은 대표적인 청소년의 제도적 유해환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청소년의 유해환경은 현재 청소년들이 접촉하는 존재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할 수 있다. 청소년 유해환경의 존재형태별 분류는 비록 유해환경에 대한 종합적이고 이론적인 체계적 접근을 소홀히 하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유해환경의 사회적 실체의 확인이나 인지가 용이하며, 특히 청소년 비행과 유해환경간의 관계를 인식하는 데 주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즉, 유해환경과 비행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검증은 어렵지만 현상적 관계, 예를 들어 유해환경의 존재형태별로 접근함으로써 실제 사회에서 어떤 환경이 청소년 비행의 장소로 제공되고 기회를 매개하는가 하는 등의 관계인식이 가능해진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는 유해환경의 구체적인 범주들은 대개 존재형태를 중심으로 하여 분류하고 있는 것들이다. 때때로 학교주변이나 대중매체 등의 유해환경과 지역이나 특정장소 중심의 존재형태의 인식이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존재형태별 분류는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대별될 수 있다. 먼저 청소년의 유해환경을 행위, 물품 등 사회적 실체별로 분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다(藤本哲也, 1985; 靑少年育成國民會議, 1985: 11-12). 특히 후지모토는 청소년 유해환경을 유해행위, 유해물품, 유해시설 그 자체는 유해환경이 아니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유해행위는 성인들의 청소년에 대한 관여행위를 비롯하여 각종 성폭행, 야간배회 등 청소년의 문제행동이나 비행, 범죄행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즉, 청소년 자신들이나 성인들의 문제행동 등도 크게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심리적·행동적 유형의 유해환경으로 간주될 수 있다.

둘째, 청소년들의 심신발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품으로는 유해완구, 유해도서(도색잡지, 만화 등), 유해광고물, 유해약품, 술, 담배, 자판기, 각종 포르노 비디오, 성인영화, 피임구, 일부 스포츠 신문 등을 분류하고 있다.

셋째, 유해시설은 청소년 범죄나 비행에 유발하는 장소적인 유형이다. 예를 들어 음란 출판물이나 성 도구를 판매하는 노점상과 학교주변의 각종 위험물과 쓰레기 하치장, 도축장 등처럼 각종 소음이나 악취를 풍기는 시설들도 대표적인 유해시설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어떠한 시설이든지 절대적인 의미에서 청소년 유해시설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그 시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아니면 특정 시설이 주로 청소년들에게 어떤 내용이나 목적으로 쓰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유해성 판단의 주요한 준거가 된다는 점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이는 유해시설의 유해성을 해소·적절하기 위해서는 유해 가능성이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차단하기보다는 적절한 보호와 지도하에서 시설을 이용하게 하되, 유해성 있는 내용만을 감독하여 사전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넷째, 보는 시각이나 상황에 따라 유해환경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청소년 비행이나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장소 즉, 역 주변, 동네의 어둡고 한적한 장소, 농촌의 빈집이나 버려진 비닐하우스 등과 디스코장, 전자오락실, 각종 분식점 및 스넥코너, 불량집단이나 폭력단 및 각종 정보공해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산업사회에서 주요한 지적소유나 판단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각종 정보는 대개 일정한 가치를 부여하는 방향으로보다는 가치를 박탈하는 방향으로 집중될 소지를 안고 있으며, 현재 청소년들의 정보원천과의 접촉 시간이 장기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량 자체가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들을 수많은 정보내용에 그대로 노출시킬 것이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 건전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배양시키거나, 건전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새로이 창출, 변형하여 전달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청소년의 유해환경을 존재형태별로 분류하는 두번째 방법은 유해환경과 청소년 비행과 관련성에 초점을 두고, 청소년이 비행을 하는데 있어서 유해환경이나 풍속환경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內山순子, 1985). 첫째, 유해환경이 직접 비행의 계기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청소년들이 음란비디오나 성인영화의 선전광고 혹은 포르노 잡지, PC로 전송된 음란물(PC포르노) 등의 정보를 통해 직접 성적인 자극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강간 등 각종 성폭행 행위를 유발하게 되는 관계의 유해환경이다. 또한 전자오락실이나 디스크에서 쓸 유홍비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절도 등의 범죄를 유발하는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실제 불법 음란비디오의 관람이 청소년의 ‘모방’충동 등 심리학적 ‘탈제지’ 기제를 통해 자위행위, 근친상간, 미혼모 급증, 집단 성행위와 각종 가정 파괴범을 양성하는 계기를 제공(서울YMCA 청소년성교육상담센터, 1989)하고 있거나, 소년범죄의 동기별 상황에서 유홍비나 허영 사치심에 의한 유발이 매년 15% 안팎의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들은 청소년 비행을 직접 유발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유해환경의 기능을 잘 대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비행이나 문제행동의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의 유해환경을 들 수 있다. 각종 숙박업소나 공원 등 비교적 한적하거나 밀폐된 공간, 노래방과 유홍업소 등이 청소년들의 흡연과 각종 약물, 가스흡입 등의 문제행동의 장소로 활용되는 경우이다. 셋째, 유해환경이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매개하거나 촉진함으로써 청소년의 비행을 유발, 심화시키는 경우이다. 유해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대단히 미진하지만, 기존의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많은 경험적인 연구들은 일정한 환경변인이 비행유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보다는 비행가능성이 있는 동료집단과의 매개를 통해 비행 경향이 표출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유혜경, 1986). 일본 靑少年有成國民會議의 보고서(1985)는 포르노 잡지나 각종 매스미디어 등의 정보환경과 비행과의 관련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즉,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정보환경의

영향 빈도나 정도는 적으며, 있더라도 또래집단의 작용이 매개요인이 되며, 각종 매스미디어가 반사회적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행위 수행에 편리한 기회를 제공하더라도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위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경우는 희박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행청소년 집단과 일반청소년 집단간에 범 죄적 미디어의 내용에 있어서 접촉 차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연구 보고나 의견이 참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유해환경은 직접적인 비행의 기회를 제공하기 보다는 또래집단과의 관계내용이나 형태 등의 접촉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적 일반 통념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을 사회적 존재형태에 기준을 두어 첫째 유해시설 및 장소, 둘째 유해물품, 셋째 유해행위 등으로 분류하고 그 밖에 각종 대중매체 등의 정보관련 환경은 독립적인 영역으로 고려하고자 한다(〈표 1〉참조). 유해정보 환경은 다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의 성격에 따라 다시 전과영상에 의한 정보, 인쇄물에 의한 정보 및 상행위를 위한 각종 광고 정보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정보환경을 따로 분리하여 고려하는 것은 다른 유해환경과 달리 정보환경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안고 있는 특수성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다른 유형의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에서 이러한 문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아야 괜찮은 것은 아니지만, 특히 각종 정보매체와 관련된 유해성을 규제하고자 할 때에는 특정 정보의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확인에 의한 유해 정도와 판단에서부터 구체적인 규제내용과 방법의 선택에 이르기까지 매우 신중한 배려가 요청된다. 정보환경의 유해성 여부는 그 판단 자체가 매우 어렵다. 정보환경에 대한 규제는 자칫 잘못하면 일반 국민들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규제로 이어지거나,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다. 또한 최근 컴퓨터와 각종 통신이나 정보공학 및 관련기기의 발달로 일정 정보가 개별 청소년에게 쉽게 전달됨으로써 정보공해의 포착과 차단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보환경은 다른 물리적, 행동적 환경과 구분하여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 유해

환경을 사회적 존재형태별로 분류하고, 그 내용과 우리 주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 <표 1>와 같다.

<표 1> 사회적 존재형태별 유해환경의 일반적 분류

구 분	내 용 및 사 례						
1) 유해시설 및 장소	청소년들에게 범죄나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비행전력이나 비행우려가 있는 또래 집단과의 관계를 매개하고 촉진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이나 장소로서의 환경						
2) 유해물품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각종 물품이나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기기류 불량 장난감·불량 학용품·각종자판기(담배자판기)·불량식품, 본드·부탄가스 등 환각제, 히로뽕·마약·마리화나 등 약물류, 안전제·수면제 등 각성제, 전자오락·컴퓨터 게임과 음란정보·불량물품을 판매하는 잡상인, 인기인 사진						
3) 유해행위	성인들의 각종 반사회적 행위와 유해한 행위, 성인들의 청소년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억압 등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유발하는 비행과 문제행동 및 기타 다른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적 요소 등 컨닝, 야간배회, 무단결석, 도박, 절도, 집단싸움, 흥기소지, 흡연, 음주, 각종 본드 및 약물 남용, 공갈, 협박, 폭행, 기류, 음란낙서,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이성과의 성관계, 가벼운 성추행, 성폭행						
4) 유해정보 환경	전파·영상, 인쇄, 광고매체 등을 통해 전달되는 청소년의 성적 감정과 폭력성을 자극하거나 건전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정보 <table border="1"> <tr> <td>전파·영상정보</td><td>유해한 라디오·TV 프로그램, 음란 및 폭력성 비디오·영화·만화영화, 노래방의 음란영상, PC포르노, 유선방송을 통한 성인물, 기타 음란성 영상물 등</td></tr> <tr> <td>인쇄정보</td><td>성인만화·각종 일간지·월간지 등의 음란성 내용, 각종 부정기 잡지류의 음란·폭력물, 성인용 포르노·잡지, 기타 음란 소설류 등</td></tr> <tr> <td>광고정보</td><td>음란 및 외설적 내용을 담은 각종 선전물과 옥외광고를 각종 잡지류의 여성속옷 광고물과 이와 유사한 상업성을 위한 광고물</td></tr> </table>	전파·영상정보	유해한 라디오·TV 프로그램, 음란 및 폭력성 비디오·영화·만화영화, 노래방의 음란영상, PC포르노, 유선방송을 통한 성인물, 기타 음란성 영상물 등	인쇄정보	성인만화·각종 일간지·월간지 등의 음란성 내용, 각종 부정기 잡지류의 음란·폭력물, 성인용 포르노·잡지, 기타 음란 소설류 등	광고정보	음란 및 외설적 내용을 담은 각종 선전물과 옥외광고를 각종 잡지류의 여성속옷 광고물과 이와 유사한 상업성을 위한 광고물
전파·영상정보	유해한 라디오·TV 프로그램, 음란 및 폭력성 비디오·영화·만화영화, 노래방의 음란영상, PC포르노, 유선방송을 통한 성인물, 기타 음란성 영상물 등						
인쇄정보	성인만화·각종 일간지·월간지 등의 음란성 내용, 각종 부정기 잡지류의 음란·폭력물, 성인용 포르노·잡지, 기타 음란 소설류 등						
광고정보	음란 및 외설적 내용을 담은 각종 선전물과 옥외광고를 각종 잡지류의 여성속옷 광고물과 이와 유사한 상업성을 위한 광고물						

〈표 1〉과 같은 사회적 존재형태별 유해환경의 일반적 분류는, 청소년의 성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변환경을 생활영역에 따라 가정·학교·사회환경으로 대별할 때 주로 사회환경에 국한되어 있다. 또한 앞에서 지적한 유해환경의 기능적 분류와 관련하여 볼 때 유해시설 및 장소를 비롯한 모든 유해사회환경은 각각 심리적·행동적·제도적·구조적·자연적·물리적 측면에서의 유해적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유해 사회환경 이외에 가정과 학교환경에서 고려될 수 있는 각종 유해환경은 그것이 구조적·과정적 환경으로서 청소년 비행과의 관련이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장애가 되는 유해성 정도의 판단에서 논자에 따라 가장 중요하게 인식될 수도 있다. 가정은 청소년의 자아형성, 태도, 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일차적인 환경이다. 청소년들은 각종 유해 사회환경의 유해성을 극복, 자제, 여과시키는 역량이 성인에 비해 덜 성숙되어 있음으로, 가정은 청소년들을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어기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가정 자체가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유해환경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유해환경으로의 접촉과 노출을 매개하고 촉진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가정의 자연적·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보면, 가족소득이나 부모의 직업, 노동에 대한 가치관이나 금전에 대한 이해 등과 같은 주·객관적 경제환경과 주거형태와 지역의 환경과 같은 주거환경 측면은 청소년에게 주요한 유해환경이 될 수 있다. 또한 부모와의 부조화, 불화, 과보호나 방임, 일관성 없는 양육방식 등과 같은 가족관계 측면은 가정의 심리적·행동적 유해환경으로 간주된다.

한편 청소년의 작업장인 학교나 직장환경 역시 가정에 못지 않게 청소년의 주요한 발달환경이다. 가정과 마찬가지로 학교나 일터의 물리적 환경 그 자체는 결코 유해환경일 수 없다. 그런데 청소년의 일터나 학교가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발달에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학교나 일터의 유해성은 어떤 다른 환경보다도 더욱 심각한 유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사회에서 커다란

사회적, 교육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의 반교육적이고 탈교육적인 행태 — 학교의 열악한 자연적 물리적 환경, 지나치게 과다한 과목수와 수업시간, 선생님의 차별 등과 같은 불평등의 구조화 현상, 획일적인 경쟁위주의 입시중심 교육, 각종 과외와 학원을 비롯한 교육산업의 열풍과 변장 등 — 는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에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교육의 역기능들은 청소년의 비행과 문제행동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지적(한준상, 1989)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가정과 학교교육 및 일터의 유해요소는 사회적 유해환경보다 더욱 심각한 청소년의 유해환경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러한 영역은 청소년의 유해환경의 관점에서 보다는 일반적인 사회병리나 교육문제 내지는 교육병리 현상등으로 기존의 교육학을 비롯한 인접 사회과학의 주요한 학문적 탐구대상이 되어 왔다. 따라서 이들 영역을 청소년의 유해환경 요소로 고려하게 되면 유해환경의 범주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유해사회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는 물론 사회적 규제와 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 관리의 접근방식을 달리한다. 즉, 가정과 학교환경의 유해요인은 일차적으로 법적 규제의 대상이나 영역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러므로 가정과 학교를 비롯한 일터의 청소년에 대한 비교육적 요인들은 유해환경으로 인식되고 탐구되기보다는,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 및 복지 차원의 고유영역의 독특성과 상대적 자율성을 인정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청소년 유해환경 규제의 기본전제와 방향

1) 청소년 문제와 사회환경 개선에 대한 반성적 인식

현재 한국사회에는 청소년을 배려하는 각종 선언문이나 현장의 채택은 물론 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학문적 이해와 진단·처방들이 다른 어떤 분야에 못지 않게 방대하게 축적되어 왔다. 그런데 청소년 문제관련 종사자나 전문가들에 의해 축적되어 온 이해와 처방들은 그들의 진지한 실천적 노력과 전

문적 식견의 반영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이 일정 부문에 대한 제한된 영향력만을 행사해 온 것 같다. 어떤 면에서는 한국사회의 청소년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의 많은 부분은 그들의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판단과 이해에 따라 “이러이러한 것들이 문제이며, 그 실상이 심각하니 시급히 대처해야 한다”거나 “정부나 관계기관의 관심 증대와 사업의 확대가 요구된다”는 등의 자원투여 방식의 처방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현실이 어떠한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는 생략한 채 관련 전문가들이 보기에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버리는 혼란마저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문제가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의 끊임 없는 자선적 관심과 관계사업의 무한대의 확장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을 것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여하튼 어른들의 지대한 관심과 전문가들의 온갖 처방 및 사회와 정부의 다양한 실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문제와 그들을 둘러싼 사회환경은 오히려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다.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학교주변의 폭력 등과 같은 무형적 환경들은 이미 청소년들에게도 공포의 대상이 되어 있으며, 그밖에 인신매매, 약물, 성범죄, 유괴, 가정파탄 등은 함락풍조의 만연과 깊은 연관을 가지면서 청소년들의 인간적인 성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한국사회의 사회적 환경공해는 더이상 언어적 비판과 용단폭격적 고발로 자위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듯하다.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의 정부당국의 정책적 대응효과는 기대 이하이거나 제한적일 뿐이었다. 청소년문제와 사회환경에 대한 어른들의 선도·개선 노력은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을 사회적으로 관리하고 규제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반성적 인식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지금까지 청소년 문제와 유해한 사회환경의 현실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방식, 즉 많은 다양한 요인이나 주관적으로 체득되어 파편화된 사실들을 평면적으로 나열하고 지적하는 것이 사회환경 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라는 인식은 더이상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사회

환경에 대한 융단폭격적 고발을 대신하여, 과학적이고 구조화된 문제인식과 처방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역사회 단위별 실증적인 조사와 이에 기초한 사회적 관리와 법적 규제에 대한 엄밀한 학문적·이론적 정당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와 같은 실정에서 유해환경 개선에 대한 더 많은 행·재정적 지원이나 법적 제재의 강화로 청소년 문제가 감소하거나 해결의 실마리를 보일 것 같지는 않다. 지금까지 제안된 무수히 많은 학문적·이론적 처방들이 보다 많은 사회적 관심과 사업의 확대를 문제해결의 만병통치약으로 지적해 왔고, 실제로 적지 않은 재정투여와 사업의 확대를 가져왔지만 그 효과나 결과는 기대범위를 크게 벗어나 있다. 이러한 현실은 문제해결을 위한 진단과 처방의 접근통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현시점에서 시급한 것은 관련부문의 예산과 사업의 확장보다는 동원 가능한 각종 기존 자원의 재조직화와 재체계화·제도화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 같다.

셋째,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을 진단하고 처방할 때 청소년 자신에게 모든 원인을 전가하는 것은 물론 피해야 하지만, 청소년들의 실패나 부적응을 사회 환경이나 사회구조적 요인의 결과로만 간주하는 볼주체적인 인식에서도 탈피해야 한다. 또한 어떤 환경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문제나 비행의 진단은 상황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그 상황 속에서 문제행동의 주체인 청소년에게서 1차적인 원인진단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유해한 사회환경 개선 노력의 출발도 직접 유해환경을 접하고 행동을 야기하는 청소년 자신들로부터 비롯되어야 할 것이다.

2) 유해환경 개선의 기본 전제

청소년의 건전성장을 도모하여 그들의 밝은 미래를 기약하고 보다 나은 삶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가장 1차적인 과제는 그들을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하거나 그러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자제력을 길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소년비행과 유해환경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종합

해 볼 때, 연령이 낮은 어린이일수록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는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內山壽子, 1985 : 15). 그런데 이러한 유해환경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들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특정환경의 어떤 요소나 성격이 어떻게 청소년에게 유해한지에 대한 판단여부의 문제이다. 유해환경의 유해성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연령, 정신발달 정도 및 사회적 문화적 풍토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정될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다. 또한 유해성은 궁극적으로 가치판단의 문제로서 구체성이 결여된 추상적 의미로 규정될 가능성이 많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는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가치체계의 와해를 겪으면서도, 다른 어떤 분야에 비해, 적어도 청소년들의 건전성장과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나 판정기준 설정에 있어서는 별다른 사회적 저항이나 집중적인 논의과정 없이 많은 사람의 가치기준과 일상 경험에 기초하여 쉽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사회적으로 민주화가 가속되고 사회적 도덕적 가치가 다양해짐으로써, 앞으로도 유해환경의 유해성 판정에 대한 합의나 관리가 지금과 같이 별다른 사회적 저항없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따라서 유해환경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인 논증과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유해성의 사회적 관리 또한 특정 집단의 주관적 경험에 의해 좋지 않다고 판단된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에 대한 올바른 대응이나 규제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 그러므로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의 근거와 방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치밀한 논증이 요구된다.

둘째, 유해환경은 청소년에게만 유해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지라도 성인들에게 동일한 유해성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유해성 판정과 관련하여 소년들에게 어떻게 그 유해성을 설득시켜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靑少年育成國民會議, 1985 : 114—115). 물론 특정 환경이

청소년에게 특히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논증 가능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유해성은 영향의 차이가 불분명하고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이유를 설득시키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다. 그렇지만 어떤 환경은 그 접촉이나 사용에 있어 성인과 달리 청소년에게는 적절한 절제나 자기통제력을 보증할 수 없기 때문에 폐쇄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현재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시설이나 장소들은 그 자체가 유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청소년들이 적절한 절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건과 상황을 조성해 준다면 오히려 바람직한 여가와 오락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

셋째, 유해환경의 규제 방법과 관련하여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각종 관리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나 부담이 적절하고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업주나 환경제공자 측을 중심으로 규제하는 경우는 부담의 총량이 제공자에게 지나치게 편중되고, 출입 또는 사용하는 청소년을 제재하는 경우에는 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의 실질적인 효율성을 거두고 공정성을 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부담의 분배가 형평있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유해환경 규제의 근거와 방법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리나 통제의 근거와 정도의 문제는 깊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어떤 환경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에 의한 강권적인 간섭이 필요한 반면 어떤 유해환경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이나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와 같은 가벼운 간섭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구분의 준거는 무엇이며 그 정도의 차이는 왜 필요한가 하는 등의 문제는 유해환경의 사회적 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개념 못지 않게, 유해환경에 대한 법적 규제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까지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선도라는 추상적인 명목하에서 ‘미성년자 보호법’, ‘아동복지법’ 및 ‘종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청소년의 흡연, 음주나 일정한 풍속환경에의 출입이나 일정 지역의 출입 제한(예를 들어 청소년비행방지구역 등) 등이 그 법리적 근거나 정당성의 검토 및 국민의 기본권등에 대한 전문적인 고려없이 무조건적으로 국가의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사회에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노래 연습장의 법적 규제를 위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노래 연습장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풍속 환경으로 분류하고 이를 단속의 근거로 삼아 관련 업계의 커다란 저항에 직면하고 있는 사례는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치밀한 논증과 합의 절차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는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법적 규제의 기본원리는 국가 공권력이 시민의 사회적 행동을 규제한 근거나 이유로 이론화되어 있는 침해의 원리(harm principle), 도덕 원리(moralism) 및 가부장적 간섭의 원리(paternalism) 등을 원용하여 이해될 수 있다(藤本哲也, 1987). 도덕 원리는 사회 도덕이나 윤리를 가장 중시하는 입장으로, 법에 의한 사회도덕 유지가 강조되고 사회존립을 위해 비도덕적 행위는 부도덕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도덕의 원리에서는 개인의 타인에 대한 침해가 없더라도 개인의 행위가 반윤리적이라는 이유로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

한편 침해의 원리는 특정인이 개인의 생활이익을 침해하거나 또는 침해할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는 강제적 수단을 이용한 개입이 정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개인의 의지에 반한 자유의 간섭은 그 개인의 타인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성립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침해의 원리에서는 개인의 타인에 대한 침해를 방지한다는 목적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 침해의 원리에 따른 규제대상은 청소년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 등과 같은 생활이익의 침해에 한정될 것이다.

가부장적 간섭 또는 간섭주의으로 불릴 수 있는 파터널리즘은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 개입이나 간섭을 정당화하는 원리로서 예를 들면, 어떤 A가 타자 B에 대해 침해를 야기하지 않더라도 A자신의 이익을 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개인 혹은 단체 (예를 들어 국가)가 A에 대해서 무엇인가의 개입 행위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그냥 방치해 두면 청소년 자신의 생활이익 조차 유지할 수 없을 경우 강제적 개입은 정당화된다. 이러한 파터널리즘의 현대적 의의는 타인에 대한 침해가 없더라도 본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본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점에 있다(澤登俊雄, 1985 : 15). 본래 파터널리즘의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는 피개입자에게 ‘선량한 일을 하게 한다’고 하는 의미를 지니며, 좁은 의미에서는 피개입자를 ‘나쁜 영향 즉 해(害)로 부터 지킨다’고 하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 의미의 파터널리즘에서는 침해의 원리로 설명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데, 침해의 원리로만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害) 즉, 유해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인정이 필요하게 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사실이 곧 후지모토가 유해환경의 규제근거를 침해원리보다는 파터널리즘에서 찾고 있는 중요한 이유라 해도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유해환경의 규제근거로서 파터널리즘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다. 보호되는 본인의 이익이 소극적인 것일 때나 본인 자신에 대한 소극적 이익의 보호가 타인의 이익보호에도 도움이 될 경우(예를 들어 컨닝의 경우 컨닝한 본인에게 피해 주는 학력의 저하 동시에, 컨닝에 성공하면 다른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게 된다)에는 개입이 정당할 수 있지만, 본인의 이익을 다른 사람이 판단할 경우 순수하게 본인에게 이익인지 아니면 타인의 가치판단에서 ‘본인의 이익이라고 판단되는 것인지가 문제이다. 예를 들어 복장이 불량하다, 이성교제는 좋지않다는 등을 이유로 개입할 경우, 본인의 ‘도덕적 타락’이라는 불이익을 방지하는 의미에서의 파터널리즘이 개입의 정당화 근거가 되지만 이러한 ‘도덕적 파터널리즘’은 원칙적으로 부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도덕적 판단은 성인이나 교사 개개인의 문제이며 일관성있는 규제방침의 확립을 방해하기 때문이다(澤登俊雄, 1985 : 15-16).

그런데 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에서 또하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개입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이를 위해 동원되는 방법이 항상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개입목적의 정당성 뿐만 아니라 개입 방법과 수단의 정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이것이다. 개입방법과 수단의 정당성 근거는 그 방법과 수단의 ‘필요성’, ‘유효성’, ‘윤리성’ 등 3가지 요소를 지적할 수 있다. 필요성은 개입목적의 정당성과 내용이 일치하며 유효성을 개념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유효성과 윤리성은 개입의 목적이 정당하다면 어떤 방법과 수단도 허용된다는 것에 대한 제약원리라고 할 수 있다. 즉, 개입목적에 비추어 그러한 강제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과 그러한 수단이 매우 유효할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아울러 수단이 아무리 유효하더라도 대상자의 인격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러한 수단은 동원되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는 그 목적이 정당해야 할뿐만 아니라 목적을 위해 동원되는 수단 역시 일정한 근거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澤登俊雄, 1985 : 16).

3. 유해환경 개선의 기본 방향과 대안의 탐색

지금까지 유해환경의 유해성 판정과 규제근거와 방법과 관련된 몇가지의 고려 사항과 전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유해환경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정상적인 정서 발달을 저해하는 것이며, 따라서 유해환경 규제의 주된 목적이 소극적으로는 각종 환경의 유해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는 바람직하게 성장하고 선량한 행위를 하며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상황과 조건을 형성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환경으로 부터 일정한 유해성을 척결하고 개선하는 일은 단순히 청소년에게 바람직한 성장 조건을 형성시켜주는 차원이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의 무교육적, 탈교육적, 비교육적인 각종 환경공해로부터 인간생존의 의미를 재정립하려는 시도이며 과정이어야 한다(한준상, 1989). 이렇게 볼 때, 사회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유해환경의 척결작업은 단순히 일시적인 여가선용이나 낭만적인 자선적 행위의 과정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정부 당국의 정책적 대응이나 가정, 학교 등

개별적 단위기관의 결단과 노력만으로 이루어지거나,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보완으로 해소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님은 더욱 명백하다. 현재 한국사회 현실을 고려할 때 청소년 유해환경의 개선 작업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방향으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사회적 관리와 통제가 원칙적으로 청소년의 생활 내지 경험의 공간이나 범위를 축소시키는 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청소년을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소극적 의미의 대응에만 몰두하여 그 보호 노력은 자칫 그들을 어느 특정 장소나 환경에 묶어 두려는 시도로 나타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유해환경에 대한 법적 대응은 본질적으로 청소년의 생활과 체험의 폭을 축소시키지 않는 한계 내에서 최소화하되, 일단 제정된 법규의 집행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관리는 강권적인 규제나 금지수단 및 설득적인 규제가 적절히 조화되어야 한다. 유해환경에 대한 행정적인 처벌이나 벌금위주의 강권적 규제는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면에서 선호될 수 있지만, 유해성 판정에 대한 논란과 논쟁이 모호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사회적 저항도 유발할 수 있고 아니면 실질적인 규제의 집행이 보류되거나 기대되는 등의 실질적인 규제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유해환경의 규제는 법적 규제를 가능한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시민운동 및 유해성을 지닐 수 있는 환경의 업주들의 이익집단이나 단체를 통한 자율적인 통제관리 형태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각종 청소년, 시민단체에서 벌이고 있는 유해환경 정화운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보다 강화하여 연중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 실시에 즈음하여 각 지방 특유의 환경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각 단체들을 지방방고로 할당하여 해당지역에서 지속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프렌차이즈 제도의 도입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는 가능하면 그 환경이나 행위자의 가장 가까이에서 있는 기관이나 사람에게 유해성 판정과 규제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그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각종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유해요소는 그 지역사회의 구성원에 의한 규제나 관리가 가장 효율적이며, 법적 규제에서도 그 지역을 직접 관할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나 규제하에 두는 것이 지역주민의 기본권이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문제를 줄이고 관리의 효과적인 결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앞에서 살펴 본 유해환경의 특성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재와 같은 중앙정부 중심의 일괄적 법적 규제보다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독자적인 유해요소의 선정과 사회환경 개선의 대안 마련이 훨씬 효과적인 대응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중앙입법 중심의 통일적인 유해환경 관리나 규제를 지향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청소년육성보호조례(가칭)’ 등의 제정을 통해 지역에서 시급히 개선·관리되어야 할 유해요소의 설정과 환경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의 마련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때 부천 YMCA가 주축이 되어, 1991년 11월부터 이 지역 청소년들의 담배자판기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터하여 부천시의회에 제안한 ‘담배자동판매기 철거 및 설치금지에 관한 조례제정’의 정원(1992년 7월 현재)과 나아가 ‘청소년보호육성조례’ 제정의 청원계획은 한국의 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 역사상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유해환경의 규제와 청소년 건전육성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조례를 제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하나는 각 지방의 조례에서 동일 규제 대상과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량이 다를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지방자치별 조례 제정시에 충분한 사전정보교환을 통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조례제정의 행정단위에 관한 문제이다. 부천시의 경우와 같이 담배자판기 등 특정의 유해물품에 대한 규제조례와 청소년보호육성조례와 같은 종합적인 규제의 경우 각각 기초 자치단체별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면 광역단위별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는 여러 가지의 법률적 검토를 비롯한 신중한 고려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넷째, 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리와 규제에서 그 과정이나 절차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유해환경으로 지적되고 있는 시설, 물품, 장소 등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본질에 기인한 상업적 이윤추구와 밀접한 관련이 되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윤추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

또한 유해환경의 영향을 일회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청소년과 환경간의 지속적인 반응과 영향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다. 따라서 유해환경 개선 노력은 유해성에 대한 시민의 생존적 자각과 비판의식을 자극할 수 있도록 조직되고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즉 기존의 유해환경에 대한 정부와 민간차원의 개선방안과 노력을 진지하게 재검토하여 제도화되어 있는 것조차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면을 진단하고, 각 관련기관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선 청소년육성위원회나 실무위원회와 같은 제도화되어 있는 기구를 사회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통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현행 청소년육성법 시행령 제4조 5호에는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건전육성분과등이 구성되어 있으나 그 기능은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과위원회를 사회환경개선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지닌 실질적인 기구로 상설화하고, 5인 이내의 전문위원과 분과위원을 적극 활용하여 유해환경 개선과 관련한 정부부처 간의 협조체계 구축은 물론 관련 연구나 시민운동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체계화할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도 실무위원회나 분과위원회를 두는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의 자주적인 규제와 유해성 판정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적 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환경의 유해성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나 대응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스스로 유해환경에 대한 자각과 자제력을 신장할 수 있는 간접적인 처방이 병행되어야 한다. 유해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치료적 차원에서의 처방이라면 간접적인 처방은 결국 예방적 대응이 될 수 있다. 특히 예방적 차원에서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의 통로에서 청소년들의 대중문화에 대한 접촉과 놀이문화를 선도·육성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도 시급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환경개선의 대안적 노력들 또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치유책이라기보다는 한때의 치유책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주변환경은 이러한 한때의 치유책이라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사회환경개선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들을 결코 무공해나 무균지대에서 살게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는 데 바탕을 두어야 한다. 성공적인 삶의 선택을 낳는 지혜는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체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이제는 성인들에게 항상 모범적인 행위를 기대하는 당위적 환상에서 벗어나야 하고, 어른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핑계에서도 탈피해야 한다. 다소 오염된 환경 속에서도 선택의 지혜를 발휘하며 자신을 자제해 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인간의 끊임없는 생활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본문 요약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환경의 총체이다. 유해환경의 유해성은 선정성, 폭력성과 같은 건전육성의 저해와 피해 및 비행화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유해환경은 개념적으로 우선 상대성을 갖고 있으며, 결과이기보다는 연속적이고 과정적인 것이다. 또한 유해환경의 유해성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현재 한국사회의 유해환경은 사회적 실체 중심으로 대개 유해시설 및 장소, 물품, 행위, 정보환경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근거는 사회도덕과 윤리를 중시하는 입장인 도덕의

원리(moralism)와, 개인 자유의 간섭은 개인의 타인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는 침해의 원리(harm principle), 본인에게 이익이라는 이유로 간섭이나 개입을 정당화하는 파터널리즘(paternalism) 등을 들 수 있다.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리는 크게 법적 규제, 관련 업계의 자율 규제와 지역주민이나 단체의 자율정화 노력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리는 청소년의 생활공간이나 범위를 축소시키지 않아야 하며, 법적 규제와 같은 강권적 규제와 자율적 정화와 같은 설득적 수단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의 유해성의 판단과 규제의 권한등은 청소년과 그 환경에 가장 가까이 있는 순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효과적이다. 사회적 관리 노력들이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절차와 과정이 잘 제도화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을 무공해상태에서 육성할 수 없다는 성인의 자각과, 각종 환경의 유혹으로부터 인내하고 자제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삶의 과정이라는 청소년 자신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연구과제

1. 유해환경의 유해성 판정은 누구의 판단에 의존할 것인가.
2.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의 유해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득시킬 것인가.
3. 각종 유해환경을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규의 마련이 타당한가.
4.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의 근거인 도덕원리, 침해원리, 파터널리즘은 각각 무엇이며, 어떤 원리의 적용이 타당한가.
5.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리의 절차와 과정을 제도화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6. 한국사회에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유해환경을 규제한 시민운동이나 업계의 자율규제 노력은 어떤 형태가 있는가.

참고문헌

- 강대근(1984),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환경”,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청년연구 제7집.
- 대한교육연합회(1981), “학교교육 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33집, 서울: 대한교육연합회.
- 도종수·이광호 외(1990),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 유혜경(1986),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준상(1989), “교육환경 개선 운동론”, 서울 YMCA 시민자구운동본부,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
- 한준상(1991), “청소년 유해환경과 청소년 정책”, 청소년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민 운동 심포지움 발표 원고.
- 內山絢子(1985), “風俗環境과 少年非行”, 法律時報, 第57卷 第7號.
- 藤本哲也(1985), “有害環境と 有害性 概念”, 法律時報, 第57卷 第7號.
- 藤本哲也(1987), “有害環境 の 規制と ハターナリズム”, 法學新報, 第93卷 第6. 7. 8號
- 藤本哲也, 이광호 편역(1992), “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와 정당성”, 한국청소년연구, 제3권 제2호, 한국청소년연구원, 1992 여름호.
- 矢島定見(1987), “有害環境とは”, 少年補導, 第32卷 4號.
- 日本青少年育成國民會議(1985), 青少年と 有害環境—歐美諸國に おける 各種規制 と わが 國の 現状と 課題, 環境問題専門委員會の 報告書.
- 日本青少年國民會議 編, 이광호 편역(1992), “청소년 유해환경 법제와 운용”, 한국청소년연구, 제3권 제3호, 한국청소년연구원, 1992년 가을호.
- 澤登俊雄(1985), “少年保護の理念と 教育の理念”, 平野龍一編, 講座 少年保護 4卷—少年保護と 學校教育, 東京: 大成出版社.

12.

청소년 문화정책의 개발

개 관

청소년 이론은 이론적 분석이나 대비를 통해 정책적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문화는 이론적 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시대 그 시점에서의 환경과 조건들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만들어져 있는 어떤 문화내용물에 의해서가 아니라, 청소년 그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창조해 낼 수 있는냐의 비가시적 능력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글은 한국에 있어 오늘의 청소년이 문화적으로 어떤 환경과 조건에 처해 있고, 그들 자신은 어떤 수준의 문화욕구를 가지고 있는냐를 중점적으로 접근해 봄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려는 데 목적을 둔다.

주제어

청소년 문화, 청소년 문화정책, 문화 감수성, 문화력, 삶의 양식, 문화의 동시화, 삶의 질, 문화적 욕구, 활동 프로그램

* 이중환, 서울신문 논설위원

1. 청소년 문화정책의 범위 또는 대상

우리의 정책 중 가장 큰 맹점은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 문화정책의 구분이 개념상만으로도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부처별로 정부 스스로가 청소년 관계업무로 간주하고 있는 것에는 총무처의 자녀지도를 위한 직장교육계획이나 교육부의 진로지도, 건설부의 야영장 조성까지도 청소년 정책업무로 내세워지는 형편이다. 그러나 실제로 청소년문화에 근접하는 업무는 문화부의 청소년 건전문화육성, 공보처의 대중매체정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을 주제로 하여 청소년 그 자신들에게 무엇을 주느냐의 접근이기 보다는 청소년 근처에서 청소년에게 부적절해 보이는 문화내용물들을 격리하는 것이 청소년문화의 보호육성이라 보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니라 그 혼탁속에서도 유해한 것들을 선택하지 않는 개개인의 문화적 질적 능력이다. 즉 이를 건전한 문화감수성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문화정책의 핵심적 요소는 존재하는 환경이나 내용물이 아니라, 스스로 무엇을 선별하고 무엇을 창조해 낼 수 있느냐의 개개인의 文化力과 창조성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문화정책의 근본적 변화: 국민 모두의 삶의 감수성 증진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문화력과 창조성을 언급하기 전에 이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새롭게 문화정책에 있어 중요한 개념이 되고 있는 것은 삶의 양식(life style)이다.

앨빈 토플러(Alvin Toffle)는 “오늘의 세계체제에는 블랙 홀(black hole)이 나타나 있다, 이것은 지금 권위와 권력을 통째로 빨아들이고 있는 거대한 진공상태이다”라는 표현을 한다. 이 진공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힘, 이는 곧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전달매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러시아와 동구권의 해체가 그렇게 빠른 속력으로 진전되었던 것은 이데올

로기의 논리적 과정 때문이 아니라 위성방송과 지하비디오의 역할 때문이었다는 것이 이제는 대체적으로 동의되고 있는 사실이다.

매체의 변화는 당연히 사람의 사고와 사는 방법을 변화시킨다. 우리는 지금 이 뉴 미디어시대의 변화양상을 〈文化的 同時化〉라고 부른다. 문화의 동시화는 물론 문명의 진전이다. 그러나 또 한편 지역별 국가별로 각기 다른 문화의 양상과 발전단계의 差에 의해 새로운 아노미현상과 더 강력한 강한 문화 속으로의 종속현상도 만들고 있다. 그렇다고 이 문화의 동시화를 단계적으로 구분하고 순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길은 없어 보인다. 이 현실은 무엇보다 문화의 지역별 특성화를 통한 지역의 발전이라는 기본 틀에 새로운 접근과 조정을 요구한다.

더 포괄적으로 정보화사회가 만들어내는 사람과 그 삶의 개별화와, 산업사회의 발전구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평균적 생활의 향상은 또 지역 단위를 벗어난 보편적 삶의 質의 문제를 내놓고 있다.

삶의 질이라는 말은 오늘날 거의 양의 개념이나 물리적 상태를 뜻하는 것에 쓰이지 않는다. 삶의 질은 사회복지, 사회적 만족도, 사회적 복리, 생활수준 등의 용어와 유사한 개념일 수 있지만 특히 〈인간의 행복감, 생활에 대한 만족감, 또는 불만〉 등에 대한 〈감정적 상태〉라고 정의된다(Dalkey & Rouke).

이 관점에서 문화정책의 기본틀도 바뀌고 있다. 문화를 교육, 커뮤니케이션 환경에까지 연계시키고 이를 창조적 측면에서는 소수집단까지, 수용측면에서는 비수혜계층까지 고르게 문화생활을 보다 크게 영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향은 이미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정책이다. 개별적인, 지역적인 격차를 줄이면서 보다 평균적으로 문화적 삶의 향상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개발의 모든 양상을 근본적으로 개조하고 또 인간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거기에 문화적 목적을 부여하자는 데까지 도달해 있다. 예컨대 국민들이 엘리트문화나 대중문화의 산물에 단순히 접근한다는 단계를 뛰어 넘어 그들 자신이 문화창조의 일익을 담당하는 문화창조자로서 많은 나라들은 이미 지역 프로그램의 형식 그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

를 요지만 보자면 다음과 같은 것이 된다.

- ① 주민의 일상생활과 연계된 문화공간을 만들고,
- ② 프로그램 역시 보편적 삶에 도움을 주는 예술로 만들며,
- ③ 보다 친밀성을 느끼게 하는 형식을 개발하며,
- ④ 지역적 개성속에 세계 문화의 질을 동시에 얻게 하는 노력이다.

이 변화속에서 본다면 오늘날 청소년문화의 문제란 성인문화와 대칭적으로 있는 별도의 문화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능력으로서의 공통의 문화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다.

3. 한국 청소년문화의 한계

그러나 우리의 삶의 문화의식은 이 단계에 와 있지 않다. 새로운 삶의 창조적 문화감수성이 아니라 단순한 감성적 정서의 능력과 그 환경 조건마저 성립되어 있지 않다. 더욱 난처한 것은 가장 기초적 단계인 학교교육마저 정서교육을 포기하거나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대표적으로 국어교육은 문학교육이어야 하며, 문학교육은 곧 정서교육이어야 한다. 교육에 있어서 ‘문학은 독자에게 삶의 정서적 대안’이라는 생각은 이제 어떤 반론도 받고 있지 않다. 때문에 정서교육은 ‘비평’이 아니라 ‘경험’이어야 한다는 주장에까지 문학교육은 부딪혀 있다. 문학교육이야말로 가치의 주입대상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고나 태도, 참여의 실행을 개개인 학생들에게 맡겨야 함에도 교육자들은 너무 자주 문학강의를 자신의 비평적 안목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로 보자면 이런 문제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학교육마저도 규격화된 가·부의 단어선택형으로 만들고 있다. 그 알량한 국어교과서 한권마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볼 필요가 없도록 정서적 접근은 배제돼 있다.

정서적 훈련의 기초가 되는 여타 문화 예술영역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교육용 미술교과서는 가장 낮은 지질에 인쇄효과마저 최소로 고려되는 제작으로 공급이 되고 있다. 음악교육 역시 「전전가요」 정신만이 교육의 대상이다.

근본적으로 현장에서의 경험교육이 없다. 유럽 여러 나라들 중학 교육과정에 음악회 가기, 연극 보기만으로 이루어진 커리큘럼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에 너무나 난처하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 중학생들이 모두 그들처럼 중학과정에 20회 이상의 음악회를 가도록 한다면, 과연 이들을 수용할 음악회는 또 있는 것인가라는 현실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이 결과로 우리는 지금 참담한 현실과 마주치고 있다. 근자의 자료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학생생활 실태조사는 중·고교생들 사이에 극단적인 이기주의, 무절제, 난폭화, 외타주의 등을 밝혀내고 있다.

청소년들의 약물남용 실태는 더 극적이다. 1990년 10월 韓日病協세미나에서 발표했던 한국청소년 약물남용실태는 전국 17개도시 6천2백명 표본조사로서, 중·고 남학생 47%와 여학생 22%가 술을 마시고 있었고, 이중 남 10%, 여 4%가 한달에 20일 이상 음주를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푼다고 응답했다. 뿐만 아니라 남 1.8%, 여 1.4%가 본드 사용자였다. 이 증상은 보다시피 연료용 가스를 마시다가 질식사나 폭발사고로 죽는 청소년들까지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1990년 수사상 정밀검사의 통계가 나와 있는데 1백명에 이른다.

오늘날 교육이 문화적 인성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는 결과는 이것만이 아니다. 청소년 73%가 자살충동을 받고 있고 (서울YMCA) 국민학교 어린이까지 48%가 ‘접촉공포증후군’이라고 부를 수 있을만한 자폐증 증상을 보이고 있다 (대교문화). 한국청소년선도회 파악에 의하면 1990년도 가출로 신고된 청소년만도 4만명이고, 추정으로는 6만명을 넘는다. 모든 고교에서 매 학급당 35명 이상이 성적순으로 일찌기 진학을 포기하고 누구의 관심대상도 되지 못한 채 술집, 오락실을 떠돌아 떠돌고 있다. 이 사각지점의 청소년들이 상시 1백만명 규모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느냐 또는 건전하느냐라는 질문에는 또 청소년들이 늘 어떤 일상생활공간에서 지내고 있느냐라는 측면을 보아야할 당위가 있다. 이에 연관된 연구가 하나 1989년 한국청소년연구원 연구과제로 이루어졌다.

조사대상 전체 청소년의 접촉공간을 접촉빈도로 본 자료는 다음과 같다.

〈매우 많이 접촉(31%이상)〉=영화관, 소극장, 전자오락실, 만화가게, 음식점, 문방구, 선물의 집, 백화점, 쇼핑센터, 가게

〈많이 접촉(21-30%)〉=독서실, 도서관, 교회, 성당, 카페, 다방, 슈퍼마켓, 시장, 서점

〈보통 접촉(11-20%)〉=교실, 학원, 탁구장, 롤러스케이트장, 레스토랑, 화장실, 우리집, 친척집, 시내거리, 놀이터, 산

〈조금 접촉(6-10%)〉=취미교실, 당구장, 운동장, 체육관, 야구, 축구장, 술집, 제과점, 빵집, 목욕탕, 미용실, 이발소, 전철역, 버스정류장, 광장

〈매우 조금 접촉(5%이하)〉=컴퓨터 교육, 고궁, 박물관, 씨월드, 스케이트장, 수영장, 농구장, 배구장, 볼링장, 테니스장, 디스코장, 포장마차, 은행, 병원, 공중전화, 우체국, 골목길, 뒷골목, 다리, 여관

이 목록은 오늘의 청소년생활에 등장하는 모든 공간과 거점을 전부 망라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기본적인 문화공간의 부재를 쉽게 알 수 있고 유흥공간과 오락공간마저 사실은 너무 단순한 구조 속에 있다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이 모든 공간은 성인들의 공간과 구분돼 있지 않다.

이와 또 다른 좀 더 포괄적인 문화의 상황도 염두에 뒀야 한다. 즉 우리의 문화전반은 지금 너무 과도하게 대중문화적이며 상업주의적인 양상을 갖고 있다. 이나마 성인문화와 청소년문화의 구획도 이루어져 있지 않다. 문화내용물들은 대부분이 성인문화임에 비해 수용자는 그 대부분이 청소년들뿐이라는 우리만의 기이함까지 갖고 있다.

이 와중에서 아동문화·유아문화는 오로지 그림책 정도가 그들만을 위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매스미디어들이 연령별·계층별 특성을 독립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를 오히려 넓게 총괄하면서 상업적 접근만을 시도해 왔기 때문에, TV를 중심으로 한 연예오락영역의 문화내용물은 지금 성인과 유아가 동일시되고 있는 난처한 상황에까지 도달돼 있다.

이뿐만 아니다. 사회 속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어떤 공공규칙도 지켜지지 않

고 있다는 생활환경의 문제도 있다. 영화관이든 술집이든 미성년 출입금지의 규칙은 지켜지지 않을뿐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 수용의 태도로 발전되고 있다. 최근엔 유흥업소의 성인출입이 감소되자 미성년자들에게 회원제를 만들어 아예 〈성인출입금지〉를 하고 있는 나이트클럽까지 생겨나고 있다. 아 나이트클럽은 뒷골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호텔급 거점에 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존재할 수 있는 나라는 아마도 우리나라뿐일 것이다.

외설비디오를 문방구에서 국민학생에게 보여주는 형태도 우리에게만 있는 문화풍습이고, 외설 컴퓨터 프로그램을 전자오락실에서 자유롭게 아동들이 즐길 수 있는 나라 역시 한국만이 아닐까라고 물어야 한다.

결국 가정환경, 학교환경, 지역공동체 환경이 모두 삶의 능력을 보다 건전하고 높은 문화감수성으로 키울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서는 역부족인 수준이 아니라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건전 청소년문화를 임버릇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건전청소년이 있기 위해서는, 그리고 더 나아가 문화 창조적 새 동량의 청소년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공간과 거점, 교육커리큘럼과 이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의 교사, 실제로 높은 수준의 문화감수성 프로그램과 또 이를 실시할 수 있는 지도력들이 있어야 한다. 이것 없이 건전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일종의 사기성 허위의식에 불과한 것이다.

4.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와 문화감수성 현실

좀더 청소년들에 다가가서 여하간 현재 수준에의 그들의 문화적 욕구가 무엇이며, 좋은 나쁜 어떤 문화감수성을 갖고 있을 것인가에도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굳이 설명할 것도 없이 문화적 욕구는 그 욕구를 갖게 하는 문화감수성으로부터 시작된다. 한번도 그림을 본 일이 없는 사람이 그림을 보고 싶다는 욕구를 가질 수는 없다. 물론 우리의 교육들은 이런 기초적 감수성 교육마저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화감수성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문화 내용물들에 대한 개념이나 용어의 암기가 아니라 문화 내용물을 자기 자신의 느낌으로 개별적으로 수용하는 일이다. 개별적 수용이므로 여기에는 당연히 규격화된 답안이라는 게 없다. 그리고 이를 어디에 보고하거나 평가를 받을 이유도 없다. 나는 윤선도의 옛시를 읽고 싶고 단원의 그림을 갖고 싶으며 비싸지만 고서 한권을 사고 싶다는 느낌은, 나는 사갈을 좋아하며 어떤 소설도 지금 읽기가 싫고 오히려 드림을 치고 싶다는 느낌과 어떤 부분에서도 비교되어질 필요가 없고, 그 느낌대로 충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감수성 교육은 이런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문화적 욕구는 실상 창조적으로 계발되지 않는다. 문화감수성 교육마저도 시험의 모범답안지처럼 외워야하는 부담이 되고, 또 실제로 귀찮기까지한 대상으로 기억된다. 이 가장 좋은 예가 책읽기를 대부분이 싫어하거나 힘들어한다는 현실이다. 책읽기는 무엇보다도 읽는 그 자체가 재미있다는 훈련을 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런 교육은 너무 오랫동안 교육 스스로가 배제해 왔다.

따라서 문화적 욕구의 문화적 범위와 문화를 욕구하게 하는 기초적인 문화감수성 교육의 부재가 우리의 논의에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전제가 수긍할 만한 것이라면 우리의 대응과제의 첫번째는 당연히 문화감수성 교육이 부활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문화적 욕구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통한 자발성의 측면에 주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것까지 거론하기에는 적절한 지면이 아니다. 때문에 현존하는 수준의 욕구나마 일별하고 이를 기초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언급해 보려 한다.

현존하는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일을 실은 근자에 까지도 별로 자세히 접근된 일이 없다. 앞서 지적된 바, 문화적 욕구 자체가 오히려 굵기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지난해 이 문제에 대한 비교적 정리된 연구작업이 하나 이루어졌다. 한국청소년연구원의 연구 「청소년 수련거리 실태조사 및 개발방향연구」

(1991)가 그것이다. (여기서 쓰는 ‘수련거리’라는 어휘는 활동프로그램이라는 의미이다). 이 연구는 청소년(1,849명)과 청소년지도자(330명)들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이다.

이 조사에서 우리는 청소년들이 문화적 활동으로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참조할 수 있다. 간략히 요지를 들어내면 다음과 같다.

① 선호도—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연체험활동(19.6%)

스포츠활동(18.8)

예절수양활동(17.7%)

예능활동(14.0%)

과학활동(11.2%)

전통문화활동(7.7%)

문예활동(5.7%)

봉사활동(5.2%)

② 참여하고 있는것

스포츠활동(38.2%)

예능활동(21.9%)

문예활동(15.2%)

자연체험활동(9.3%)

과학활동(5.4%)

예절수양활동(3.7%)

봉사활동(3.6%)

전통문화활동(2.6%)

③ 참여하고 싶은 것

과학활동(17.4%)
 스포츠활동(15.5%)
 전통문화활동(8.8%)
 봉사활동(7.1%)
 예절수양활동(2.9%)
 문예활동(2.7%)

이 3항목의 순서와 내용을 유심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체험이고,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스포츠 중심이며 또 하고 싶어하는 것도 자연체험이다. 문화 예술적으로 보면 문예활동의 중요도는 5.7%만이 우위로 인정하고, 15.2%가 참여는 하고 있으나 앞으로 하겠다는 생각은 2.7%에 불과하다.

결국 우리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는 지극히 평범하며 제한적이다. 스포츠나 춤하고, 야외로 좀 달려 나갔으면 하는 것이 현 관심의 대종이라 할 수 있다. 당연히 그러려니 하는 느낌을 준다.

조금 더 자세히 이 연구내용을 들여다 볼 것이 있다. 각 활동분야별로 세부적인 항목들이 나타나 있다. 이 역시 물론 단조로운 프로그램 내용들이지만 우선 한번 살펴보자.

우리는 이 간략한 자료에서도 현실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쉽게 읽을 수 있다. 나의 견해대로 문제를 정리해 보라면 이렇게 된다.

① 스포츠활동의 관심은 승마, 행글라이딩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물론 하고 있지는 못하다.

② 문예활동에서는 방송예의 관심이 크다. 방송매체 중심의 사회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예쁜엽서 만들기 같은 단순한 요구가 그 다음에 있다. 문예활동의 감수성능력이 너무 취약한 증거이다.

③ 봉사활동에서 환경보호에의 관심은 두드러진다. 거의 참여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환경교육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세부 활동 프로그램별 선호도, 참여도 참여 희망도 (순위별 3항목씩)

(단위 : %)

활동	선호도	참여도	참여 희망도
스포츠활동	농구 9.9 축구 9.4 야구 9.2	축구 17.6 배드민턴 12.4 자전거 10.6	수영 9.7 승마 9.3 행글라이딩 7.8
문예활동	독서 36.4 방송반활동 10.3 예쁜엽서만들기 10.1	독서 36.8 일기쓰기 18.5 편지쓰기 13.1	방송반활동 31.6 신문제작 13.3 예쁜엽서만들기 9.1
봉사활동	캠페인활동 23.3 위문활동 18.6 불우이웃돕기 18.5	국군장병계 편지쓰기 21.6 불우이웃돕기 20.5 환경보호캠페인활동 18.8	위문활동 22.6 환경보호캠페인 활동 19.8 농촌봉사활동 19.8
전통문화활동	민속놀이 25.8 문화유적지 답사 17.7 민속촌, 박물관 견학 17.5	민속놀이 27.7 민속촌, 박물관 견학 21.8 민요배우기 14.5	문화유적지 답사 16.4 국악연주 15.0 민속축제 12.8
과학활동	컴퓨터배우기 22.1 과학캠프 17.9 실험활동 19.9	컴퓨터배우기 22.9 실험활동 19.9 과학책보기 15.6	컴퓨터배우기 23.0 과학캠프 22.9 천체관측 16.2
예능활동	영화관람 31.5 음악감상 15.3 노래배우기 9.5	영화관람 27.1 노래배우기 20.8 음악감상 18.0	콘서트 관람 17.3 영화관람 13.6 사진반활동 11.6
자연체험활동	야영활동 27.3 수학여행 18.0 무인도 탐험 17.6	소풍 및 수학여행 44.8 야영활동 16.9 야외오락활동 13.7	무인도 탐험 39.0 야영활동 11.8 관광명소 여행 10.4
예술수양활동	명절쇠기활동 21.6 생활관실습 14.5 혼례 · 제례 · 상례배우기 13.1	명절쇠기활동 26.6 식사예절배우기 21.5 생활관실습 12.8	혼례 · 제례 · 상례배우기 20.1 전통다도배우기 19.4 생활관실습 15.8

④ 전통문화에 있어 민속놀이, 국악연주, 민요배우기의 요구가 있다. 이 역시 충족시켜 줄만한 프로그램이 없다.

⑤ 과학활동에서는 컴퓨터가 압도적 관심이다. 그러나 이는 또 활동 프로그램으로 보기 어렵다. 이것은 이제 기능적으로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천체 관측 같은 프로그램에의 관심을 중요시해야 한다.

⑥ 예능활동은 영화, 음악, 가요 뿐이다. 놀라운 것은 음악에 있어 콘서트 관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이다. 단지 대응이 안될 뿐이다.

⑦ 자연체험에서 무인도 탐험이 압도적이다. 희망은 건전하고 적절한 것이다.

⑧ 예절수양에서도 전통제례들에 대한 관심이 작은 것이 아니다. 전통다도예의 요구도 있다. 이 역시 적절한 프로그램이 현실화돼 있지는 않다.

이 욕구에의 점검은 간소하나마 우리의 문제의식에 중요한 시사를 주고 있다.

첫째, 현존하는 감수성 범위에서나마 청소년들의 문화욕구는 다양해지고 있으며 전통문화들에 대한 건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둘째, 그러나 문화감수성의 기초가 되는 예술감수성에의 반응은 너무 취약하다. 일기쓰기, 편지쓰기, 엽서만들기 같은 것이 문화프로그램으로 조사항목이 되는 것부터 취약성의 표현이지만, 이에 대한 반응이 또한 낮았다는 것은 우리의 결정적 맹점을 들어낸다. 너무 낮은 차원의 감수성만을 갖고 있다는 뜻인 것이다.

셋째, 과학기술시대에 사는 문화감수성은 지금 거의 제발조차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제 겨우 천체관측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환경보호의 관심은 크다. 생태학의 이해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환경 문제의 인식은 그러므로 적절히 교육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해의 왜곡만을 부를 수도 있다.

이 조사에서 따로 접근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 모든 프로그램들의 참여회수는 파악되지 않았다. 영화를 본다는 것이 연간 몇회를 본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사태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에는 이 회수가 또한 필요한 항목이다.

5. 청소년 문화정책의 지향과 대안

청소년의 생활환경과 문화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의 생활의 질적 향상과 보다 나은 창조적 삶의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해야 할 과제가 있다.

우선 하나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양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프로그램들을 보다 잘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감수성 교육을 실시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 두 방향에서 각기 우리는 우리만의 난점을 또한 갖고 있다. 문화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개별 프로그램들의 질적 문제가 제기된다. 단적인 예로 영화를 보자. 영화를 보는 일은 중요하지만 영화시장의 구조는 폭력과 외설 중심의 작품들만 더 잘 공급하고 유통시키는 현상을 갖고 있다. 특히 방화를 보자고 말할 때 우리 영화의 질적 낙후성은 심대한 곤란을 주게 마련이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한국영화는 보는 것보다 보지 않는 것이 문화감수성을 위해서는 유리한 것이다.

문화감수성 교육 역시 적절한 자료들이 준비돼 있지 않다. 이 자료는 교재일 수도 있고 또한 작품일 수도 있는데, 어느 장르에서나 정밀하고 세심하게 조직된 체계적 자료가 있어야만 감수성 교육은 가능하다. 그리고 물론 지도자 인력 역시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박물관교육 하나마저 청소년을 위한 것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전통교육은 학교 교육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이 교육이야말로 실물을 접촉하며 느끼는 교육이 아니라 개념적인 어휘로서의 교육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접근의 일을 먼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①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한 거점별(공공도서관, 문화원, 박물관, 문예회관, 구민회관 및 학교공간) 프로그램 조직구조를 만들고, 이들 프로그램에 도

입될 내용물들의 질적기준을 정해 보는 일.

② 거점별 실수요자의 요구와 실제 가능한 프로그램들의 차가 무엇인가를 점검하고 이를 보다 가깝게 좁히는 방안을 만드는 일.

③ 모든 프로그램들을 수용단계별로 구분을 해 보는 일, 특히 교육과정에서의 커리큘럼화(특히 이 커리큘럼화는 교육전문가에게 맡겨서는 도식화되기 쉽다. 문화전문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문화적 효율성을 얻게 된다).

④ 모든 거점의 전체 망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더 잘 유통되게 할 수 있는가를 강구하는 일(현재 비디오만 하더라도 좋은 비디오그램들은 일반적으로 비디오 숍에 전시되지 않고 있다. 비디오 숍은 그들 나름대로 수요가 있는 것을 먼저 전시하게 되고, 이 수요는 또 폭력 외설적인 것에 더 잘 익숙해져 있는 수용자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⑤ 거점별 문화센터로서의 특성화와 이 특성화의 거점별 역할분담이 무엇인가를 들여다 보는일, 여기서 바로 성인과 청소년의 프로그램 특성화가 예의 검토되어야 한다.

⑥ 모든 거점의 모든 프로그램이 어떻게 전체를 이루는가를 통합해 보는 일.

⑦ 그리고 실질적이며 지속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일.

오늘날 유럽에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촉매운동’이라고 불리는 <사회·문화 활성화>의 실천지향과 목표를 한번 보아들 필요도 있다.

① 가능한 한 폭넓게 세련된 문화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한다.

② 사람들의 수용태도를 적절히 참작하는 현대화의 과정을 통해 전통문화의 변형을 인정한다.

③ 대중문화와 상업문화의 저질스러운 영향을 막도록 한다.

④ 주변문화의 개발과 강화된 경각심을 근거로하여 보다 얻기 쉬운 사회적 성향의 문화를 창조토록 하면서 그것을 통해 방관자들을 국가사회에 다시 통합시켜 그들의 전통과 관습으로부터 이탈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 지향을 다시 세목적으로 해석할 자리는 아니지만 이 지향의 분위기만이

라도 우리는 우리의 프로그램들에 고려를 해야 한다. 즉 프로그램이 부족하니까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있으면 된다는 태도는 오히려 프로그램이 없으니만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많이 별것 아니거나 또는 나쁜 프로그램까지도 추천하고 지원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적 접근에서는 무엇보다 지원할 만한 좋은 질의 내용의 것만을 선택하는 책임이 있어야 한다.

오늘날 청소년을 위한 가장 좋은 거점이며 전달매체인 것은 무엇보다 공공도서관이다. 공공도서관이 현대적 역할만 해 준다면, 즉 공공도서관의 문화센터화가 가능해진다면 우리의 욕구대응은 절반쯤 다가간 것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문화전담 TV채널을 하나 확보하는 일이 가장 효율적인 접근이 된다. 이 시대에 있어 국민적 문화감수성 교육은 실제로 지금 TV코미디와 TV드라마에 매달려 그 수준의 감수성을 습득하고 지낸다. 이 저질 상업적 수준의 감수성을 벗어나는 길도 역시 같은 매체인 TV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굳이 논리적 대응도 아니다. 따라서 진정한 교양프로그램으로만 이루어지는 TV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저 아이디어가 아니라 ‘카이저의 것은 카이저에게로’라는 구호와도 같은 요구이다.

이 TV의 독립채널은 ① 기본적인 문화감수성 교육, ② 전통문화의 계발 보급, ③ 최선의 청소년 문화 계발 보급, ④ 지역별 문화활동의 공유를 위한 교환보급, ⑤ 국민차원의 문화창조성 증진 및 촉진, 등의 프로그램으로 건전 문화 창출을 위한 전략적 기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매체는 비디오매체이다. 비디오 그림의 제작과 보급은 또 비디오로서만이 아니라 유선방송매체와도 연계가 된다.

우리자신의 현실적 요구에서만이 아니라 세계의 변화 속에서도 문화적 욕구의 문제는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제는 문화적 삶이야말로 사람의 새로운 삶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특수하며 고급한 예술의 수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지고 있는 높은 수준의 문화적 역량을 뜻한다. 기술의 발전이 보통사람의 예술적 감수성도 평균적으로 증진시키고 있다고

본다. SP와 LP를 거쳐 음향은 CD와 레이저 디스크로 진전돼 있다. 화질 역시 고품위 TV로 진전된다. 카세트 테이프 역시 마치 전세대에 있어 마스터판과 같은 수준으로 발전돼 있다. 이런 변화는 곧 대중의 음감각 수준을 향상시킨다고 보는 것이다.

이제는 아무 것이나 소리만 나면 음반이 되는 시대가 아닌 것이다. 이 속에서 문화감수성은 새로운 삶의 무기가 된다. 문화적 욕구 역시 이제는 양적 욕구가 아니라 질적 욕구가 되고 있는 시대에 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알려주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질적 향상의 문화적 변화이다. 과제 해소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과제 창출의 문제이기도 하다.

본문요약

청소년문화정책의 대상은 청소년을 위한 제도적 행정적 대응항목들과는 같은 것이 아니다. 청소년 개개인의 문화감수성 능력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질적으로 건전한 것일 수 있게 하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다.

오늘에는 청소년만이 아니라 연령과 세대를 초월하는 국민 모두가 새로운 삶의 감수성을 익혀야 한다는 단계로 문화정책의 근본방향이 바뀌고 있다. 청소년문화가 따로 구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새 문화감수성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적 상황은 문화감수성 교육자체를 배제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건전문화를 말하는 것은 거의 형식적 구호에 불과하다. 그 실상을 어떻게 읽어내느냐가 또한 중요하다. 청소년자신들에게 접근해서 그들 자신은 어떤 문화적 욕구와 문화감수성 능력을 가졌는가에 대한 점검은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조사자료를 보면 오늘 우리의 청소년들은 심히 제한된 문화적 욕구만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문화감수성 배양을 통한, 청소년 자신이 창조해 내는 문화의 여건을 만드는 것이 청소년 문화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위한 정책대안의 항목들과 또한 이 작업의 수준을 적시한다.

연구과제

1. 현존하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청소년문화감수성의 질적 증진을 위해 선택될만한 구체적 작품을 문화예술장르별로 찾아보자.
2. 학교교육과정속에 어떻게 문화교육적 프로그램들을 현실화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정책적 접근 과정을 연구해 보자.
3. 새 감수성교육을 하려면 청소년 지도자 자신이 우선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신의 문화감수성 수준은 지금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해 보자.
4. 정보화사회와 문화의 변화에 대해 전망해 보자.
5. 새로운 매체들, CD-ROM, CDI, 멀티미디어 등이 사람의 삶의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추정해 보자.

13.

청소년의 자주적 문화운동

개 관

청소년문화에 대한 관심이 한때의 학문적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청소년문화가 꽃피기 위해서는 청소년문화의 현장화와 보편화가 요구된다. 청소년 지도자들이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들에 의한,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들의 문화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글에서는 그와 관련된 일과 방법, 또는 태도와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본다. 먼저 청소년을 문화창조자로 보고, ‘자주적’ 청소년문화 운동을 위한 현실적인 과제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는 일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현실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영역으로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가능한지를 예시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 단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태나 개최 또는 시기와 장소에 있어서 청소년 주도로, 청소년 위주로, 청소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주제어

문화창조, 주체적인 행위자, 자주적 문화, 민주문화 주체, 전통문화, 공동체, 생활문화, 문화교육, 예술교육, 소집단활동, 우리문화, 청소년 중심성, 청소년 주도성, 청소년 위주성

* 임광진, 서울 YMCA 사회개발부장

1. 자주적 청소년 문화운동을 위한 과제

1) 자발성의 강조

기존 청소년에 관한 연구와 주장들이 한국 청소년문화의 왜곡된 모습을 어느정도 밝혀주고 있기는 하지만 몇가지 공통된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강명구(1992)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와 논의들이 청소년 문화를 공식적 부문에서만 다루었다는 점이다. 공식적 부문에서 청소년 문화를 바라다 볼 때는 어떻게 청소년들을 학교, 가정, 사회종교단체, 언론매체 등을 통한 제도화된 공간으로 끌어들이느냐가 주된 관심사가 된다. 따라서 청소년 문화가 지닌 비공식적 부문의 성격은 도외시 된다. 청소년 문화의 많은 부문은 제도화되지 않고, 기성세대의 문화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생적인 성격을 지닌 비공식 부문에 속해 있다. 비공식 문화와 공식 부문의 문화가 공존해야 하고, 공존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시각의 조정이 요구된다.

둘째, 비공식 부문에 속한 청소년 문화는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다. 1980년대 많은 논의들이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청소년 집단이 가지는 자발성을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관점의 획일성의 문제이다. 청소년 집단은 기본적으로 권위, 기존의 제도와 규범에 대해 저항적이며,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자 한다. 이러한 자발성과 저항성 때문에 청소년 문화는 기존의 문화에 충격과 자극을 준다. 새로운 세대는 언제나 기존의 제도와 문화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의 정체성을 구성해 나아간다.

셋째, 대부분 논의들이 청소년문화는 육성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서 있거나, 그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건전한 청소년문화의 육성’이란 문제의식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건전’이란 말의 의미는 많은 경우 기존 규범과 가치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육성’이란 청소년문화 형태의 주체가 청소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 정부, 학교와 공식적 단체에 있음을 의미한다. 청소년문화가 지니는 자발성이란 훈육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 참여를 의미한다. 건전한 문화의 육성은 훈육과 길들이기가 아니라 참여를 의미하게 된다.

결국 기존 논의에 있어 청소년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의 불모는 시각의 조정을 통해서 극복되어야 한다. 청소년문화에 있어 비공식적 부분의 인정이 필요하고, 청소년문화의 본질적 성격을 이루는 자발성에 대한 관심이 새로이 두어 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청소년문화는 육성되고 훈육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험하고 표현하고 참여하는 삶의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2) 주체성의 개발

최근에 청소년학의 정립을 위한 논의에서 최충옥(1991)은 청소년들 스스로 청소년문화 운동의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소의를 극복하고 자아 존중감과 자아 통제력을 기르는 것이 청소년 운동의 논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또한 청소년의 자발적 주체적 참여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내용까지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을 때,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삶이 개선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소년문화의 육성과 한국의 미래라는 주제의 토론에서, 청소년문화의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문화개발이나 계획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기회의 폭을 주어야 한다고 권이종(1992)은 강조하면서 지금까지의 청소년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을 청소년과 관련된 결정을 성인 중심으로 실시하여 온 점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자주적인 청소년문화 운동을 위해 청소년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란 실제로 청소년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일일 것이다.

이러면, 청소년을 주체적인 인격으로 보고 그들이 외부의 도움이나 간섭이 없어도 스스로 어떤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고 믿는 일이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 그들의 형편과 기질—비록 기성세대가 기대하는 어떤 바람직한 모습의 문화로 발전해 갈 소지가 없는 그런 기질이라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청소년의 수준과 육

구와 관심에서 출발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모든 일을 청소년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자발성과 주체성, 창의성을 위해서는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사회교육 차원에서의 문화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소집단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3) 민주문화주체훈련

자주적이란 말은 그 자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원해서 주체적으로 남의 도움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일을 처리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자주적인 청소년문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민주시민훈련이 있지 않고는 안 된다. 민주시민훈련이 청소년문화에 있어 더욱 중요시되어야 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습득한 교과서적인 지식이나 일반상식으로서의 그 훈련이 이루어질 수 없고 민주적인 생활을 통해서 즉 토의, 선거, 협동적 실천 등과 같은 집단 과정을 통한 체험으로서 성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민주시민 훈련은 민주사회에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문화를 갖는 데에도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이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새로운 주인의식으로서의 ‘민주문화주체’ 의식을 길러주는 활동이 있어야 한다.

이와같은 민주시민훈련을 위해서는 특별히 민주주의 기본이 되는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구현하도록 청소년클럽의 조직방법, 절차, 등록, 운영, 일감고르기 등에 관한 것과 함께 회의의 원칙, 종류, 진행순서, 토론이나 결의 방법에 관한 것들을 교육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배운 것들을 자신들의 다양한 욕구와 흥미에 따른 문화장르별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실천하고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4) 놀이가치의 극대화

학교공부만 공부이고 노는 것은 쓸데 없는 것으로 교육받은 우리 청소년에

게 건전한 놀이를 가르치고 즐기게 하는 일이야말로 자주적인 청소년문화를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일이다. 놀이는 사회적 경험과 가치를 형성해 주고 건강이나 체력증진에 도움을 주며, 건전한 쾌락을 주고 나아가 심미적 욕구를 충족하며, 공격성을 순화시키고 인내심을 함양하는 가치와 효과를 가져다 준다.

더욱이 건전한 놀이는 치료효과뿐 아니라 젊은이들의 미숙함을 보완해 주는 사회적 효과가 크고 젊은이들의 엄청난 에너지와 행동을 조절하고 유도하는 일정한 휴식을 그들에게 체질화시켜 줌으로써 조직인의 행동 뿐 아니라 공동체적 삶의 규칙을 보다 체계적으로 생활화하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서로 서로 어떻게 놀이에 임해야 되는지를 일깨워 줌으로써 민주문화의 주역들로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건전한 놀이는 젊은이의 정신건강을 도와준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와 가치가 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도록 자주적인 청소년문화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청소년을 객체화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상업적인 관람 위주의 스포츠에 열광하여 실제로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경기에 대해 열띤 응원을 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놀이를 통해 밝고 건전하게 성장하며 동시에 바람직한 청소년문화를 갖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5) 전통문화와 공동체의 강조

전통문화를 관습이나 '전통사회의 문화'로만 보아서는 안되고 현대사회에서도 적합성을 갖는 그런 살아 있는 문화로 보기 때문에 전통문화를 강조하는 것이 자주적인 청소년문화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일제 식민지 통치기간으로 인한 문화적 전통의 단절과 외래 문화의 무분별한 수용으로 인해 식민지 문화의 잔재와 서구의 유흥적, 상업적 문화의 대량적 유입이라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전통문화 유산의 분산과 문화적 가치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청소년

년들 역시 외래문화에 대한 막연한 동경으로 향락적, 소비지향적 문화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적인 삶을 실천, 발전시켜야 하고 우리적인 가치를 갈구하고 모색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위한 전통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조해야 하는 것이다.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기존 성인세대 문화의 난맥상에서 벗어나 민족의 내일을 짚어질 수 있게 하고, 민족 성원으로서의 일차적인 과제인 전통과 민족문화의 인식을 바탕으로 민족문화의 탐구와 전승 및 재창조를 가능케 하며, 나아가 외래문화의 병폐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먼저 자주적 청소년문화를 위한 시급한 당면과제 다섯 가지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그러나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이와 같은 것 이외에도 청소년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 문화공간의 부족,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프로그램의 보편화와 현장화, 문화운동의 주도적인 세력형성, 문화운동을 위한 조직과 지도력의 훈련 등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2. 개발해야 할 자주적 청소년문화의 영역

이미 우리는 청소년문화 운동의 현실적 과제 중에서 중요하고 긴급하며 기본이 되는 몇가지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과제들을 어떻게, 어떤 청소년문화 운동의 영역에서 다루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을 내용으로 과제별로 프로그램의 영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청소년문화의 영역을 정리하고 구분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비공식적인 청소년문화를 공식적인 문화로 편입하는 작업이라 하겠다. 그러나 현재로는 이런 것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청소년단체 중에도 청소년문화 운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 단체는 그리 많지 않다. 여기서 취급하는 프로그램 내용은 우리가 실제로 한 일보다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1) 청소년 생활문화

최현(1992)은 청소년 생활세계와 청소년문화에 대한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자생적(self-seeking)이라고 보고, 현재에 있어서의 청소년문화는 청소년기의 젊은 세대들로부터 외견으로 볼 수 있는 행동양식이나 생활형태는 물론 내적 영역에 속하는 그들의 가치관, 생활태도로 나타나는 그들의 의식구조까지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그 독자성, 독특성을 자생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인식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 생활문화란 무엇인가? 청소년들은 그들 나름대로 해비메탈과 전자오락, 롤러 스케이트를 즐기고 만화와 비디오를 보며 디스코를 춘다. 즉,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를 즐기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문화양태는 바로 그들의 생활과 관련되어 나타나는데 즉, 옷이나 머리모양, 가방이나 신발모습, 노래, 은어와 비어, 속어, 청소년 스타, 그들이 보는 잡지, 소설, 만화 등이 그것이다.

고도의 예술적, 지적인 성취 또는 천재성을 표현한 연극, 영화, 무용, 오페라 등의 공연예술이나 미술, 음악, 문학 등의 고급 문화와 함께 청소년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활자재를 문화로 보고 바쁜 생활문화를 갖게 하기 위한 새 프로그램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생활문화 중에서 취미활동이나 문화, 교양 일반에 관한 강좌 등은 그 범위가 넓어 전체를 훑어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직까지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청소년 생활의 단면과 관련된 문화 프로그램을, 왜 이런 행사가 필요한가 또는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요점만 제시해 보기로 한다.

옷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는 교복 뱀시대회, 학교간 예쁜 교복고르기 콘테스트, 한복 바로입기 뱀시대회, 한글 티셔츠입기 캠페인, 자유복 뱀시경연, 옷예절 지키기, 티셔츠에 그림그리기, 전통의상 박물관 관람, 옷 머리형 및 가방 등을 함께 소개하는 청소년 토털패션쇼 등이 있다.

음식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는 밥짓기 대회, 전통음식 바자, 한국식 패스트푸드 음식 만들기 경연, 식사예절 지키기 캠페인, 김밥과 주먹밥 만들기 경연, 모의 음식 전통 상차리기 대회, 김치담그기 실습, 김치박물관 관람, 유해한 패스트푸드 고발 청소년 법정, 우리차 예절 실습, 전통음료 마시기 등이 있다.

말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는 고운 이름이나 상호 찾아 발표하기, 뜻 모르는 외국말 상호나 상품명 찾기, 욕이나 은어·속어 쓰지 않기 캠페인, 바른말 쓰기를 위한 게시판이나 전단 제작하기, 사전에는 있으나 잊혀진 고운 우리말 찾기 현상 모집, 새로운 예쁜 우리말 만들기 대회, 애송시 낭송대회, 청소년 시사랑방, 언어예절 지키기 캠페인, 한글날 기념 행사 열기 등이 있다.

문화매체와 관련된 프로그램으로는 신문이나 잡지에서 오자나 잘못 사용된 말 찾기, 대중매체 미디어 교육실습, 청소년 만화·잡지·도서 모니터의 조직, 청소년 우수도서 전시 및 판매, 영화 포스터와 광고 등 청소년 유해 간행물 수집전시, 청소년 만화아카데미 등이 있다.

전체 문화생활과 관련된 것으로는 청소년 문화교실, 청소년 예능워크샵, 청소년 연주워크샵, 청소년 시사랑방, 청소년 이야기마당, 청소년 향토문화교실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청소년 생활문화와 관련해서 개발되어야 할 프로그램은 아주 많다.

2) 문화교육

문화운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나 공감한다. 그러나 문화교육의 개념은 대단히 광범위하다. 문화교육을 문화를 가르치는 일로 이해하면, 이는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전달하여 문화를 알게 하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문화를 가꾸어 가게 하며 새로운 문화를 계속하여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된다.

여기서 문화교육이란 문화를 단지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경험하고 느끼게 하고 활동하거나 개선하게 하는 살아있는 교육을 뜻한다. 그래서 그저 무

의식적으로 문화를 호호하는 상태에서 의식을 갖고 호호하는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문화교육으로는 먼저 기존 고급문화의 접촉을 생각할 수 있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정상의 최고 수준의 문화를 접촉하게 함으로써 정서를 순화시킬 뿐 아니라 문화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청소년을 자체 공연장으로 초대하거나 직접 학교나 구민회관, 직업훈련원으로 찾아가서 가곡이나 아리아, 오페라, 사물놀이, 무용, 뮤지컬, 국악, 창극, 오케스트라, 영화 등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런 프로그램을 소중히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외에도 조각, 사진, 건축 등의 전시회를 관람할 뿐 아니라 연극, 인형극, 합창, 고전음악 등의 공연 등을 감상하는 것도 고급문화를 접촉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문화교육의 또다른 영역은 보다 적극적인 내용으로 현대사회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문화감수성 배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도록 실제로 해 보게 하는 일이다. 중고등학교의 특별활동이나 청소년 단체의 프로그램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리 활발하지 못하다. 현재로서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제작 배포한 청소년을 위한 무용, 한국미술, 현대미술, 환경미술, 사진, 연극, 인형극, 합창, 국악, 종합예술의 지침서와 연극대본, 합창곡집 등의 가이드북 10개분야 13권의 책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겠다.

청소년의 문화교육에 있어서 보다 넓고도 중요한 영역은 고급문화로서의 전통성은 약하고 비공식적인 성격을 띄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루는 것이다. 기성문화와는 질적으로 다르고 거리가 있으며 그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고 있지는 못하나 청소년에게 친화력이 있거나 영향력이 강한 문화장르의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YMCA가 개발해서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보면 노래 아카데미, 만화아카데미, 영화아카데미, 영화만들기 캠프, 연극 워크샵, 예능 워크샵, 사랑방, 전국 시낭송 경연대회, 대화중심의 프로그램인 이야기마당과

십대의 광장 등이 있고 각종 공연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는 예비고등학생 문화교실, 문학과 연극, 춤, 음악의 네 분야를 주로 소개하는 청소년 이동광장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학교로 갖고 가서 '이해하기, 해보기, 시범보고 듣기, 느낌 발표하기'의 순서로 진행하는 이동청소년 문화광장이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스스로 마련하고 주최할 수 있는 것으로는 주제토론, 독서토론, 환경고발사진전, 문화유적지순례, 걷기대회, 방송제, 알뜰시장, 공동창작, 역할극, 인간관계훈련, 엽서전 등의 전시회, 클럽발표회, 좋은 영상물 감상하기, 노래부르기, 회지만들기 등이 있다.

3) 소집단 문화활동

자주적인 청소년 문화운동을 위해서는 민주시민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시민 훈련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청소년 집단활동의 활성화인 것이다. 물론 지금 우리의 관심은 문화운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화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작은 그룹활동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경험함으로써만이 학습(learning by doing)된다고 하는 교육이념을 가진 소집단 활동이, 어떤 내용으로 전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보다도 먼저 대답해야 할 일은 어떻게 소집단 활동이 강화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개발되어야 할 자주적 청소년문화운동의 영역으로서 소집단 문화활동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집단 문화활동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과 함께 그 활동의 내용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청소년 소집단활동이 부진한 것은 임시위주의 교육 때문이다. 어느 자료에 의하면 학교 당국, 교사, 학부모들의 소집단 활동에 대한 무관심 내지 억압적 태도, 연간 72시간을 계획한 후 실제로는 20시간 정도밖에 할애되지 않는 현실, 이러한 형식적이고 과행적인 처사는 시설부족, 행정미비, 지도교사의 수적 부족 및 능력부족, 교사 및 학부모의 태도 등이 그 이유로서 밝혀지고 있다. 그러므로 소집단 활동의 강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원인에 대한 대책이 하나씩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소집단 문화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청소년 문화적 욕구를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여 가장 적절한 전문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며 지도력을 양성하고 청소년 단체별로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영역을 갖고 그 기능과 역할을 뚜렷이 하는 등에 장기적 대책이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소집단 문화활동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장만들기, 총회개회, 임원선출 등의 청소년 클럽 만드는 과정, 조직과 운영, 회의진행법, 회의특정리, 욕구측정하기, 프로그램작성법, 평가방법 등의 민주적인 절차와 조직운영에 관한 기본 내용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있어야겠다.

자신들의 관심이나 욕구에 따른 문화활동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소집단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예로는 연극클럽, 노래클럽, 탈춤클럽, 영화클럽, 등산클럽, 우표나 동전 모으기 클럽, 사진클럽, 그림그리기클럽, 만들기클럽, 종이공작클럽, 여행클럽, 민속춤클럽 등으로 수없이 많을 수 있다.

4) 놀이와 축제

자주적 청소년문화에 있어서 놀이와 축제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제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놀이가 우리 청소년에게 거의 없거나 그 내용이 저급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즉 놀이를 위한 여유가 없고 놀이 내용이 단조롭고 빈약한 것은 물론, 그 때문에 나쁜 문화에 빠져드는 것 역시 문제라고 하겠다.

그러나 보다 더 큰 문제는 기성세대의 놀이문화로 부터 받은 영향과 상업주의적인 놀이문화의 확산으로 인해서 청소년 놀이문화는 퇴폐적, 향락적, 퇴행적이고 비생산적이며 정신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청소년의 놀이문화 프로그램으로서 그 대안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 까닭이다. 더욱이 스포츠, 야영 및 야외활동과 예능활동 등을 제외하면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놀이문화가 거의 없다 하겠다.

놀이 중에서도 춤과 노래가 제일 중요한 분야인데 춤에 대해서는 여러 나라

의 민속춤, 레크레이션 춤, 게임운동, 리듬댄스, 스케이댄스, 웨일리댄스와 청소년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브레이크댄스 등 각종 강습이 있다.

노래음악 분야로는 다함께 노래부르기, 노래게임, 악기게임, 몸짓노래, 풀림노래, 합창대회, 노래이여 받아 부르기, 유행가요와 외국팝송 배우기, 가스펠 송 강습, 가창대회, 모의 노래방, 전국노래자랑, 가창대회, 반주용 악기배우기, 음악퀴즈 등이 있다.

현대놀이 분야로는 주의집중을 위한 놀이, 만남과 인사를 위한 놀이, 관계개선을 위한 놀이, 분위기 조성을 위한 놀이, 집단 협동력을 위한 놀이, 건강과 신체단련을 위한 놀이 이밖에 자연과 시설 도구사용 놀이 등이 있는데, 필요에 따라 적절한 놀이의 종류를 골라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야영이나 야외활동 분야로는 민속캠프, 역사기행캠프, 옛터기행캠프, 이동캠프, 주말캠프, 환경캠프, 송년캠프, 국제친선캠프, 등점지도 걷기여행, 자전거여행, 등산, 등굴탐험, 식물재집 여행, 섬여행 등이 있다.

스포츠나 예능활동 분야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피하기로 한다.

청소년의 새로운 축제로 제안할 수 있는 것으로 1월에 예비중학교, 예비고등학교, 예비대학교, 2월에 발렌타인 추방 캠페인 및 청소년 우정의 날 잔치, 5월에 성년의 날(스무살잔치), 7~8월에 야영이나 여행하기, 9월에 시험 스트레스 풀기 경연대회, 12월에 수험생잔치 등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놀이의 종류는 다양하다. 그러나 그때 그때 장소와 형편에 맞추어 적합한 놀이를 선별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놀이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토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오늘의 청소년들의 관심과 흥미에 맞게 새로 개발해서 보급하는 일도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5) 전통문화와 우리문화

자주적인 청소년운동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하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찾으며, 적극적인 의미의 전통문화의 계승자

가 되어 순수한 우리 문화의 원형을 찾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분단극복과 민족 통일이라는 당면 과제를 풀어가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을 위한 전통문화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초보적인 수준에서 시작해도 좋을 것이다.

춤 분야에는 봉산탈춤, 탈춤, 탈춤체조, 농악무 배우기 등이 있고, 음악분야에서는 농악이나 국악연주 등을 감상하기, 민요나 시조 또는 판소리 함께 부르기, 대금이나 단소 배우기와 사물놀이 연주, 장고배우기 나아가서는 국악동요나 국악가요 익히기 등이 있을 수 있다.

미술 공예 분야는 붓글씨쓰기, 사군자차기, 수수깡공예, 짚공예, 전통한지를 이용한 각종 종이공예, 종이접기, 형짚공예, 박공예, 탈만들기, 표구만들기, 토우만들기, 연만들기, 매듭만들기, 전통문양 판화찍기, 한글 티셔츠 무늬 찍기 등이 있다.

놀이분야는 팽이치기, 제기차기, 비석차기, 사방차기, 굴렁쇠 굴리기, 자치기, 술래잡기, 흥내내기, 윷놀이 등은 물론,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연날리기, 널뛰기, 그네, 씨름 등이 있는데 씨름만 해도 외다리씨름, 당기기, 밀기, 줄씨름, 팔씨름, 등씨름, 넘어뜨리기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이밖에도 한복 바로입기, 절 바로하기, 우리차와 전통음료 마시기 등의 행사는 물론 특별행사로서 향토문화조사, 전통문양조사, 단오잔치, 추석민속잔치, 민속예술제, 민속예능캠프, 민속체험활동(차전놀이 등), 탁본뜨기, 향토문화교실 등이 있다. 프로그램과 함께 관혼상제에 대한 현대적인 예절절차를 보급하는 일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겨레의 얼은 말 속에서 생기고 글 속에서 자란다. 문화의 기본요소는 말과 글이다. 우리 말과 글을 바로 갖지 않으면 참된 겨레문화를 가질 수 없다.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으로서의 우리말과 글 사랑 프로그램은 단지 국어순화운동이 아니라 우리문화, 겨레문화라는 토양 위에서 추진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말과 글사랑 프로그램은 앞으로 개발해야 할 영역이라 하겠다.

3. 자주적 청소년 문화운동을 위한 현실적 대책

1) 형태에 있어서 청소년 중심성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종합영양제가 필요한데, 이것은 그들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래서 예술의 다양한 장르를 골고루 접촉함으로써 청소년들은 정신적인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해야 한다.

청소년의 심리적, 신체적 특성을 프로그램과 관련시켜 보면, 청소년기에는 호기심이 많고 한 가지 보다는 여러 가지에 동시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주관이 뚜렷치 않거나 변덕스러우며 기존 문화 프로그램에 대해 이유 없이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런 바탕위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청소년에게 일방적이거나 그들을 피동적으로 만들거나 그들을 주체로 보지 않고 단지 에어론이나 속물로 취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 프로그램이 공식적인 문화 부문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공식적 부문에서 접근할 때에는 청소년 생활 문화와 놀이 문화 등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청소년 프로그램이 지닌 기존 문화의 주변적 성격 내지는 비공식적 부분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형태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문화의 영역과는 거리가 있으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는 못하나 청소년에게 친화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의 문화를 프로그램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의 기질과 정서를 감안해서 청소년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형태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착안해야 할 사항은 종합적인 형태를 갖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현장경험을 통해서 볼 때 고급문화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청소년을 위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되고 유사한 장르의 복합적인 구성이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도입과 종결 부분이 있는 형태를 갖추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다.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과 기질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그때 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청소년 즉 산업 청소년, 농촌 청소년, 가출 청소년 등이 나 인문고등학교 학생, 상업 고등학교 학생, 공업 고등학교 학생들처럼 그 참가자의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물론 참가자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시기와 장소를 고려해서 프로그램의 형식과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다 하겠다.

프로그램형태에 있어서 청소년 중심성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까닭은 주도적인 청소년 문화 운동의 당위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중심이 아닐 때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성인들의 자기 만족적인 행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청소년 단체가 개최하는 캠프가 성공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청소년을 바로 이해하고 준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청소년에게는 여행의 욕구가 강한데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이동캠프 경우에는 참가자가 아주 많다. 청소년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형태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2) 개최에 있어서 청소년 주도성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에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어른에 의해서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청소년을 위한 행사가 이미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심하게 차질 없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주체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하겠다. 그래서 어른들은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그 준비에 있어 부족한 것이 없고 잘못된 것 없이 진행되도록 고심을 한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어른들이 준비해 놓은 프로그램 보다는 어설피고 엉성하고 그리고 진행도 미숙하지만 자신들이 만든 프로그램에 더 환호성을 보내고 즐거워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들의 언어로, 자신들의 관심사를, 보다 더 진솔하게 자신들의 몸짓으로 꾸민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이런 프로그램이야말로 프로그램 일반론에서 말하는 좋은 프로그램 즉,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이고, 참가자들 사이에 인간관계가 보다 역동적으로 작용하며, 참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부터 함께 하고, 앉아서 그저 바라보기만 하지 않고 직접 해 보기도 하는 프로그램인 경우가 많다.

청소년의 참여가 높거나 스스로 주최한 프로그램일수록 어른들이 준비한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감동을 일으키고 깊은 영향력을 준다. 그렇다고 청소년들 스스로 준비한 프로그램이 모두 다 유익하고 가치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충분한 의미는 있다.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꼭 있어야 하는 어른들의 간섭이나 지도가 보이거나 느끼지 않게 하면서 자신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주도했다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프로그램 개최에 있어서 청소년 주도성의 의미는 청소년 문화가 갖고 있는 그 미래 지향적인 성격 때문이다. 청소년 문화가 현재로서는 기존 문화에 대한 하나의 하위문화나 부분문화, 모방문화, 또는 저항문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청소년 주도성이라는 그 문화의 독특성으로 인하여 기존문화의 병폐를 극복할 수 있고 새로운 대안을 문화양태로 제시할 수 있으며 스피어가 말하는 진짜문화를 만들 수 있으며 내일의 시민문화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해도 청소년 스스로 주도하는 프로그램이 새문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성과 지향적이지 아니라 과정 지향적이고 시험적이거나 실험적이며, 과율로 플레이어가 말하는 시도되지 않은 가능성에 대한 하나의 프랙시스—여기서는 사고하고 행동하며 반성하는 연속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프로그램 이외에도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사업 진행에 청소년들이 추진위원으로 직접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실질적인 예로 청소년 센터를 짓기 위한 계획 과정 중 설계 등에 참여시키고 일차로 건물을 지은 후 청소년들이 사용하여 본 뒤 구조, 공간 등에 불편이 있을 때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

여 수정·보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한다. 즉, 선직측에서는 청소년을 형식적으로 그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이나 시행의 과정에 까지 직접 참여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3) 시기와 장소에 있어서 청소년 위주성

참으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시기와 장소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청소년을 위주로 정해야 할 것이다.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시기와 장소를 제대로 선정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게 된다. 그러면 먼저 시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몇년 전부터 각 구청마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청소년 광장’이라는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참가자를 전혀 모을 수가 없다. 그것은 학교에서 치르는 월말고사 전에 행사가 열리는 경우에 그럴 수 있게 된다. 또한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청소년단체들이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데 여기에 청소년이 많이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는 초·중·고 단계에 중간고사가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프로그램이 청소년에게 적합한 시기에 개최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끝난 청소년을 위해 실제로 어떤 욕구 발산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입시가 끝난 후 아무 특별한 할 일도 없이 학교에 출석해야 하는 중 3과 고 3을 위해서 평소에 접촉해 보지 못한 고급문화 프로그램을 마음에 여유를 갖고 즐기게 할 수는 없을까? 아니, 어른 흉내를 내서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놀이에 심취하는 경향이 있는 학교 소풍이나 졸업여행, 수학여행을 위해서 그들에게 바른 놀이문화를 갖게 할 수는 없을까?

이렇듯 청소년들이 모처럼 여유를 가졌을 때, 그들에게 문화 프로그램이 필요한 그때에는 기성세대가 대개 아무런 프로그램도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가 많다. 오히려 기성세대는 자신들의 외도나 형편에 따라 세운 계획에 청소년들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섭섭해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시 설명할 필요도 없이 청소년을 위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어른들이 자신들을 위해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는 것이다. 자신들의 여유시간을 아주 잘 이용해서 또는 바쁘더라도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 자기들의 문화를 만들어 간다.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는 다른 문제이다.

4. 청소년의 자주적 문화운동의 미래

1) 인류의 미래와 문화의 힘

지금까지는 문화가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데에 기여한 긍정적인 측면에만 눈을 돌려 왔다. 리키와 레빈(Leakey and Lewin)은 아무리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일의 고도로 복잡한 종이 장기간에 걸쳐 안정을 유지하기는 어려우며 문명인의 행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오만과 낭비를 계속한다면 인류의 미래는 불확실하다고 하였다.

인류학자 레스리 화이트(L.A. White)는 그의 마지막 저서에서 이런 상황을 검토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문화의 기능에 대한 공리주의적 관점을 솔직하게 수정하고 있다. 즉 문화와 함께 인간의 삶이 안전하게 되기보다는 오히려 비합리적인 전쟁, 혁명, 빈곤, 경제불황 등으로 파멸에 이르는 것과 같이 인류는 문화의 희생자가 되는 경우가 더 잦다는 것이다.

인류가 계속적인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런 중대한 위기에 주의를 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리프킨의 엔트로피(entrophy) 이론에 의거한 새로운 세계관이나 슈마허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내용의 캠페인이 있으나 아직 사회평론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인류문명사의 위기인 시점에서 우리는 새롭게 청소년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어떤 문화가 인류를 구할 수 있겠는가? 우리를 생존케 하고는 있으나 많은 역기능도 갖고 있는 지금의 문화에 대한 대안을 어떤 문화가 제시하겠는가? 어떤 문화가 계속해서 사회적인 환경 뿐 아니라 자연적 환경에서도 인간의 성장을 영속시키고 또한 우리의 생활을 안전하게

해 주며 결과적으로 인류의 영속을 가능케 할 것인가? 어떤 문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세계를 실제로 구현하는 힘, 문화의 힘(the power of culture)을 갖고 있는가?

다행스럽게도 우리 청소년은 어른의 축소판이나 재판이 아니다. 기성세대가 적응이라는 명분 아래 모방을 강요하고 있는 일부가 여기에 따르고는 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고 따르고 있다 해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성세대와 다른 새로운 뇌와 뜨거운 가슴과 강한 용기를 갖고 있는 젊은이야말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인류에 필요한 찬란한 문화를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진주조개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많은 학설이 있으나 공인된 것에 의하면 패각질분비작용이 있는 외투막 상피세포가 결합조직내에 침입하여 세포의 작용에 따라 진주대를 형성하고 그 가운데서 진주가 형성된다고 한다. 그래서 외투막 상피조직을 이식해서 인공진주를 양식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때 중심이 되는 핵의 존재는 그리 중요하지 않으며 핵으로 되는 물질의 침입, 함입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한다. 천연이거나 양식이거나 진주가 이상생성물인 것임에는 이론이 없다. 다시 말해서 진주란 조개류의 껍질 내부에서 생기고 탄산칼슘을 주성분으로 한 구상 또는 반구상의 광택이 있는 이상분비물의 덩어리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조개가 되어 아름다운 진주를 자기 몸속에서 키워 주기를 꿈꾸어 보자. 그들이 받을 수 밖에 없고 그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고급문화가 아니라 부정적이고 문제가 많은 그런 문화, 어떻게 보면 인류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반문화적(?)인 문화인 것이다. 그러나 진주조개가 형성될 때 가장 중요한 핵이 실제로는 그리 중요하지 않고 보다 중요한 것은 물질의 침입 그 자체이듯이, 청소년들이 자신들에게 침입하는 이런 문화에 자극을 받아 진주주머니를 형성하여 새문화라고 할 수 있는 진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참다운 청소년문화의 모습인 진주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은 재론할 필요도 없이 젊은이들이야말로 자주적인 인간으로

서 가장 왕성한 창조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2) 문제인식과 변화의 힘

무엇보다도 희망적인 사실은 바로 젊은이들에 의한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문화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여러 학자들이나 문화운동 관계자는 물론 청소년 자신들이나 일반 시민들까지도 어렵잖게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어느 과학자는 한 신문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글을 쓴 바 있다.

「창조력은 위대하다. 이것이 인간을 짐승과 다르게 만든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창조력이 풍부한 인간을 기르는 것이다. 연구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 과학자에게 이 창조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금같이 객관식 위주의 입학시험에 대비해 부단히 문제푸는 연습을 해 온 학생에게 창조력, 독창력은 기대할 수 없다. 일류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고 해서 반드시 창조력이 우수한 것은 아니다.

창조력은 배워질 수 없다. 어릴 때부터 자유로운 사고와 끊임없는 자기 이론의 개발로 창조력이 강한 사람이 길러질 뿐이다. 창조력은 시험성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창조력이 뛰어난 젊은이는 발굴되어야 하고 자극받아야 하고 그래서 길러져야 한다. 그들을 죽여서는 절대로 안된다.」

인간의 자주성과 창의성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발전하고 인류문화는 계속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다. 창조력이 배워서만 되는 것이 아닌 까닭이 바로 인간의 자주성 때문이다.

이처럼 자주적 청소년 문화운동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질수록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다. 이 운동을 밀어주고 받쳐주는 이들이 늘어날 때 우리의 문화는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마음껏 자기 문화를 키우고 스스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게 하는 일이 우리의 일인 것이다.

청출어람(靑出於藍)이라는 고사성어를 우리는 잘 안다. ‘푸르름은 이것을 쪽에서 취하였지만 쪽보다 더 푸르다’는 말로서 그 뜻은 스승보다 뛰어난 제자의 실력과 평판을 말한다고 한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비록 쪽이라는 일년초

에서 취한 푸르름이지만 우리보다 푸르를 것으로 믿어야 할 것이다.

본문요약

문화는 인간만이 지닌 특권이다. 인간은 누구나 ‘창조자’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모두가 창조적인 인간이 되지는 못한다. 그 까닭은 적응이라는 사회적 압력 때문이다. 현대교육이 창의성을 진작시키고는 있으나 그 결과는 부정적이다. 기성사회는 특히 청소년 문화에 대해 소극적이다.

그러나 청소년이야말로 고정관념이 없고 독창적이며 창조의 열정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비판적 사고, 추리력, 상상력, 지능발달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가장 큰 창조적 역량을 갖고 있다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을 문화창조자로서 그리고 주체적인 행위자로서 보아야 하고 그들이 자주적인 문화를 갖게 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자주적 문화운동을 위해서는 자발성이 있어야 하고 주체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민주문화의 주체로서 훈련이 있어야 하고 놀이가치를 극대화 시켜야 할 뿐 아니라 전통문화, 즉 우리문화를 개발해야 하는 현실적 과제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고 청소년 문화운동을 구체적으로 현장에 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문화의 영역이 연구·제시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자발성과 자주성에 대한 대책으로 청소년 생활문화와 사회교육적 차원에서의 문화교육을, 그리고 민주문화 주체 훈련에 대한 대안으로는 소집단 문화활동을, 또한 놀이가치의 극대화, 전통문화와 공동체의 강조를 위해서는 놀이와 축제, 전통문화와 우리문화를 그 프로그램 영역으로 정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는 각 영역에서 개발되어야 할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분야별로 제시 가능한 프로그램, 또는 시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열거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현장화와 보편화에 참고가 되게 하였다.

또한 청소년지도자들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지도하면서 갖게 되는 문제 그

중에서도 원칙과 관련되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를 자주적 청소년 문화운동을 위한 현실적 대책으로 제시하였다.

끝으로 청소년문화가 인류문화에서 갖는 위치와 가져야 할 위상, 그리고 청소년 문화에 대해 갖는 기대와 바람을 소개하였다.

연구과제

1. 우리 주위에서 찾을 수 있는 청소년의 창의력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본다.
2. 자주적인 청소년문화를 위한 현실적인 문제에서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 토론한다. 교재에 있는 다섯 가지 내용이 외에 어떤 과제들이 더 있을지 열거해 본다.
3. 자주적 청소년 문화운동을 위해 제시되어있는 프로그램의 영역에 대해서 공동관심별로 소그룹 단위로 토론한다. 그 영역 내에는 어떤 분야와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그리고 교재에 없는 내용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와 가능한 프로그램의 예를 찾아서 정리하도록 한다.
4. 청소년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갖게 되는 문제나 어려움들을 여러 모로 살펴본 후에 어떻게 하면 청소년문화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프로그램 진행 방법 등의 원칙에 대해서 연구한다.
5. 일반문화와 청소년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인류문화의 미래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

참고문헌

- 강명규(1992), “청소년문화의 자발성과 저항성”, 청소년비행과 대중매체에 대한 심포지움 자료집, 서울YMCA.
- 권이종(1992), “청소년문화의 육성과 한국의 미래”, 청소년문화 어떻게 가꿀 것인가?, 홍사단.

김인희(1983), 교육과 민중문화, 한길사.

김재은(1991), 천재 그 창조성의 비밀, 교보문고.

남세진(1992), “청소년 소집단활동 활성화의 길은?”, 제 22회 청소년 지도자
토론회 자료,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대한YMCA연맹(1985), 민주의식과 시민운동.

데스몬드 모리스, 정태진역(1978), 창조적인 삶을 위하여, 동문출판사.

W.I.B 비버리, 이철주역(1987), 발견과 창조, 삼성미술문화재단.

서울 YMCA(1992), 청소년클럽활동 지침서, 청소년운동 시리즈<1>.

오인택, 기독교교육을 통한 기독교문화형성, 예수그리스도와 문화, 대한 예장
총회 교육부.

이승정(1988), 한국YMCA청소년문화운동론, 서울 YMCA.

이춘재외, 청년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임광진(1992), “청소년문화현장—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문화가족 5호,
문화부.

장병림(1976), 청년심리학, 명문사.

전경수(1989), “전통문화와의 자주적 현대화 그 개념 대상 정책건의”, 전통문
화의 자주적 현대화 방안 토론회 자료집, 문공부.

최 현(1992), “청소년 생활세계와 청소년문화”, 전환기 한국사회와 청소년문
화, 청소년문화 심포지움 자료, 대한YMCA연맹.

최충옥(1991), “청소년학 정립을 위한 시론”, 1991년도 청소년학대회, 한국
청소년학회.

하두봉외(1991), 인간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한국문화예술진흥원(1986), 청소년문제 프로그램<12> 종합놀이.

한국문화예술진흥원(1988), 문화예술총서<9> 예술교육.

한준상(1992), “건전놀이와 새로운 전인교육의 전망”, 제1회 어린이와 청소
년의 생존보호 발달을 위한 전국대회 논문 및 토의 자료집, 유니세프
한국 대표부.